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The 2020 Survey of Children-Friendlines in Suwon City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혜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조현혜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20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0년 10월 25일

발행 2020년 10월 31일

ISBN 979-11-90343-59-6 (933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20.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아동권리 전담조직,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이 중 7번째에 해당되는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전후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친화도 조사를 통해 수원시 아동과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아동친화적 인식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은 아동의 권리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 필수자료이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각 300명, 학교 밖 아동 100명,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명, 초·중·고등학교 보호자 각 10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선정은 수원시 내 4개구(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총 34개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이는 수원시의 초·중·고등학교 198개 중 약 17.2%에 해당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수원시 내 10개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각각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해 컴퓨터를 활용한 웹조사로 수행하였다. 특히 대면조사로 진행된 2016년, 2018년과 달리 올해는 웹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영역별 2016년, 2018년, 2020년 비교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놀이와 여가’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 4개, ‘가끔 그렇다’ 3개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매우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긍정 인식이 가장 강한 문항은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74.2%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31.9%, 2018년 대비 24.9%로 증가폭도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와 시민의식’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가끔 그렇다’ 4개, ‘매우 그렇다’

1개, '전혀 아니다' 1개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47.5%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7.1%, 2018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안전과 보호'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 15개, '가끔 그렇다' 1개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73.3%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10.5%, 2018년 대비 7.8%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보건과 사회서비스'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 7개, '가끔 그렇다' 5개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82.8%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0.0%, 2018년 대비 0.9% 증가하였다.

'교육 환경'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로 25개 전 문항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로 이 문항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당연한 문항이기에 다음으로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92.3%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12.1%, 2018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

'주거 환경'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로 9개 전 문항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95.3%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9.8%, 2018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

2018년도부터 실시한 '수원시 특성'에 관한 문항에서 아동 관련 시설 인지 여부 및 이용경험 여부를 제외한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 9개, '가끔 그렇다' 4개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긍정 인식이 가장 강한 문항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낸다.'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71.8%로, 이전 조사와 비교에는 2018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새롭게 추가된 '인권일반과 차별경험'에 대한 문항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일반'에 대한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모두 '긍정'으로, 본인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긍정 인식이

가장 강한 문항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로 ‘긍정’ 응답률이 95.9%였다. ‘차별당한 경험’에 대한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모두 ‘한 번도 없다’로,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응답률이 97.1%로 가장 높았다. ‘차별한 경험’에 대한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모두 ‘한 번도 없다’로,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응답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종합된 결과를 통해 향후 아동친화도 조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에 대한 문제를 수원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아동친화도 조사는 결국 아동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적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제 수원시민들이 보다 간절히 원하는 방향으로 아동친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실제 수원시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원시 아동친화도시를 보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원시민들 중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주축이 되는 학습공동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보호자일 수밖에 없으며, 부모들이 교육받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동친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원시민들 스스로 아동친화와 관련된 교육과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이다. 전문가와 보호자 조사의 경우 아동친화 정책 중심의 조사도 향후 과제로 필요성이 있다. 이는 수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어디에 자원을 더 투입할 것인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아동친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에 대한 영향요인 조사를 향후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친화는 결국 가족의 삶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설문구성을 통해 아동친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이러한 다양한 운영방식 및 조사를 통해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아동친화도,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아동권리, 유니세프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제2장 아동친화 정책 현황	7
제1절 아동친화도시 현황	9
1. 세계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9
2. 우리나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10
제2절 수원시 아동 환경 및 정책 현황	14
1. 아동 및 아동 환경 현황 분석	14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조관서 현황	20
3. 아동 교육기관 및 시설 현황	20
4. 아동정책 현황	26
제3절 소결	31
제3장 수원시 아동친화도 분석	33
제1절 아동친화도 조사 설계	35
1. 조사 개요	35
2. 조사 대상	36
3. 조사 방법	36
제2절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지 구성	37
1. 설문지 구성 절차	37
2. 설문지 구성	37

제3절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 결과	39
1. 응답자 특성	39
2. 놀이와 여가	42
3. 참여와 시민의식	57
4. 안전과 보호	70
5. 보건과 사회서비스	102
6. 교육 환경	126
7. 주거 환경	177
8. 수원시 특성	196
9.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248
제4장 결론	307
제1절 종합 정책제언	309
제2절 영역별 정책제언	310
1. 놀이와 여가	310
2. 참여와 시민의식	312
3. 안전과 보호	314
4. 보건과 사회서비스	317
5. 교육 환경	320
6. 주거 환경	324
7. 수원시 특성	326
8.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329
제3절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332
참고문헌	337
부록	339

표 차례

〈표 2-1〉 세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국가 현황	10
〈표 2-2〉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현황	11
〈표 2-3〉 전국 대비 수원시 연령별 점유율	14
〈표 2-4〉 수원시 구별 연령별 점유율	15
〈표 2-5〉 전국 대비 수원시 연령별 인구수	16
〈표 2-6〉 수원시 구별 연령별 인구수	17
〈표 2-7〉 수원시 아동 관련 범죄 현황	18
〈표 2-8〉 수원시 아동 관련 사고 현황	18
〈표 2-9〉 연도별 경기도 및 수원시 학교 밖 아동 현황	19
〈표 2-10〉 연도별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	19
〈표 2-1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수원시 협조관서 현황	20
〈표 2-12〉 수원시 구별 어린이집 현황	20
〈표 2-13〉 수원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 현황	21
〈표 2-14〉 수원시 학교 밖 아동 시설 및 아동 현황	22
〈표 2-15〉 수원시 학교 외 아동보호 및 교육시설 및 운영 현황	23
〈표 2-16〉 수원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현황	24
〈표 2-17〉 수원시 공원 수 및 면적 현황	24
〈표 2-18〉 수원시 보건 및 의료시설 현황	25
〈표 2-19〉 수원시 아동 관련 행사 및 교육 현황	25
〈표 2-20〉 수원시 아동정책 담당부서 업무	27
〈표 2-21〉 수원시 아동 관련 조례	28
〈표 2-22〉 수원시 아동친화 영역 예산(216년~2020년)	30
〈표 2-23〉 수원시 아동친화 6대 영역별 예산(2016년~2020년)	30
〈표 3-1〉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를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체크리스트 ·	35
〈표 3-2〉 설문 구성 영역 및 문항 수	38
〈표 3-3〉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자 특성	40
〈표 3-4〉 ‘놀이와 여가’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42

〈표 3-5〉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43
〈표 3-6〉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가 있다.	45
〈표 3-7〉 우리 지역사회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	47
〈표 3-8〉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자연(예: 숲, 나무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49
〈표 3-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 ·	51
〈표 3-10〉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	53
〈표 3-11〉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	55
〈표 3-12〉 ‘참여와 시민의식’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57
〈표 3-1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58
〈표 3-1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60
〈표 3-15〉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62
〈표 3-16〉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	64
〈표 3-17〉 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각종 매체(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축제,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	66
〈표 3-1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68
〈표 3-19〉 ‘안전과 보호’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70
〈표 3-20〉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	71
〈표 3-2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은 조직폭력배/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	73
〈표 3-2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75
〈표 3-2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77
〈표 3-2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79
〈표 3-2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81

〈표 3-26〉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	83
〈표 3-2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	85
〈표 3-2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없고 서로 존중한다.	87
〈표 3-2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89
〈표 3-30〉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91
〈표 3-3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 요령을 알려준다.	93
〈표 3-3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	95
〈표 3-33〉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97
〈표 3-34〉 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 ·	99
〈표 3-35〉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위탁가정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	101
〈표 3-36〉 ‘보건과 사회서비스’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102
〈표 3-37〉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03
〈표 3-3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105
〈표 3-3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다. ·	107
〈표 3-40〉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109
〈표 3-41〉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	111
〈표 3-42〉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113
〈표 3-4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115
〈표 3-44〉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맞는다.	117
〈표 3-4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119
〈표 3-46〉 우리 지역사회에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	121
〈표 3-47〉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아동들을 돌봐 줄 기관 혹은 사람이 있다.	123
〈표 3-48〉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있다.	125
〈표 3-49〉 ‘교육 환경’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127
〈표 3-5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 ·	128
〈표 3-51〉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130
〈표 3-52〉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132
〈표 3-53〉 아동이 원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134
〈표 3-54〉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136
〈표 3-5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138
〈표 3-5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	140
〈표 3-57〉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142
〈표 3-58〉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144
〈표 3-59〉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	146
〈표 3-60〉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	148
〈표 3-61〉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에 관계없이 존중한다.	150
〈표 3-62〉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 ·	152
〈표 3-63〉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154
〈표 3-64〉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156
〈표 3-6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 없이 가르친다.	158
〈표 3-66〉 아동은 학교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 당할 위험 없이 서로 존중한다.	160
〈표 3-67〉 우리 지역사회 내 학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62
〈표 3-6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164
〈표 3-6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이 있다. ·	166
〈표 3-70〉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	168
〈표 3-7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170
〈표 3-72〉 우리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	172
〈표 3-7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174
〈표 3-74〉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176
〈표 3-75〉 ‘주거 환경’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177
〈표 3-76〉 우리 지역의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	178
〈표 3-77〉 우리 지역의 가정은 아동이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180
〈표 3-78〉 우리 지역의 가정은 아동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182
〈표 3-79〉 우리 지역사회 가정의 집안 공기는 깨끗하며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다. ·	184
〈표 3-80〉 우리 지역의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86
〈표 3-81〉 우리 지역의 집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	188
〈표 3-82〉 우리 지역의 집들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190
〈표 3-83〉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에는 아동의 공간(예: 놀이 공간, 공부방, 침실)이 충분히 있다.	192
〈표 3-84〉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194
〈표 3-85〉 ‘수원시 특성’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196
〈표 3-86〉 아동은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 마을 등)에서 자기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민간시설 제외).	198
〈표 3-87〉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200
〈표 3-88〉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에게 의견을 구한다 ·	202
〈표 3-89〉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04
〈표 3-90〉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206
〈표 3-91〉 수원시는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208
〈표 3-92〉 수원시는 동네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	210
〈표 3-93〉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212

〈표 3-94〉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려준다. ·	214
〈표 3-95〉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서행동문제, 유해 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	216
〈표 3-96〉 아동의 학교에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가 있다.	218
〈표 3-97〉 아동은 방과 후에 집에 주로 혼자 있다.	220
〈표 3-98〉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222
〈표 3-99〉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4
〈표 3-100〉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5
〈표 3-101〉 수원외국어마을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6
〈표 3-102〉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7
〈표 3-103〉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8
〈표 3-104〉 청소년수련관(광고, 권선)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9
〈표 3-105〉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천)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	230
〈표 3-106〉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1
〈표 3-107〉 청소년희망등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2
〈표 3-108〉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3
〈표 3-109〉 청소년공부방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4
〈표 3-110〉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5
〈표 3-111〉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6
〈표 3-112〉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7
〈표 3-113〉 평생학습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8
〈표 3-114〉 지역아동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9
〈표 3-115〉 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0
〈표 3-1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1
〈표 3-117〉 작은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2
〈표 3-118〉 드림스타트센터(영화, 세류, 우만)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3
〈표 3-119〉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 2호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4
〈표 3-120〉 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 동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5
〈표 3-121〉 장난감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6
〈표 3-122〉 아이러브맘카페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7

〈표 3-123〉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248
〈표 3-124〉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50
〈표 3-125〉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252
〈표 3-126〉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254
〈표 3-127〉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56
〈표 3-128〉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	258
〈표 3-129〉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수료 여부 및 수료 횟수	260
〈표 3-130〉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	263
〈표 3-131〉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265
〈표 3-132〉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67
〈표 3-133〉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69
〈표 3-13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71
〈표 3-13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73
〈표 3-13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275
〈표 3-137〉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277
〈표 3-138〉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79
〈표 3-13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81
〈표 3-140〉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83
〈표 3-141〉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	285
〈표 3-142〉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87
〈표 3-143〉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89
〈표 3-14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91
〈표 3-14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93
〈표 3-14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295
〈표 3-147〉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297
〈표 3-148〉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99
〈표 3-14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01
〈표 3-150〉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303

〈표 3-151〉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05
〈표 4-1〉 ‘놀이와 여가’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312
〈표 4-2〉 ‘참여와 시민의식’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	314
〈표 4-3〉 ‘안전과 보호’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316
〈표 4-4〉 ‘보건과 사회서비스’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	319
〈표 4-5〉 ‘교육 환경’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321
〈표 4-6〉 ‘주거 환경’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325
〈표 4-7〉 ‘수원시 특성’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327
〈표 4-8〉 ‘인권일반’ 2020년 조사 결과	329
〈표 4-9〉 ‘차별경험’ 2020년 조사 결과	331

그림 차례

〈그림 2-1〉 세계 아동친화도시 조성 현황	9
〈그림 2-2〉 수원시 아동정책 담당부서 조직도	26
〈그림 2-3〉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체계도	29
〈그림 3-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44
〈그림 3-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가 있다.	46
〈그림 3-3〉 우리 지역사회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	48
〈그림 3-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자연(예: 숲, 나무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	50
〈그림 3-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 ·	52
〈그림 3-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	54
〈그림 3-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	56
〈그림 3-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59
〈그림 3-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61
〈그림 3-10〉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63
〈그림 3-1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	65
〈그림 3-12〉 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각종 매체(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축제,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 ·	67
〈그림 3-13〉 우리 지역의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69
〈그림 3-14〉 우리 지역의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	72
〈그림 3-15〉 우리 지역의 아동은 조직폭력배/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	74

〈그림 3-16〉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76
〈그림 3-17〉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78
〈그림 3-1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80
〈그림 3-1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82
〈그림 3-20〉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	84
〈그림 3-21〉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	86
〈그림 3-2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없고 서로 존중한다.	88
〈그림 3-23〉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90
〈그림 3-2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92
〈그림 3-2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 요령을 알려준다.	94
〈그림 3-26〉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	96
〈그림 3-27〉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98
〈그림 3-28〉 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 ·	100
〈그림 3-29〉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위탁가정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	101
〈그림 3-3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04
〈그림 3-3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106
〈그림 3-32〉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다. ·	108
〈그림 3-33〉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110
〈그림 3-3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	112
〈그림 3-35〉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114
〈그림 3-3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116
〈그림 3-37〉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맞는다.	118

〈그림 3-3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120
〈그림 3-39〉 우리 지역사회에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	122
〈그림 3-40〉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아동들을 돌봐 줄 기관 혹은 사람이 있다.	124
〈그림 3-41〉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있다.	126
〈그림 3-42〉 우리 사회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 ·	129
〈그림 3-43〉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131
〈그림 3-44〉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133
〈그림 3-45〉 아동이 원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135
〈그림 3-46〉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137
〈그림 3-47〉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139
〈그림 3-48〉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	141
〈그림 3-49〉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143
〈그림 3-50〉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145
〈그림 3-51〉 우리 사회의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	147
〈그림 3-52〉 우리 사회의 학교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	149
〈그림 3-53〉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에 관계없이 존중한다.	151
〈그림 3-54〉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 ·	153
〈그림 3-55〉 우리 사회의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155
〈그림 3-56〉 우리 사회의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157
〈그림 3-57〉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차별 없이 가르친다.	159
〈그림 3-58〉 아동은 학교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 당할 위험 없이 서로 존중한다. ·	161
〈그림 3-59〉 우리 사회 내 학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63
〈그림 3-60〉 우리 사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165

〈그림 3-61〉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이 있다. ·	167
〈그림 3-62〉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	169
〈그림 3-6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171
〈그림 3-64〉 우리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	173
〈그림 3-6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175
〈그림 3-66〉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176
〈그림 3-67〉 우리 사회의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	179
〈그림 3-68〉 우리 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	181
〈그림 3-69〉 우리 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183
〈그림 3-70〉 우리 사회 가정의 집안 공기는 깨끗하며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다. ..	185
〈그림 3-71〉 우리 사회의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87
〈그림 3-72〉 우리 사회의 집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	189
〈그림 3-73〉 우리 사회의 집들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	191
〈그림 3-74〉 우리 사회 아동의 집에는 아동의 공간(예: 놀이 공간, 공부방, 침실)이 충분히 있다.	193
〈그림 3-75〉 우리 사회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195
〈그림 3-76〉 아동은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 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199
〈그림 3-77〉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201
〈그림 3-78〉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에게 의견을 구한다. ·	203
〈그림 3-79〉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05
〈그림 3-80〉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207
〈그림 3-81〉 수원시는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209
〈그림 3-82〉 수원시는 동네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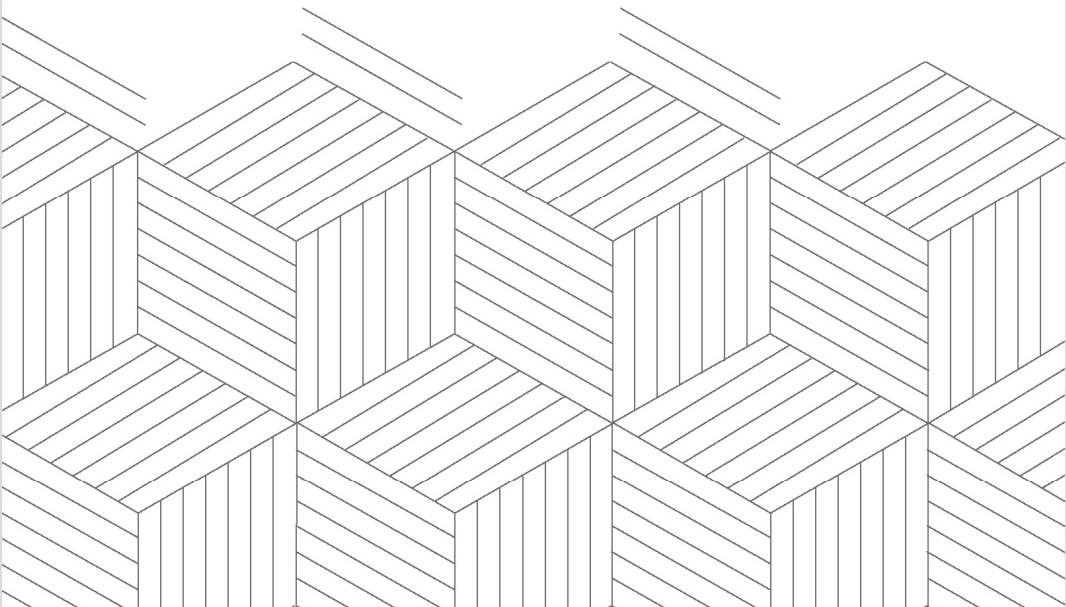
〈그림 3-83〉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213
〈그림 3-84〉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려준다. ·	215
〈그림 3-85〉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서행동문제, 유해 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	217
〈그림 3-86〉 아동의 학교에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가 있다.	219
〈그림 3-87〉 아동은 방과 후에 집에 주로 혼자 있다.	221
〈그림 3-88〉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	223
〈그림 3-89〉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4
〈그림 3-90〉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5
〈그림 3-91〉 수원외국어마을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6
〈그림 3-92〉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7
〈그림 3-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8
〈그림 3-94〉 청소년수련관(광고, 권선)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29
〈그림 3-95〉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천)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	230
〈그림 3-96〉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1
〈그림 3-97〉 청소년희망등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2
〈그림 3-98〉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3
〈그림 3-99〉 청소년공부방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4
〈그림 3-100〉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5
〈그림 3-101〉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6
〈그림 3-102〉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7
〈그림 3-103〉 평생학습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8
〈그림 3-104〉 지역아동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39
〈그림 3-105〉 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0
〈그림 3-10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1
〈그림 3-107〉 작은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2
〈그림 3-108〉 드림스타트센터(영화, 세류, 우만)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3
〈그림 3-109〉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 2호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	244
〈그림 3-110〉 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 동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5

〈그림 3-111〉 장난감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6
〈그림 3-112〉 아이러브맘카페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247
〈그림 3-113〉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51
〈그림 3-114〉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253
〈그림 3-115〉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255
〈그림 3-11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57
〈그림 3-11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259
〈그림 3-118〉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수료 여부 및 수료 횟수	261
〈그림 3-119〉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	264
〈그림 3-120〉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266
〈그림 3-12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68
〈그림 3-12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70
〈그림 3-12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72
〈그림 3-12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74
〈그림 3-12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276
〈그림 3-12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278
〈그림 3-12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80
〈그림 3-12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82
〈그림 3-129〉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84
〈그림 3-130〉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286
〈그림 3-13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88
〈그림 3-13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90
〈그림 3-13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92
〈그림 3-13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294
〈그림 3-13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296
〈그림 3-13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298

〈그림 3-13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00
〈그림 3-13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02
〈그림 3-139〉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	304
〈그림 3-140〉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30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아동은 도시에서 생활하며¹⁾, 세계 인구는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신체적 영역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유니세프에서는 전 세계 아동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각 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 사업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더욱이 한국사회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안녕(Well-being)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와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를 위한 사회적 투자는 국가의 공적 책임이자 미래사회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서영미, 2018).

수원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아동의 비율이 2019년에 18.2%로 전국의 아동 비율 16.8% 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원시는 2015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2016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권리 실현의 기반을 다져, 2017년 전국에서 1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아동친화도시의 확산과 아동권리와 인권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1)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2 이상이 도시 생활을 하고,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구는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도시화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변화이므로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II)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아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하였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특히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고, 아동의 차별적 특성인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이해하여 각 발달단계에 맞는 지원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주기적으로(매 2년) 아동친화도 조사²⁾를 통하여 아동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생활환경 파악 및 개선 등을 도모한다. 또한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아동의 참여권과 놀이권,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의 실내 놀이 공간 사업, 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힘쓰고 있다.

2. 연구 목적

수원시는 2017년 전국에서 1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2016년과 2018년 격년으로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자료이자 아동친화도시의 지표 설정을 위한 필수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영안, 2016). 따라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또한 사업의 연속성 및 아동친화도시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이전 조사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더불어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과 연계하여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보고를 위한 기준선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친화도 조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구성요소 중 7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선행조건이자,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실태보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단, 수원시의 경우에는 격년을 주기로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전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이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20년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이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아동친화도시 현황 검토와 환경 및 정책현황,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및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아동친화 정책 및 제도 제안과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등으로 한정된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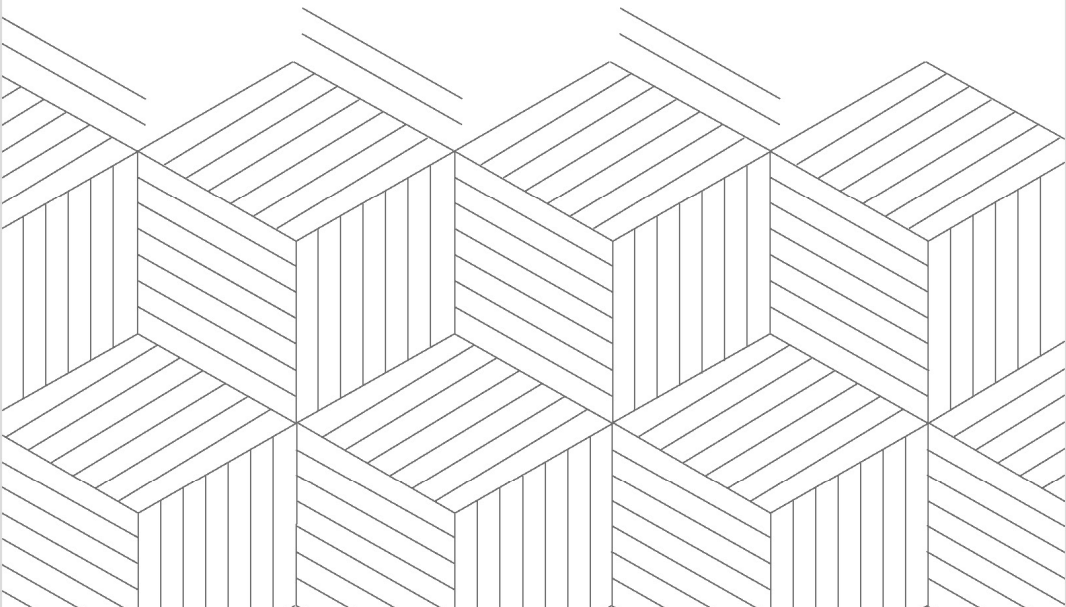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을 시행한다. 문헌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아동 환경 현황, 수원시 아동정책 현황 등 전반적인 아동친화도시 관련 제도와 정책분석을 통해 수원시의 아동 환경과 아동정책 및 관련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2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아동 관련 현황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실증분석이다.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아동,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분석을 위하여 기초통계분석 등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지표로 활용하고, 수원시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이다. 수원시 특성이 반영된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지 구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유니세프의 구조화된 설문지 ‘아동친화도시 6종 자가평가지’와 더불어 ‘수원시 특성’과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여 추가로 수행한다.

제2장 아동친화 정책 현황

제1절 아동친화도시 현황
제2절 수원시 아동 환경 및 정책 현황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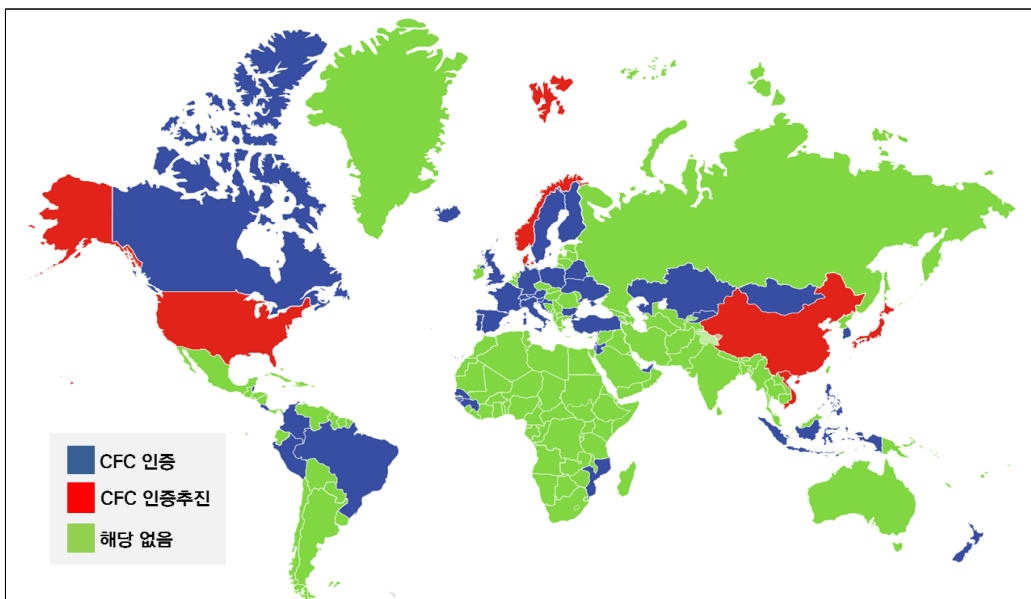
제2장 아동친화 정책 현황

제1절 아동친화도시 현황

1. 세계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전 세계에서 아동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유엔회의에서 최초로 발의되었고, 2000년 이탈리아에 위치한 유니세프 리서치 센터 내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설립하여 전 세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그림 2-1) 참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유럽을 시작으로 남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40여개 국가 3,4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다(표 2-1) 참조).

〈그림 2-1〉 세계 아동친화도시 조성 현황



자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 홈페이지(<https://childfriendlycities.org/Initiatives/>), 2020.07.16. 인출 및 연구진 보완

〈표 2-1〉 세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국가 현황

구분		국가
유럽 (20/1,021)	인증 (16/1,017)	안도라(7), 벨라루스(25), 불가리아(20), 크로아티아(121), 핀란드(16), 아이슬란드(2), 영국(6), 스페인(277), 포르투갈(29), 프랑스(240), 독일(11), 스웨덴(5), 스위스&리히텐슈타인(42), 오스트리아(200), 슬로베니아(15), 폴란드(1)
	인증추진 (4)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아메리카 (7/2,190)	인증 (6/2,189)	벨리즈(9), 브라질(1,912), 캐나다(49), 콜롬비아(2), 코스타리카(32), 페루(185)
	인증추진 (1)	미국
아시아 (9/173)	인증 (8/171)	카자흐스탄(25), 키르기즈스탄(47), 몽골(5), 한국(46), 인도네시아(-), 필리핀(42), 중국(1), 일본(5)
	인증추진 (1)	베트남
중동 (5/154)	인증 (3/152)	요르단(1), 터키(150), 이스라엘(1)
	인증추진 (2)	아랍에미리트, 이란
아프리카 (4/139)	인증 (4/139)	기니(40), 기니비사우(40), 모잠비크(7), 세네갈(52)
오세아니아 (1)	인증추진 (1)	뉴질랜드

자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 홈페이지(<https://childfriendlycities.org/Initiatives/>), 2020.10.07. 인출 및 연구진 보완

주1: 구분 내에 괄호는 (국가 수/인증 지자체 수)를 의미

주2: 국가 옆 괄호 안 숫자는 인증 지자체 수를 의미

2. 우리나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국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25곳, 경기 20곳, 인천 6곳, 광주 5곳, 부산 9곳, 대구 5곳, 대전 4곳, 울산 2곳, 세종 1곳, 강원 3곳, 충북 7곳, 충남 12곳, 전북 4곳, 전남 9곳, 경북 6곳, 경남 4곳, 제주 1곳으로 총 123곳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기반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현황으로는 2020년 10월 21일 현재 47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53개 도시가 인증추진 중이다. 이 중 서울시 성북구는 2017년에 국내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재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2020년 10월 기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9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한 도시는 대부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이거나 받은 곳이다. 한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2〉 참조).

〈표 2-2〉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현황

지 역	자치단체명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조례	인증	추진
서울	강남구	○	○	x	○
	강동구	○	○	○	x
	강북구	○	○	○	x
	강서구	○	○	○	x
	관악구	○	○	○	x
	광진구	○	○	○	x
	구로구	○	○	○	x
	금천구	○	○	○	x
	노원구	○	○	○	x
	도봉구	○	○	○	x
	동대문구	○	○	x	○
	동작구	x	○	x	○
	마포구	○	○	x	○
	서대문구	○	○	○	x
	서울특별시	○	○	x	○
	서초구	x	○	x	○
	성동구	○	○	○	x
	성북구	○	○	○	x
	송파구	○	○	○	x
	양천구	○	○	○	x
	영등포구	○	○	x	○
	용산구	○	○	x	○
	은평구	○	○	x	○
	종로구	○	○	○	x
	중구	○	○	x	○
경기	과천시	x	○	x	x
	광명시	○	○	○	x
	광주시	x	○	x	○
	구리시	x	○	x	x
	군포시	○	○	x	○
	남양주시	x	○	x	x
	부천시	○	○	○	x
	성남시	○	○	x	○
	수원시	○	○	○	x
	시흥시	○	○	○	x
	안산시	○	○	x	○
	안성시	x	○	x	x
	안양시	x	○	x	x
	오산시	○	○	○	x
	용인시	○	○	○	x
	의왕시	○	○	x	○
	이천시	○	○	x	○

지 역	자치단체명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조례	인증	추진
	평택시	○	○	x	○
	하남시	x	○	x	x
	화성시	○	○	○	x
인천	남동구	x	○	x	○
	동구	○	○	○	x
	미추홀구	x	○	x	x
	부평구	x	○	x	x
	서구	○	○	○	x
	인천광역시	○	○	x	○
	광산구	x	○	x	x
	광주광역시	○	○	○	x
광주	동구	○	○	○	x
	북구	○	○	x	○
	서구	○	○	○	x
	금정구	○	○	○	x
부산	부산광역시	○	○	○	x
	북구	○	○	x	○
	사하구	○	○	x	○
	서구	○	○	x	○
	연제구	x	○	x	x
	영도구	x	○	x	x
	진구	○	○	x	○
	해운대구	x	○	x	x
	남구	x	○	x	x
대구	달서구	○	○	x	○
	서구	x	○	x	x
	대구광역시	x	○	x	○
	중구	x	○	x	○
	대덕구	○	○	x	○
대전	서구	○	○	x	○
	대전광역시	x	○	x	x
	유성구	○	○	○	x
	북구	○	○	x	○
울산	울산광역시	x	x	x	○
	중구	x	○	x	x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	○	x
강원	원주시	○	○	x	○
	춘천시	○	○	x	○
	홍천군	○	x	x	○
	횡성군	○	○	○	x
충북	옥천군	○	○	○	x
	음성군	○	○	○	x
	제천시	○	○	○	x
	증평군	○	○	x	○

지 역	자치단체명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조례	인증	추진
	진천군	○	○	x	○
	청주시	○	○	x	○
	충주시	○	○	○	x
충남	계룡시	x	○	x	x
	공주시	x	○	x	x
	금산군	x	○	x	○
	논산시	○	○	○	x
	당진시	○	○	○	x
	보령시	○	○	x	○
	부여군	○	○	x	○
	서산시	x	○	x	x
	아산시	○	○	○	x
	예산군	○	○	x	○
	천안시	○	○	x	○
	청양군	x	○	x	x
	홍성군	○	x	x	○
전북	군산시	○	○	○	x
	완주군	○	○	○	x
	익산시	○	○	x	○
	전주시	○	○	○	x
전남	곡성군	x	○	x	x
	광양시	○	○	○	x
	나주시	○	○	x	○
	목포시	x	○	x	x
	순천시	○	○	○	x
	여수시	x	○	x	x
	영광군	x	○	x	x
	장흥군	○	○	○	x
	화순군	○	○	x	○
경북	경주시	x	○	x	○
	구미시	○	○	○	x
	김천시	○	○	x	○
	영주시	○	○	○	x
	칠곡군	○	○	x	○
	포항시	○	○	x	○
경남	김해시	○	○	x	○
	밀양시	x	○	x	x
	창원시	○	○	x	○
	통영시	x	○	x	x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x	○	x	○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http://childfriendlycities.kr/>), 2020.10.07.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20.10.21. 인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내부자료(2020.10.)

제2절 수원시 아동 환경 및 정책 현황

1. 아동 및 아동 환경 현황 분석

1) 아동 인구 점유율 변화 추세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인구 점유율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수원시 아동 인구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9년 18.2%로 2000년 대비 -12.9% 감소하였으나, 전국의 아동 인구 점유율인 16.8%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 과거와 비교하면 전국 대비 수원의 아동 인구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표 2-3〉 참조).

〈표 2-3〉 전국 대비 수원시 연령별 점유율

(단위 : %)

지역	연령그룹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00 대비 2019 증감
전국	아동	27.2	24.4	22.0	19.1	18.6	18.0	17.4	16.8	-10.4
	청년	19.5	17.1	15.2	14.4	14.4	14.5	14.4	14.4	-5.1
	장년	27.3	27.1	25.5	23.7	23.1	22.4	21.9	21.4	-5.9
	중년	19.1	22.7	26.5	29.9	30.7	31.3	31.8	32.3	13.2
	노인	6.9	8.7	10.7	12.9	13.3	13.8	14.4	15.0	8.1
경기도	아동	29.7	26.8	24.1	20.9	20.3	19.7	19.0	18.4	-11.3
	청년	17.8	16.1	14.9	14.5	14.6	14.7	14.7	14.7	-3.1
	장년	30.8	30.1	27.8	25.4	24.6	23.9	23.4	22.9	-7.9
	중년	16.1	20.1	24.7	28.9	29.9	30.7	31.3	31.9	15.8
	노인	5.6	6.9	8.5	10.3	10.6	11.0	11.6	12.1	6.5
수원시	아동	31.1	28.2	24.8	21.2	20.4	19.7	19.0	18.2	-12.9
	청년	19.0	17.5	16.7	16.6	16.7	16.9	16.9	17.0	-2.0
	장년	31.5	30.9	28.3	26.4	25.7	25.1	24.5	23.9	-7.6
	중년	14.2	18.1	23.4	27.7	28.6	29.4	30.1	30.8	16.6
	노인	4.2	5.3	6.8	8.2	8.5	9.0	9.5	10.0	5.8

자료: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2020.07. 조회)

주: 아동 만 0세~18세, 청년 만 19세~29세, 장년 만 30세~44세, 중년 만 45세~64세, 노인 만 65세 이상

수원시 행정구역별 아동 인구의 점유율을 보면, 장안구의 아동 인구 점유율은 2019년 17.2%로 2000년 대비 -13% 감소하였다. 권선구는 2019년 18%로 2000년 대비 -12.8% 감소, 팔달구는 2019년 13.8%로 2000년 대비 -18.4% 감소, 영통구는 2019년 21.5%로 2005년 대비 -10.5% 감소하였다. 팔달구에서 분리한 영통구의 영향으로 인하여 팔달구의

아동 인구 비율이 급격히 하락함과 동시에 신도시 환경의 영통구 아동 인구 비율은 타지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2-4〉 참조).

〈표 2-4〉 수원시 구별 연령별 점유율

(단위 : %)

지역	연령그룹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00 대비 2019 증감
장안구	아동	30.2	28.2	24.9	20.8	20.0	19.1	18.2	17.2	-13.0
	청년	18.7	16.2	16.2	16.6	16.9	17.1	17.3	17.5	-1.2
	장년	31.0	30.9	27.3	24.2	22.0	21.1	21.3	20.3	-10.7
	중년	15.4	18.7	23.9	28.9	30.0	31.0	32.0	33.0	17.6
	노인	4.7	6.0	7.7	9.4	9.9	10.5	11.2	11.9	7.2
권선구	아동	30.8	28.6	24.3	20.4	19.8	19.2	18.6	18.0	-12.8
	청년	18.8	17.1	17.1	16.5	16.4	16.4	16.3	16.2	-2.6
	장년	31.1	30.6	27.8	26.6	24.6	24.2	25.3	24.8	-6.3
	중년	15.0	18.5	24.1	28.4	29.2	29.8	30.4	31.1	16.1
	노인	4.3	5.2	6.7	8.1	8.4	8.9	9.4	10.0	5.7
팔달구	아동	32.2	23.5	20.6	17.1	16.4	15.6	14.7	13.8	-18.4
	청년	19.5	20.5	17.6	16.3	16.5	16.6	16.9	17.2	-2.3
	장년	32.5	28.0	26.9	25.0	22.7	22.0	22.8	22.0	-10.5
	중년	12.2	21.5	26.2	30.3	31.2	31.9	32.5	33.0	20.8
	노인	3.6	6.3	8.6	11.3	11.8	12.4	13.2	13.9	10.3
영통구	아동	행정구역 분리 이전	32.0	28.7	24.7	23.9	23.1	22.3	21.5	-10.5
	청년		16.6	16.0	16.8	17.0	17.2	17.4	17.5	0.9
	장년		33.8	31.3	29.1	26.8	26.1	27.2	26.7	-7.1
	중년		14.0	19.6	24.2	25.3	26.1	27.0	27.8	13.8
	노인		3.6	4.4	5.3	5.5	5.8	6.2	6.6	3.0

자료: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2020.07. 조희)

주: 아동 만 0세~18세, 청년 만 19세~29세, 장년 만 30세~44세, 중년 만 45세~64세, 노인 만 65세 이상

2) 아동 인구수 변화 추세

통계청 연앙인구 집계³⁾에 따르면 수원시의 0세~만18세 아동 인구수는 2019년 216,870명으로 2000년 288,777명 대비 -71,968명 감소하였다(〈표 2-5〉 참조).

동일 기간 전국 아동 인구수는 2019년 8,639,564명으로 2000년 12,950,610명 대비 -4,311,046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아동 인구수는 2019년 2,399,046명으로

3) 통계청의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1세 단위로 연간 인구의 산술평균 인구수로서, 연중 월단위로 집계되는 주민등록(5세 단위) 인구 대비 세부 연령별 집계가 가능하며, 전국 단위 인구수와 현황 비교가 가능하다.

2000년 2,698,587명 대비 -299,541명이 감소하였다.

〈표 2-5〉 전국 대비 수원시 연령별 인구수

(단위 : 명)

지역	연령 그룹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00 대비 2019 증감
전국	계	47,534,117	48,683,040	49,879,812	50,951,719	51,112,972	51,230,704	51,300,880	51,337,424	3,803,307
	아동	12,950,610	11,862,253	10,979,932	9,739,769	9,491,340	9,225,025	8,945,216	8,639,564	-4,311,046
	청년	9,255,815	8,334,286	7,596,099	7,334,280	7,372,183	7,404,535	7,411,869	7,411,698	-1,844,117
	장년	12,958,688	13,197,709	12,728,333	12,088,302	11,792,915	11,493,339	11,218,418	10,968,617	-1,990,071
	중년	9,100,946	11,064,058	13,227,267	15,236,840	15,675,376	16,041,604	16,335,904	16,598,929	7,497,983
	노인	3,268,058	4,224,735	5,348,182	6,552,528	6,781,159	7,066,201	7,389,474	7,718,616	4,450,558
경기도	계	9,076,837	10,580,068	11,568,537	12,337,489	12,509,484	12,681,348	12,861,428	13,043,732	3,966,895
	아동	2,698,587	2,831,384	2,789,239	2,578,355	2,537,034	2,493,010	2,449,614	2,399,046	-299,541
	청년	1,615,143	1,705,386	1,719,874	1,790,567	1,826,858	1,862,008	1,888,561	1,915,673	300,530
	장년	2,793,761	3,187,273	3,211,860	3,129,885	3,079,633	3,032,977	3,003,878	2,986,316	192,555
	중년	1,463,177	2,123,294	2,860,513	3,568,707	3,737,942	3,892,205	4,030,583	4,163,511	2,700,334
	노인	506,170	732,732	987,052	1,269,976	1,328,018	1,401,149	1,488,793	1,579,187	1,073,017
수원시	계	929,055	1,039,708	1,070,478	1,171,081	1,180,618	1,189,510	1,193,038	1,188,865	259,810
	아동	288,777	293,333	265,351	247,845	241,242	234,323	226,523	216,870	-71,907
	청년	176,614	181,732	178,473	194,165	197,461	200,489	202,181	202,468	25,854
	장년	292,991	321,070	303,421	309,222	303,608	298,557	292,397	284,250	-8,742
	중년	131,790	188,685	250,414	323,882	337,697	349,667	358,919	366,360	234,570
	노인	38,863	54,889	72,819	95,968	100,610	106,475	113,019	118,918	80,055

자료: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2020.07. 조회)

주: 아동 만 0세~18세, 청년 만 19세~29세, 장년 만 30세~44세, 중년 만 45세~64세, 노인 만 65세 이상

수원시 행정구역별 아동 인구수 변화를 보면, 장안구는 2019년 48,308명으로 2000년 91,527명 대비 -43,219명 감소하였으며, 동일기간 동안 권선구는 2019년 66,875명으로 2000년 97,088명 대비 -30,213명 감소하였다. 팔달구는 2019년 24,265명으로 2000년 100,162명 대비 -75,897명 감소하였으며, 영통구는 2019년 77,422명으로 2005년 77,984명 대비 -56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팔달구의 경우 영통구와 분리되면서 인구 규모가 축소되어 아동 인구 급감과 동시에, 구도심 지역으로서 지역 개발에 한계가 있어 이후에도 청장년층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 인구수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영통구의 경우 신축 아파트의 공급에 따라 전 연령에 걸쳐 절대적인 인구수의 감소가 가장 낮고, 아동 인구도 가장 많아 수원시 전체 아동 인구 중 35.7%에 해당하는 77,422

명이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2015년 이후 아동 인구수가 감소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타지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2-6〉 수원시 구별 연령별 인구수

(단위 : 명)

지역	연령 그룹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00 대비 2019 증감
장안구	계	302,995	283,973	290,910	297,930	295,512	292,924	287,909	280,201	-22,795
	아동	91,527	80,147	72,487	62,098	59,017	55,871	52,329	48,308	-43,219
	청년	56,637	46,036	47,058	49,484	49,932	50,209	49,836	48,995	-7,643
	장년	93,789	87,728	79,389	72,053	65,014	61,850	61,390	56,999	-36,791
	중년	46,779	53,153	69,462	86,149	88,766	90,909	92,151	92,441	45,662
	노인	14,259	16,910	22,515	28,146	29,260	30,688	32,203	33,459	19,200
권선구	계	314,765	292,063	304,058	343,170	352,354	359,659	369,310	372,313	57,548
	아동	97,088	83,487	73,864	69,975	69,732	69,045	68,775	66,875	-30,213
	청년	59,178	50,080	51,942	56,619	57,952	58,848	60,046	60,200	1,022
	장년	97,936	89,300	84,588	91,202	86,785	87,178	93,591	92,225	-5,711
	중년	47,072	54,014	73,390	97,457	102,754	107,291	112,138	115,743	68,671
	노인	13,481	15,183	20,275	27,918	29,754	31,948	34,761	37,271	23,790
팔달구	계	311,296	219,609	216,567	198,461	195,962	193,076	184,309	175,566	-135,730
	아동	100,162	51,716	44,630	33,950	32,066	30,029	27,156	24,265	-75,897
	청년	60,800	45,128	38,141	32,359	32,244	32,136	31,080	30,266	-30,535
	장년	101,267	61,506	58,273	49,604	44,572	42,524	41,970	38,623	-62,645
	중년	37,940	47,321	56,832	60,085	61,108	61,594	59,854	57,975	20,035
	노인	11,124	13,939	18,691	22,463	23,078	23,899	24,251	24,438	13,314
영통구	계		244,064	258,943	331,522	336,791	343,851	351,511	360,785	116,721
	아동		77,984	74,370	81,822	80,428	79,379	78,263	77,422	-563
	청년	행정구역	40,488	41,332	55,703	57,334	59,297	61,220	63,008	22,520
	장년	분리 이전	82,537	81,172	96,363	90,101	89,901	95,447	96,404	13,867
	중년		34,198	50,730	80,192	85,070	89,874	94,777	100,202	66,004
	노인		8,857	11,339	17,442	18,519	19,940	21,805	23,750	14,893

자료: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2020.07. 조회)

주: 아동 만 0세~18세, 청년 만 19세~29세, 장년 만 30세~44세, 중년 만 45세~64세, 노인 만 65세 이상

3) 아동 관련 범죄 및 사고 현황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 관련 범죄 현황은 다음 〈표 2-7〉과 같다. 아동 관련 전체 범죄 건수는 1,401건이었으며, 그 중 아동학대 범죄는 433건으로 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살펴보면 수원남부(팔달구 일부, 영통구 일부)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원중부(장안구,

팔달구 일부, 영통구 일부)가 183건, 수원서부(권선구, 팔달구 일부) 39건 발생되었다.

학교폭력은 2019년 한 해 동안 375건 발생되었고, 수원남부에서 190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수원중부는 93건, 수원서부는 92건 발생되었다.

성폭력은 150건 발생되었으며 수원남부 80건, 수원중부 54건, 수원서부 16건 순으로 발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는 443건 발생되었으며 수원중부에서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원남부 145건, 수원서부 117건으로 나타났다.

〈표 2-7〉 수원시 아동 관련 범죄 현황

(단위 : 건)

구분	수원남부	수원서부	수원중부	합계
계	626	264	511	1,401
아동학대	211	39	183	433
학교폭력	190	92	93	375
성폭력	80	16	54	150
교통사고	145	117	181	443

자료: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자료(2019년 1월~12월 기준)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 관련 사고현황과 관련해서는 다음 〈표 2-8〉과 같다. 전체 사고빈도는 1,523건이었고, 피해아동은 1,058명이었다. 사고별로는 기타아동 안전사고가 전체의 43.3%(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도 33.9%(517건)로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자살 20.7%(316명), 화재사고 1.8%(28건), 익사사고 0.2%(3건)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소방서 관할 지역(장안구, 영통구)의 경우 아동의 추락사고(50.3%)와 기타 안전사고(48.3%)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수원남부소방서 관할 지역(팔달구, 권선구)의 경우에는 기타 안전사고(39%) 및 자살사고(38%)의 비율이 높았다.

〈표 2-8〉 수원시 아동 관련 사고 현황

(단위 : 건, %, 명)

구분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계	
	사고빈도(건/%)	피해아동(명)	사고빈도(건/%)	피해아동(명)	사고빈도(건/%)	피해아동(명)
계	702(100)	702	821(100)	356	1,523(100)	1,058
익사	3(0.4)	3	-	-	3(0.2)	3
추락	353(50.3)	353	164(20)	21	517(33.9)	374
화재	3(0.4)	3	25(3)	3	28(1.8)	6
자살	4(0.6)	4	312(38)	12	316(20.7)	16
기타 아동 안전사고	339(48.3)	339	320(39)	320	659(43.3)	659

자료: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자료(2019년 1월~12월 기준)

4) 학교 밖 아동⁴⁾ 현황

연도별 경기도와 수원시의 학교 밖 아동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학교 밖 아동은 2018년 15,576명, 2019년 16,8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2018년 1,426명, 2019년 1,600명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밖 아동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 된다(〈표 2-9〉 참조).

〈표 2-9〉 연도별 경기도 및 수원시 학교 밖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학교 밖 아동 수	구분	연도	학교 밖 아동 수
경기도	2018	15,576	수원시	2018	1,426
	2019	16,806		2019	1,60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학업중단자는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로 나눌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유예와 면제 현황으로만 집계되었는데, 초등학생의 유예 현황은 2018년 152명에서 2019년 187명으로, 면제 현황은 2018년 343명에서 2019년 441명으로 증가추세이나, 중학생은 면제 현황이 2018년 112명에서 2019년 10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참조).

고등학생은 일반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고, 2018년보다 2019년에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자퇴로 인한 학업중단자가 대다수이며 면제를 통한 학업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연도별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⁵⁾	면제 ⁶⁾
초등학생	2018	495	-	-	-	152	343
	2019	628	-	-	-	187	441
중학생	2018	281	-	-	-	169	112
	2019	290	-	-	-	183	107
고등학생	일반고등학교	2018	522	516	5	1	-
		2019	524	515	8	-	1
	특목고등학교	2018	14	10	4	-	-
		2019	11	11	-	-	-
	특성화고등학교	2018	108	107	-	-	1
		2019	136	134	2	-	-
	자율고등학교	2018	11	10	1	-	-
		2019	11	11	-	-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4) 학교 밖 아동의 범위: 만 19세 미만 학령기 아동 중 미취학, 미진학, 학업중단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5) 유예: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해당학년 취학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 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

6) 면제: 질병이나 부모 1인 이상 동행하는 유학, 부모의 해외파견취업 등으로 인한 해외출국 등으로 교육의무를 면하는 것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조관서 현황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조관서로는 수원시의회, 수원시교육청,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서, 소방서가 있다.

경찰서는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방법초소를 포함하여 37개소의 경찰시설이 있으며, 소방서는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를 포함하여 16개소의 소방시설이 있다(〈표 2-11〉 참조).

〈표 2-1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수원시 협조관서 현황

(단위 : 명)

구분	협조부서명
지방의회	수원시의회
교육(지원)청	수원시교육청
지방법원 지원	수원지방법원
검찰(지)청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서(청)	37개 경찰시설(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방법초소)
소방서	16개 소방시설(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자료: 네이버 검색(2020.03. 기준)

3. 아동 교육기관 및 시설 현황

1) 정규 교육기관 시설 현황

아동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총 1,01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수원시가 관리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은 94개소(9.3%), 민간어린이집은 922개소(90.7%)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가 월등히 많은데 특히 가정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 597개로 가장 많다(〈표 2-12〉 참조).

〈표 2-12〉 수원시 구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계	민간개인	가정	부모협동
수원시	1,016	94	57	4	7	26	922	321	597	4
장안구	193	13	6	2	1	4	180	79	100	1
권선구	351	34	28	0	3	3	317	111	203	3
팔달구	122	17	8	2	1	6	105	47	58	0
영통구	350	30	15	0	2	13	320	84	236	0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2020.03.31. 기준)

수원시의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법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율은 각각 98%와 89.3%로 조사되었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48.4%, 국공립 고등학교는 70.5%의 점유율을 보임으로써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 부문에 있어서 사립 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급당, 학교당 학생 수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하고 있어 아동 인구의 감소를 교육기관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표 2-13〉 참조).

〈표 2-13〉 수원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계	국공립	사립				
유치원	192	93(48.4%)	99(51.6%)	1,022	18,401	18.0	95.8
(장안구)	47	20	27	260	4,500	17.3	95.7
(권선구)	64	33	31	317	6,132	19.3	95.8
(팔달구)	24	13	11	89	1,406	15.8	58.6
(영통구)	57	27	30	356	6,363	17.9	111.6
초등학교	99	97(98%)	2(2%)	2,729	69,110	25.3	698.1
(장안구)	22	22	-	580	14,780	25.5	671.8
(권선구)	33	33	-	870	21,501	24.7	651.5
(팔달구)	15	15	-	312	7,370	23.6	491.3
(영통구)	29	27	2	967	25,459	26.3	877.9
중학교	56	50(89.3%)	6(10.7%)	1,102	32,556	29.5	581.4
(장안구)	13	13	-	247	7,289	29.5	560.7
(권선구)	14	13	1	269	7,780	28.9	555.7
(팔달구)	9	5	4	173	5,134	29.7	570.4
(영통구)	20	19	1	413	12,353	29.9	617.7
고등학교	44	31(70.5%)	13(29.5%)	1,490	37,787	25.4	858.8
(장안구)	12	9	3	383	9,455	24.7	787.9
(권선구)	9	7	2	274	6,792	24.8	754.7
(팔달구)	11	3	8	414	10,770	26.0	979.1
(영통구)	12	12	-	419	10,770	25.7	897.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2019.10.01. 기준)

그밖에도 학교 밖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 시설로는 학교 밖 아동 지원센터, 단기쉼터,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다(〈표 2-14〉 참조).

학교 밖 아동 지원센터로는 경기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수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있으며 총 16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단기쉼터는 교육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밖 아동 대상의 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남자쉼터와 여자쉼

터 각각 1곳으로, 이용 아동은 105명이다. 마지막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116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표 2-14〉 수원시 학교 밖 아동 시설 및 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기관 수	아동 수
학교 밖 아동 지원센터	2	161
단기쉼터	2	105
미인가 대안학교	3	116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2020년 8월 기준)

2) 비정규 아동보호 및 교육시설 현황

수원시 내 정규 교육기관인 학교 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아동보호 및 교육시설은 이용 형태에 따라 크게 복지생활시설과 복지이용시설로 나뉜다(〈표 2-15〉 참조).

복지생활시설은 아동이 수용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주로 초·중학생 이하의 아동을 집단적으로 양육하는 시설로서 수원시에는 현재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에 따라 소년원 퇴원생 대상 시설과 여성 청소년 대상 시설 또는 6세~16세 연령 제한 시설 등 시설의 성격에 따라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여 11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개소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비공개 운영되고 있다.

복지이용시설은 아동이 통원하며 선택적 또는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으로 상담시설, 문화시설, 돌봄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아동 대상 대부분의 상담시설과 문화시설은 수원시 출자기관인 수원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인데 청소년상담실,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집, 청소년희망등대 등이 있다.

돌봄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 또는 차상위 계층 자녀의 방과 후 보호를 목적으로 6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 중상층 이상 일반 가정의 자녀라도 소정의 급식비와 교재비를 부과하고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30개소가 구 전반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9년 8월 29일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0년 3월 20일에 2호점, 6월 30일에 3호점을 개설하여 부모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중학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 청소년 종합지원 시설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취약계층아동 통합지원을 위해 수원시드림스타트센터, 건강관리를 위해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2-15〉 수원시 학교 외 아동보호 및 교육시설 및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형태	시설종류	대상	개소	비고
복지생활 시설	아동양육시설	초, 중, 고	5	장안구3개소, 팔달구1개소, 영통구1개소
	공동생활가정	초, 중, 고	13	장안구3개소, 권선구4개소, 팔달구4개소, 비공개(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종사자40명, 수용인원77명, 현 아동인원58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초, 중, 고	1	종사자4명, 수용인원6명
	쉼터	초, 중, 고	2	남자쉼터1개소, 여자쉼터1개소
복지이용 시설	상담센터	초, 중, 고	11	(팔달, 장안, 영통, 권선, 광교, 칠보)청소년상담실, 자유공간 1호~5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초, 중, 고	1	종사자3명, 월 이용인원2명
	가정폭력상담소	초, 중, 고	1	종사자7명, 월 이용인원121명
	통합상담소	초, 중, 고	1	종사자7명, 월 이용인원35명
	지역아동센터	초등	63	장안구16개소, 권선구28개소, 팔달구13개소, 영통구6개소 종사자146명, 수용인원1,995명, 월이용인원1,753명
	문화센터 및 문화의집	초, 중, 고	5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장안, 영통, 칠보, 천천)문화의집
	수련관	초, 중, 고	2	(광교, 권선)청소년수련관
	진로상담기관	초, 중, 고	1	청소년희망등대
	가족여성회관(여성복지관)	초, 중, 고	1	종사자13명, 수용인원254명, 월 이용인원1,495명
	여성인력개발센터	초, 중, 고	1	종사자23명, 수용인원100명, 월 이용인원1,580명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시설	초, 중, 고	1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공부방	초, 중, 고	10	장안구7개소, 권선구1개소, 팔달구1개소, 영통구1개소
	취약계층아동 통합지원	초등	3	수원시드림스타트(연화, 세류, 우만)센터
	평생학습관	초, 중, 고	1	-
	초등돌봄교실	초등	230	장안구47개소, 권선구85개소, 팔달구36개소, 영통구6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3	1호점(권선), 2호점(영통), 3호점(영통)
	외국어마을	초, 중, 고	1	-
	성교육시설	초, 중, 고	1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초, 중, 고	1	종사자수1명, 월 이용인원12명
	건강관리시설	초, 중, 고	2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자료: 아동양육시설(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2019.12.31.기준), 공동생활가정(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https://data.gg.go.kr>, 2019.06.30.기준/수원시 내부자료, 2020.08.기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수원시 내부자료, 2020.08.기준), 쉼터, 상담센터, 문화센터 및 문화의집, 수련관, 진로상담기관,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시설(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www.syf.or.kr>, 2020.03.23. 기준), 지역아동센터시설(수원통계 홈페이지, <https://stat.suwon.go.kr>, 2019.12.31. 기준/수원시 내부자료, 2020.06. 기준), 공부방(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2019.04.16. 기준), 초등돌봄교실(수원시 내부자료, 2020.03.01. 기준), 취약계층아동 통합지원, 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 성교육시설, 건강관리시설(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 2020.03.23. 기준), 가족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통합상담소(수원시 내부자료, 2020.08. 기준)

3) 기타 아동 관련 시설 현황

기타 아동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로서 놀이터와 도서관,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있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1,403개의 놀이터가 있고, 도서관은 총 22개소로 장안구 5개소, 권선구 6개소, 팔달구 4개소, 영통구 7개소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문화시설로는 미술관 4개소, 박물관 8개소, 공연장 24개소, 영화관 9개소가 있으며, 체육시설은 897개소이다(〈표 2-16〉 참조).

〈표 2-16〉 수원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놀이터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좌석(개)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개소	1,403	22	10,728	16	8	9	4	8	897
면적	-	100,494㎡	-	-	-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9,661㎡ 수원미술전시관 1,409㎡ 어린이생태체험미술관 203㎡ 아트스페이스광교 1,779㎡	수원박물관 7,118㎡, 화성박물관 5,635㎡, 광교박물관 4,086㎡ 등	769,202.4㎡

자료: 놀이터(수원시 내부자료)도서관(수원통계 홈페이지, <https://stat.suwon.go.kr>, 2020.06.30. 기준),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다음 지도, <https://search.daum.net>, 2020.07.16. 기준),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수원관광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2020.06.30. 기준), 체육시설(수원시 체육시설 현황, <https://www.suwon.go.kr>, 2020.06.30. 기준)

수원시 관내 공원 수는 총 332개소이며 어린이공원이 204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면적은 총면적 7,488천㎡ 중 근린공원이 6,291천㎡로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17〉 참조).

〈표 2-17〉 수원시 공원 수 및 면적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개소	33	204	72	1	8	12	2
면적	43,178.20	510,321.10	6,291,792.30	131,972.00	72,528.80	376,493.40	22,565.20

자료: 수원시 공원 현황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env/env_05/env_05_01/env_05_01_01.jsp, 2020.07.16. 기준)

수원시의 보건 및 의료시설은 다음 <표 2-18>과 같다. 수원시의 보건(지)소는 4개소이고, 의원은 1,532개소로 병상은 1,304개를 확보하고 있다. 병원은 65개소이고 병상은 8,692개이다. 종합병원은 4개소이고 병상은 1,717개이다. 상급종합병원은 1개소이고 병상은 1,172개를 확보하고 있다.

<표 2-18> 수원시 보건 및 의료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개)

구분	시설 수	병상 수
보건(지)소	4	-
의원	1,532	1,304
병원	65	8,692
종합병원	4	1,717
상급종합병원	1	1,172

자료: 수원통계 홈페이지(<https://stat.suwon.go.kr>, 2020.06.30. 기준)

수원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동 관련 행사와 교육은 다음 <표 2-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별로 생태자연, 문화예술, 전통 역사, 스포츠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생태자연 관련 행사 및 교육은 119회 개최되었으며, 5,80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행사 및 교육은 연간 136회, 40,958명이 이용하였고, 전통 역사 관련 행사 및 교육은 연간 272회, 6,014명이 이용하였다. 스포츠 관련 행사 및 교육은 연간 86회 개최되었으며, 17,608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9> 수원시 아동 관련 행사 및 교육 현황

(단위 : 회, 명)

행사 및 교육 주제	연간 개최 수	연간 이용인원
생태자연	119	5,807
문화예술	136	40,958
전통 역사	272	6,014
스포츠	86	17,608
기타 아동 관련 행사 및 교육	6,136	119,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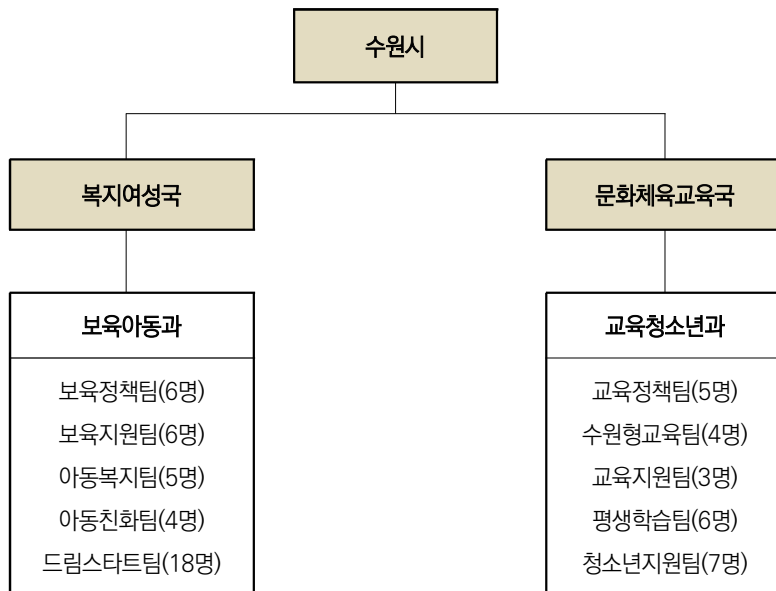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2019년 1월~12월 기준)

4. 아동정책 현황

1) 아동정책 담당부서

수원시 아동정책 담당부서는 보육아동과와 교육청소년과이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은 보육아동과의 아동친화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수원시 아동정책 담당부서 조직도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2020.10.07. 기준

수원시 보육아동과는 보육아동 복지업무를 총괄한다. 보육정책팀은 보육시설 및 종합지원 센터 운영, 보육지원팀은 보육지원 시책추진 및 어린이집 관리, 아동복지팀은 지역아동센터 관리, 아동친화팀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드림스타트팀은 온종일돌봄사업 및 드림스타트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표 2-20〉 참조).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정책과 청소년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정책팀은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수원형교육팀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팀은 학교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 지원 및 관리, 청소년지원팀은 청소년 기본계획 및 관련시설 운영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표 2-20〉 수원시 아동정책 담당부서 업무

부서		담당업무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장난감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육관련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유지관리 등
	보육지원팀	• 국도비사업 집행 및 재배정, 영유아보육료 예약금 관리,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국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수원형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법인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관리, 평가제 지원관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아동복지팀	•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관리, 지역아동센터 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수원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관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관리지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보호 및 지원 등
	아동친화팀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옴부즈퍼슨 및 아동권리 참여기구 운영, 아동모니터단 운영, 아동권리증진 교육 및 행사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아동친화예산서, 아동영향평가 및 친화도 조사 실시 등
	드림스타트팀	• 온종일돌봄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 인지언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아동복지관협의체/수퍼비전 운영 등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교육청협력사업, 학교설립 및 수용, 진로체험 지원, 희망등대 운영관리,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수원형교육팀	•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글로벌다문화 특성화학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아토피 특성화학교, 미래인재 육성(영재, 논술 등) 지원 등
	교육지원팀	• 학교교육경비 지원계획 수립, 학교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학교안전체험관 조성, 학교도서관 정비, 사랑해요 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평생학습팀	• 수원시평생학습축제 추진,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추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원시민 인문요양 아카데미 운영, 수원평생교육대학,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등
	청소년지원팀	•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청소년계획 수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2020.10.07. 기준

2) 아동 관련 조례

수원시 아동 관련 조례는 1997년 ‘수원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 2018년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총 18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표 2-21〉 참조).

유네스코 아동 권리 협약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따라 각 조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생존권과 관련해서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보호권은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포함 8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발달권은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포함한 6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참여권에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2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해당 구분을 통해 살펴보면 수원시는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순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와 발달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졌으나, 참여와 생존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부터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이러한 각 권리별 조례가 수원시의 아동친화 정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21〉 수원시 아동 관련 조례

번호	4조례명	제정일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1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08.	생존권
2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6.06.14.	
3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1997.05.26.	보호권
4	수원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1997.05.26.	
5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9.07.19.	
6	수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2009.08.07.	
7	수원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2015.02.12.	
8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03.	
9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13.	
10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02.	
11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2009.08.07.	발달권
12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	2009.08.07.	
13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2010.12.27.	
14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	2011.09.27.	
15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10.08.	
16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02.16.	
17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3.11.12.	참여권
18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7.07.17.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2020.10.07. 기준

3) 수원시 아동친화 사업 현황

수원시는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에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을 수립하여 아동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 사업은 “아동의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비전 하에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환경, 가정 환경의 6가지 핵심가치로 구분된다(〈그림 2-3〉 참조).

수원시는 2016년부터 매년 6대 영역별로 사업을 분류하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과 사업을 분석하는 아동친화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아동 관련 직·간접적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이 가능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핵심영역별로 아동 관련 사업 분석을 통해 부진한 영역을 파악하여 장기 추진 계획 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3〉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체계도



자료: 이영안, 201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연구」

아동친화 사업의 세부 현황은 영역별 연간 사업 건수와 소요 예산의 규모로 가늠할 수 있

다. 2020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아동친화 영역 예산 총액은 5,650억원 규모로서 이는 수원시 연간 예산 대비 23.7%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 간 아동친화 영역에 편성된 예산의 구성비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표 2-22〉 참조).

〈표 2-22〉 수원시 아동친화 영역 예산(2016년~2020년)

(단위 : 천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	아동친화 영역 예산	구성비
2016년	1,915,732,954	395,734,524	20.7%
2017년	1,733,810,421	398,543,137	23.0%
2018년	2,025,557,431	475,036,674	23.4%
2019년	2,279,469,083	566,456,741	24.8%
2020년(본예산)	2,384,931,433	564,925,526	23.7%

자료: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18);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20)

아동친화 6대 영역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 교육 환경 영역 예산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한 영역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있었으나, 2019년부터 가정 환경과 보건과 사회서비스, 놀이와 여가 영역 등으로 분산되었다. 2020년 현재는 가정 환경 영역의 재원이 약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 환경(27.2%), 보건과 사회서비스(16.1%) 순이다. 반면에 여전히 참여와 시민의식(0.2%), 안전과 보호(1.2%) 영역의 예산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3〉 참조).

〈표 2-23〉 수원시 아동친화 6대 영역별 예산(2016년~2020년)

(단위 : 천원, %, 건)

구분		6대 영역						
		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
2016년	예산액	395,734,524	3,894,848	393,726	11,242,435	27,040,870	288,010,362	65,152,283
	비율	100	1	0.1	2.8	6.8	72.8	16.5
2017년	예산액	398,543,137	6,907,241	533,724	13,404,765	29,451,071	283,632,444	64,613,892
	비율	100	1.7	0.1	3.4	7.4	71.2	16.2
2018년	예산액	475,038,692	9,789,192	694,572	14,056,162	57,725,088	376,761,264	16,010,396
	비율	100	2.1	0.2	3	12.2	79.3	3.4
2019년	예산액	566,456,741	31,936,596	1,082,290	13,989,196	89,033,313	163,437,654	266,977,692
	비율	100	5.64	0.19	2.47	15.72	28.85	47.13
2020년	예산액	564,925,526	31,117,397	850,508	6,645,169	91,150,956	153,596,501	281,564,995
	비율	100	5.5	0.2	1.2	16.1	27.2	49.9
	사업수	475	88	26	52	87	146	76

자료: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18);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20)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수원시의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40여개 국가의 3,400여개 지방자치단체이며, 한국의 경우 현재 47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53개 도시가 인증을 준비 중에 있다.

수원시는 2017년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올해 4년차에 이르렀다. 그간 수원시의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수는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대비 아동 인구 점유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원시의 구별 아동 인구 점유율은 4개구 중에서 영통구의 아동 인구가 여전히 가장 많아 수원시 전체 아동 인구의 35.7%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 관련 범죄 현황은 2019년 한 해 동안 1,401건이고 이 중 교통사고와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다. 아동 관련 사고 현황은 2019년 한 해 1,523건이었고, 그 중 안전사고와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다.

수원시의 교육 인프라 시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제외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학급당, 학교당 학생수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하고 있어, 아동 인구의 감소를 교육기관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밖 아동 대상 교육시설로는 학교 밖 아동 지원센터, 단기쉼터,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의 아동 관련 복지생활시설과 복지이용시설을 살펴보면, 복지생활시설 중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이 13개소로 구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이용시설 중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230개소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63개소를 운영 중이다.

수원시의 기타 간접시설로서 도서관은 구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관내 공원 중에서는 어린이공원 수는 20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면적으로는 근린공원의 면적이 전체 공원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행사나 교육으로는 생태자연, 문화예술, 전통 역사, 스포츠 관련 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총 6,749회에 189,475명이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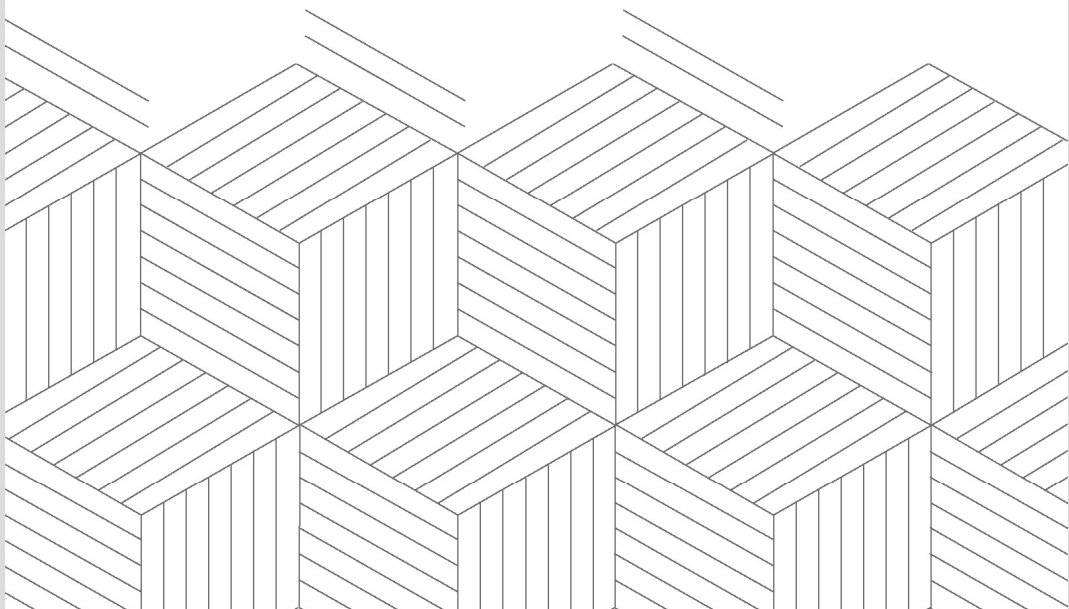
수원시는 2016년부터 매년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과 사업을 분석하는 아동친화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0년 수원시에는 아동 관련 사업이 총 475개, 예산은 5,650억원 규모로 수원시 연간 예산 대비 23.7%를 점유하고 있다. 아동친화 영역별로는 가정 환경에 아동친

화 예산의 50%가 편중되어 있으며, 참여와 시민의식(0.2%), 안전과 보호(1.2%) 영역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 아동의 참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수원시 아동친화도 분석

제1절 아동친화도 조사 설계
제2절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지 구성
제3절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 결과



제3장 수원시 아동친화도 분석

제1절 아동친화도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일곱 번째 구성요소인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에 의하면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한 통계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은 아동 중심 정책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표 3-1〉 참조).

이러한 통계 및 정보는 사회적 약자에 속한 아동에 대한 차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세분화되어야 하며 자료 평가, 아동육구 조사, 해결책 제안, 보고서 준비 등 모든 과정에 아동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 분석된 통계와 정보는 정책결정자, 지역사회 관련 기관 인사를 비롯한 일반시민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고서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즉, 아동친화도 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자료이자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 필수자료인 것이다.

〈표 3-1〉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를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요소	체크리스트
7. 정기적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7.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진척상황 평가를 위해 해당 도시 아동에 대한 통계와 기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합니까?
	7.2 지역아동에 대한 아동친화도조사 보고서가 있습니까?
	7.2.1 이 보고서가 18세 미만 모든 아동 실태를 포함합니까?
	7.2.2 특정 아동에 대한 차별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까?
	7.2.3 이 보고서가 주요정책 입안자, 아동,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볼 수 있도록 출판, 배포됩니까?
	7.2.4 이 보고서가 정책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까?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2. 조사 대상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의 대상자는 초등학생 300명,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300명, 학교 밖 아동 100명,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명, 초등학생 보호자 100명, 중학생 보호자 100명, 고등학생 보호자 10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0명을 목표로 하였다.

- 초등학생: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수원시 내 12개 초등학교의 학생(4~6학년)
- 중·고등학생: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수원시 내 22개의 중·고등학교의 학생(1~3학년)
- 학교 밖 아동: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수원시 내 학교 밖 아동 지원 기관의 학교 밖 아동
- 미취학 아동 보호자: 미취학 자녀를 둔 보호자
- 초등학생 보호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보호자
- 중·고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보호자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선정은 수원시 내 4개구(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총 34개 학교를 무작위(Random)로 추출하였다. 이는 수원시의 초·중·고등학교 198개 중 약 17.2%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수원시 내 10개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각각 추출하였다. 학교 밖 아동은 수원시청소년재단을 통해 추출하였다.

3. 조사 방법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는 2020년 7월 6일~8월 5일까지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호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해 컴퓨터를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수행하였다.

대면조사로 진행된 2016년, 2018년과 달리 올해는 웹조사로 진행되어 무응답이 많지만, 샘플수는 유사하므로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2절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지 구성

1. 설문지 구성 절차

설문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설문지 분석, 수원시 인권센터의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설문지 분석, 수원시 아동시설 현황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성하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에서는 2016년과 동일하게 유니세프에서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6종 자가평가지’를 활용하고, 추가로 수원시 특성을 고려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올해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종 자가평가지’와 현재의 수원시 특성을 반영한 설문 문항을 담았으며, 추가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인권일반 인식과 차별경험 설문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 구성의 타당성, 적합성, 활용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은 면대면 회의와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아동 관련 전공학과 대학교수, 아동 관련 비영리기관장,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참여하였다.

2. 설문 구성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 구성은 크게 아동친화도 조사 문항, 수원시 특성 문항,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문항 등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표 3-2〉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조사 문항은 총 6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하였다. 질문의 응답은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음’, ‘의견’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각 영역당 설문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놀이와 여가’는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모두 각각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와 시민의식’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각각 6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과 보호’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보호자는 14개 문항, 중·고등학생은 15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8개 문항, 초등학생 보호자는 13개 문항,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건과 사회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각각 8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각각 12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환경’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각각 23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22개 문항,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는 각각 24개 문항,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주거 환경’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모두 각각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원시 특성’에 관한 문항은 ‘수원시 아동 관련 및 공공기관에서의 관심도’, ‘아동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여부’, ‘지역의 CCTV 및 안전시설을 통한 안전감’, ‘아동(혹은 자녀의) 정신건강 및 예방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전문가 구성 여부’, ‘수원시 아동관련 시설 인식 여부 및 이용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별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각각 13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는 각각 14문항,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원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올해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에 추가한 질문 영역이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이다. 인권일반에 대한 문항은 ‘모든 사람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 등에 대한 인식과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차별경험에 대한 문항으로는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장애가 있다는 이유’ 등에 의해 얼마나 차별을 당했는지 또는 차별을 했는지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별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각각 29개 문항,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각각 2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2〉 설문 구성 영역 및 문항 수

질문 영역	문항 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놀이와 여가	7	7	7	7	7	7
참여와 시민의식	6	6	5	6	6	6
안전과 보호	14	15	8	13	14	16
보건과 사회서비스	8	8	12	12	12	12
교육 환경	23	23	22	24	24	25
주거 환경	9	9	9	9	9	9
수원시 특성	13	13	14	14	14	11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29	29	27	27	27	27

제3절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수는 1,503명으로 초등학생 296명(19.7%), 중학생 314명(20.9%), 고등학생 292명(19.4%), 학교 밖 아동 94명(6.3%),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명(6.7%), 초등학생 보호자 100명(6.7%),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명(13.3%), 아동관계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명(7.1%)으로 구성되었다(〈표 3-3〉 참조).

응답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초, 중, 고등학생, 학교 밖 아동) 66.3%(996명), 보호자(미취학 아동, 초, 중, 고등학생 보호자) 26.6%(400명),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7.1%(107명)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안구 23.9%(334명), 권선구 25.8%(360명), 팔달구 12.8%(179명), 영통구 37.5%(523명)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아동 33.1%(497명), 여성 아동 33.2%(499명), 남성 보호자 12.2%(183명), 여성 보호자 14.4%(217명), 남성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4.9%(74명), 여성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2.2%(33명)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66.1%(993명), 20대 1.0%(15명), 30대 5.9%(89명), 40대 20.9%(314명), 50대 이상 6.1%(92명)로 조사되었다.

부모를 유형별 살펴보면 양부모 88.3%(1,233명), 한부모 9.7%(136명), 기타 1.9%(27명)로 조사되었다.

보호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미만 0.2%(1명), 고졸 9.5%(48명), 전문대졸 15.4%(78명), 대졸 55%(279명), 대학원 이상 19.9%(101명)로 조사되었다.

보호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전일제 55.5%(222명), 시간제 5.5%(22명), 전업주부 22%(88명), 자영업, 프리랜서 15%(60명), 무직 1.3%(5명), 기타 0.8%(3명)로 조사되었다.

아동과 보호자의 지역사회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 9.5%(132명), 보통 15.4%(215명), 만족 75.1%(1,049명)로 조사되었다.

아동과 보호자의 현재 삶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 11.5%(161명), 보통 15%(209명), 만족 73.5%(1,026명)로 조사되었다.

아동과 보호자의 행복감을 살펴보면 불만족 12.5%(174명), 보통 16.9%(236명), 행복 70.6%(985명)로 조사되었다.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교직경력을 살펴보면 5년 미만 19.6%(21명), 5년~10년 미만 15.9%(17명), 10년~15년 미만 19.6%(21명), 15년~20년 미만 20.6%(22명), 20년 이상 24.3%(26명)로 나타났다.

〈표 3-3〉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503	100.0
응답자	초등학생	296	19.7
	중학생	314	20.9
	고등학생	292	19.4
	학교 밖 아동	94	6.3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7
	초등학생 보호자	100	6.7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3.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7.1
유형별 응답자	아동(초중고 학생)	996	66.3
	보호자(미취학+초+중+고)	400	26.6
	아동관계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7.1
학교 소재지/거주지	장안구	334	23.9
	권선구	360	25.8
	팔달구	179	12.8
	영통구	523	37.5
성별	(아동) 남학생	497	33.1
	(아동) 여학생	499	33.2
	(보호자) 남성	183	12.2
	(보호자) 여성	217	14.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남성	74	4.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여성	33	2.2
연령대	10대	993	66.1
	20대	15	1.0
	30대	89	5.9
	40대	314	20.9
	50대 이상	92	6.1
부모유형	양부모	1,233	88.3
	한부모	136	9.7
	기타	27	1.9
최종학력 (보호자)	고졸 미만	1	0.2
	고졸	48	9.5
	전문대졸	78	15.4
	대졸	279	55.0
	대학원 이상	101	19.9
직업유형 (보호자)	전일제	222	55.5
	시간제	22	5.5
	전업주부	88	22.0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자영업, 프리랜서	60	15.0
	무직	5	1.3
	기타	3	0.8
지역사회 만족도 (아동+보호자)	불만족	132	9.5
	보통	215	15.4
	만족	1,049	75.1
현재 삶 만족도 (아동+보호자)	불만족	161	11.5
	보통	209	15.0
	만족	1,026	73.5
행복감 (아동+보호자)	불만족	174	12.5
	보통	236	16.9
	행복	985	70.6
총 교직경력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5년 미만	21	19.6
	5년~10년 미만	17	15.9
	10년~15년 미만	21	19.6
	15년~20년 미만	22	20.6
	20년 이상	26	24.3

2. 놀이와 여가

‘놀이와 여가’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활동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 등을 문항에 포함하였다. 또한 아동이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 장애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자연환경 구축 등 아동의 놀이와 여가 관련 인프라 구축여부에 대한 질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문화이벤트·축제의 참여, 학교수업 이외의 프로그램·단체·활동 등 아동의 자율적 참여와 프로그램 구축여부를 묻는 질문이 놀이와 여가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모두 각각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놀이와 여가’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1_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A1_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가 있다.					
A1_3	우리 지역사회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					
A1_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자연(예: 숲, 나무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A1_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					
A1_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A1_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문항 수	7	7	7	7	7	7

A1_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표 3-5>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5.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87.0%), 학교 밖 아동(76.6%)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45.0%), 고등학생(57.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73.7%), 권선구(66.4%), 장안구(65.9%), 영통구(6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9.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2.5%, 2018년 대비 10.9%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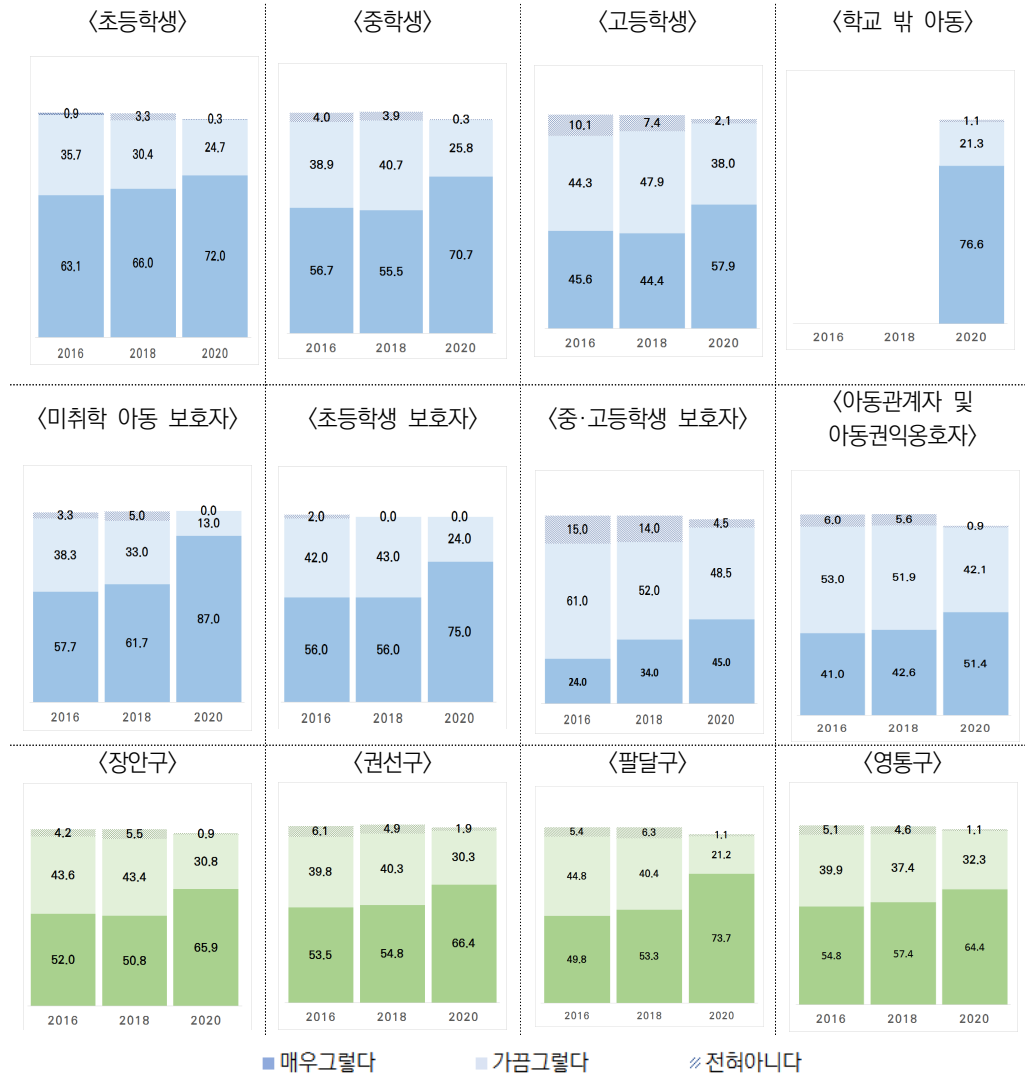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응답률(2016년 대비 29.3%, 2018년 대비 25.3%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23.9%, 2018년 대비 20.4%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이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 참조).

〈표 3-5〉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9	1.3	464	30.9	983	65.4	-3.8	-10.8	12.5	-3.8	-9.2	10.9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73	24.7	213	72.0	-0.6	-11.0	8.9	-3.0	-5.7	6.0
	중학생	314	1	0.3	81	25.8	222	70.7	-3.7	-13.1	14.0	-3.6	-14.9	15.2
	고등학생	292	6	2.1	111	38.0	169	57.9	-8.0	-6.3	12.3	-5.3	-9.9	13.5
	학교 밖 아동	94	1	1.1	20	21.3	72	76.6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13	13.0	87	87.0	-3.3	-25.3	29.3	-5.0	-20.0	25.3
	초등학생 보호자	100	0	0.0	24	24.0	75	75.0	-2.0	-18.0	19.0	0.0	-19.0	19.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9	4.5	97	48.5	90	45.0	-10.5	-12.5	21.0	-9.5	-3.5	1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45	42.1	55	51.4	-5.1	-10.9	10.4	-4.7	-9.8	8.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	0.9	103	30.8	220	65.9	-3.3	-12.8	13.9	-4.6	-12.6	15.1
	권선구	360	7	1.9	109	30.3	239	66.4	-4.2	-9.5	12.9	-3.0	-10.0	11.6
	팔달구	179	2	1.1	38	21.2	132	73.7	-4.3	-23.6	23.9	-5.2	-19.2	20.4
	영통구	523	6	1.1	169	32.3	337	64.4	-4.0	-7.6	9.6	-3.5	-5.1	7.0

〈그림 3-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A1_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 시설 등)가 있다.

〈표 3-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7.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2.1%), 중학생(74.8%)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47.0%), 초등학생 보호자(49.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69.3%), 권선구(68.9%), 장안구(67.7%), 영통구(66.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

구가 3.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0.8%, 2018년 대비 -4.3%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미취학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의 응답률(2016년 대비 -16.0%, 2018년 대비 -15.0%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6.5%, 2018년 대비 -9.2%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매우 있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 참조).

〈표 3-6〉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가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2	3.5	420	27.9	1,008	67.1	-1.2	0.7	-0.8	-0.9	4.0	-4.3
응답자	초등학생	296	4	1.4	46	15.5	243	82.1	-0.1	3.8	-4.4	-1.5	1.8	-0.9
	중학생	314	5	1.6	67	21.3	235	74.8	-2.1	2.9	-2.8	-0.8	5.0	-6.2
	고등학생	292	9	3.1	74	25.3	203	69.5	-5.7	1.0	2.6	-3.9	4.5	-2.0
	학교 밖 아동	94	11	11.7	28	29.8	53	56.4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32	32.0	66	66.0	-5.0	-8.0	12.3	-4.7	1.0	2.7
	초등학생 보호자	100	9	9.0	41	41.0	49	49.0	6.0	9.0	-16.0	5.0	10.0	-1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3	6.5	91	45.5	94	47.0	3.5	-8.5	4.0	1.5	5.5	-8.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41	38.3	65	60.7	-5.0	-6.7	10.7	-3.7	-5.2	7.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1	3.3	92	27.5	226	67.7	-1.1	1.0	-1.2	-0.5	3.7	-4.2
	권선구	360	16	4.4	93	25.8	248	68.9	-0.8	-4.4	4.7	-1.0	-2.3	2.4
	팔달구	179	6	3.4	45	25.1	124	69.3	-2.8	-6.9	7.5	-2.5	2.4	-1.7
	영통구	523	19	3.6	149	28.5	345	66.0	-0.2	5.0	-6.5	0.4	7.3	-9.2

〈그림 3-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가 있다.



A1_3. 우리 지역사회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

〈표 3-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2.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48.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4.9%)가 높았고 초등학생(23.0%), 학교 밖 아동(24.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33.7%), 팔달구(32.4%), 권선구(30.6%), 장안구(29.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구가 4.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6.4%, 2018년 대비 -1.4%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중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16.8%, 2018년 대비 -10.8% 감소)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13.3%, 2018년 대비 -1.0%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놀이터를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응답률은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참조).

〈표 3-7〉 우리 지역사회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96	19.7	491	32.7	253	16.8	-15.7	-6.4	-1.7	-9.2	-1.4	-7.5
응답자	초등학생	296	39	13.2	68	23.0	53	17.9	-15.7	-21.3	-5.5	-6.7	2.7	-22.9
	중학생	314	33	10.5	94	29.9	63	20.1	-20.3	-16.8	-0.5	-15.3	-10.8	-7.2
	고등학생	292	65	22.3	89	30.5	49	16.8	-17.2	-9.0	0.2	-10.1	-5.1	-8.2
	학교 밖 아동	94	31	33.0	23	24.5	11	11.7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5	25.0	48	48.0	14	14.0	-17.3	22.0	-2.3	-8.0	15.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32	32.0	41	41.0	11	11.0	-5.0	11.0	-10.0	-6.0	4.0	-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51	25.5	80	40.0	31	15.5	-7.5	1.0	7.5	-1.5	4.0	1.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0	18.7	48	44.9	21	19.6	-20.3	-0.1	3.6	-17.4	-2.3	3.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71	21.3	99	29.6	51	15.3	-13.5	-13.3	-1.4	-12.6	-1.0	-8.5
	권선구	360	56	15.6	110	30.6	64	17.8	-20.4	-3.1	-1.7	-15.0	-4.1	-2.7
	팔달구	179	25	14.0	58	32.4	38	21.2	-23.5	-5.1	2.3	-12.3	-2.5	-6.6
	영통구	523	124	23.7	176	33.7	79	15.1	-10.8	-6.8	-3.9	-1.4	-1.9	-10.8

〈그림 3-3〉 우리 지역사회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



A1_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자연(예: 숲, 나무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표 3-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4.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69.9%), 중학생(69.1%)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50.0%), 초등학생 보호자(53.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5.6%), 권선구(64.4%), 팔달구(64.2%), 장안구(6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구가 3.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5.9%, 2018년 대비 11.3%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응답률(2016년 대비 25.7%, 2018년 대비 22.7%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24.0%, 2018년 대비 19.7%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 아동이 자연(예: 숲, 나무)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인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 참조).

〈표 3-8〉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자연(예: 숲, 나무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0	3.3	432	28.7	963	64.1	-4.2	-14.8	15.9	-3.8	-10.2	11.3
응답자	초등학생	296	7	2.4	62	20.9	207	69.9	-0.4	-11.7	6.2	-3.5	-7.9	6.8
	중학생	314	5	1.6	71	22.6	217	69.1	-3.7	-21.9	19.9	-2.3	-15.1	11.2
	고등학생	292	7	2.4	81	27.7	197	67.5	-6.0	-16.6	20.2	-1.5	-7.5	7.6
	학교 밖 아동	94	5	5.3	21	22.3	64	68.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34	34.0	60	60.0	-8.0	-16.7	25.7	-6.3	-15.3	22.7
	초등학생 보호자	100	4	4.0	42	42.0	53	53.0	-8.0	-3.0	11.0	-4.0	-10.0	1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4	7.0	85	42.5	100	50.0	-4.0	-8.5	13.0	-10.0	0.5	1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36	33.6	65	60.7	0.8	-8.4	4.7	-4.6	-3.4	5.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8	2.4	103	30.8	208	62.3	-4.5	-14.1	15.2	-5.0	-9.1	10.9
	권선구	360	11	3.1	95	26.4	232	64.4	-6.2	-23.3	24.0	-6.4	-18.3	19.7
	팔달구	179	8	4.5	49	27.4	115	64.2	-5.9	-13.9	16.3	-4.5	-4.4	6.6
	영통구	523	20	3.8	149	28.5	343	65.6	-1.5	-10.9	11.4	-0.2	-8.5	7.8

〈그림 3-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자연(예: 숲, 나무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A1_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

〈표 3-9〉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5.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중·고등학생 보호자(63.5%), 초등학생 보호자(59.0%)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31.9%), 고등학생(39.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6.3%), 장안구(45.8%), 팔달구(43.6%), 권선구(4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

선구가 3.2%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3%, 2018년 대비 -3.9%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응답률(2016년 대비 -8.3%, 2018년 대비 -8.9%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6.4%, 2018년 대비 -6.4% 감소)가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 아동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응답률은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 참조).

〈표 3-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26	8.4	679	45.2	452	30.1	-7.0	-2.3	-5.8	-2.9	-3.9	-6.6
응답자	초등학생	296	25	8.4	119	40.2	85	28.7	-3.0	-2.6	-15.6	-0.4	-6.5	-11.5
	중학생	314	17	5.4	125	39.8	111	35.4	-9.6	-5.7	-3.5	-2.9	-7.4	-7.0
	고등학생	292	33	11.3	114	39.0	86	29.5	-11.3	-8.3	0.4	-3.5	-8.9	-6.4
	학교 밖 아동	94	13	13.8	30	31.9	23	24.5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0	10.0	54	54.0	26	26.0	-1.7	-1.0	-5.3	-5.3	5.0	-5.3
	초등학생 보호자	100	11	11.0	59	59.0	23	23.0	-6.0	10.0	-11.0	-2.0	4.0	-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3	6.5	127	63.5	53	26.5	-10.5	14.5	-4.5	-2.5	2.5	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4	3.7	51	47.7	45	42.1	-12.3	3.7	2.1	-4.6	-0.4	-1.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3	6.9	153	45.8	109	32.6	-3.1	-6.4	-4.2	-2.4	-6.4	-3.7
	권선구	360	33	9.2	155	43.1	102	28.3	-10.3	-1.4	-5.7	-3.3	-7.8	-5.0
	팔달구	179	16	8.9	78	43.6	48	26.8	-7.3	-5.0	-7.9	-2.1	-5.8	-10.8
	영통구	523	50	9.6	242	46.3	148	28.3	-6.8	1.1	-8.8	-2.5	1.2	-10.9

〈그림 3-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



A1-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표 3-1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3.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중·고등학생 보호자(62.5%), 초등학생 보호자(57.0%)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27.7%), 중학생(36.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7.4%), 장안구(44.6%), 권선구(41.1%), 팔달구(36.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

구가 11.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6%, 2018년 대비 4.2%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고등학생,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2016년 대비 6.7%, 2018년 대비 6.7%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와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8.4%, 2018년 대비 12.5%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 참조).

<표 3-10>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12	7.5	657	43.7	488	32.5	-15.9	2.6	-2.4	-12.2	4.2	-6.6
응답자	초등학생	296	24	8.1	117	39.5	97	32.8	-8.8	3.5	-14.0	-8.9	9.1	-17.9
	중학생	314	11	3.5	115	36.6	121	38.5	-40.7	6.4	13.9	-33.0	1.0	11.8
	고등학생	292	24	8.2	116	39.7	92	31.5	-27.6	-1.5	9.2	-22.1	6.6	-4.1
	학교 밖 아동	94	12	12.8	26	27.7	33	35.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	8.0	54	54.0	27	27.0	-3.0	6.7	-14.7	0.0	6.7	-14.7
	초등학생 보호자	100	9	9.0	57	57.0	25	25.0	3.0	8.0	-19.0	5.0	3.0	-1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1	10.5	125	62.5	46	23.0	-4.5	9.5	-7.0	0.5	2.5	-4.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47	43.9	47	43.9	-1.2	-9.1	1.9	-0.9	3.2	-11.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3	6.9	149	44.6	112	33.5	-17.9	4.2	-0.6	-11.4	4.2	-6.4
	권선구	360	29	8.1	148	41.1	113	31.4	-10.2	0.7	-9.3	-10.0	-4.6	-2.6
	팔달구	179	17	9.5	65	36.3	59	33.0	-17.9	-10.8	7.9	-11.7	-1.3	-7.4
	영통구	523	40	7.6	248	47.4	157	30.0	-16.1	8.4	-6.5	-13.8	12.5	-12.0

〈그림 3-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A1-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

〈표 3-1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4.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7.2%), 중학생(83.1%)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54.5%), 초등학생 보호자(60.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77.1%), 영통구(76.5%), 장안구(74.9%), 권선구(71.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권선

구가 5.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31.9%, 2018년 대비 24.9%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응답률(2016년 대비 29.7%, 2018년 대비 20.7%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52.6%, 2018년 대비 35.1%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 참조).

〈표 3-11〉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66	4.4	304	20.2	1,115	74.2	-3.6	-29.1	31.9	-3.2	-22.7	24.9
응답자	초등학생	296	9	3.0	25	8.4	258	87.2	-	-	-	-	-
	중학생	314	5	1.6	44	14.0	261	83.1	-	-	-	-	-
	고등학생	292	13	4.5	51	17.5	225	77.1	-	-	-	-	-
	학교 밖 아동	94	14	14.9	17	18.1	61	64.9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26	26.0	72	72.0	-6.7	-22.3	29.7	-7.0	-13.3
	초등학생 보호자	100	7	7.0	32	32.0	60	60.0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3	6.5	77	38.5	109	54.5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32	29.9	69	64.5	-3.2	-22.1	22.5	-0.9	-22.9
	장안구	334	13	3.9	67	20.1	250	74.9	-3.1	-24.8	28.0	-3.3	-29.4
	권선구	360	19	5.3	81	22.5	258	71.7	-3.7	-28.5	31.7	-4.6	-18.0
	팔달구	179	10	5.6	29	16.2	138	77.1	-0.4	-48.0	52.6	-4.4	-31.8
	영통구	523	21	4.0	95	18.2	400	76.5	-6.0	-27.4	29.5	-0.6	-20.3

〈그림 3-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



3. 참여와 시민의식

‘참여와 시민의식’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과 보호자가 지역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의사결정 또는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가, 정부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는가, 아동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내는가 등의 질의와 아동의 권리를 매체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지역사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공감을 하는지 등이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문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참여와 시민의식’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2_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A2_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A2_3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A2_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					
A2_5	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각종 매체 (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축제,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					
A2_6	우리 지역의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문항 수	6	6	5	6	6	6

A2_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표 3-1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8.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52.0%), 미취학 아동 보호자(51.0%)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22.3%), 초등학생(29.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39.8%), 영통구(39.2%), 권선구(35.6%), 팔달구(34.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팔달구가 5.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9.9%, 2018년 대비 -9.2%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초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

였으며, 초등학생(2016년 대비 -22.3%, 2018년 대비 -18.0%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2.6%, 2018년 대비 -16.5% 감소)가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응답률은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8> 참조).

〈표 3-1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70	18	581	38.7	249	16.6	-21.9	-9.9	7.8	-18.4	-9.2	5.0
응답자	초등학생	296	48	16.2	87	29.4	53	17.9	-15.8	-22.3	2.8	-11.6	-18.0	-1.4
	중학생	314	38	12.1	110	35.0	61	19.4	-32.4	-11.4	11.6	-22.3	-17.5	9.0
	고등학생	292	43	14.7	109	37.3	55	18.8	-36.3	-4.3	12.7	-30.4	-5.3	8.6
	학교 밖 아동	94	30	31.9	21	22.3	12	12.8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8	18.0	51	51.0	11	11.0	-23.3	5.3	2.7	-27.3	8.0	4.3
	초등학생 보호자	100	27	27.0	52	52.0	4	4.0	-11.0	2.0	-1.0	-7.0	2.0	-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58	29.0	97	48.5	21	10.5	-6.0	-3.5	7.5	-16.0	6.5	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8	7.5	54	50.5	32	29.9	-12.5	-19.5	19.9	-6.4	-15.2	9.5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48	14.4	133	39.8	57	17.1	-24.1	-13.1	10.7	-20.8	-8.8	3.7
	권선구	360	56	15.6	128	35.6	54	15.0	-26.8	-10.0	7.7	-20.1	-14.3	4.5
	팔달구	179	24	13.4	61	34.1	42	23.5	-30.2	-12.6	15.4	-22.3	-16.5	13.3
	영통구	523	134	25.6	205	39.2	64	12.2	-11.9	-8.8	0.3	-12.6	-5.2	0.3

〈그림 3-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A2_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표 3-14〉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6.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53.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8.6%)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13.8%), 초등학생(25.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37.7%), 영통구(35.8%), 팔달구(34.6%), 권선구(32.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4.9%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9.2%, 2018년 대비 5.6%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보호자(2016년 대비 25.0%, 2018년 대비 16.0%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은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8.5%, 2018년 대비 6.1%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교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9〉 참조).

〈표 3-1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310	20.6	545	36.3	248	16.5	-43.7	9.2	9.9	-39.3	5.6	10.9
응답자	초등학생	296	58	19.6	75	25.3	54	18.2	-49.6	0.4	14.2	-41.5	1.4	12.3
	중학생	314	48	15.3	100	31.8	63	20.1	-59.2	10.0	17.3	-50.6	3.9	16.5
	고등학생	292	46	15.8	111	38.0	45	15.4	-63.9	22.5	12.4	-52.2	13.0	10.1
	학교 밖 아동	94	35	37.2	13	13.8	15	16.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2	22.0	47	47.0	14	14.0	-36.0	14.7	6.3	-40.3	16.7	9.0
	초등학생 보호자	100	27	27.0	53	53.0	4	4.0	-35.0	25.0	0.0	-26.0	16.0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62	31.0	94	47.0	21	10.5	10.0	8.0	-25.5	-24.0	8.0	6.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2	11.2	52	48.6	32	29.9	-22.8	-8.4	21.9	-9.2	-12.5	11.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67	20.1	126	37.7	45	13.5	-41.9	9.5	5.7	-37.8	4.6	6.9
	권선구	360	66	18.3	118	32.8	63	17.5	-44.5	6.3	9.7	-44.3	3.0	12.4
	팔달구	179	26	14.5	62	34.6	37	20.7	-55.0	8.7	17.2	-45.9	4.0	15.2
	영통구	523	139	26.6	187	35.8	71	13.6	-37.8	8.5	7.2	-32.2	6.1	8.3

〈그림 3-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A2_3.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표 3-15〉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3.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44.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39.3%)가 높았고 초등학생(24.3%), 학교 밖 아동(29.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34.6%), 장안구(34.4%), 팔달구(31.3%), 권선구(2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선구가 5.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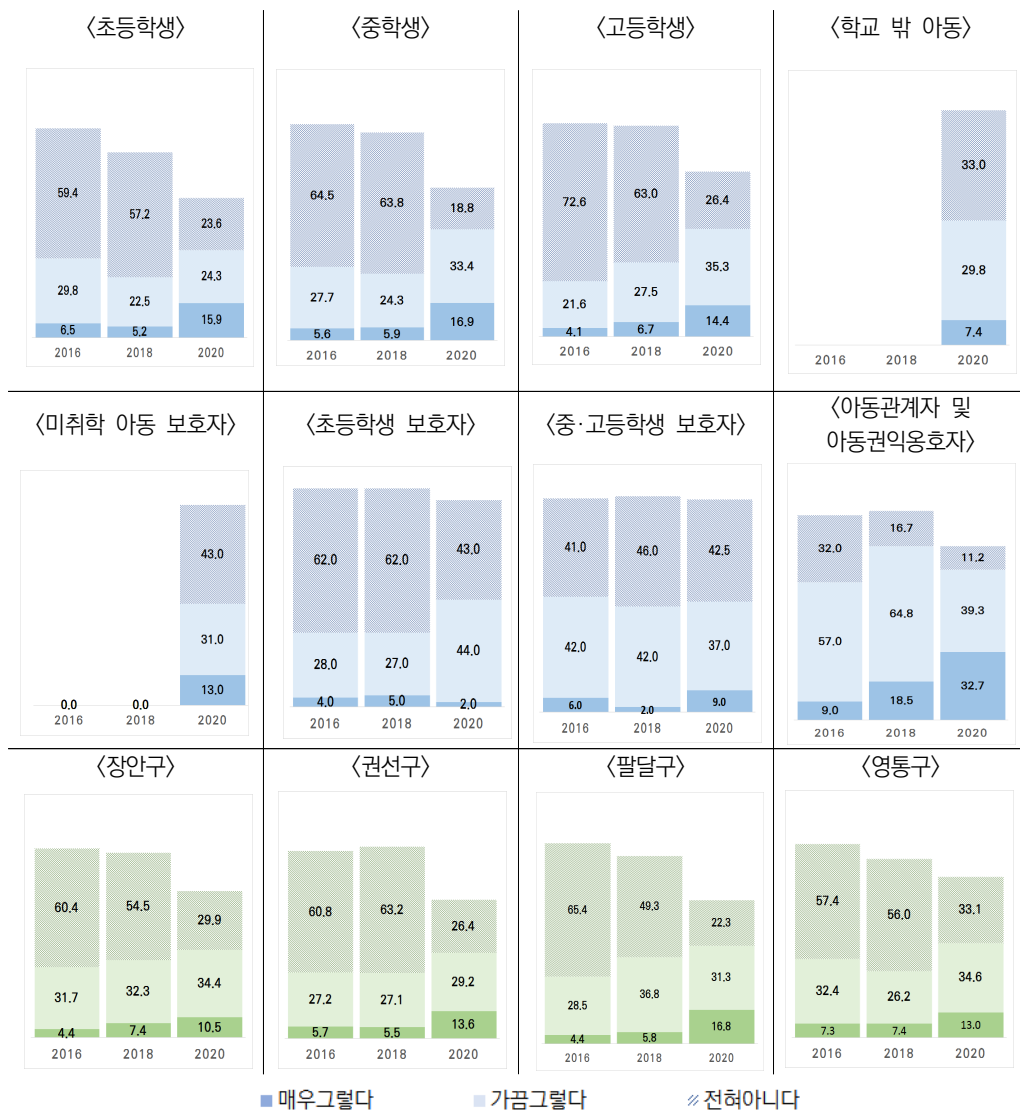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8%, 2018년 대비 3.4%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2016년 대비 16.0%, 2018년 대비 17.0%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2.2%, 2018년 대비 8.4%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우리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0〉 참조).

〈표 3-15〉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420	27.9	499	33.2	217	14.4	-32.5	2.8	8.8	-28.4	3.4	7.8
응답자	초등학생	296	70	23.6	72	24.3	47	15.9	-35.8	-5.5	9.4	-33.6	1.8	10.7
	중학생	314	59	18.8	105	33.4	53	16.9	-45.7	5.7	11.3	-45.0	9.1	11.0
	고등학생	292	77	26.4	103	35.3	42	14.4	-46.2	13.7	10.3	-36.6	7.8	7.7
	학교 밖 아동	94	31	33.0	28	29.8	7	7.4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43	43.0	31	31.0	13	13.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43	43.0	44	44.0	2	2.0	-19.0	16.0	-2.0	-19.0	17.0	-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85	42.5	74	37.0	18	9.0	1.5	-5.0	3.0	-3.5	-5.0	7.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2	11.2	42	39.3	35	32.7	-20.8	-17.7	23.7	-5.5	-25.5	14.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00	29.9	115	34.4	35	10.5	-30.5	2.7	6.1	-24.6	2.1	3.1
	권선구	360	95	26.4	105	29.2	49	13.6	-34.4	2.0	7.9	-36.8	2.1	8.1
	팔달구	179	40	22.3	56	31.3	30	16.8	-43.1	2.8	12.4	-27.0	-5.5	11.0
	영통구	523	173	33.1	181	34.6	68	13.0	-24.3	2.2	5.7	-22.9	8.4	5.6

〈그림 3-10〉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A2_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

〈표 3-1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평균 33.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전혀 아니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56.0%), 중·고등학생 보호자(55.5%)가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4%), 중학생(23.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

구(41.9%), 권선구(33.6%), 장안구(33.5%), 팔달구(27.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14.5%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32.1%, 2018년 대비 -29.2%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전혀 아니다'의 응답은 모든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중학생(2016년 대비 -46.5%, 2018년 대비 -42.3% 감소)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45.5%, 2018년 대비 -37.6%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3-11〉 참조).

〈표 3-16〉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10	33.9	378	25.1	197	13.1	-32.1	0.5	6.4	-29.2	-2.3	6.6
응답자	초등학생	296	73	24.7	67	22.6	48	16.2	-	-	-	-	-	-
	중학생	314	75	23.9	80	25.5	52	16.6	-46.5	2.1	12.2	-42.3	-0.9	13.0
	고등학생	292	100	34.2	67	22.9	35	12.0	-44.2	7.4	7.6	-34.1	0.4	5.3
	학교 밖 아동	94	39	41.5	12	12.8	6	6.4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47	47.0	31	31.0	8	8.0	-12.0	5.3	-2.7	-15.0	4.7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56	56.0	25	25.0	5	5.0	-7.0	-1.0	-3.0	-4.0	-5.0	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11	55.5	48	24.0	12	6.0	-0.5	-10.0	-1.0	-14.5	1.0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9	8.4	48	44.9	31	29.0	-40.6	3.9	22.0	-31.4	-3.2	17.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12	33.5	87	26.0	34	10.2	-31.2	1.2	2.8	-32.2	0.0	4.3
	권선구	360	121	33.6	78	21.7	49	13.6	-30.4	-3.3	6.0	-25.9	-8.9	5.5
	팔달구	179	49	27.4	43	24.0	33	18.4	-45.5	2.0	13.7	-37.6	-2.1	11.0
	영통구	523	219	41.9	122	23.3	50	9.6	-22.7	-2.1	3.1	-21.5	-3.2	4.4

〈그림 3-1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



A2_5. 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각종 매체(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축제,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

〈표 3-1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6.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61.0%),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57.0%)가 높았고, 초등학생(41.9%)과 학교 밖 아동(42.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

았으며 장안구(48.5%), 영통구(48.0%), 권선구(45.6%), 팔달구(4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팔달구가 7.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0.9%, 2018년 대비 -2.3%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초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2016년 대비 -12.3%, 2018년 대비 -6.1% 감소)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9.0%, 2018년 대비 -5.5%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각종 매체(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축제,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에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2〉 참조).

〈표 3-17〉 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각종 매체(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축제,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85	12.3	700	46.6	422	28.1	-14.5	-0.9	4.0	-9.5	-2.3	1.2
응답자	초등학생	296	27	9.1	124	41.9	102	34.5	-26.6	-4.9	17.6	-21.9	1.1	11.0
	중학생	314	25	8.0	122	38.9	113	36.0	-22.5	-2.8	8.6	-13.4	-9.8	7.2
	고등학생	292	38	13.0	132	45.2	80	27.4	-23.8	-1.8	11.9	-15.5	3.3	-1.5
	학교 밖 아동	94	23	24.5	40	42.6	17	18.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5	15.0	57	57.0	17	17.0	-3.0	8.7	-12.0	-3.0	0.3	-5.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5	15.0	61	61.0	17	17.0	-2.0	4.0	-7.0	1.0	9.0	-1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6	18.0	114	57.0	38	19.0	9.0	11.0	-21.0	7.0	-6.0	-5.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6	5.6	50	46.7	38	35.5	-4.4	-12.3	4.5	-0.9	-6.1	-5.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40	12.0	162	48.5	78	23.4	-14.7	1.4	-1.6	-9.6	-2.0	-2.0
	권선구	360	47	13.1	164	45.6	101	28.1	-18.6	2.6	4.8	-7.4	-2.8	-1.2
	팔달구	179	20	11.2	73	40.8	63	35.2	-17.4	-9.0	14.4	-12.7	-5.5	7.7
	영통구	523	72	13.8	251	48.0	142	27.2	-9.0	-1.5	1.8	-8.0	-1.3	1.5

〈그림 3-12〉 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각종 매체(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축제,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



A2_6.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표 3-1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7.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57.6%), 고등학생(51.0%)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24.0%), 중·고등학생 보호자(3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52.1%), 장안

구(47.9%), 권선구(47.4%), 영통구(46.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6.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7.1%, 2018년 대비 5.2%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교 보호자와 중·고등학교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6.0%, 2018년 대비 -13.0%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1.7%, 2018년 대비 11.3%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지만, 응답자별로 초등학교 보호자와 중·고등학교 보호자는 이전 조사보다 응답률이 낮아졌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3〉 참조).

〈표 3-1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403	75	5.3	546	38.9	666	47.5	-10.1	-4.3	7.1	-8.5	-2.7	5.2
응답자	초등학생	296	15	5.1	105	35.5	148	50.0	-11.2	-3.9	7.2	-15.8	-5.7	16.7
	중학생	314	3	1.0	105	33.4	181	57.6	-16.1	-6.2	14.9	-10.6	-4.3	8.6
	고등학생	292	14	4.8	100	34.2	149	51.0	-16.5	-14.8	21.9	-5.4	-8.8	4.9
	학교 밖 아동	94	5	5.3	36	38.3	44	46.8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17	17.0	52	52.0	24	24.0	10.0	9.0	-26.0	4.0	6.0	-1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9	9.5	101	50.5	71	35.5	8.5	8.5	-19.5	-2.5	8.5	-7.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47	43.9	49	45.8	-10.1	-8.1	10.8	-10.1	-3.3	5.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15	17	5.4	122	38.7	151	47.9	-7.3	-6.6	7.1	-7.7	-4.4	5.5
	권선구	325	20	6.2	116	35.7	154	47.4	-10.8	-9.6	10.0	-9.0	-7.5	7.4
	팔달구	169	8	4.7	58	34.3	88	52.1	-13.3	-6.5	11.7	-7.9	-10.1	11.3
	영통구	487	28	5.7	203	41.7	224	46.0	-9.4	0.1	3.9	-8.1	3.9	1.3

〈그림 3-13〉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4. 안전과 보호

‘안전과 보호’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버스와 기타 대중교통, 자전거, 마약, 조직폭력 단체, 낯선 사람의 납치, 폭력, 인권, 인터넷 사용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여부, 대체교육시설 등 안전감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문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안전과 보호’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3_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					
A3_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조직폭력배/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A3_3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A3_4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A3_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A3_6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A3_7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A3_8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					
A3_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없고 서로 존중한다.					
A3_1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A3_1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A3_1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A3_1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A3_1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A3_15	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					
A3_16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위탁가정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문항 수	14	15	8	13	14	16

A3_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

<표 3-2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3.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4.3%), 중학생

(84.1%)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46.0%), 중·고등학생 보호자(47.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79.4%), 영통구(74.0%), 장안구(71.6%), 팔달구(69.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9.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5%, 2018년 대비 7.8%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응답률의(2016년 대비 11.2%, 2018년 대비 10.0%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21.6%, 2018년 대비 13.9%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에 대한 인지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4〉 참조).

〈표 3-2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3	1.5	344	22.9	1,102	73.3	-2.5	-9.0	10.5	-3.2	-5.3	7.8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16	5.4	279	94.3	-1.5	-10.0	11.2	-3.3	-5.7	10.0
	중학생	314	2	0.6	42	13.4	264	84.1	-1.9	-5.3	5.9	-0.3	-1.7	1.0
	고등학생	292	2	0.7	58	19.9	227	77.7	-3.4	-9.8	11.5	-3.2	-6.9	8.3
	학교 밖 아동	94	0	0.0	16	17.0	77	81.9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44	44.0	46	46.0	-1.7	-5.3	6.7	-4.0	-4.0	7.0
	초등학생 보호자	100	5	5.0	38	38.0	50	50.0	-3.0	-7.0	3.0	1.0	-3.0	-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7	3.5	94	47.0	94	47.0	-3.5	-7.0	12.0	-8.5	7.0	3.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36	33.6	65	60.7	0.9	-13.4	8.7	-2.7	-9.9	8.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7	2.1	81	24.3	239	71.6	-1.3	-6.6	6.4	-3.6	-7.7	11.5
	권선구	360	5	1.4	63	17.5	286	79.4	-4.7	-16.2	21.6	-3.7	-10.6	13.9
	팔달구	179	3	1.7	46	25.7	125	69.8	-1.8	-10.2	10.3	-2.2	-1.4	2.3
	영통구	523	6	1.1	118	22.6	387	74.0	-2.1	-7.0	8.1	-2.9	-3.5	5.7

〈그림 3-14〉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



A3_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조직폭력배/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 3-2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8.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65.9%), 학교 밖 아동(64.9%)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42.5%), 초등학생 보호자(43.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4.2%), 권선구(58.3%), 장안구(53.6%), 팔달구(52.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

가 12.2%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3.4%, 2018년 대비 9.4%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만 증가하였는데 2016년 대비 5.3%, 2018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13.7%, 2018년 대비 18.3%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의 아동은 조직폭력배/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5〉 참조).

〈표 3-2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조직폭력배/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19	7.9	401	26.7	886	58.9	-1.9	-11.0	13.4	-2.5	-5.9	9.4
응답자	초등학생	296	31	10.5	54	18.2	195	65.9	-	-	-	-	-
	중학생	314	19	6.1	65	20.7	201	64.0	-	-	-	-	-
	고등학생	292	19	6.5	67	22.9	185	63.4	-	-	-	-	-
	학교 밖 아동	94	4	4.3	20	21.3	61	64.9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	8.0	38	38.0	48	48.0	-1.3	0.0	5.3	-3.0	4.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3	13.0	38	38.0	43	43.0	5.0	-2.0	-6.0	6.0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2	11.0	87	43.5	85	42.5	-3.0	0.5	8.5	-6.0	8.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32	29.9	68	63.6	-6.2	0.9	1.6	-2.8	6.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1	9.3	101	30.2	179	53.6	-2.1	-3.4	6.6	-1.1	3.6
	권선구	360	35	9.7	98	27.2	210	58.3	-1.7	-13.7	18.0	1.4	-2.5
	팔달구	179	18	10.1	49	27.4	93	52.0	-1.0	-15.9	12.0	1.3	-18.2
	영통구	523	32	6.1	121	23.1	336	64.2	-1.0	-12.7	13.7	-6.8	-12.5

〈그림 3-15〉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조직폭력배/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A3_3.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 3-22〉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8.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73.6%), 중학생(69.1%)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35.5%), 미취학 아동 보호자(40.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2.5%), 권선구(58.9%), 팔달구(58.7%), 장안구(54.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구가 8.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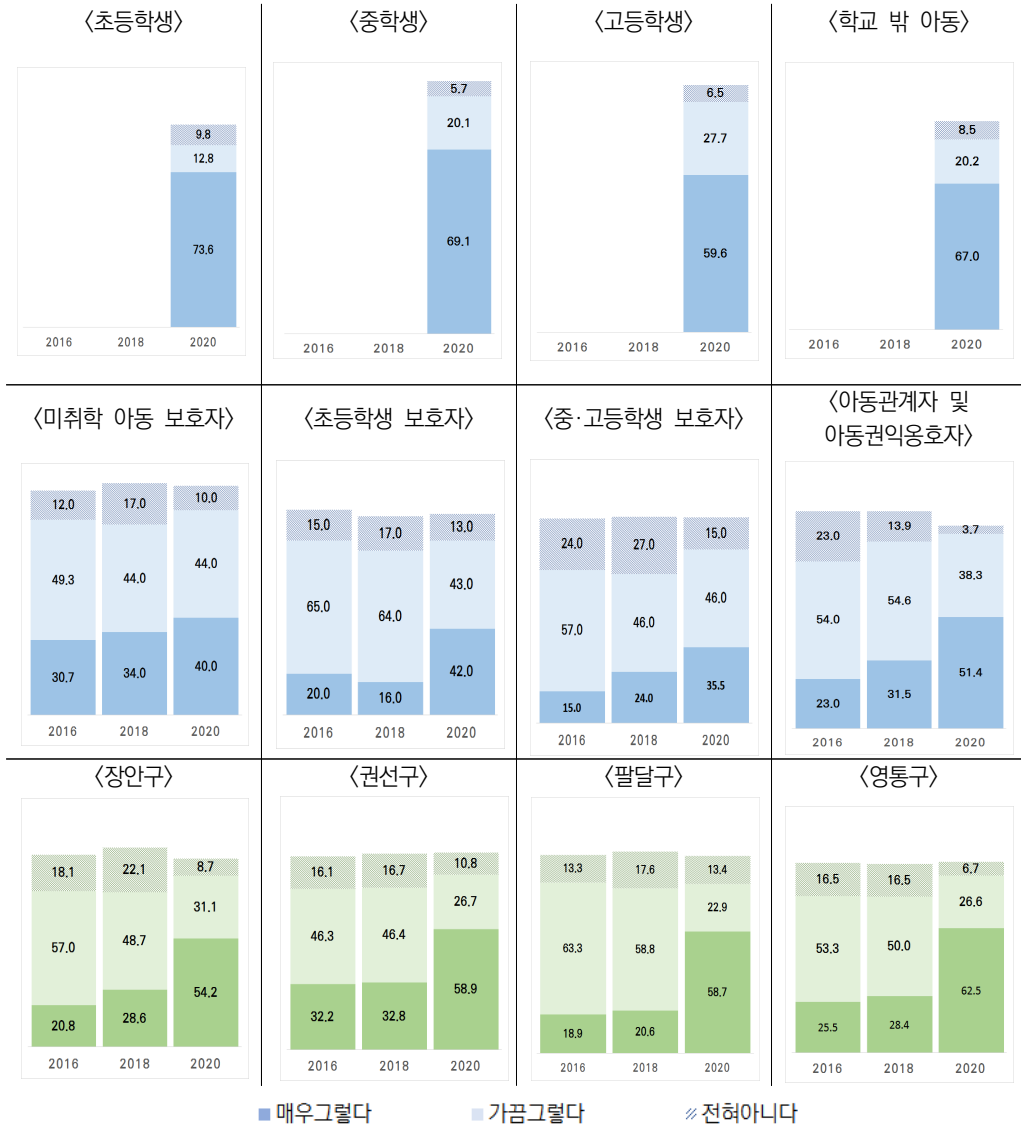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33.5%, 2018년 대비 29.6%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2.0%, 2018년 대비 26.0%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39.8%, 2018년 대비 38.1%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6〉 참조).

〈표 3-2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31	8.7	421	28	880	58.5	-7.6	-26.0	33.5	-9.4	-21.5	29.6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	9.8	38	12.8	218	73.6	-	-	-	-	-
	중학생	314	18	5.7	63	20.1	217	69.1	-	-	-	-	-
	고등학생	292	19	6.5	81	27.7	174	59.6	-	-	-	-	-
	학교 밖 아동	94	8	8.5	19	20.2	63	67.0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0	10.0	44	44.0	40	40.0	-2.0	-5.3	9.3	-7.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3	13.0	43	43.0	42	42.0	-2.0	-22.0	22.0	-4.0	-2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0	15.0	92	46.0	71	35.5	-9.0	-11.0	20.5	-12.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4	3.7	41	38.3	55	51.4	-19.3	-15.7	28.4	-10.2	-16.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9	8.7	104	31.1	181	54.2	-9.4	-25.9	33.4	-13.4	-17.6
	권선구	360	39	10.8	96	26.7	212	58.9	-5.3	-19.6	26.7	-5.9	-19.7
	팔달구	179	24	13.4	41	22.9	105	58.7	0.1	-40.4	39.8	-4.2	-35.9
	영통구	523	35	6.7	139	26.6	327	62.5	-9.8	-26.7	37.0	-9.8	-23.4

〈그림 3-16〉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A3_4.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 3-2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1.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62.5%), 중학생(59.6%)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32.0%), 중·고등학생 보호자(34.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54.5%), 권선구(51.1%), 장안구(48.5%), 팔달구(47.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

구가 7.0%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9.9%, 2018년 대비 26.4%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30.1%, 2018년 대비 21.8%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35.3%, 2018년 대비 26.9%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7〉 참조).

〈표 3-23〉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63	10.8	458	30.5	776	51.6	-5.5	-22.3	29.9	-6.5	-19.3	26.4
응답자	초등학생	296	34	11.5	59	19.9	185	62.5	-	-	-	-	-	-
	중학생	314	29	9.2	69	22.0	187	59.6	-	-	-	-	-	-
	고등학생	292	28	9.6	94	32.2	151	51.7	-	-	-	-	-	-
	학교 밖 아동	94	12	12.8	21	22.3	53	56.4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5	15.0	40	40.0	40	40.0	0.7	-10.3	17.3	-3.7	-3.7	13.7
	초등학생 보호자	100	16	16.0	44	44.0	32	32.0	-1.0	-12.0	12.0	1.0	-20.0	1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5	12.5	94	47.0	68	34.0	-5.5	-10.0	18.0	-8.5	-4.0	12.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4	3.7	37	34.6	60	56.1	-16.3	-18.4	30.1	-8.3	-18.2	21.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8	11.4	105	31.4	162	48.5	-5.4	-20.3	24.3	-8.1	-20.5	27.1
	권선구	360	44	12.2	116	32.2	184	51.1	-5.2	-18.1	29.6	-2.9	-15.7	20.9
	팔달구	179	25	14.0	51	28.5	85	47.5	-0.4	-35.9	35.3	-3.6	-25.9	26.9
	영통구	523	52	9.9	149	28.5	285	54.5	-6.1	-22.0	30.4	-7.6	-20.0	29.8

〈그림 3-17〉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A3_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표 3-24〉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0.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63.2%), 학교 밖 아동(62.8%)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19.0%), 미취학 아동 보호자(27.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53.2%), 권선구(50.6%), 장안구(47.5%), 팔달구(47.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5.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3.5%, 2018년 대비 9.9%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2016년 대비 22.8%, 2018년 대비 18.9%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18.9%, 2018년 대비 14.5% 증가)가 가장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이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8〉 참조).

〈표 3-2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26	8.4	564	37.5	753	50.1	-7.5	-9.9	13.5	-4.5	-8.7	9.9
응답자	초등학생	296	15	5.1	80	27.0	187	63.2	-6.3	-20.1	21.7	-4.4	-15.5	16.8
	중학생	314	9	2.9	90	28.7	195	62.1	-12.7	-14.3	21.0	-8.4	-17.3	19.7
	고등학생	292	19	6.5	103	35.3	158	54.1	-10.7	-12.0	18.6	-7.2	-5.5	9.4
	학교 밖 아동	94	7	7.4	23	24.5	59	62.8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6	16.0	54	54.0	27	27.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24	24.0	55	55.0	19	19.0	8.0	4.0	-14.0	3.0	1.0	-6.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9	14.5	110	55.0	59	29.5	-5.5	2.0	3.5	-1.5	2.0	-1.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7	6.5	49	45.8	49	45.8	-16.5	-8.2	22.8	-8.3	-12.5	18.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1	9.3	133	39.8	159	47.6	-7.3	-7.5	11.8	-7.2	-5.3	10.2
	권선구	360	32	8.9	134	37.2	182	50.6	-7.7	-14.1	18.9	-6.6	-11.2	14.5
	팔달구	179	17	9.5	66	36.9	85	47.5	-11.1	-14.0	19.0	-2.6	-7.9	5.3
	영통구	523	39	7.5	182	34.8	278	53.2	-4.7	-8.3	8.4	-1.1	-11.4	8.8

〈그림 3-1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A3_6.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표 3-25〉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7.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60.1%), 중학생(58.6%)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26.0%), 중·고등학생 보호자(26.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50.3%), 권선구(47.8%), 팔달구(45.3%), 장안구(43.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구가 7.2%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0.9%, 2018년 대비 17.1%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보호자와 미취학 아동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4.5%, 2018년 대비 10.6%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23.0%, 2018년 대비 18.1%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19> 참조).

<표 3-25>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63	4.2	489	32.5	713	47.4	-6.0	-19.7	20.9	-5.7	-17.2	17.1
응답자	초등학생	296	7	2.4	42	14.2	178	60.1	-	-	-	-	-
	중학생	314	4	1.3	70	22.3	184	58.6	-	-	-	-	-
	고등학생	292	12	4.1	87	29.8	148	50.7	-	-	-	-	-
	학교 밖 아동	94	2	2.1	25	26.6	44	46.8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0	10.0	54	54.0	26	26.0	-0.3	5.0	2.0	-2.7	9.7
	초등학생 보호자	100	10	10.0	46	46.0	27	27.0	-2.0	-4.0	-3.0	4.0	-6.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5	7.5	119	59.5	53	26.5	0.5	-2.5	4.5	-2.5	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46	43.0	53	49.5	-8.2	-11.0	14.5	-2.8	-12.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6	4.8	112	33.5	144	43.1	-8.6	-20.2	20.3	-3.6	-19.7
	권선구	360	13	3.6	104	28.9	172	47.8	-5.8	-21.4	23.0	-3.7	-21.1
	팔달구	179	11	6.1	60	33.5	81	45.3	-5.0	-23.2	19.7	-11.5	-10.6
	영통구	523	20	3.8	167	31.9	263	50.3	-4.2	-18.6	19.6	-7.0	-16.6

〈그림 3-1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A3_7.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표 3-2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1.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77.7%), 고등학생(75.0%)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20.0%), 초등학생 보호자(33.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6.3%), 팔달구(60.3%), 장안구(59.9%), 권선구(56.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선구가 9.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5.8%, 2018년 대비 21.0%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41.2%, 2018년 대비 29.2%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28.3%, 2018년 대비 22.3%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0> 참조).

〈표 3-26〉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48	3.2	439	29.2	920	61.2	-5.9	-25.5	25.8	-6.2	-19.9	21.0
응답자	초등학생	296	10	3.4	65	22.0	175	59.1	-2.8	-35.8	23.4	-5.4	-29.3	22.5
	중학생	314	1	0.3	52	16.6	244	77.7	-7.5	-31.4	34.1	-5.0	-28.5	28.1
	고등학생	292	9	3.1	55	18.8	219	75.0	-6.4	-37.3	41.2	-5.0	-27.0	29.2
	학교 밖 아동	94	1	1.1	21	22.3	68	72.3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	8.0	65	65.0	20	20.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12	12.0	49	49.0	33	33.0	-7.0	-9.0	14.0	-13.0	-9.0	19.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5	2.5	90	45.0	101	50.5	-3.5	-16.0	18.5	-8.5	-6.0	15.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42	39.3	60	56.1	-13.1	-12.7	23.1	-9.2	-14.4	2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0	3.0	94	28.1	200	59.9	-4.4	-28.4	24.7	-8.4	-20.7	21.5
	권선구	360	15	4.2	118	32.8	205	56.9	-6.7	-23.0	24.4	-6.4	-16.9	18.5
	팔달구	179	8	4.5	51	28.5	108	60.3	-2.1	-29.8	25.7	-6.7	-21.7	22.2
	영통구	523	13	2.5	134	25.6	347	66.3	-8.2	-24.8	28.3	-3.4	-22.5	22.3

〈그림 3-20〉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A3_8.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

〈표 3-2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1.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2.8%), 중학생(77.4%)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초등학생 보호자(31.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62.6%), 영통구(62.3%), 권선구·장안구(6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권선구·장안구

가 1.5%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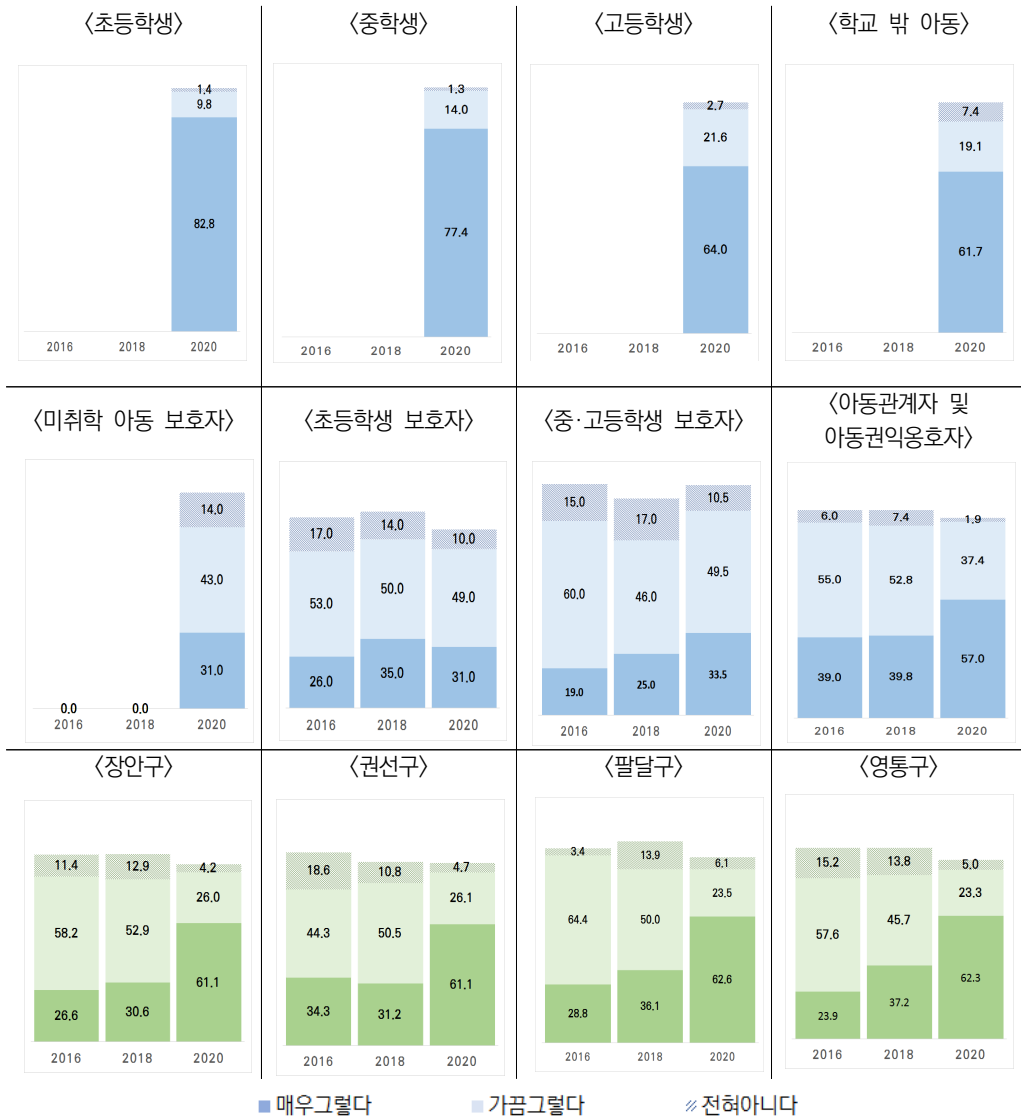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33.4%, 2018년 대비 28.0%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8.0%, 2018년 대비 17.2%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34.5%, 2018년 대비 30.5%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1〉 참조).

〈표 3-2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70	4.7	385	25.6	923	61.4	-8.0	-30.4	33.4	-8.0	-24.1	28.0
응답자	초등학생	296	4	1.4	29	9.8	245	82.8	-	-	-	-	-	-
	중학생	314	4	1.3	44	14.0	243	77.4	-	-	-	-	-	-
	고등학생	292	8	2.7	63	21.6	187	64.0	-	-	-	-	-	-
	학교 밖 아동	94	7	7.4	18	19.1	58	61.7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4	14.0	43	43.0	31	31.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10	10.0	49	49.0	31	31.0	-7.0	-4.0	5.0	-4.0	-1.0	-4.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1	10.5	99	49.5	67	33.5	-4.5	-10.5	14.5	-6.5	3.5	8.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40	37.4	61	57.0	-4.1	-17.6	18.0	-5.5	-15.4	17.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4	4.2	87	26.0	204	61.1	-7.2	-32.2	34.5	-8.7	-26.9	30.5
	권선구	360	17	4.7	94	26.1	220	61.1	-13.9	-18.2	26.8	-6.1	-24.4	29.9
	팔달구	179	11	6.1	42	23.5	112	62.6	2.7	-40.9	33.8	-7.8	-26.5	26.5
	영통구	523	26	5.0	122	23.3	326	62.3	-10.2	-34.3	38.4	-8.8	-22.4	25.1

〈그림 3-21〉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



A3_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없고 서로 존중한다.

〈표 3-2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3.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65.9%), 고등학생(64.7%)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26.0%), 중·고등학생 보호자(27.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56.2%), 영통구(56.1%), 권선구(55.7%), 장안구(5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장안

구가 4.8%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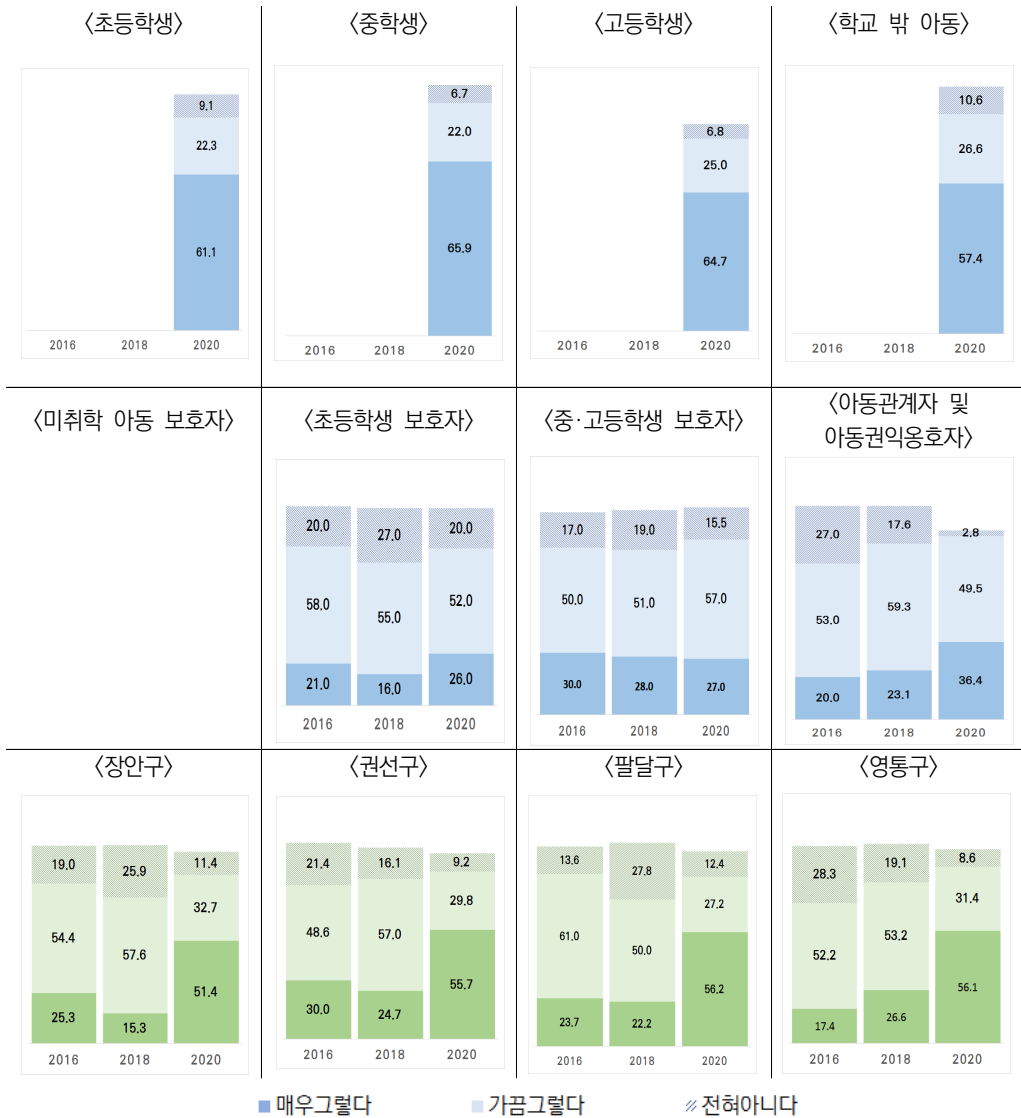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9.8%, 2018년 대비 31.1%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6.4%, 2018년 대비 13.3%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38.7%, 2018년 대비 29.5%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없고 서로 존중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2〉 참조).

〈표 3-2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없고 서로 존중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403	132	9.4	452	32.2	750	53.5	-11.9	-21.5	29.8	-11.7	-23.0	31.1
응답자	초등학생	296	27	9.1	66	22.3	181	61.1	-	-	-	-	-	-
	중학생	314	21	6.7	69	22.0	207	65.9	-	-	-	-	-	-
	고등학생	292	20	6.8	73	25.0	189	64.7	-	-	-	-	-	-
	학교 밖 아동	94	10	10.6	25	26.6	54	57.4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20	20.0	52	52.0	26	26.0	0.0	-6.0	5.0	-7.0	-3.0	1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1	15.5	114	57.0	54	27.0	-1.5	7.0	-3.0	-3.5	6.0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53	49.5	39	36.4	-24.2	-3.5	16.4	-14.8	-9.8	13.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15	36	11.4	103	32.7	162	51.4	-7.6	-21.7	26.1	-14.5	-24.9	36.1
	권선구	325	30	9.2	97	29.8	181	55.7	-12.2	-18.8	25.7	-6.9	-27.2	31.0
	팔달구	169	21	12.4	46	27.2	95	56.2	-1.2	-33.8	32.5	-15.4	-22.8	34.0
	영통구	487	42	8.6	153	31.4	273	56.1	-19.7	-20.8	38.7	-10.5	-21.8	29.5

〈그림 3-2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없고 서로 존중한다.



A3_1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표 3-29〉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2.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82.2%), 학교 밖 아동(79.8%)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46.0%), 중·고등학생 보호자(58.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77.8%), 팔달구(69.8%), 권선구(69.5%), 장안구(6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

구가 8.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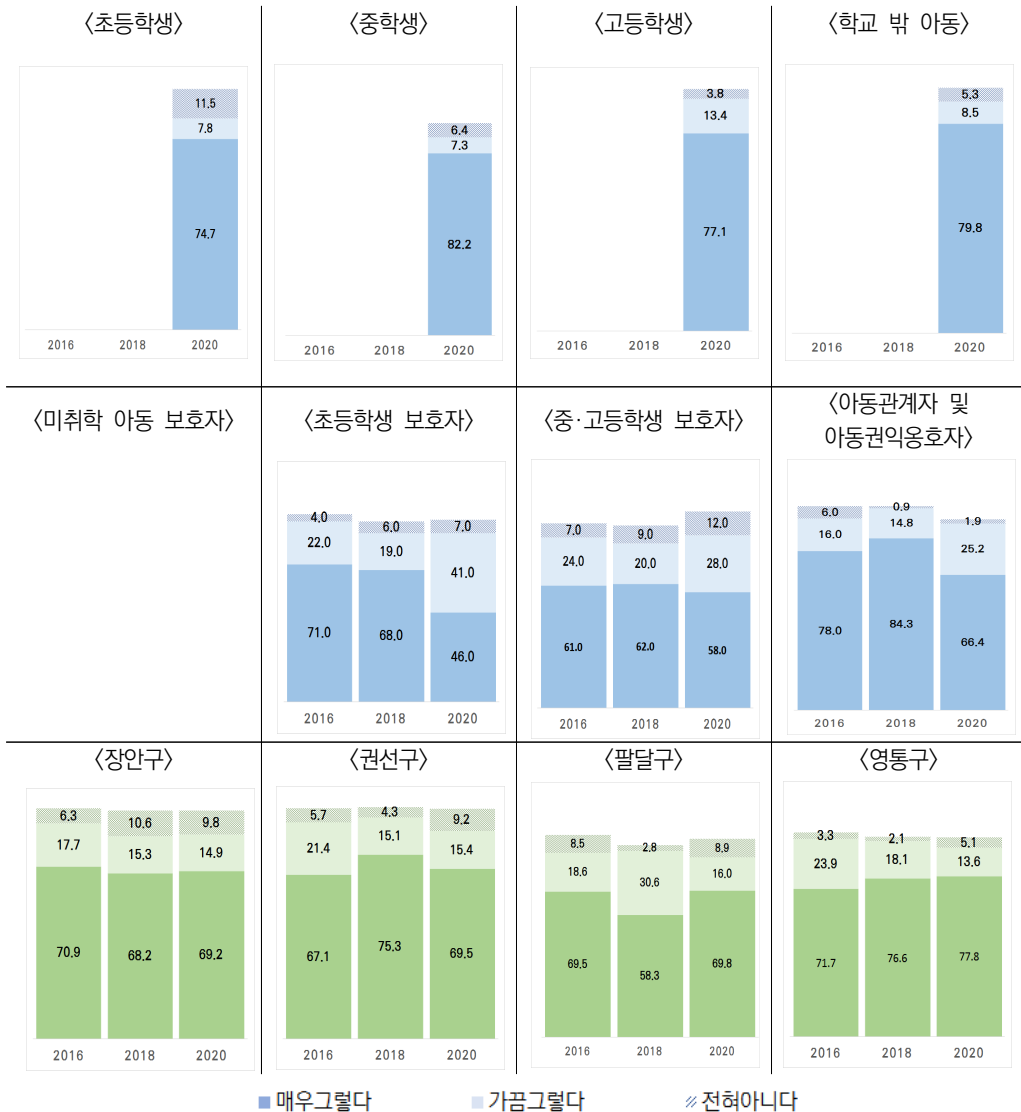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1%, 2018년 대비 0.3%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5.0%, 2018년 대비 -22.0%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와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0.3%, 2018년 대비 11.5%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이전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 보호자의 경우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3〉 참조).

〈표 3-2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403	103	7.3	217	15.5	1,012	72.1	1.6	-5.2	2.1	2.1	-2.4	0.3
응답자	초등학생	296	34	11.5	23	7.8	221	74.7	-	-	-	-	-
	중학생	314	20	6.4	23	7.3	258	82.2	-	-	-	-	-
	고등학생	292	11	3.8	39	13.4	225	77.1	-	-	-	-	-
	학교 밖 아동	94	5	5.3	8	8.5	75	79.8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7	7.0	41	41.0	46	46.0	3.0	19.0	-25.0	1.0	2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4	12.0	56	28.0	116	58.0	5.0	4.0	-3.0	3.0	8.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27	25.2	71	66.4	-4.1	9.2	-11.6	1.0	10.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15	31	9.8	47	14.9	218	69.2	3.5	-2.8	-1.7	-0.8	-0.4
	권선구	325	30	9.2	50	15.4	226	69.5	3.5	-6.0	2.4	4.9	0.3
	팔달구	169	15	8.9	27	16.0	118	69.8	0.4	-2.6	0.3	6.1	-14.6
	영통구	487	25	5.1	66	13.6	379	77.8	1.8	-10.3	6.1	3.0	-4.5

〈그림 3-23〉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A3_1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표 3-3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4.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68.9%), 중학생(62.1%)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25.0%), 중·고등학생 보호자(27.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56.8%), 영통구(54.8%), 권선구(53.5%), 장안구(4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장안

구가 7.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 2018년 대비 -4.4%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32.0%, 2018년 -34.0%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0.2%, 2018년 대비 -10.8% 감소)가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4〉 참조).

〈표 3-30〉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403	63	4.5	404	28.8	757	54.0	-1.5	-8.9	-1.0	-1.0	-5.6	-4.4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40	13.5	204	68.9	-	-	-	-	-
	중학생	314	6	1.9	74	23.6	195	62.1	-	-	-	-	-
	고등학생	292	11	3.8	69	23.6	172	58.9	-	-	-	-	-
	학교 밖 아동	94	6	6.4	20	21.3	41	43.6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10	10.0	56	56.0	25	25.0	5.0	20.0	-32.0	4.0	2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3	11.5	108	54.0	55	27.5	6.5	13.0	-24.5	4.5	19.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37	34.6	65	60.7	-6.1	-1.4	4.7	-1.8	-0.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15	15	4.8	104	33.0	155	49.2	-2.8	-6.2	-0.2	-2.3	0.1
	권선구	325	15	4.6	93	28.6	174	53.5	-4.0	-8.5	-0.8	-0.8	-2.6
	팔달구	169	7	4.1	48	28.4	96	56.8	-1.0	-8.9	-0.8	4.1	-10.5
	영통구	487	24	4.9	122	25.1	267	54.8	1.6	-11.9	-3.9	-1.5	-12.1

〈그림 3-2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A3_1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표 3-3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5.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2.9%), 초등학생(68.9%)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38.0%), 중·고등학생 보호자(39.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

았으며 팔달구(58.6%), 권선구(56.9%), 장안구(54.8%), 영통구(4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장안구가 9.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4.5%, 2018년 대비 10.5%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39.9%, 2018년 대비 34.0%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8.7%, 2018년 대비 14.2%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5〉 참조).

〈표 3-3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403	65	4.6	410	29.2	784	55.9	-6.8	-16.4	14.5	-5.7	-13.1	10.5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43	14.5	204	68.9	-2.6	-20.9	8.9	-4.5	-14.6	6.2
	중학생	314	10	3.2	86	27.4	179	57.0	-7.7	-11.5	7.2	-4.8	-13.3	6.3
	고등학생	292	18	6.2	83	28.4	160	54.8	-14.1	-19.9	23.4	-8.6	-20.9	19.6
	학교 밖 아동	94	5	5.3	32	34.0	47	50.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9	9.0	48	48.0	38	38.0	-6.0	-13.0	18.0	-2.0	-2.0	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7	8.5	92	46.0	78	39.0	-4.5	-14.0	26.0	-13.5	0.0	16.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26	24.3	78	72.9	-4.1	-37.7	39.9	-4.7	-31.3	34.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15	20	6.3	96	30.5	155	49.2	-3.5	-17.1	8.1	-4.1	-12.9	5.4
	권선구	325	16	4.9	82	25.2	185	56.9	-7.6	-19.7	16.9	-5.1	-13.2	7.9
	팔달구	169	9	5.3	43	25.4	99	58.6	-9.6	-18.9	18.7	-6.4	-18.5	14.2
	영통구	487	19	3.9	163	33.5	267	54.8	-6.3	-11.5	11.5	-5.7	-10.0	10.4

〈그림 3-2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A3_1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표 3-32〉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6.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7.3%), 초등학생(61.1%)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25.0%), 초등학생 보호자(26.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7.3%), 영통구(46.2%), 권선구(44.0%), 장안구(42.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장안구가 5.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1.4%, 2018년 대비 -13.3%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0.0%, 2018년 대비 -21.0%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12.2%, 2018년 대비 -18.9%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치고 있다는 인식은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고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3-26〉 참조).

〈표 3-3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403	138	9.8	432	30.8	653	46.5	3.4	-4.5	-11.4	4.8	-3.5	-13.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5	8.4	47	15.9	181	61.1	5.0	-14.3	-5.1	3.8	-8.3	-8.5
	중학생	314	22	7.0	76	24.2	173	55.1	0.5	-4.5	-9.4	3.4	-4.3	-12.6
	고등학생	292	30	10.3	94	32.2	117	40.1	3.5	-6.0	-15.0	6.1	-3.0	-20.1
	학교 밖 아동	94	12	12.8	28	29.8	34	36.2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18	18.0	49	49.0	26	26.0	6.0	5.0	-15.0	9.0	-4.0	-1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9	14.5	107	53.5	50	25.0	7.5	5.5	-20.0	10.5	5.5	-2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31	29.0	72	67.3	-7.1	-14.0	19.3	-8.3	-19.1	25.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15	33	10.5	103	32.7	133	42.2	5.2	-4.9	-14.3	6.8	-6.0	-14.7
	권선구	325	37	11.4	93	28.6	143	44.0	3.5	-6.9	-12.2	4.3	-0.1	-18.9
	팔달구	169	23	13.6	43	25.4	80	47.3	6.6	-10.1	-10.2	9.1	-15.9	-6.1
	영통구	487	43	8.8	162	33.3	225	46.2	2.7	0.2	-14.1	4.1	1.9	-17.0

〈그림 3-26〉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A3_1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표 3-3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2.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2.1%), 초등학생(37.2%)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18.1%), 고등학생(30.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38.1%), 권선구(34.4%), 장안구(31.6%), 영통구(28.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9.8%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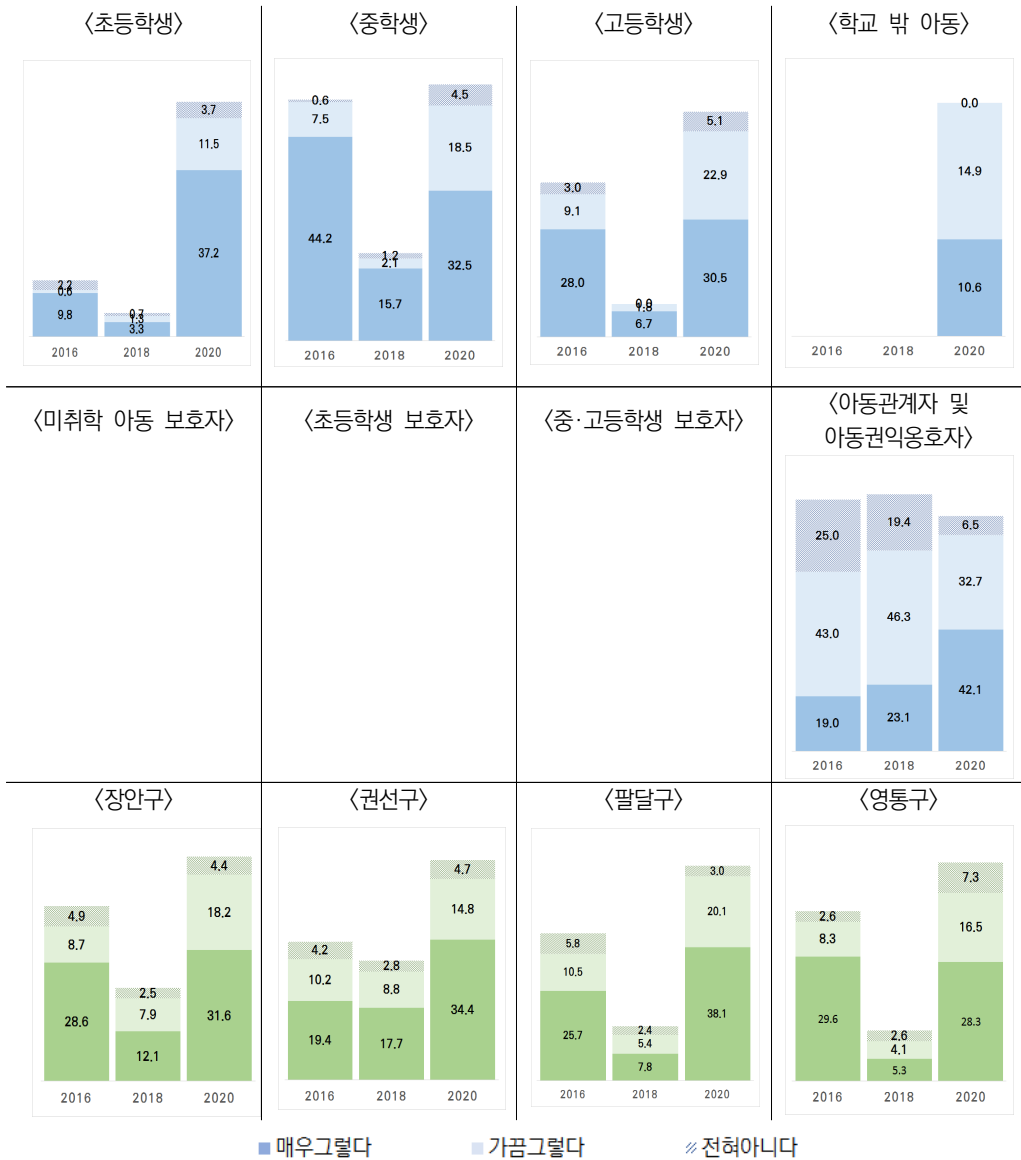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6.4%, 2018년 대비 22.6%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중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27.4%, 2018년 대비 33.9%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2.4%, 2018년 대비 30.3%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7〉 참조).

〈표 3-33〉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103	61	5.5	204	18.5	363	32.9	1.4	9.3	6.4	2.9	12.1	22.6
응답자	초등학생	296	11	3.7	34	11.5	110	37.2	1.5	10.9	27.4	3.0	10.2	33.9
	중학생	314	14	4.5	58	18.5	102	32.5	3.9	11.0	-11.7	3.3	16.4	16.8
	고등학생	292	15	5.1	67	22.9	89	30.5	2.1	13.8	2.5	5.1	21.1	23.8
	학교 밖 아동	94	14	14.9	10	10.6	17	18.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7	6.5	35	32.7	45	42.1	-18.5	-10.3	23.1	-12.9	-13.6	19.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25	10	4.4	41	18.2	71	31.6	-0.5	9.5	3.0	1.9	10.3	19.5
	권선구	256	12	4.7	38	14.8	88	34.4	0.5	4.6	15.0	1.9	6.0	16.7
	팔달구	134	4	3.0	27	20.1	51	38.1	-2.8	9.6	12.4	0.6	14.7	30.3
	영통구	381	28	7.3	63	16.5	108	28.3	4.7	8.2	-1.3	4.7	12.4	23.0

〈그림 3-27〉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A3_15. 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

〈표 3-34〉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7.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5.8%), 고등학생(43.2%)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18.1%), 중·고등학생 보호자(28.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1.4%), 영통구(37.7%), 권선구(35.7%), 장안구(30.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장안구가 10.9%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5.0%, 2018년 대비 2.9%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중·고등학생 보호자의 응답률(2016년 대비 19.5%, 2018년 대비 10.5%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와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12.3%, 2018년 대비 11.4%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28〉 참조).

〈표 3-34〉 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07	39	3.9	238	23.6	373	37.0	-12.1	-18.4	15.0	-7.6	-14.4	2.9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	-	-
	중학생	314	3	1.0	50	15.9	124	39.5	-	-	-	-	-	-
	고등학생	292	8	2.7	66	22.6	126	43.2	-	-	-	-	-	-
	학교 밖 아동	94	1	1.1	13	13.8	17	18.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4	12.0	72	36.0	57	28.5	-8.0	2.0	19.5	-3.0	0.0	1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37	34.6	49	45.8	-9.2	-15.4	10.8	-5.5	-5.2	-3.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13	5	2.3	56	26.3	65	30.5	-14.1	-17.3	12.3	-10.8	-16.3	1.0
	권선구	213	12	5.6	41	19.2	76	35.7	-19.4	-16.2	19.0	-4.8	-9.2	-3.1
	팔달구	116	5	4.3	26	22.4	48	41.4	-8.9	-14.4	12.5	-8.7	-8.0	-10.8
	영통구	358	14	3.9	78	21.8	135	37.7	-6.3	-27.4	12.3	-6.6	-25.6	11.4

〈그림 3-28〉 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

**A3_16.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위탁가정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표 3-35〉의 문항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에게만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9.3%, ‘매우 그렇다’ 38.3%, ‘전혀 아니다’ 2.8%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16년 대비 ‘전혀 아니다’ -13.2%, ‘가끔 그렇다’ -18.7%, ‘매우 그렇다’ 14.3%, 2018년 대비 ‘전혀 아니다’ -9.2%, ‘가끔 그렇다’ -26.4%, ‘매우 그렇다’ 18.9%의 증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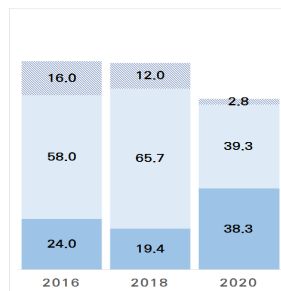
종합하면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9〉 참조).

〈표 3-35〉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위탁가정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7	3	2.8	42	39.3	41	38.3	-13.2	-18.7	14.3	-9.2	-26.4	18.9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42	39.3	41	38.3	-13.2	-18.7	14.3	-9.2	-26.4	18.9

〈그림 3-29〉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위탁가정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매우그렇다

■ 가끔그렇다

/// 전혀아니다

5. 보건과 사회서비스

보건과 사회서비스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와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건강과 발달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출생등록 및 예방접종은 받고 있는지, 성교육은 지도/지원받는지, 지역 내에 쓰레기 및 오수, 매연이나 악취 등은 문제가 없는지, 공중화장실은 구비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들을 질의하였다.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문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36>과 같다.

<표 3-36> ‘보건과 사회서비스’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4_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A4_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A4_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다.					
A4_4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A4_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A4_6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A4_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A4_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맞는다.					
A4_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A4_10	우리 지역사회에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A4_11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아동들을 돌봐 줄 기관 혹은 사람이 있다.					
A4_12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있다.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문항 수	8	8	12	12	12	12

A4_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표 3-3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3.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중·고등학생 보호자(45.5%), 미취학 아동 보호자(45.0%)가 높았고 초등학생(24.3%), 고등학생(28.1%)은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34.2%), 장안구(34.1%), 권선구(32.2%), 팔달구(29.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5.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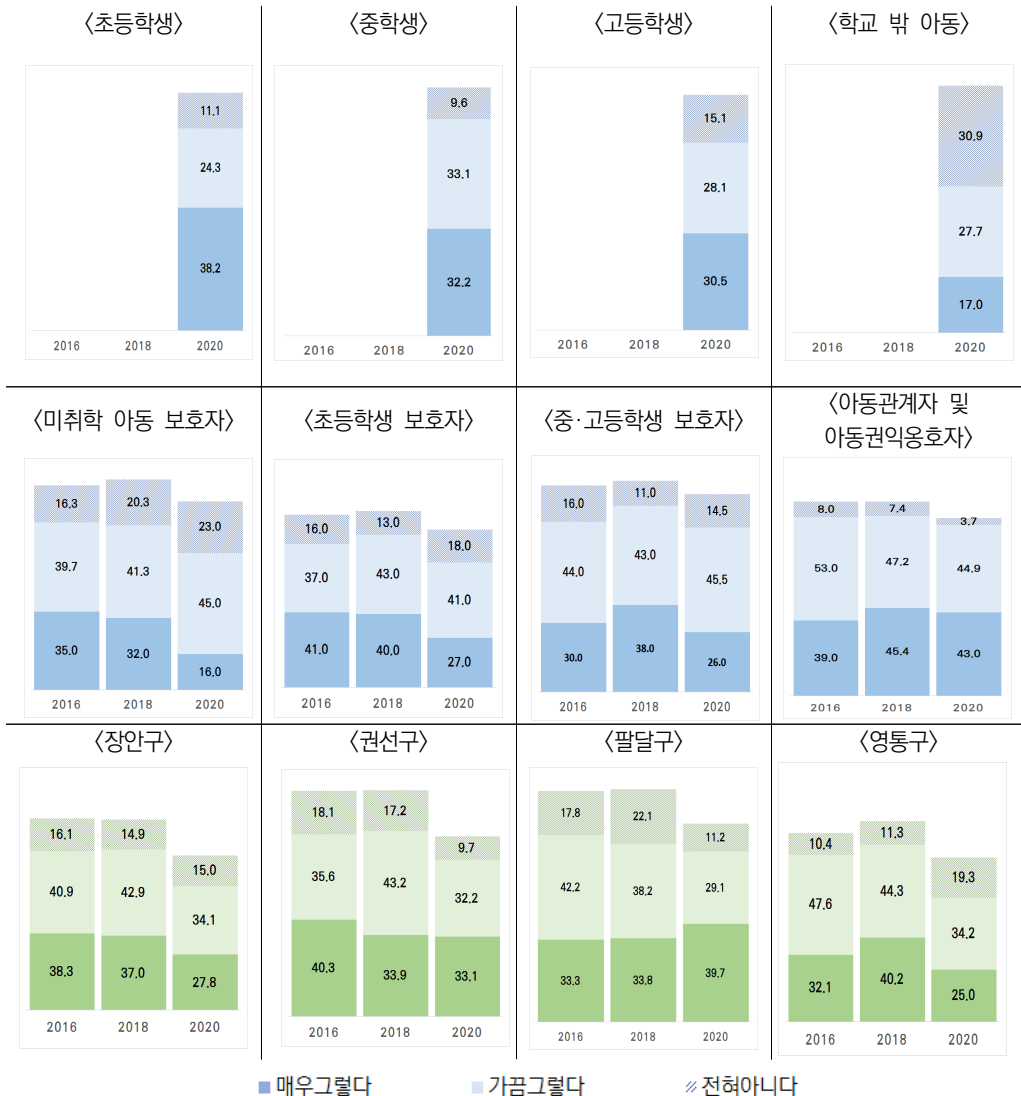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8.3%, 2018년 대비 -9.0%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8.1%, 2018년 대비 -2.3%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13.4%, 2018년 대비 -10.1% 감소)가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에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0〉 참조).

〈표 3-37〉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10	14	509	33.9	460	30.6	-0.8	-8.3	-5.2	-1.3	-9.0	-6.1
응답자	초등학생	296	33	11.1	72	24.3	113	38.2	-	-	-	-	-	-
	중학생	314	30	9.6	104	33.1	101	32.2	-	-	-	-	-	-
	고등학생	292	44	15.1	82	28.1	89	30.5	-	-	-	-	-	-
	학교 밖 아동	94	29	30.9	26	27.7	16	17.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3	23.0	45	45.0	16	16.0	6.7	5.3	-19.0	2.7	3.7	-16.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8	18.0	41	41.0	27	27.0	2.0	4.0	-14.0	5.0	-2.0	-1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9	14.5	91	45.5	52	26.0	-1.5	1.5	-4.0	3.5	2.5	-12.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4	3.7	48	44.9	46	43.0	-4.3	-8.1	4.0	-3.7	-2.3	-2.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0	15.0	114	34.1	93	27.8	-1.1	-6.8	-10.5	0.1	-8.8	-9.2
	권선구	360	35	9.7	116	32.2	119	33.1	-8.4	-3.4	-7.2	-7.5	-11.0	-0.8
	팔달구	179	20	11.2	52	29.1	71	39.7	-6.6	-13.1	6.4	-10.9	-9.1	5.9
	영통구	523	101	19.3	179	34.2	131	25.0	8.9	-13.4	-7.1	8.0	-10.1	-15.2

〈그림 3-3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보호자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A4_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표 3-3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8.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6.1%), 중학생(50.6%)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18.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5.3%), 영통구(37.1%), 권선구(36.9%), 장안구(34.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장안구가 10.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1.9%, 2018년 대비 10.7%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응답률(2016년 대비 15.1%, 2018년 대비 15.4%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13.2%, 2018년 대비 10.5%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1〉 참조).

〈표 3-3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31	8.7	493	32.8	584	38.9	-8.6	-8.9	11.9	-7.5	-9.4	10.7
응답자	초등학생	296	14	4.7	57	19.3	139	47.0	-	-	-	-	-	-
	중학생	314	14	4.5	81	25.8	159	50.6	-	-	-	-	-	-
	고등학생	292	19	6.5	90	30.8	126	43.2	-	-	-	-	-	-
	학교 밖 아동	94	8	8.5	28	29.8	25	26.6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2	22.0	41	41.0	18	18.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20	20.0	46	46.0	21	21.0	-2.0	3.0	2.0	-1.0	3.0	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1	15.5	109	54.5	36	18.0	2.5	13.5	-3.0	0.5	15.5	-1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41	38.3	60	56.1	-14.2	-2.7	15.1	-10.2	-6.1	15.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2	6.6	120	35.9	116	34.7	-12.4	-8.4	10.6	-4.0	-7.6	6.5
	권선구	360	44	12.2	105	29.2	133	36.9	-7.8	-6.5	8.3	-10.4	-5.2	10.0
	팔달구	179	16	8.9	44	24.6	81	45.3	-13.1	-9.3	11.4	-7.8	-19.8	9.2
	영통구	523	46	8.8	183	35.0	194	37.1	-2.1	-13.9	13.2	-6.1	-12.9	10.5

〈그림 3-3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A4_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다.

〈표 3-39〉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8.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7.0%), 중학생(56.4%)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26.0%), 초등학생 보호자(35.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51.2%), 팔달구(50.3%), 권선구(48.3%), 영통구(44.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영통구가 6.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7.3%, 2018년 대비 6.9%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16.1%, 2018년 대비 13.0%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11.4%, 2018년 대비 14.6%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2〉 참조).

〈표 3-3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37	9.1	495	32.9	731	48.6	-8.7	-7.0	7.3	-7.2	-5.4	6.9
응답자	초등학생	296	14	4.7	81	27.4	166	56.1	-15.6	-12.0	16.1	-14.6	-2.3	13.0
	중학생	314	23	7.3	80	25.5	177	56.4	-11.4	-6.6	7.2	-7.8	-9.2	8.3
	고등학생	292	30	10.3	83	28.4	157	53.8	-8.6	-8.8	10.2	-5.2	-6.1	4.2
	학교 밖 아동	94	14	14.9	29	30.9	36	38.3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2	12.0	53	53.0	26	26.0	-4.0	4.0	-6.0	-3.7	4.0	-3.0
	초등학생 보호자	100	21	21.0	37	37.0	35	35.0	-2.0	-11.0	8.0	0.0	-12.0	9.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5	7.5	100	50.0	73	36.5	-5.5	6.0	-3.5	-8.5	8.0	-3.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8	7.5	32	29.9	61	57.0	-0.5	-5.1	0.0	-3.6	-10.8	8.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8	8.4	112	33.5	171	51.2	-3.9	-9.6	7.1	-5.3	-5.6	7.2
	권선구	360	29	8.1	120	33.3	174	48.3	-12.2	-8.0	11.4	-16.6	-4.4	14.6
	팔달구	179	13	7.3	56	31.3	90	50.3	-13.9	-4.6	8.6	-6.8	-8.3	7.2
	영통구	523	59	11.3	175	33.5	235	44.9	-7.3	-4.9	3.1	-1.2	-4.1	-0.8

〈그림 3-32〉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다.



A4_4.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표 3-4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0.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1.7%), 중·고등학생 보호자(42.5%)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초등학생 보호자(34.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44.0%), 팔달구(40.2%), 권선구(35.8%), 장안구(3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구가 11.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4.0%, 2018년 대비 3.0%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4.7%, 2018년 대비 24.7%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와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9.3%, 2018년 대비 2.2%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3〉 참조).

〈표 3-40〉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54	10.2	555	36.9	607	40.4	-3.4	-10.9	4.0	-1.2	-10.2	3.0
응답자	초등학생	296	27	9.1	103	34.8	110	37.2	-1.1	-14.7	-2.8	1.9	-12.6	-3.3
	중학생	314	36	11.5	103	32.8	121	38.5	-5.6	-13.0	1.4	2.3	-18.2	0.2
	고등학생	292	29	9.9	112	38.4	116	39.7	-6.7	-10.9	5.6	0.7	-4.2	-7.1
	학교 밖 아동	94	11	11.7	29	30.9	32	34.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1	11.0	41	41.0	43	43.0	-0.7	-5.3	9.7	-7.0	-4.0	15.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6	16.0	44	44.0	34	34.0	-1.0	-5.0	2.0	2.0	-7.0	1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	9.0	89	44.5	85	42.5	-3.0	-5.5	9.5	-9.0	3.5	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6	5.6	34	31.8	66	61.7	-2.4	-13.2	14.7	-3.7	-21.9	24.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42	12.6	136	40.7	110	32.9	0.3	-12.5	-1.4	0.3	-10.4	1.5
	권선구	360	38	10.6	138	38.3	129	35.8	-3.1	-14.0	5.3	-3.1	-12.3	3.8
	팔달구	179	19	10.6	64	35.8	72	40.2	-8.7	-12.8	9.3	-1.9	-10.1	2.2
	영통구	523	49	9.4	183	35.0	230	44.0	-2.3	-5.3	-0.6	1.1	-7.0	-1.7

〈그림 3-33〉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A4_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표 3-4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3.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74.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9.2%)가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54.0%), 중·고등학생 보호자(54.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6.2%), 팔달구(65.9%), 장안구(62.3%), 권선구(58.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선구가 7.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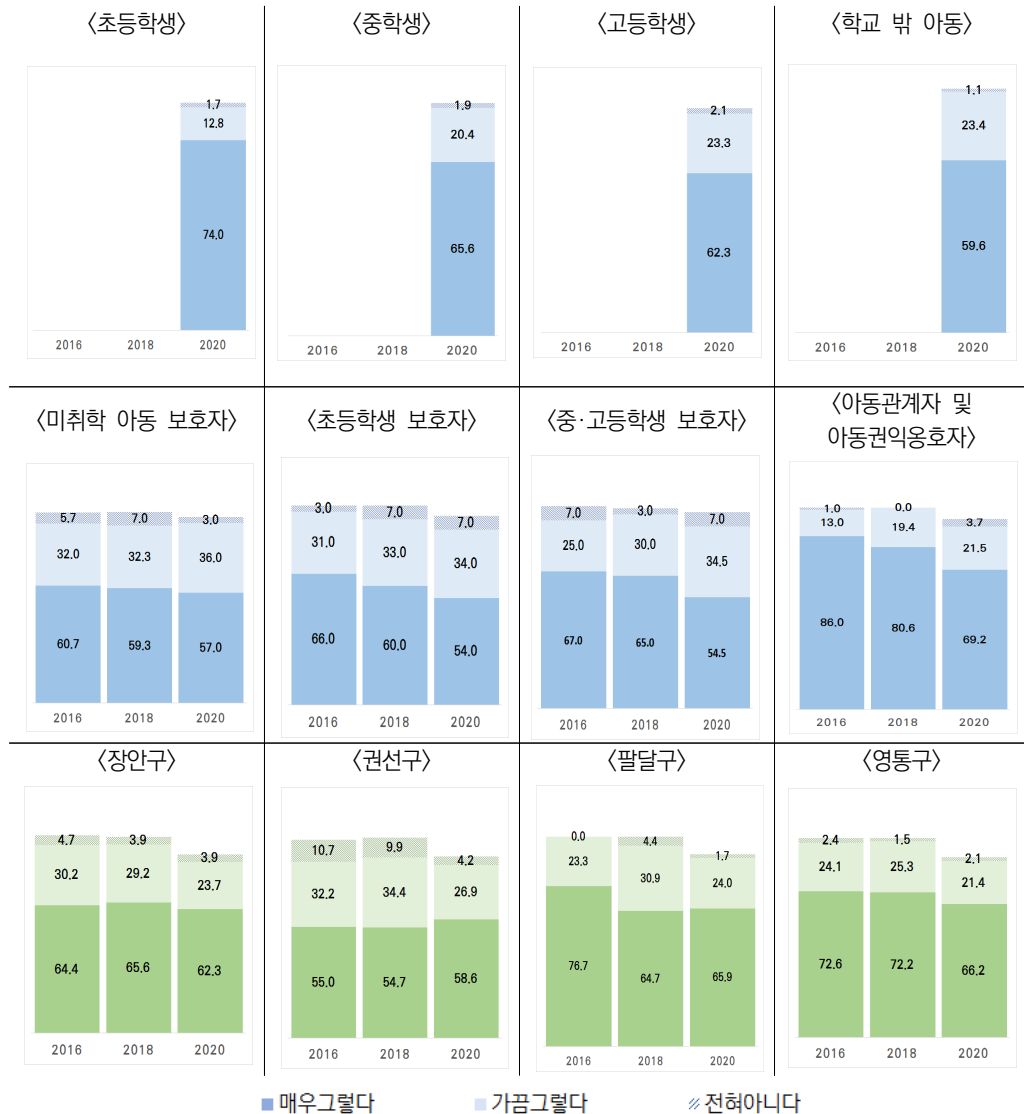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3.1%, 2018년 대비 -0.4%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6.8%, 2018년 대비 -11.4%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6.4%, 2018년 대비 -6.0%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4〉 참조).

〈표 3-41〉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46	3.1	354	23.6	957	63.7	-1.6	-3.9	-3.1	-2.0	-6.2	-0.4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38	12.8	219	74.0	-	-	-	-	-	-
	중학생	314	6	1.9	64	20.4	206	65.6	-	-	-	-	-	-
	고등학생	292	6	2.1	68	23.3	182	62.3	-	-	-	-	-	-
	학교 밖 아동	94	1	1.1	22	23.4	56	59.6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36	36.0	57	57.0	-2.7	4.0	-3.7	-4.0	3.7	-2.3
	초등학생 보호자	100	7	7.0	34	34.0	54	54.0	4.0	3.0	-12.0	0.0	1.0	-6.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4	7.0	69	34.5	109	54.5	0.0	9.5	-12.5	4.0	4.5	-1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4	3.7	23	21.5	74	69.2	2.7	8.5	-16.8	3.7	2.1	-11.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3	3.9	79	23.7	208	62.3	-0.8	-6.5	-2.1	0.0	-5.5	-3.3
	권선구	360	15	4.2	97	26.9	211	58.6	-6.5	-5.3	3.6	-5.7	-7.5	3.9
	팔달구	179	3	1.7	43	24.0	118	65.9	1.7	0.7	-10.8	-2.7	-6.9	1.2
	영통구	523	11	2.1	112	21.4	346	66.2	-0.3	-2.7	-6.4	0.6	-3.9	-6.0

〈그림 3-3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A4_6.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표 3-42〉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5.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58.0%), 중·고등학생 보호자(52.0%)가 높았고 초등학생(38.9%), 중학생(42.4%)은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50.3%), 권선구(44.7%), 영통구(44.0%), 팔달구(4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팔달구가 7.8%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6%, 2018년 대비 -7.0%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이 초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19.3%, 2018년 대비 -17.3%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7.3%, 2018년 대비 -11.2%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는 응답에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5〉 참조).

〈표 3-42〉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86	12.4	685	45.6	488	32.5	-1.3	-10.6	3.4	-5.9	-7.0	5.5
응답자	초등학생	296	36	12.2	115	38.9	94	31.8	3.0	-19.3	1.3	-0.5	-17.3	4.0
	중학생	314	32	10.2	133	42.4	103	32.8	-6.6	-14.9	7.3	-8.8	-11.0	6.7
	고등학생	292	26	8.9	133	45.5	109	37.3	-5.6	-10.2	7.9	-5.2	-5.2	3.1
	학교 밖 아동	94	22	23.4	44	46.8	16	17.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7	17.0	48	48.0	28	28.0	2.3	-6.7	-0.7	-7.3	-4.0	7.7
	초등학생 보호자	100	17	17.0	58	58.0	24	24.0	-1.0	3.0	-3.0	-6.0	7.0	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9	14.5	104	52.0	65	32.5	-0.5	-5.0	6.5	-6.5	1.0	4.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7	6.5	50	46.7	49	45.8	-0.5	-5.3	4.8	-12.9	-2.4	14.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4	10.2	168	50.3	97	29.0	-2.5	-5.8	-0.4	-9.2	-3.3	3.9
	권선구	360	46	12.8	161	44.7	111	30.8	-0.9	-11.4	2.6	-10.2	-7.6	7.6
	팔달구	179	22	12.3	76	42.5	57	31.8	-3.9	-17.3	7.9	-3.4	-11.2	4.0
	영통구	523	77	14.7	230	44.0	174	33.3	1.5	-10.4	1.5	-0.3	-7.5	2.4

〈그림 3-35〉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A4_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표 3-4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5.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1.8%), 중학생(81.8%)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65.0%), 중·고등학생 보호자(6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77.7%), 영통구(76.9%), 장안구(76.6%), 권선구(7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권선

구가 6.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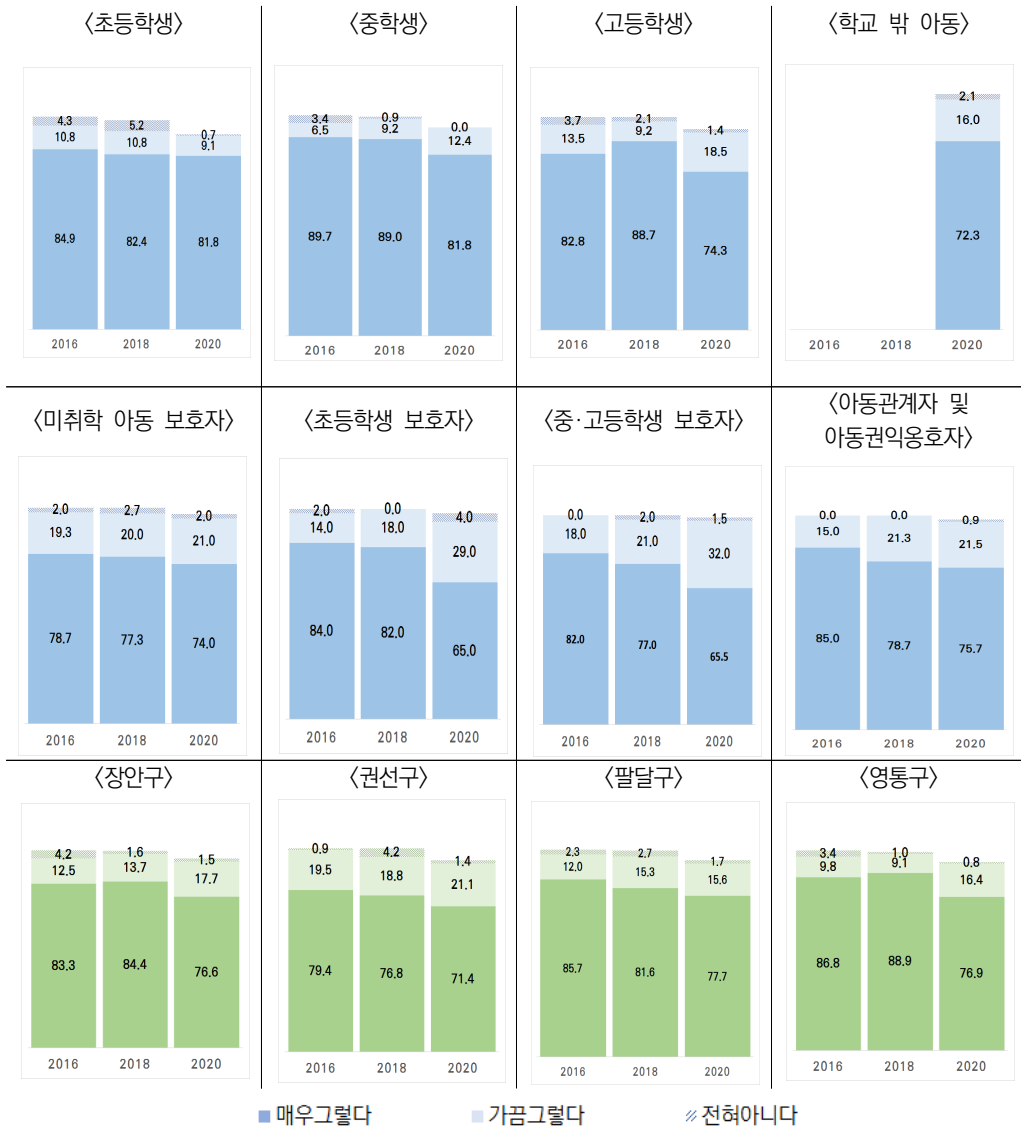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8.5%, 2018년 대비 -7.9%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9.0%, 2018년 대비 -17.0%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9.9%, 2018년 대비 -12.0%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6〉 참조).

〈표 3-4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8	1.2	272	18.1	1,135	75.5	-1.7	5.1	-8.5	-1.1	4.3	-7.9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27	9.1	242	81.8	-3.6	-1.7	-3.1	-4.5	-1.7	-0.6
	중학생	314	0	0.0	39	12.4	257	81.8	-3.4	5.9	-7.9	-0.9	3.2	-7.2
	고등학생	292	4	1.4	54	18.5	217	74.3	-2.3	5.0	-8.5	-0.7	9.3	-14.4
	학교 밖 아동	94	2	2.1	15	16.0	68	72.3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21	21.0	74	74.0	0.0	1.7	-4.7	-0.7	1.0	-3.3
	초등학생 보호자	100	4	4.0	29	29.0	65	65.0	2.0	15.0	-19.0	4.0	11.0	-1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	1.5	64	32.0	131	65.5	1.5	14.0	-16.5	-0.5	11.0	-11.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23	21.5	81	75.7	0.9	6.5	-9.3	0.9	0.2	-3.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	1.5	59	17.7	256	76.6	-2.7	5.2	-6.7	-0.1	4.0	-7.8
	권선구	360	5	1.4	76	21.1	257	71.4	0.5	1.6	-8.0	-2.8	2.3	-5.4
	팔달구	179	3	1.7	28	15.6	139	77.7	-0.6	3.6	-8.0	-1.0	0.3	-3.9
	영통구	523	4	0.8	86	16.4	402	76.9	-2.6	6.6	-9.9	-0.2	7.3	-12.0

〈그림 3-3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A4_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맞는다.

〈표 3-44〉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4.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3.4%), 미취학 아동 보호자(82.0%)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59.6%), 고등학생(64.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78.1%), 영통구(74.4%), 팔달구(70.9%), 권선구(70.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권선구

가 7.5%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0%, 2018년 대비 -11.5%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0.6%, 2018년 대비 -4.9%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14.4%, 2018년 대비 -15.7%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은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맞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7〉 참조).

〈표 3-44〉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맞는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31	2.1	259	17.2	1,116	74.3	1.6	2.2	-10.0	1.1	4.0	-11.5
응답자	초등학생	296	3	1.0	25	8.4	247	83.4	-	-	-	-	-	-
	중학생	314	4	1.3	45	14.3	245	78.0	-	-	-	-	-	-
	고등학생	292	10	3.4	69	23.6	188	64.4	-	-	-	-	-	-
	학교 밖 아동	94	6	6.4	16	17.0	56	59.6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14	14.0	82	82.0	1.3	-2.7	-0.3	0.7	1.7	-4.3
	초등학생 보호자	100	2	2.0	23	23.0	74	74.0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	1.5	52	26.0	139	69.5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15	14.0	85	79.4	0.9	4.0	-10.6	0.9	-1.7	-4.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4	1.2	54	16.2	261	78.1	1.2	1.9	-7.6	0.2	6.9	-11.6
	권선구	360	13	3.6	66	18.3	254	70.6	2.6	4.3	-14.4	2.8	5.3	-15.7
	팔달구	179	3	1.7	35	19.6	127	70.9	1.7	4.5	-14.0	-0.3	1.6	-9.1
	영통구	523	10	1.9	89	17.0	389	74.4	1.2	0.9	-8.2	1.1	2.4	-10.2

〈그림 3-37〉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맞는다.



A4_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표 3-45〉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82.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6.0%)가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78.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85.9%), 권선구(80.8%), 장안구(79.8%), 팔달구(77.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8.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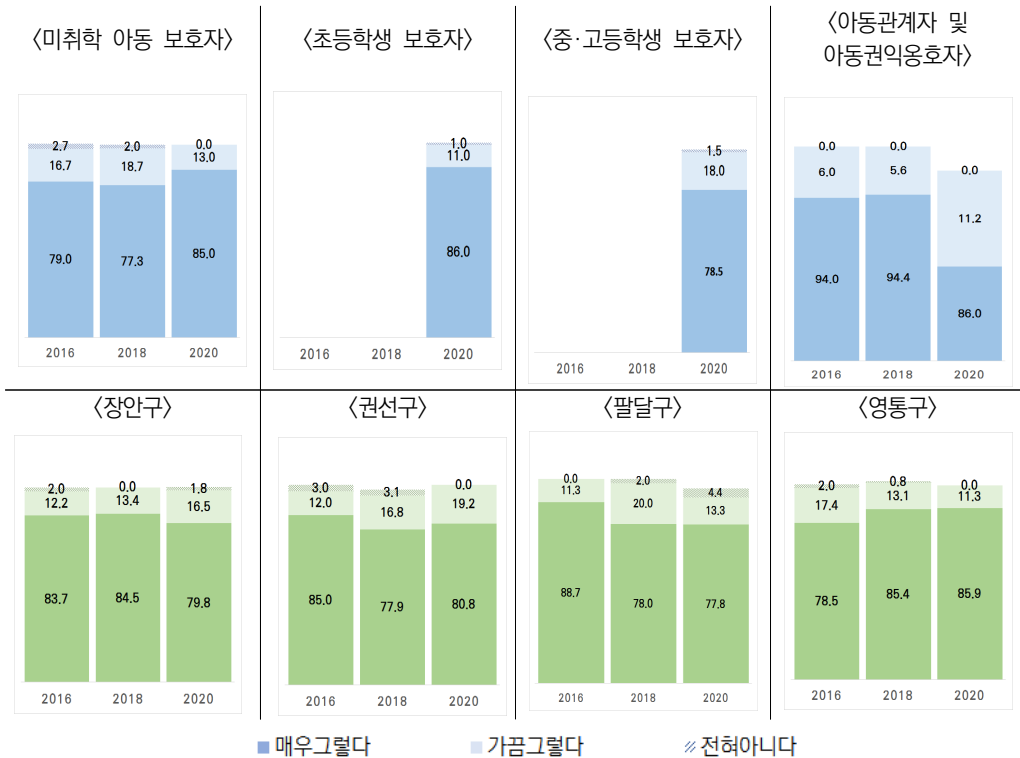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과는 동일하고, 2018년 대비 0.9%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감소하였으나,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2016년 대비 6.0%, 2018년 대비 7.7% 증가하였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7.4%, 2018년 대비 0.5%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인식은 약간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38〉 참조).

〈표 3-4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507	4	0.8	72	14.2	420	82.8	-1.2	0.2	0.0	-0.7	-1.0	0.9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13	13.0	85	85.0	-2.7	-3.7	6.0	-2.0	-5.7	7.7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11	11.0	86	86.0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	1.5	36	18.0	157	78.5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2	11.2	92	86.0	0.0	5.2	-8.0	0.0	5.6	-8.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09	2	1.8	18	16.5	87	79.8	-0.2	4.3	-3.9	1.8	3.1	-4.7
	권선구	104	0	0.0	20	19.2	84	80.8	-3.0	7.2	-4.2	-3.1	2.4	2.9
	팔달구	45	2	4.4	6	13.3	35	77.8	4.4	2.0	-10.9	2.4	-6.7	-0.2
	영통구	142	0	0.0	16	11.3	122	85.9	-2.0	-6.1	7.4	-0.8	-1.8	0.5

〈그림 3-3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A4_10. 우리 지역사회에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표 3-4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0.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중·고등학생 보호자(47.5%)가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29.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46.8%), 팔달구(44.4%), 영통구(43.7%), 권선구(40.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6.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7% 감소, 2018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2016년 대비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16.1% 감소)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8년 대비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 응답률(5.5% 증가)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권선구(-0.5%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대비 팔달구(15.0% 증가)가 가장 크게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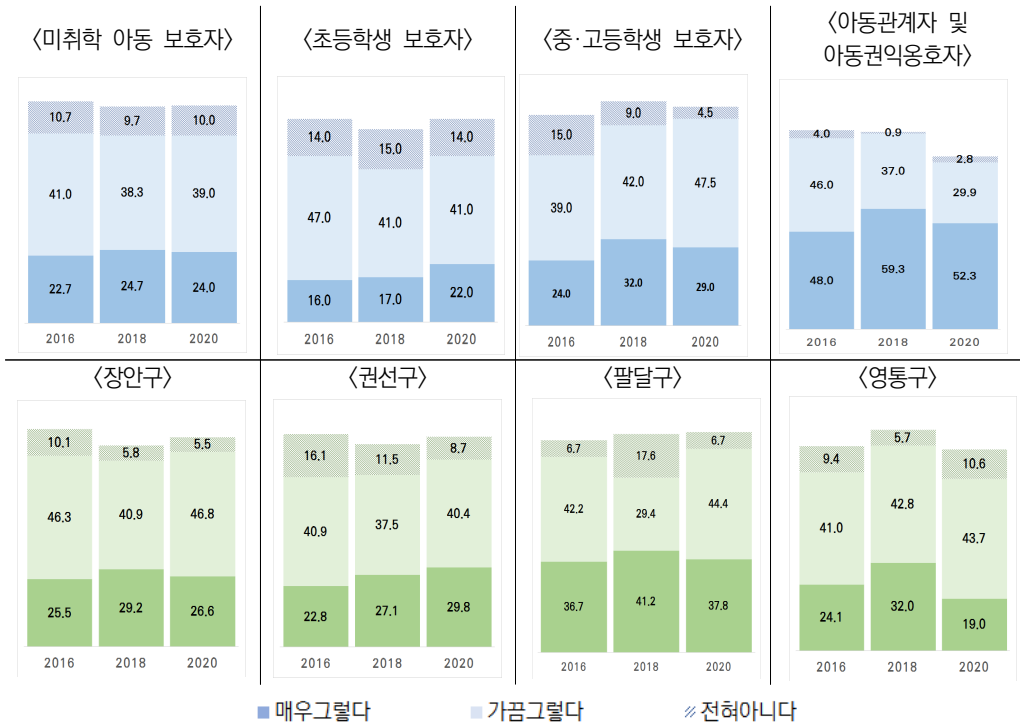
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2016년 조사와 대비하여 약간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 권익옹호자(2016년)와 중·고등학생 보호자(2018년), 학교 소재지/거주별로는 권선구(2016년), 팔달구(2018년)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3-39〉 참조).

〈표 3-46〉 우리 지역사회에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507	36	7.1	207	40.8	160	31.6	-3.7	-1.7	5.6	-1.8	1.7	0.8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0	10.0	39	39.0	24	24.0	-0.7	-2.0	1.3	0.3	0.7	-0.7
	초등학생 보호자	100	14	14.0	41	41.0	22	22.0	0.0	-6.0	6.0	-1.0	0.0	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9	4.5	95	47.5	58	29.0	-10.5	8.5	5.0	-4.5	5.5	-3.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32	29.9	56	52.3	-1.2	-16.1	4.3	1.9	-7.1	-7.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09	6	5.5	51	46.8	29	26.6	-4.6	0.5	1.1	-0.3	5.9	-2.6
	권선구	104	9	8.7	42	40.4	31	29.8	-7.4	-0.5	7.0	-2.8	2.9	2.7
	팔달구	45	3	6.7	20	44.4	17	37.8	0.0	2.2	1.1	-10.9	15.0	-3.4
	영통구	142	15	10.6	62	43.7	27	19.0	1.2	2.7	-5.1	4.9	0.9	-13.0

〈그림 3-39〉 우리 지역사회에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A4_11.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아동들을 돌봐 줄 기관 혹은 사람이 있다.

〈표 3-4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2.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47.0%)가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36.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49.5%), 권선구(42.3%), 팔달구(42.2%), 영통구(4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영통구가 9.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4.8% 감소, 2018년 대비 1.1%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2016년 대비 전 응답자에게서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응답률(-13.6% 감소)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8년 대비 전 응답자에게서 감소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1.3% 감소)가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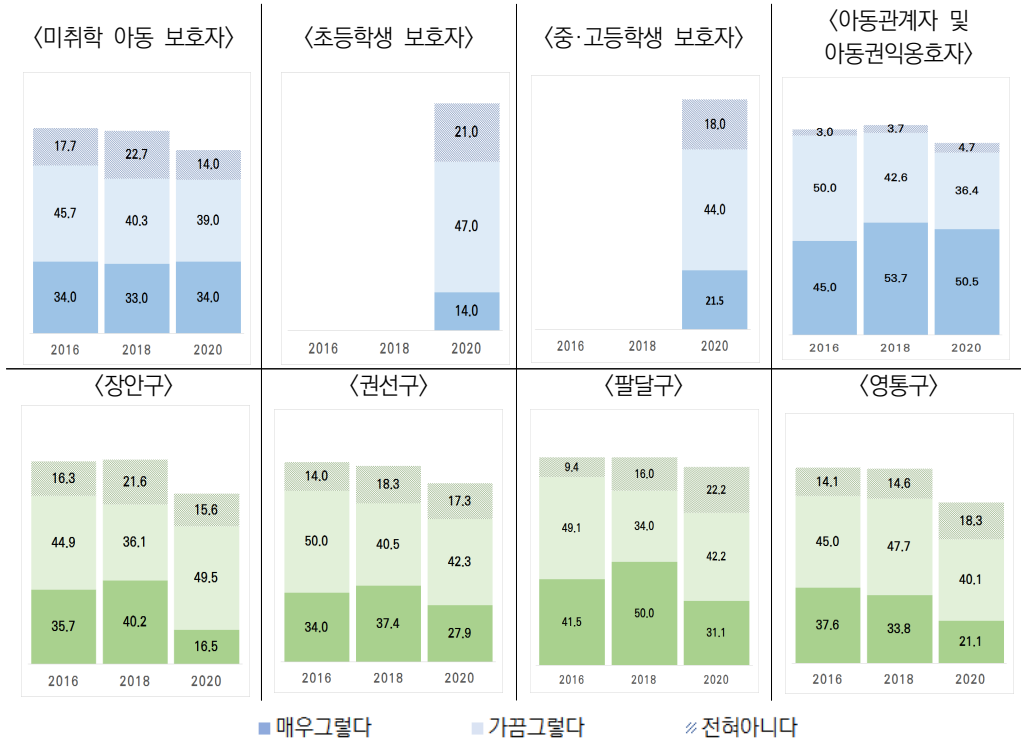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권선구(-7.7%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대비 장안구(13.4%)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아동을 돌봐 줄 기관 혹은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2016년 조사와 대비하여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2016년), 미취학 아동 보호자(2018년), 학교소재지/거주별로는 영통구(2016년), 장안구(2018년)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3-40〉 참조).

〈표 3-47〉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아동들을 돌봐 줄 기관 혹은 사람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507	76	15.0	213	42.0	145	28.6	1.0	-4.8	-8.2	-2.6	1.1	-9.9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4	14.0	39	39.0	34	34.0	-3.7	-6.7	0.0	-8.7	-1.3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21	21.0	47	47.0	14	14.0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6	18.0	88	44.0	43	21.5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5	4.7	39	36.4	54	50.5	1.7	-13.6	5.5	1.0	-6.2	-3.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09	17	15.6	54	49.5	18	16.5	-0.7	4.6	-19.2	-6.0	13.4	-23.7
	권선구	104	18	17.3	44	42.3	29	27.9	3.3	-7.7	-6.1	-1.0	1.8	-9.5
	팔달구	45	10	22.2	19	42.2	14	31.1	12.8	-6.9	-10.4	6.2	8.2	-18.9
	영통구	142	26	18.3	57	40.1	30	21.1	4.2	-4.9	-16.5	3.7	-7.6	-12.7

〈그림 3-40〉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아동들을 돌봐 줄 기관 혹은 사람이 있다.



A4_12.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있다.

〈표 3-4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3.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중·고등학생 보호자(48.5%)가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33.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56.0%), 팔달구(44.4%), 권선구(41.3%), 영통구(4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영통구가 15.2%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0%, 2018년 대비 -6.8%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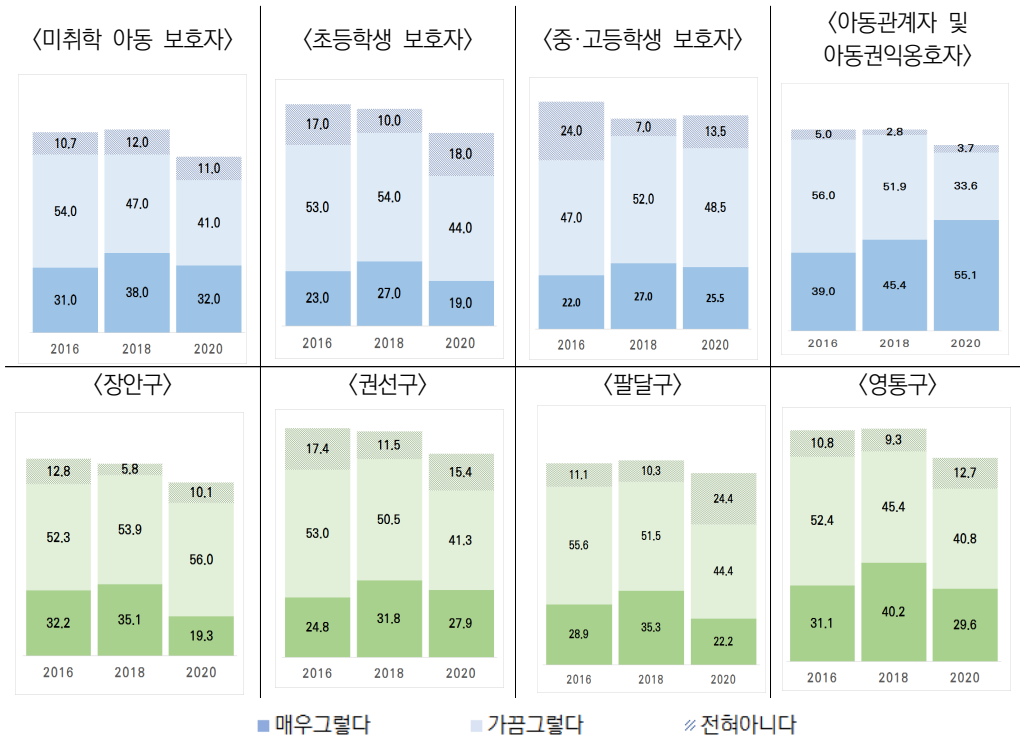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전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2.4%, 2018년 대비 -18.3%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11.7%, 2018년 대비 -9.2%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있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응답률은 감소하였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소재지/거주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3-41〉 참조).

〈표 3-48〉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507	60	11.8	218	43.0	161	31.8	-1.2	-10.0	2.3	2.6	-6.8	-3.9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1	11.0	41	41.0	32	32.0	0.3	-13.0	1.0	-1.0	-6.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8	18.0	44	44.0	19	19.0	1.0	-9.0	-4.0	8.0	-1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7	13.5	97	48.5	51	25.5	-10.5	1.5	3.5	6.5	-3.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4	3.7	36	33.6	59	55.1	-1.3	-22.4	16.1	0.9	-18.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09	11	10.1	61	56.0	21	19.3	-2.7	3.7	-12.9	4.3	2.1
	권선구	104	16	15.4	43	41.3	29	27.9	-2.0	-11.7	3.1	3.9	-9.2
	팔달구	45	11	24.4	20	44.4	10	22.2	13.3	-11.2	-6.7	14.1	-7.1
	영통구	142	18	12.7	58	40.8	42	29.6	1.9	-11.6	-1.5	3.4	-4.6

〈그림 3-41〉 우리 지역사회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연을 구할 곳이 있다.



6.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학교를 다니는지 여부, 집 근처 경제적인 교육시설이 있는지 여부, 학교 내에 남녀차별, 교사의 관심, 건강한 삶의 방식·아동권리협약 교육, 아동을 위한 시설 인프라 및 인권,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항들을 질의하였다.

25개 문항 중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문항이 2020년도 설문문에 새롭게 반영되었다.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문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49〉와 같다.

〈표 3-49〉 ‘교육 환경’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5_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					
A5_2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A5_3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A5_4	아동이 원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A5_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A5_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A5_7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A5_8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A5_9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A5_10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A5_11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A5_12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에 관계없이 존중한다.					
A5_13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					
A5_14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A5_1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A5_1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 없이 가르친다.					
A5_17	아동은 학교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 당할 위험 없이 서로 존중한다.					
A5_18	우리 지역사회 내 학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5_1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A5_20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이 있다.					
A5_21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					
A5_2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A5_23	우리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					
A5_2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A5_25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문항 수	23	23	22	24	24	25

A5_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

〈표 3-5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94.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8.6%), 중학생(98.1%)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73.4%),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96.7%), 권선구(95.6%), 장안구(94.9%), 팔달구(89.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6.8%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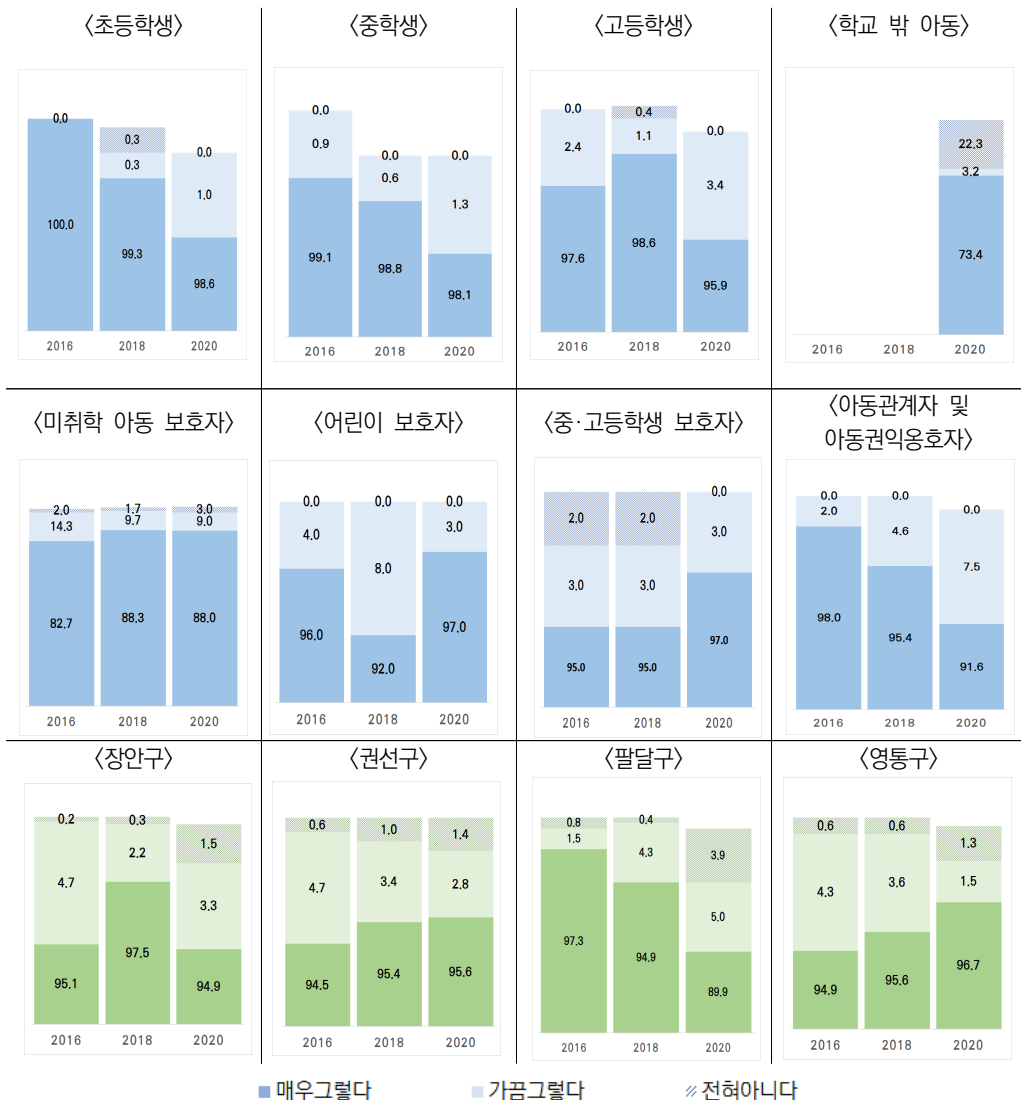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0.4%, 2018년 대비 -1.0%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6.4%, 2018년 대비 -3.8%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와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7.4%, 2018년 대비 -5.0%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2〉 참조).

〈표 3-5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4	1.6	46	3.1	1,426	94.9	1.1	-0.9	-0.4	1.0	-0.2	-1.0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3	1.0	292	98.6	0.0	1.0	-1.4	-0.3	0.7	-0.7
	중학생	314	0	0.0	4	1.3	308	98.1	0.0	0.4	-1.0	0.0	0.7	-0.7
	고등학생	292	0	0.0	10	3.4	280	95.9	0.0	1.0	-1.7	-0.4	2.3	-2.7
	학교 밖 아동	94	21	22.3	3	3.2	69	73.4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9	9.0	88	88.0	1.0	-5.3	5.3	1.3	-0.7	-0.3
	초등학생 보호자	100	0	0.0	3	3.0	97	97.0	0.0	-1.0	1.0	0.0	-5.0	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0	0.0	6	3.0	194	97.0	-2.0	0.0	2.0	-2.0	0.0	2.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8	7.5	98	91.6	0.0	5.5	-6.4	0.0	2.9	-3.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	1.5	11	3.3	317	94.9	1.3	-1.4	-0.2	1.2	1.1	-2.6
	권선구	360	5	1.4	10	2.8	344	95.6	0.8	-1.9	1.1	0.4	-0.6	0.2
	팔달구	179	7	3.9	9	5.0	161	89.9	3.1	3.5	-7.4	3.5	0.7	-5.0
	영통구	523	7	1.3	8	1.5	506	96.7	0.7	-2.8	1.8	0.7	-2.1	1.1

〈그림 3-4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



A5_2.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표 3-5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92.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5.6%), 중·고등학생 보호자(95.0%)가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4.1%),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94.4%), 영통구(93.5%), 장안구(92.2%), 팔달구(89.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

차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5.0%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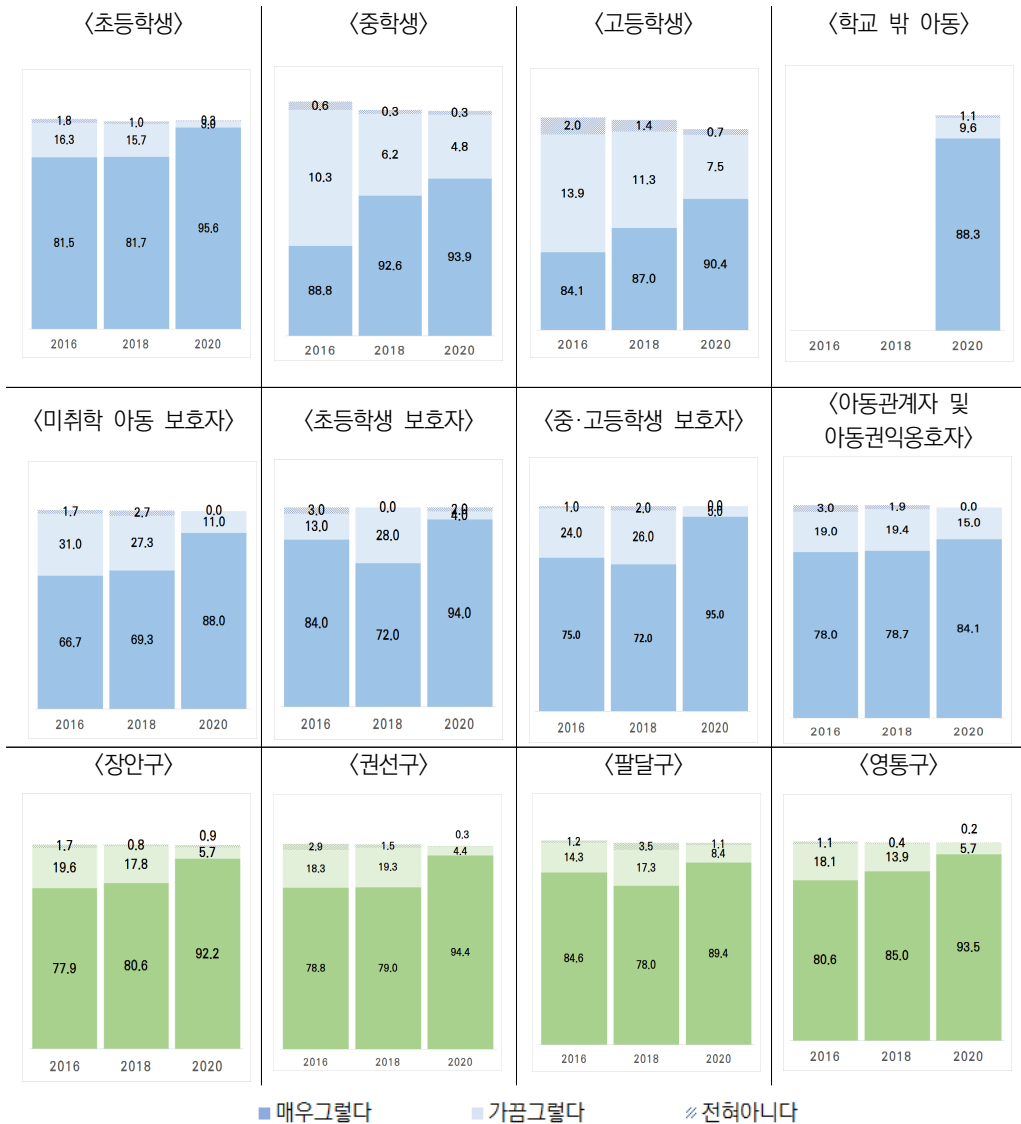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2.1%, 2018년 대비 11.1%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0.0%, 2018년 대비 23.0%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15.6%, 2018년 대비 15.4%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고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3〉 참조).

〈표 3-51〉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7	0.5	96	6.4	1,387	92.3	-1.2	-11.5	12.1	-0.8	-10.4	11.1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9	3.0	283	95.6	-1.5	-13.3	14.1	-0.7	-12.7	13.9
	중학생	314	1	0.3	15	4.8	295	93.9	-0.3	-5.5	5.1	0.0	-1.4	1.3
	고등학생	292	2	0.7	22	7.5	264	90.4	-1.3	-6.4	6.3	-0.7	-3.8	3.4
	학교 밖 아동	94	1	1.1	9	9.6	83	88.3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11	11.0	88	88.0	-1.7	-20.0	21.3	-2.7	-16.3	18.7
	초등학생 보호자	100	2	2.0	4	4.0	94	94.0	-1.0	-9.0	10.0	2.0	-24.0	2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0	0.0	10	5.0	190	95.0	-1.0	-19.0	20.0	-2.0	-21.0	23.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6	15.0	90	84.1	-3.0	-4.0	6.1	-1.9	-4.4	5.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	0.9	19	5.7	308	92.2	-0.8	-13.9	14.3	0.1	-12.1	11.6
	권선구	360	1	0.3	16	4.4	340	94.4	-2.6	-13.9	15.6	-1.2	-14.9	15.4
	팔달구	179	2	1.1	15	8.4	160	89.4	-0.1	-5.9	4.8	-2.4	-8.9	11.4
	영통구	523	1	0.2	30	5.7	489	93.5	-0.9	-12.4	12.9	-0.2	-8.2	8.5

〈그림 3-43〉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A5_3.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표 3-52〉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6.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67.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3.8%)가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24.5%), 초등학생 보호자(26.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56.7%), 영통구(55.4%), 팔달구(54.7%), 장안구(53.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

차는 권선구와 장안구가 3.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7.3%, 2018년 대비 10.3%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25.0%, 2018년 대비 17.7%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20.9%, 2018년 대비 14.2%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4〉 참조).

〈표 3-52〉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82	5.5	460	30.6	848	56.4	-5.5	-16.7	17.3	-2.9	-10.7	10.3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67	22.6	199	67.2	-6.3	-25.1	23.8	-5.2	-12.0	14.6
	중학생	314	9	2.9	79	25.2	203	64.6	-9.6	-22.8	25.0	-6.3	-16.3	17.7
	고등학생	292	15	5.1	68	23.3	190	65.1	-8.8	-19.9	22.9	-6.5	-15.4	15.8
	학교 밖 아동	94	5	5.3	21	22.3	57	60.6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1	11.0	36	36.0	45	45.0	2.7	-14.0	8.0	4.3	-9.3	5.0
	초등학생 보호자	100	8	8.0	56	56.0	26	26.0	-5.0	-2.0	5.0	0.0	-1.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7	13.5	109	54.5	49	24.5	-6.5	0.5	11.5	-0.5	-2.5	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24	22.4	79	73.8	-3.1	-7.6	8.8	0.0	-3.5	1.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5	4.5	112	33.5	177	53.0	-7.3	-15.3	15.5	-4.8	-8.6	8.5
	권선구	360	20	5.6	104	28.9	204	56.7	-2.2	-24.0	20.9	-1.5	-18.0	14.2
	팔달구	179	16	8.9	50	27.9	98	54.7	-4.2	-16.1	13.0	-4.4	-12.5	11.2
	영통구	523	29	5.5	170	32.5	290	55.4	-6.0	-11.6	14.2	-0.8	-4.1	4.1

〈그림 3-44〉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A5_4. 아동이 원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표 3-5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6.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7.6%), 초등학생(75.7%)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44.5%), 중·고등학생 보호자(44.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8.8%), 권선구(66.1%), 팔달구(63.1%), 장안구(6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구가 5.9%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6%, 2018년 대비 0.9%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응답자별 응답률 증감의 차이가 상이하였으며, 고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9.4%, 2018년 대비 0.8%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4.0%, 증가, 2018과 동일)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이 월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5〉 참조).

〈표 3-53〉 아동이 원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9	1.9	378	25.1	1,004	66.8	-0.3	-7.0	2.6	-0.4	-4.6	0.9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44	14.9	224	75.7	-0.3	-8.2	-0.6	-1.0	-5.7	0.9
	중학생	314	3	1.0	63	20.1	233	74.2	-0.9	-7.6	4.4	-0.5	-5.7	2.4
	고등학생	292	5	1.7	63	21.6	209	71.6	-2.7	-11.2	9.4	-2.9	-2.7	0.8
	학교 밖 아동	94	2	2.1	14	14.9	66	70.2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34	34.0	56	56.0	1.3	-6.3	0.0	1.3	-9.7	4.3
	초등학생 보호자	100	5	5.0	47	47.0	44	44.0	3.0	7.0	-10.0	1.0	8.0	-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0	5.0	91	45.5	89	44.5	0.0	-5.5	9.5	2.0	1.5	-4.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22	20.6	83	77.6	-1.0	-1.4	0.6	-0.9	-0.7	-0.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6	1.8	97	29.0	210	62.9	0.1	-6.0	0.2	-0.4	-1.1	-3.2
	권선구	360	4	1.1	89	24.7	238	66.1	-0.6	-8.4	2.7	-1.1	-6.6	1.6
	팔달구	179	9	5.0	48	26.8	113	63.1	0.4	-7.9	4.0	1.1	-3.0	0.0
	영통구	523	10	1.9	122	23.3	360	68.8	0.2	-4.6	0.4	0.3	-4.8	0.7

〈그림 3-45〉 아동이 원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A5_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표 3-54〉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7.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0.4%), 초등학생(76.0%)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56.0%), 중·고등학생 보호자(58.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9.4%), 권선구(68.9%), 장안구(64.7%), 팔달구(60.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9.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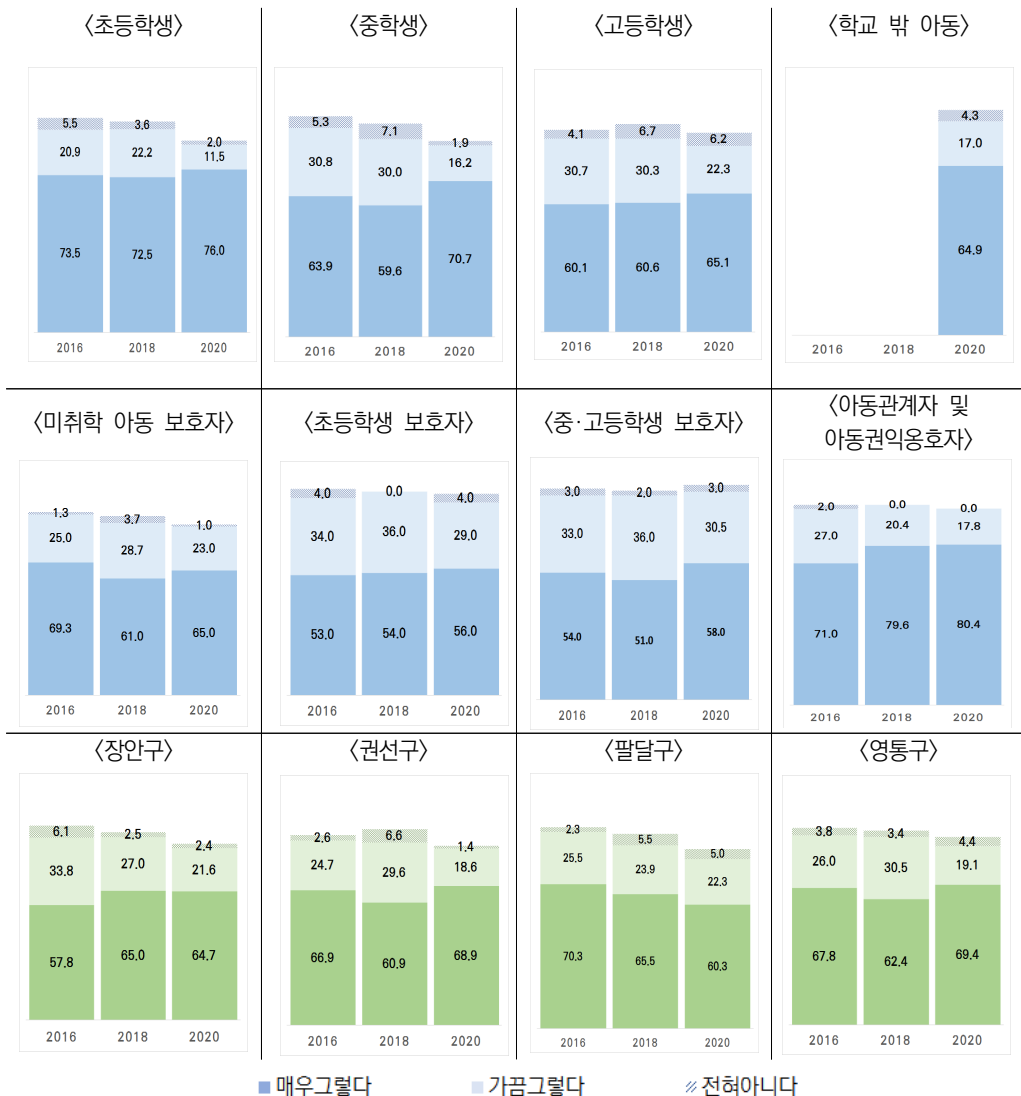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5%, 2018년 대비 4.8%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6.8%, 2018년 대비 11.1%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장안구와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2.0%, 2018년 대비 8.0%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6〉 참조).

〈표 3-54〉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45	3.0	298	19.8	1,021	67.9	-0.9	-7.9	2.5	-1.4	-8.5	4.8
응답자	초등학생	296	6	2.0	34	11.5	225	76.0	-3.5	-9.4	2.5	-1.6	-10.7	3.5
	중학생	314	6	1.9	51	16.2	222	70.7	-3.4	-14.6	6.8	-5.2	-13.8	11.1
	고등학생	292	18	6.2	65	22.3	190	65.1	2.1	-8.4	5.0	-0.5	-8.0	4.5
	학교 밖 아동	94	4	4.3	16	17.0	61	64.9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23	23.0	65	65.0	-0.3	-2.0	-4.3	-2.7	-5.7	4.0
	초등학생 보호자	100	4	4.0	29	29.0	56	56.0	0.0	-5.0	3.0	4.0	-7.0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6	3.0	61	30.5	116	58.0	0.0	-2.5	4.0	1.0	-5.5	7.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9	17.8	86	80.4	-2.0	-9.2	9.4	0.0	-2.6	0.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8	2.4	72	21.6	216	64.7	-3.7	-12.2	6.9	-0.1	-5.4	-0.3
	권선구	360	5	1.4	67	18.6	248	68.9	-1.2	-6.1	2.0	-5.2	-11.0	8.0
	팔달구	179	9	5.0	40	22.3	108	60.3	2.7	-3.2	-10.0	-0.5	-1.6	-5.2
	영통구	523	23	4.4	100	19.1	363	69.4	0.6	-6.9	1.6	1.0	-11.4	7.0

〈그림 3-4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A5_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표 3-55〉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6.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5.0%), 초등학생(78.7%)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42.0%), 초등학생 보호자(45.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65.9%), 권선구(65.8%), 팔달구(65.4%), 영통구(6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영통구가 3.0%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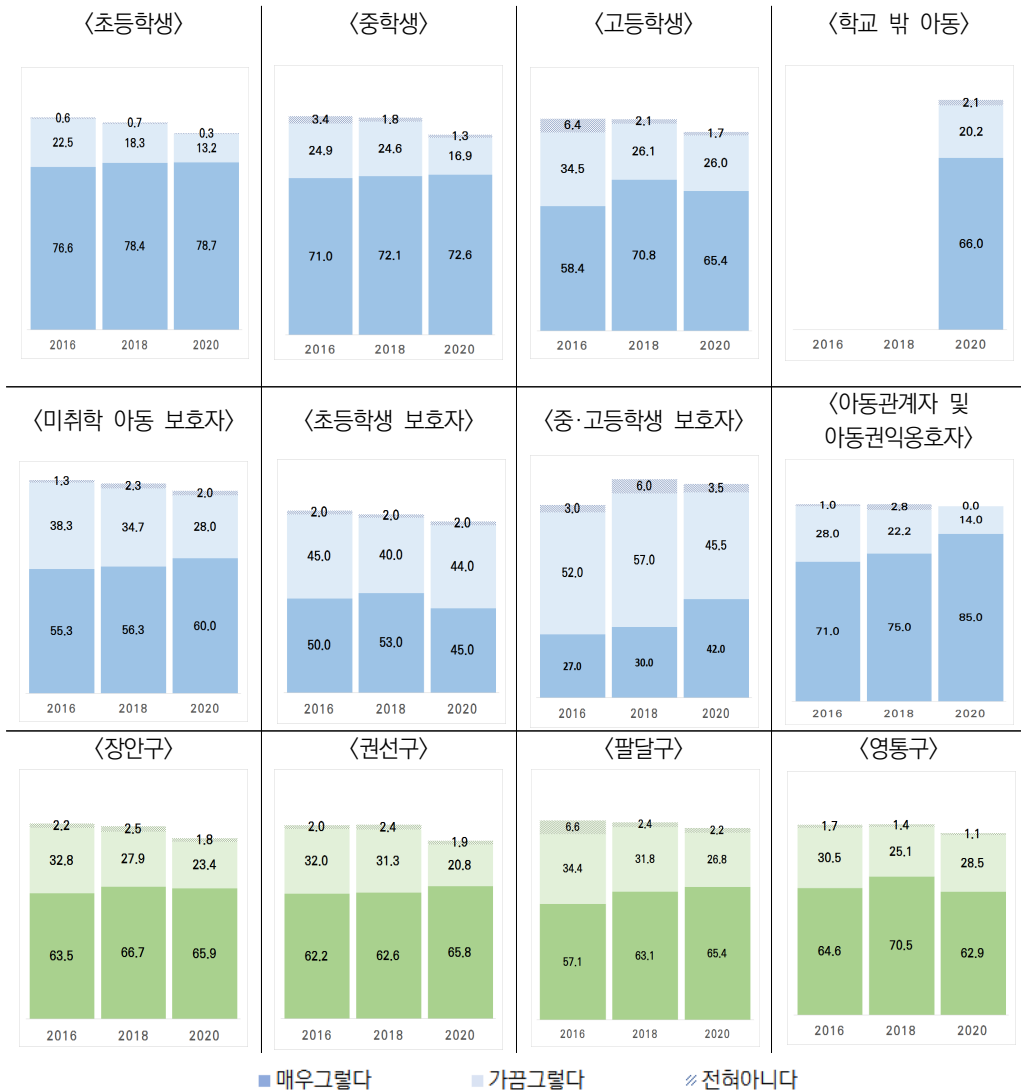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3.6% 증가, 2018년 대비 -0.2%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5.0%, 2018년 대비 12.0%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와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8.3%, 2018년 대비 2.3% 증가)가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증감의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별로는 중·고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7〉 참조).

〈표 3-5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3	1.5	365	24.3	994	66.1	-1.2	-7.8	3.6	-0.6	-4.2	-0.2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39	13.2	233	78.7	-0.3	-9.3	2.1	-0.4	-5.1	0.3
	중학생	314	4	1.3	53	16.9	228	72.6	-2.1	-8.0	1.6	-0.5	-7.7	0.5
	고등학생	292	5	1.7	76	26.0	191	65.4	-4.7	-8.5	7.0	-0.4	-0.1	-5.4
	학교 밖 아동	94	2	2.1	19	20.2	62	66.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28	28.0	60	60.0	0.7	-10.3	4.7	-0.3	-6.7	3.7
	초등학생 보호자	100	2	2.0	44	44.0	45	45.0	0.0	-1.0	-5.0	0.0	4.0	-8.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7	3.5	91	45.5	84	42.0	0.5	-6.5	15.0	-2.5	-11.5	12.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5	14.0	91	85.0	-1.0	-14.0	14.0	-2.8	-8.2	1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6	1.8	78	23.4	220	65.9	-0.4	-9.4	2.4	-0.7	-4.5	-0.8
	권선구	360	7	1.9	75	20.8	237	65.8	-0.1	-11.2	3.6	-0.5	-10.5	3.2
	팔달구	179	4	2.2	48	26.8	117	65.4	-4.4	-7.6	8.3	-0.2	-5.0	2.3
	영통구	523	6	1.1	149	28.5	329	62.9	-0.6	-2.0	-1.7	-0.3	3.4	-7.6

〈그림 3-47〉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A5_7.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표 3-5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6.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4.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3.2%)가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48.0%), 초등학생 보호자(55.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6.7%), 권선구(65.8%), 장안구(65.6%), 팔달구(62.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4.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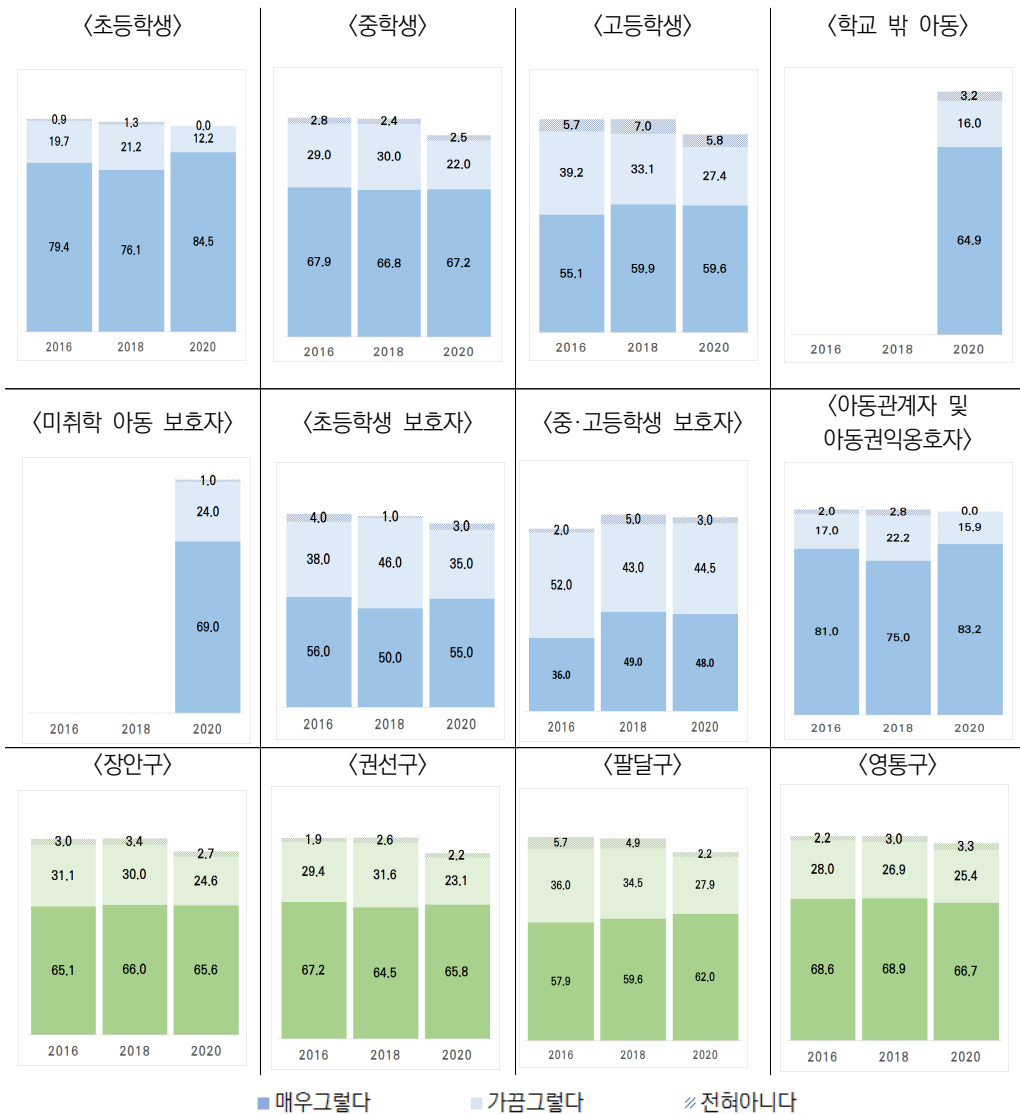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5%, 2018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과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만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5.1%, 2018년 대비 8.4%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팔달구만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4.1%, 2018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8) 참조.

〈표 3-5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38	2.5	365	24.3	1,005	66.9	-0.5	-6.3	1.5	-0.8	-5.9	1.5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36	12.2	250	84.5	-0.9	-7.5	5.1	-1.3	-9.0	8.4
	중학생	314	8	2.5	69	22.0	211	67.2	-0.3	-7.0	-0.7	0.1	-8.0	0.4
	고등학생	292	17	5.8	80	27.4	174	59.6	0.1	-11.8	4.5	-1.2	-5.7	-0.3
	학교 밖 아동	94	3	3.2	15	16.0	61	64.9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24	24.0	69	69.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3	3.0	35	35.0	55	55.0	-1.0	-3.0	-1.0	2.0	-11.0	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6	3.0	89	44.5	96	48.0	1.0	-7.5	12.0	-2.0	1.5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7	15.9	89	83.2	-2.0	-1.1	2.2	-2.8	-6.3	8.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9	2.7	82	24.6	219	65.6	-0.3	-6.5	0.5	-0.7	-5.4	-0.4
	권선구	360	8	2.2	83	23.1	237	65.8	0.3	-6.3	-1.4	-0.4	-8.5	1.3
	팔달구	179	4	2.2	50	27.9	111	62.0	-3.5	-8.1	4.1	-2.7	-6.6	2.4
	영통구	523	17	3.3	133	25.4	349	66.7	1.1	-2.6	-1.9	0.3	-1.5	-2.2

〈그림 3-48〉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A5_8.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표 3-5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5.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5.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1.3%)가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48.0%), 초등학생 보호자(56.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6.3%), 권선구(64.2%), 장안구(62.6%), 팔달구(59.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6.5%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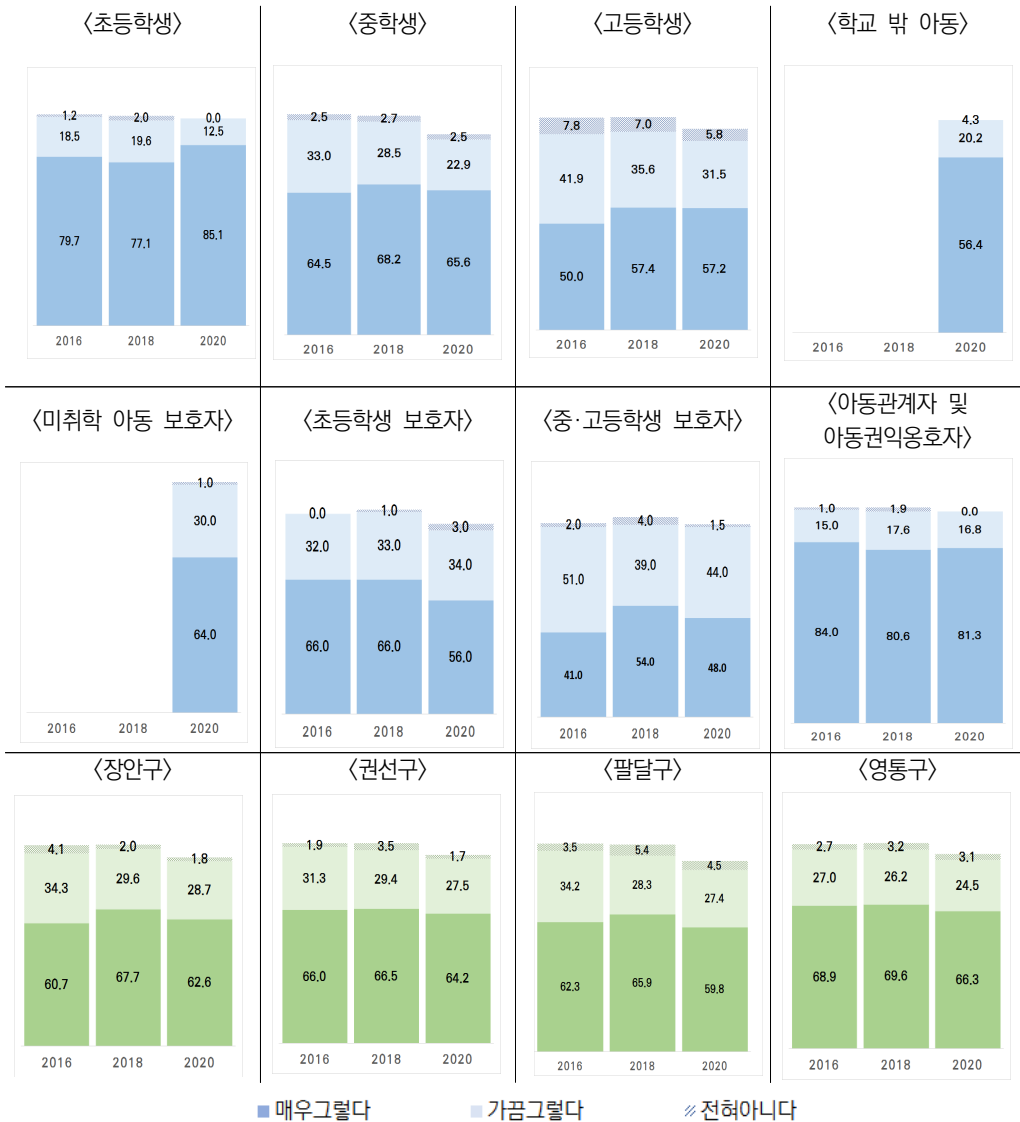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0.5% 증가, 2018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만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5.4%, 2018년 대비 8.0% 증가하였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2.5%, 2018년 대비 -6.1%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49〉 참조).

〈표 3-57〉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36	2.4	390	25.9	981	65.3	-0.7	-5.3	0.5	-1.0	-2.3	-2.4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37	12.5	252	85.1	-1.2	-6.0	5.4	-2.0	-7.1	8.0
	중학생	314	8	2.5	72	22.9	206	65.6	0.0	-10.1	1.1	-0.2	-5.6	-2.6
	고등학생	292	17	5.8	92	31.5	167	57.2	-2.0	-10.4	7.2	-1.2	-4.1	-0.2
	학교 밖 아동	94	4	4.3	19	20.2	53	56.4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30	30.0	64	64.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3	3.0	34	34.0	56	56.0	3.0	2.0	-10.0	2.0	1.0	-1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	1.5	88	44.0	96	48.0	-0.5	-7.0	7.0	-2.5	5.0	-6.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8	16.8	87	81.3	-1.0	1.8	-2.7	-1.9	-0.8	0.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6	1.8	96	28.7	209	62.6	-2.3	-5.6	1.9	-0.2	-0.9	-5.1
	권선구	360	6	1.7	99	27.5	231	64.2	-0.2	-3.8	-1.8	-1.8	-1.9	-2.3
	팔달구	179	8	4.5	49	27.4	107	59.8	1.0	-6.8	-2.5	-0.9	-0.9	-6.1
	영통구	523	16	3.1	128	24.5	347	66.3	0.4	-2.5	-2.6	-0.1	-1.7	-3.3

〈그림 3-49〉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A5_9.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표 3-5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3.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3.2%), 초등학생(82.1%)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38.0%), 중·고등학생 보호자(41.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5.8%), 팔달구(61.5%), 권선구(60.8%), 장안구(59.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구가 6.2%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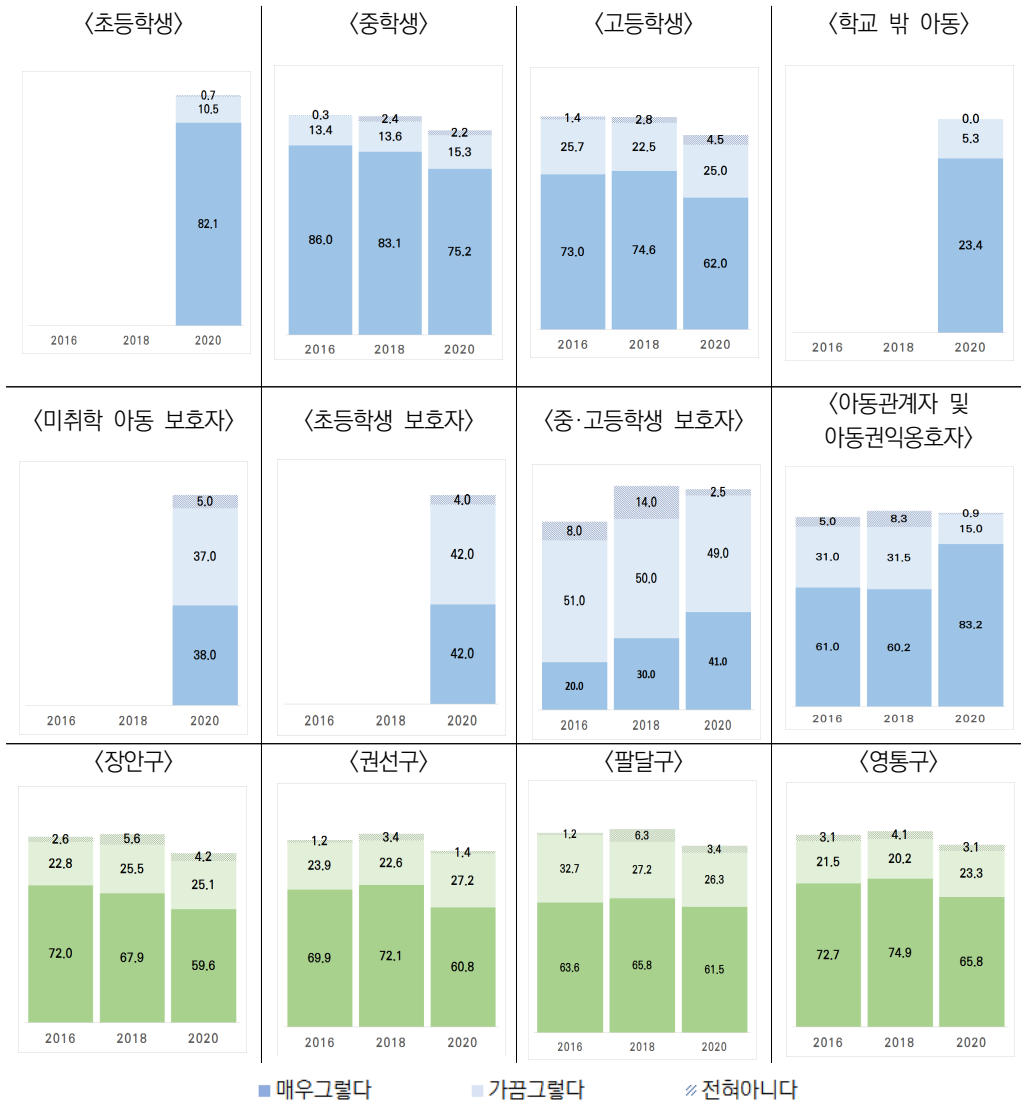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6.2%, 2018년 대비 -6.9%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중·고등학생 보호자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11.0%, 2018년 대비 -12.6%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12.4%, 2018년 대비 -8.3% 감소)가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0〉 참조).

〈표 3-58〉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42	2.8	367	24.4	961	63.9	0.6	-0.2	-6.2	-1.9	1.0	-6.9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31	10.5	243	82.1	-	-	-	-	-	-
	중학생	314	7	2.2	48	15.3	236	75.2	1.9	1.9	-10.8	-0.2	1.7	-7.9
	고등학생	292	13	4.5	73	25.0	181	62.0	3.1	-0.7	-11.0	1.7	2.5	-12.6
	학교 밖 아동	94	5	5.3	22	23.4	50	53.2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37	37.0	38	38.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4	4.0	42	42.0	42	42.0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5	2.5	98	49.0	82	41.0	-5.5	-2.0	21.0	-11.5	-1.0	1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16	15.0	89	83.2	-4.1	-16.0	22.2	-7.4	-16.5	23.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4	4.2	84	25.1	199	59.6	1.6	2.3	-12.4	-1.4	-0.4	-8.3
	권선구	360	5	1.4	98	27.2	219	60.8	0.2	3.3	-9.1	-2.0	4.6	-11.3
	팔달구	179	6	3.4	47	26.3	110	61.5	2.2	-6.4	-2.1	-2.9	-0.9	-4.3
	영통구	523	16	3.1	122	23.3	344	65.8	0.0	1.8	-6.9	-1.0	3.1	-9.1

〈그림 3-50〉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A5_10.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표 3-59〉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7.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7.9%), 초등학생(85.1%)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61.0%), 중·고등학생 보호자(64.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80.3%), 팔달구(77.1%), 권선구(75.3%), 장안구(7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장안구가 6.0%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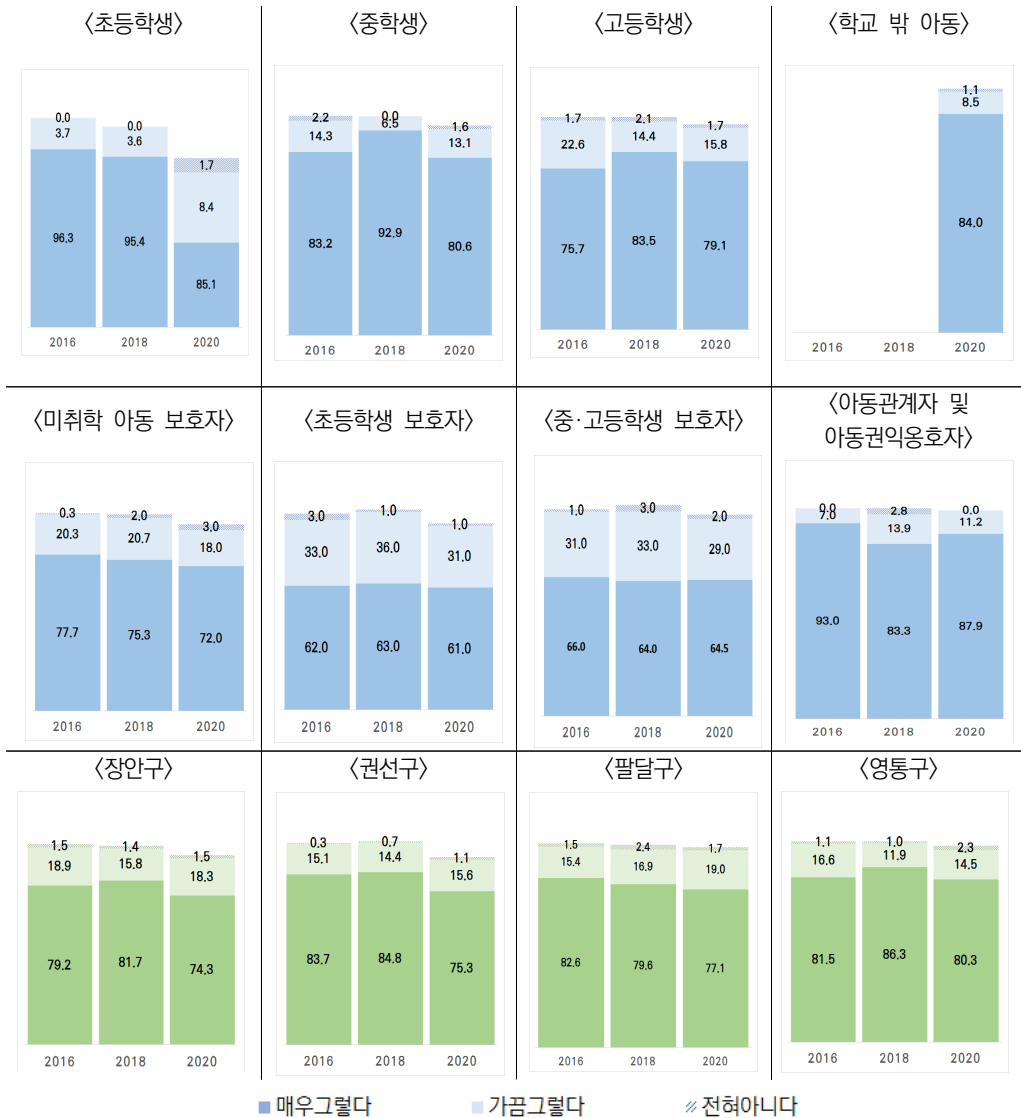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3.7%, 2018년 대비 -5.8%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11.2%, 2018년 대비 -10.3%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8.4%, 2018년 대비 -9.5%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1〉 참조).

〈표 3-59〉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4	1.6	239	15.9	1,171	77.9	0.5	-0.8	-3.7	0.4	1.6	-5.8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25	8.4	252	85.1	1.7	4.7	-11.2	1.7	4.8	-10.3
	중학생	314	5	1.6	41	13.1	253	80.6	-0.6	-1.2	-2.6	1.6	6.6	-12.3
	고등학생	292	5	1.7	46	15.8	231	79.1	0.0	-6.8	3.4	-0.4	1.4	-4.4
	학교 밖 아동	94	1	1.1	8	8.5	79	84.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18	18.0	72	72.0	2.7	-2.3	-5.7	1.0	-2.7	-3.3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31	31.0	61	61.0	-2.0	-2.0	-1.0	0.0	-5.0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4	2.0	58	29.0	129	64.5	1.0	-2.0	-1.5	-1.0	-4.0	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2	11.2	94	87.9	0.0	4.2	-5.1	-2.8	-2.7	4.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	1.5	61	18.3	248	74.3	0.0	-0.6	-4.9	0.1	2.5	-7.4
	권선구	360	4	1.1	56	15.6	271	75.3	0.8	0.5	-8.4	0.4	1.2	-9.5
	팔달구	179	3	1.7	34	19.0	138	77.1	0.2	3.6	-5.5	-0.7	2.1	-2.5
	영통구	523	12	2.3	76	14.5	420	80.3	1.2	-2.1	-1.2	1.3	2.6	-6.0

〈그림 3-51〉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A5_11.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표 3-6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5.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7.9%), 학교 밖 아동(83.0%)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64.0%), 중·고등학생 보호자(68.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77.5%), 영통구(76.3%), 팔달구(71.5%), 권선구(7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6.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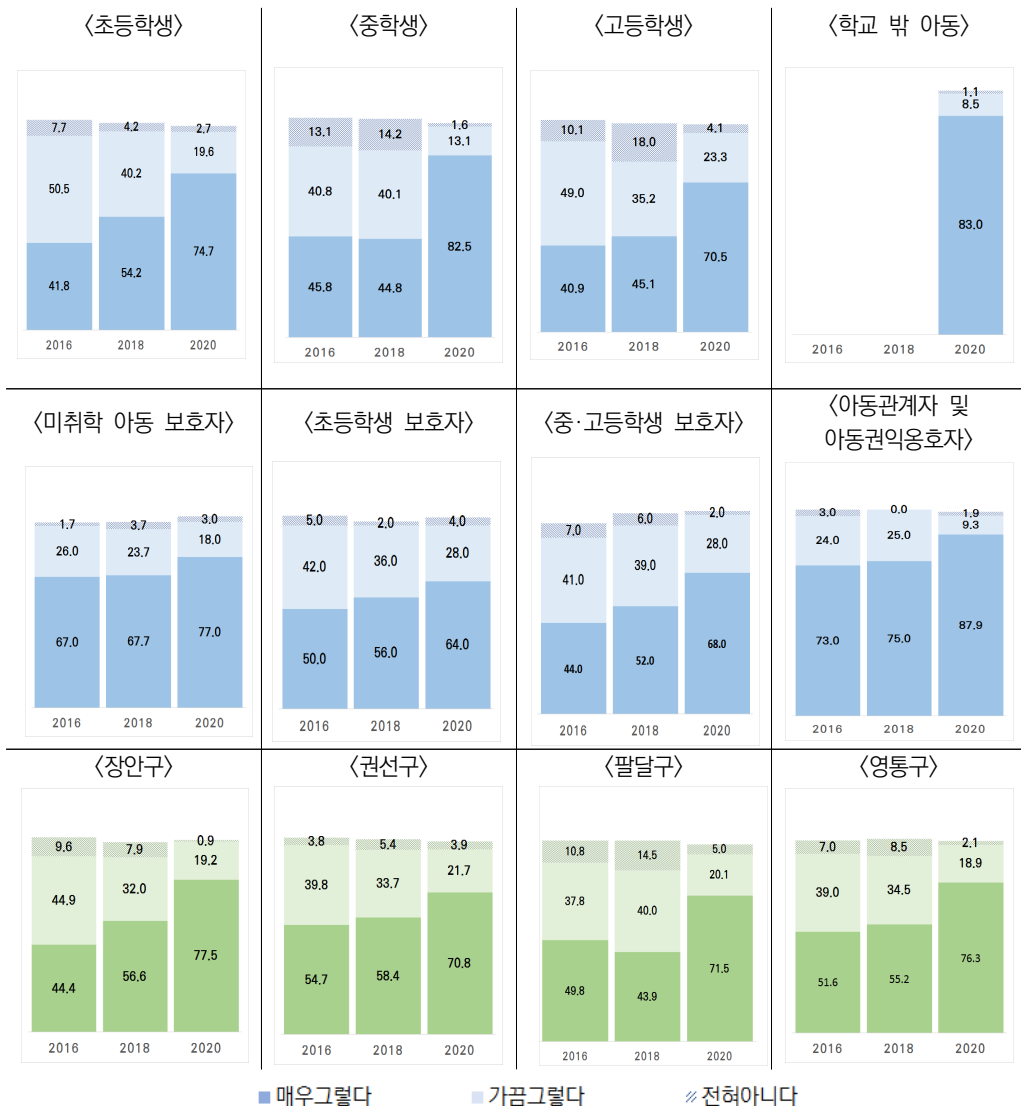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5.4%, 2018년 대비 21.0%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36.7%, 2018년 대비 37.7%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33.1%, 2018년 대비 20.9%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2〉 참조).

〈표 3-60〉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39	2.6	287	19.1	1,135	75.5	-5.0	-21.4	25.4	-5.9	-15.5	21.0
응답자	초등학생	296	8	2.7	58	19.6	221	74.7	-5.0	-30.9	32.9	-1.5	-20.6	20.5
	중학생	314	5	1.6	41	13.1	259	82.5	-11.5	-27.7	36.7	-12.6	-27.0	37.7
	고등학생	292	12	4.1	68	23.3	206	70.5	-6.0	-25.7	29.6	-13.9	-11.9	25.4
	학교 밖 아동	94	1	1.1	8	8.5	78	83.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18	18.0	77	77.0	1.3	-8.0	10.0	-0.7	-5.7	9.3
	초등학생 보호자	100	4	4.0	28	28.0	64	64.0	-1.0	-14.0	14.0	2.0	-8.0	8.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4	2.0	56	28.0	136	68.0	-5.0	-13.0	24.0	-4.0	-11.0	16.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10	9.3	94	87.9	-1.1	-14.7	14.9	1.9	-15.7	12.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	0.9	64	19.2	259	77.5	-8.7	-25.7	33.1	-7.0	-12.8	20.9
	권선구	360	14	3.9	78	21.7	255	70.8	0.1	-18.1	16.1	-1.5	-12.0	12.4
	팔달구	179	9	5.0	36	20.1	128	71.5	-5.8	-17.7	21.7	-9.5	-19.9	27.6
	영통구	523	11	2.1	99	18.9	399	76.3	-4.9	-20.1	24.7	-6.4	-15.6	21.1

〈그림 3-52〉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A5_12.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에 관계없이 존중한다.

〈표 3-6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0.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4.1%), 초등학생(79.1%)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56.5%), 초등학생 보호자(59.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72.1%), 팔달구(68.2%), 장안구(68.0%), 권선구(67.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선구가 4.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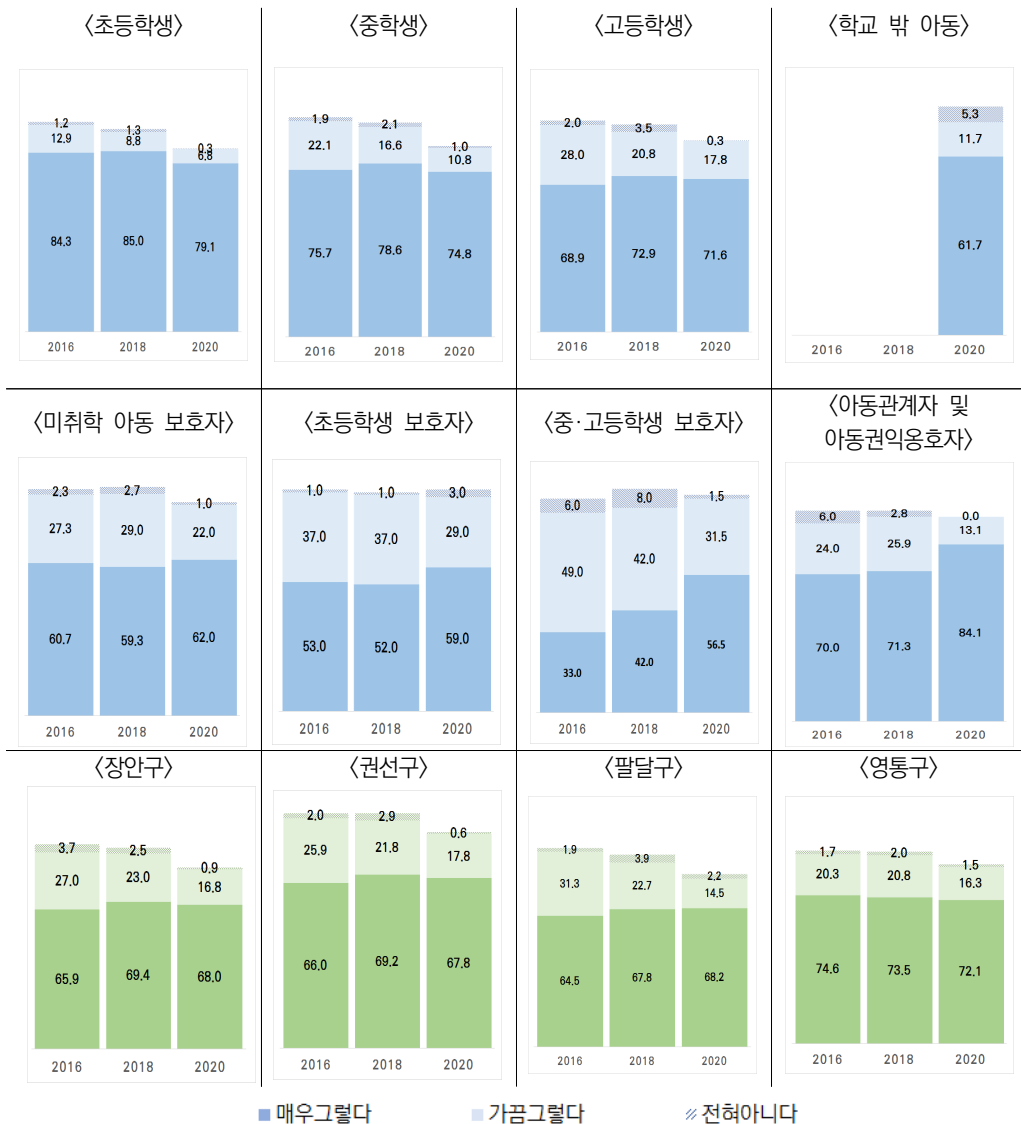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8%, 2018년 대비 0.1%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3.5%, 2018년 대비 14.5%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만 2016년 대비 3.7%, 2018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에 관계없이 존중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고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3〉 참조).

〈표 3-61〉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에 관계없이 존중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7	1.1	245	16.3	1,060	70.5	-1.2	-8.9	1.8	-1.6	-5.6	0.1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20	6.8	234	79.1	-0.9	-6.1	-5.2	-1.0	-2.0	-5.9
	중학생	314	3	1.0	34	10.8	235	74.8	-0.9	-11.3	-0.9	-1.1	-5.8	-3.8
	고등학생	292	1	0.3	52	17.8	209	71.6	-1.7	-10.2	2.7	-3.2	-3.0	-1.3
	학교 밖 아동	94	5	5.3	11	11.7	58	61.7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22	22.0	62	62.0	-1.3	-5.3	1.3	-1.7	-7.0	2.7
	초등학생 보호자	100	3	3.0	29	29.0	59	59.0	2.0	-8.0	6.0	2.0	-8.0	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	1.5	63	31.5	113	56.5	-4.5	-17.5	23.5	-6.5	-10.5	14.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4	13.1	90	84.1	-6.0	-10.9	14.1	-2.8	-12.8	12.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	0.9	56	16.8	227	68.0	-2.8	-10.2	2.1	-1.6	-6.2	-1.4
	권선구	360	2	0.6	64	17.8	244	67.8	-1.4	-8.1	1.8	-2.3	-4.0	-1.4
	팔달구	179	4	2.2	26	14.5	122	68.2	0.3	-16.8	3.7	-1.7	-8.2	0.4
	영통구	523	8	1.5	85	16.3	377	72.1	-0.2	-4.0	-2.5	-0.5	-4.5	-1.4

〈그림 3-53〉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에 관계없이 존중한다.



A5_13.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

〈표 3-62〉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2.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0.4%), 초등학생(74.3%)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43.6%),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48.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61.7%), 영통구(61.6%), 팔달구(61.5%), 장안구(61.4%) 순으로 나타

났다. 지역 간 격차는 권선구와 장안구가 0.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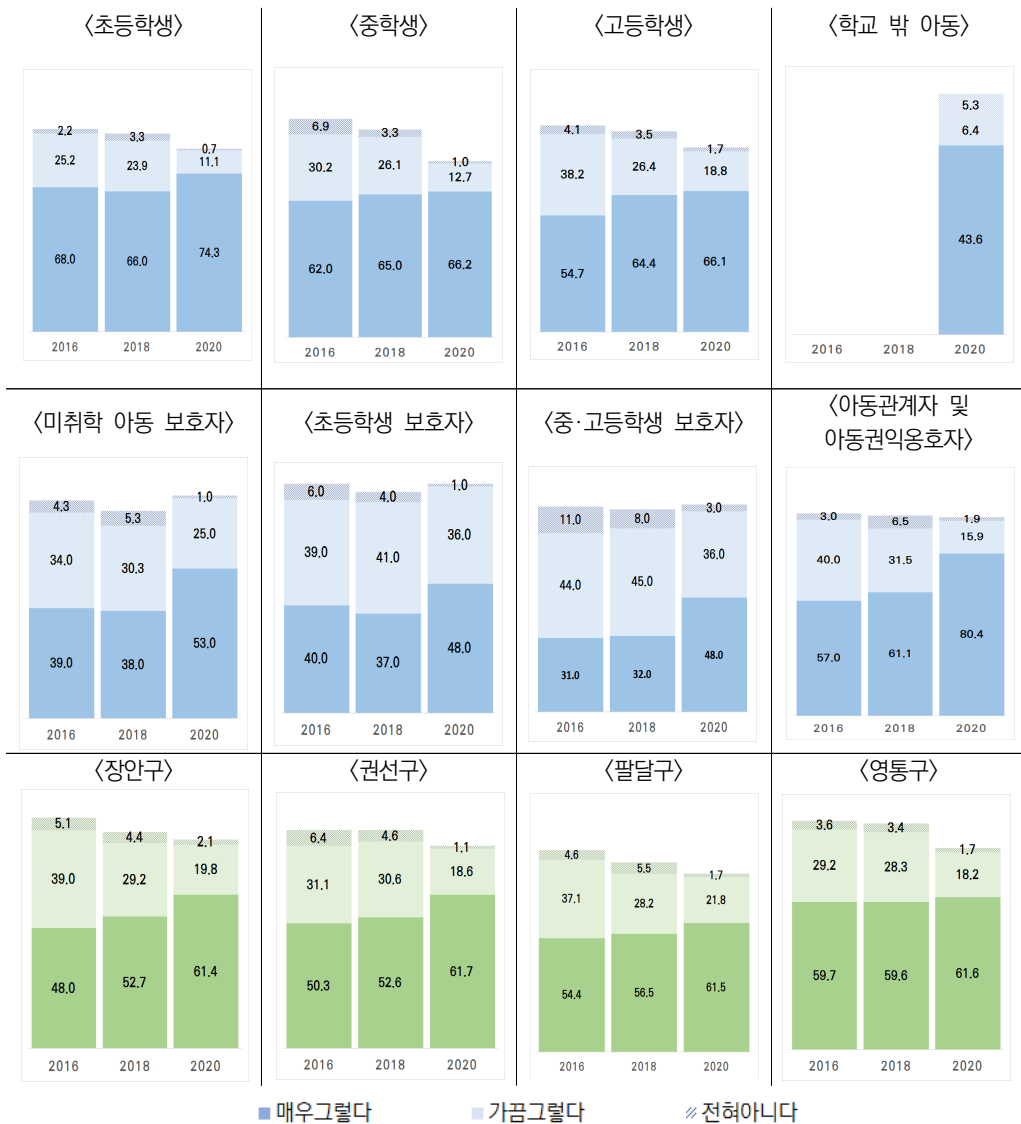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9.3%, 2018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3.4%, 2018년 대비 19.3%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13.4%, 2018년 대비 8.7%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의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4> 참조).

〈표 3-62〉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5	1.7	284	18.9	945	62.9	-3.1	-14.6	9.3	-2.6	-10.2	7.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33	11.1	220	74.3	-1.5	-14.1	6.3	-2.6	-12.8	8.3
	중학생	314	3	1.0	40	12.7	208	66.2	-5.9	-17.5	4.2	-2.3	-13.4	1.2
	고등학생	292	5	1.7	55	18.8	193	66.1	-2.4	-19.4	11.4	-1.8	-7.6	1.7
	학교 밖 아동	94	5	5.3	6	6.4	41	43.6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25	25.0	53	53.0	-3.3	-9.0	14.0	-4.3	-5.3	15.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36	36.0	48	48.0	-5.0	-3.0	8.0	-3.0	-5.0	1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6	3.0	72	36.0	96	48.0	-8.0	-8.0	17.0	-5.0	-9.0	16.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17	15.9	86	80.4	-1.1	-24.1	23.4	-4.6	-15.6	19.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7	2.1	66	19.8	205	61.4	-3.0	-19.2	13.4	-2.3	-9.4	8.7
	권선구	360	4	1.1	67	18.6	222	61.7	-5.3	-12.5	11.4	-3.5	-12.0	9.1
	팔달구	179	3	1.7	39	21.8	110	61.5	-2.9	-15.3	7.1	-3.8	-6.4	5.0
	영통구	523	9	1.7	95	18.2	322	61.6	-1.9	-11.0	1.9	-1.7	-10.1	2.0

〈그림 3-54〉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



A5_14.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표 3-6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1.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6.6%), 중학생(75.2%)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35.1%), 미취학 아동 보호자(41.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

(69.3%), 장안구(60.2%), 권선구(58.9%), 영통구(58.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11.0%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5.3%, 2018년 대비 9.4%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30.7%, 2018년 대비 20.5%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21.9%, 2018년 대비 25.8%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5〉 참조).

〈표 3-63〉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49	3.3	304	20.2	924	61.5	-9.5	-18.3	15.3	-5.8	-15.2	9.4
응답자	초등학생	296	15	5.1	25	8.4	186	62.8	-9.1	-22.7	9.0	-3.7	-18.7	4.3
	중학생	314	2	0.6	30	9.6	236	75.2	-13.7	-25.6	25.4	-9.2	-26.3	21.8
	고등학생	292	4	1.4	51	17.5	207	70.9	-14.5	-25.4	30.7	-11.3	-18.4	20.5
	학교 밖 아동	94	16	17.0	24	25.5	33	35.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33	33.0	41	41.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2	2.0	39	39.0	44	44.0	-4.0	-7.0	5.0	-3.0	1.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8	4.0	81	40.5	95	47.5	-8.0	-11.5	25.5	-5.0	-9.5	1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21	19.6	82	76.6	-1.1	-19.4	17.6	-1.0	-20.2	18.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8	2.4	68	20.4	201	60.2	-7.1	-27.2	18.5	-7.0	-11.9	4.3
	권선구	360	10	2.8	74	20.6	212	58.9	-10.8	-16.0	12.9	-6.6	-16.8	8.3
	팔달구	179	4	2.2	37	20.7	124	69.3	-14.9	-12.6	21.9	-9.0	-20.1	25.8
	영통구	523	26	5.0	104	19.9	305	58.3	-7.7	-15.1	8.9	-2.4	-13.2	3.0

〈그림 3-5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A5_1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표 3-64〉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2.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0.4%), 초등학생(77.7%)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35.1%), 중·고등학생 보호자(41.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63.3%), 권선구(59.7%), 장안구(59.3%), 팔달구(5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4.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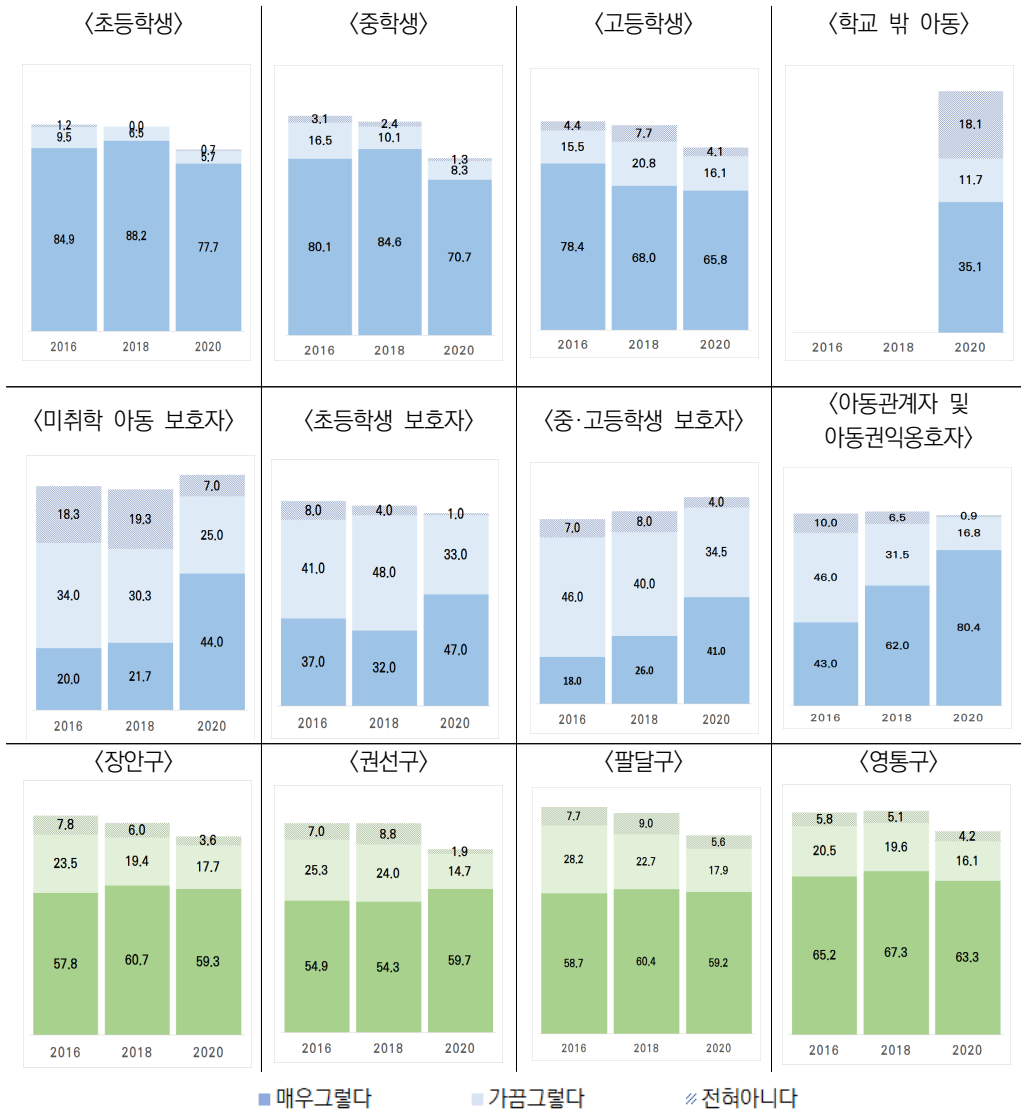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4%, 2018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37.4%, 2018년 대비 18.4%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만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4.8%, 2018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6〉 참조).

〈표 3-64〉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2	3.5	246	16.4	936	62.3	-3.4	-7.3	2.4	-3.5	-4.8	1.2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17	5.7	230	77.7	-0.5	-3.8	-7.2	0.7	-0.8	-10.5
	중학생	314	4	1.3	26	8.3	222	70.7	-1.8	-8.2	-9.4	-1.1	-1.8	-13.9
	고등학생	292	12	4.1	47	16.1	192	65.8	-0.3	0.6	-12.6	-3.6	-4.7	-2.2
	학교 밖 아동	94	17	18.1	11	11.7	33	35.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7	7.0	25	25.0	44	44.0	-11.3	-9.0	24.0	-12.3	-5.3	22.3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33	33.0	47	47.0	-7.0	-8.0	10.0	-3.0	-15.0	1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8	4.0	69	34.5	82	41.0	-3.0	-11.5	23.0	-4.0	-5.5	15.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18	16.8	86	80.4	-9.1	-29.2	37.4	-5.6	-14.7	18.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2	3.6	59	17.7	198	59.3	-4.2	-5.8	1.5	-2.4	-1.7	-1.4
	권선구	360	7	1.9	53	14.7	215	59.7	-5.1	-10.6	4.8	-6.9	-9.3	5.4
	팔달구	179	10	5.6	32	17.9	106	59.2	-2.1	-10.3	0.5	-3.4	-4.8	-1.2
	영통구	523	22	4.2	84	16.1	331	63.3	-1.6	-4.4	-1.9	-0.9	-3.5	-4.0

〈그림 3-5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A5_1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 없이 가르친다.

〈표 3-65〉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2.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7.9%), 초등학생(80.7%)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50.0%), 중·고등학생 보호자(5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72.3%), 장안구(72.2%), 팔달구(68.7%), 권선구(68.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선구가 3.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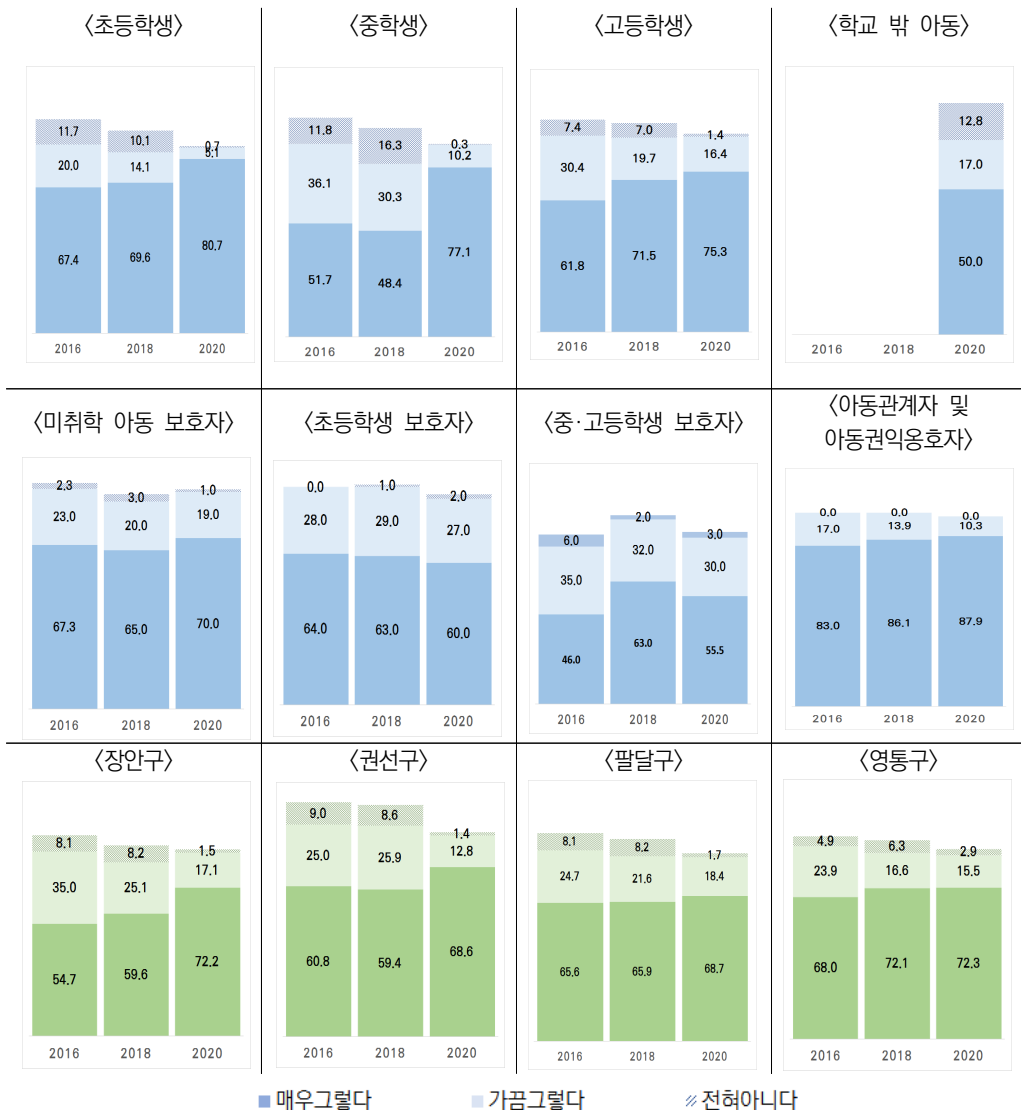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9.6%, 2018년 대비 7.4%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25.4%, 2018년 대비 28.7%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17.5%, 2018년 대비 12.6%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 없이 가르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7〉 참조).

〈표 3-6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 없이 가르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8	1.9	228	15.2	1,083	72.1	-5.3	-12.0	9.6	-5.8	-6.8	7.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15	5.1	239	80.7	-11.0	-14.9	13.3	-9.4	-9.0	11.1
	중학생	314	1	0.3	32	10.2	242	77.1	-11.5	-25.9	25.4	-16.0	-20.1	28.7
	고등학생	292	4	1.4	48	16.4	220	75.3	-6.0	-14.0	13.5	-5.6	-3.3	3.8
	학교 밖 아동	94	12	12.8	16	17.0	47	50.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19	19.0	70	70.0	-1.3	-4.0	2.7	-2.0	-1.0	5.0
	초등학생 보호자	100	2	2.0	27	27.0	60	60.0	2.0	-1.0	-4.0	1.0	-2.0	-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6	3.0	60	30.0	111	55.5	-3.0	-5.0	9.5	1.0	-2.0	-7.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1	10.3	94	87.9	0.0	-6.7	4.9	0.0	-3.6	1.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	1.5	57	17.1	241	72.2	-6.6	-17.9	17.5	-6.7	-8.0	12.6
	권선구	360	5	1.4	46	12.8	247	68.6	-7.6	-12.2	7.8	-7.2	-13.1	9.2
	팔달구	179	3	1.7	33	18.4	123	68.7	-6.4	-6.3	3.1	-6.5	-3.2	2.8
	영통구	523	15	2.9	81	15.5	378	72.3	-2.0	-8.4	4.3	-3.4	-1.1	0.2

〈그림 3-57〉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 없이 가르친다.



A5_17. 아동은 학교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 당할 위험 없이 서로 존중한다.

〈표 3-6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2.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8.2%), 고등학생(61.3%)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29.5%), 초등학생 보호자(35.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53.3%), 팔달구(50.3%), 장안구(49.4%), 권선구(48.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선구가 50.0%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 2018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만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13.2%, 2018년 대비 15.4% 증가하였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장안구만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0.4%, 2018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은 학교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 당할 위험 없이 서로 존중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8〉 참조).

〈표 3-66〉 아동은 학교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 당할 위험 없이 서로 존중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65	4.3	439	29.2	781	52.0	-0.2	-9.6	1.0	-0.5	-8.0	0.7
응답자	초등학생	296	9	3.0	68	23.0	160	54.1	-	-	-	-	-
	중학생	314	12	3.8	78	24.8	171	54.5	-	-	-	-	-
	고등학생	292	13	4.5	67	22.9	179	61.3	-	-	-	-	-
	학교 밖 아동	94	9	9.6	19	20.2	49	52.1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27	27.0	55	55.0	-1.0	-0.3	-7.0	-3.0	1.7
	초등학생 보호자	100	5	5.0	43	43.0	35	35.0	1.0	-8.0	-6.0	3.0	-1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3	6.5	108	54.0	59	29.5	-0.5	-8.0	5.5	-1.5	7.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29	27.1	73	68.2	-5.1	-10.9	13.2	-1.8	-16.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1	3.3	101	30.2	165	49.4	-1.4	-12.1	0.4	0.1	-9.4
	권선구	360	14	3.9	104	28.9	174	48.3	-1.5	-4.7	-4.7	-3.9	-8.1
	팔달구	179	14	7.8	51	28.5	90	50.3	3.4	-11.5	-0.8	1.9	-11.2
	영통구	523	24	4.6	154	29.4	279	53.3	0.8	-10.2	2.4	2.0	-5.1

〈그림 3-58〉 아동은 학교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 당할 위험 없이 서로 존중한다.



A5_18. 우리 지역사회 내 학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표 3-6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3.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67.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5.4%)가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32.0%), 미취학 아동 보호자(34.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57.0%), 권선구(52.8%), 장안구(52.7%), 영통구(51.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5.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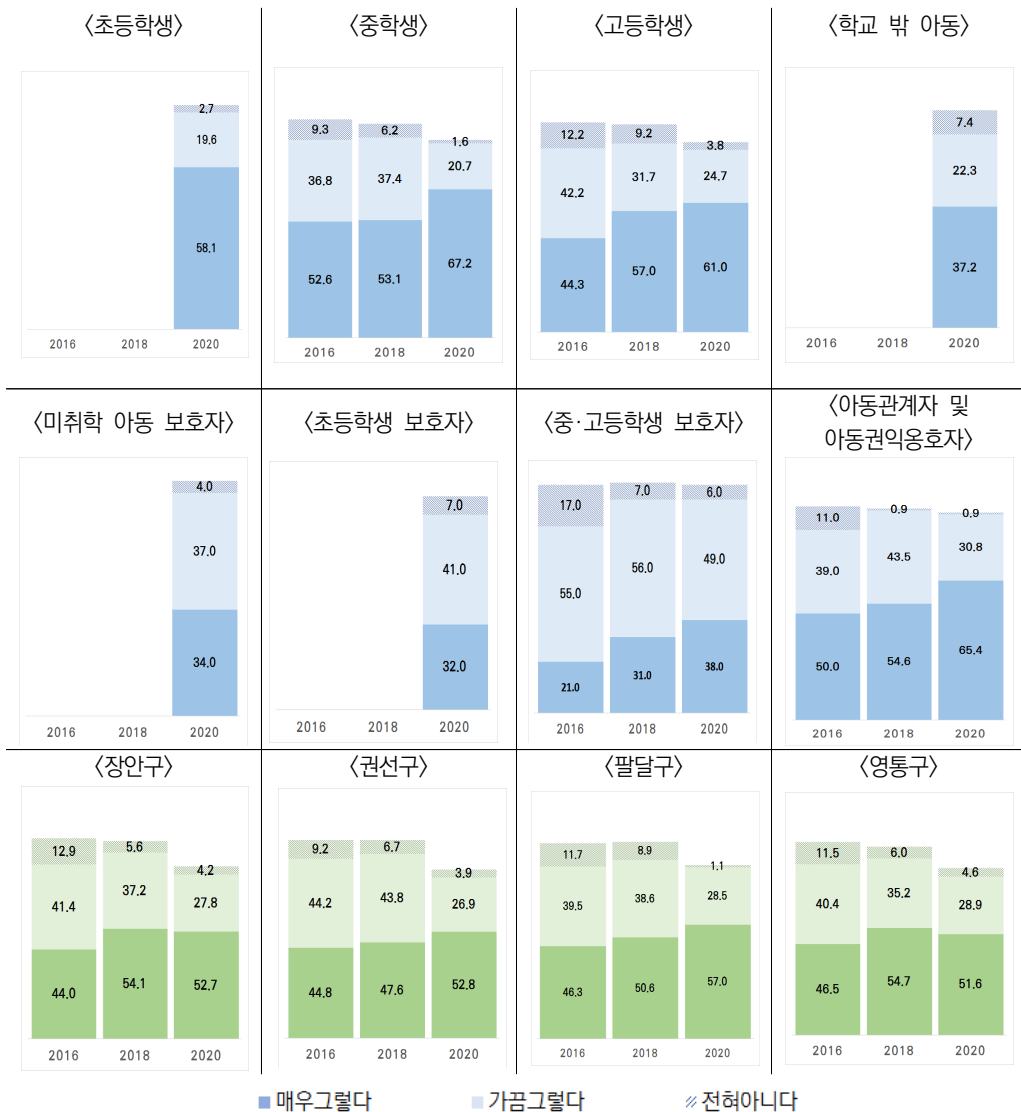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8.4%, 2018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14.6%, 2018년 대비 14.1%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와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0.7%, 2018년 대비 6.4%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내 학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59〉 참조).

〈표 3-67〉 우리 지역사회 내 학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5	3.7	425	28.3	808	53.8	-7.8	-12.9	8.4	-2.9	-10.2	1.8
응답자	초등학생	296	8	2.7	58	19.6	172	58.1	-	-	-	-	-	-
	중학생	314	5	1.6	65	20.7	211	67.2	-7.7	-16.1	14.6	-4.6	-16.7	14.1
	고등학생	292	11	3.8	72	24.7	178	61.0	-8.4	-17.5	16.7	-5.4	-7.0	4.0
	학교 밖 아동	94	7	7.4	21	22.3	35	37.2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4	4.0	37	37.0	34	34.0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7	7.0	41	41.0	32	32.0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2	6.0	98	49.0	76	38.0	-11.0	-6.0	17.0	-1.0	-7.0	7.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33	30.8	70	65.4	-10.1	-8.2	15.4	0.0	-12.7	10.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4	4.2	93	27.8	176	52.7	-8.7	-13.6	8.7	-1.4	-9.4	-1.4
	권선구	360	14	3.9	97	26.9	190	52.8	-5.3	-17.3	8.0	-2.8	-16.9	5.2
	팔달구	179	2	1.1	51	28.5	102	57.0	-10.6	-11.0	10.7	-7.8	-10.1	6.4
	영통구	523	24	4.6	151	28.9	270	51.6	-6.9	-11.5	5.1	-1.4	-6.3	-3.1

〈그림 3-59〉 우리 지역사회 내 학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5_1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표 3-6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1.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1.4%), 중학생(78.7%)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46.5%), 초등학생 보호자(55.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74.6%), 팔달구(71.5%), 영통구(69.8%), 권선구(67.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권선

구가 6.8%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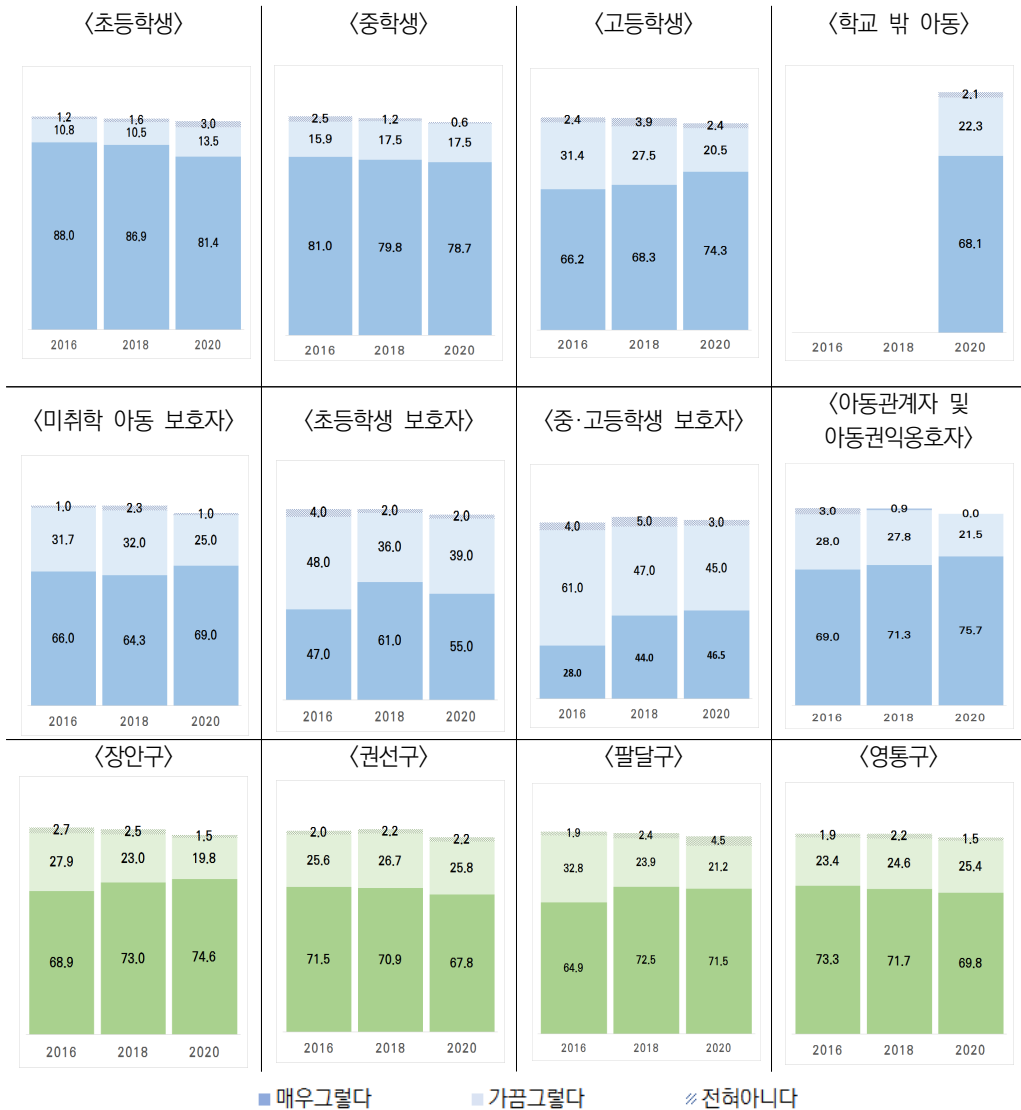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0.7% 증가, 2018년 대비 -0.9%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8.5%, 2018년 대비 2.5%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장안구만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5.7%, 2018년 대비 1.6%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낮아졌다. 응답자별로는 중·고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0〉 참조).

〈표 3-6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9	1.9	353	23.5	1,067	71.0	-0.2	-3.2	0.7	-0.4	-1.1	-0.9
응답자	초등학생	296	9	3.0	40	13.5	241	81.4	1.8	2.7	-6.6	1.4	3.0	-5.5
	중학생	314	2	0.6	55	17.5	247	78.7	-1.9	1.6	-2.3	-0.6	0.0	-1.1
	고등학생	292	7	2.4	60	20.5	217	74.3	0.0	-10.9	8.1	-1.5	-7.0	6.0
	학교 밖 아동	94	2	2.1	21	22.3	64	68.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25	25.0	69	69.0	0.0	-6.7	3.0	-1.3	-7.0	4.7
	초등학생 보호자	100	2	2.0	39	39.0	55	55.0	-2.0	-9.0	8.0	0.0	3.0	-6.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6	3.0	90	45.0	93	46.5	-1.0	-16.0	18.5	-2.0	-2.0	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23	21.5	81	75.7	-3.0	-6.5	6.7	-0.9	-6.3	4.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	1.5	66	19.8	249	74.6	-1.2	-8.1	5.7	-1.0	-3.2	1.6
	권선구	360	8	2.2	93	25.8	244	67.8	0.2	0.2	-3.7	0.0	-0.9	-3.1
	팔달구	179	8	4.5	38	21.2	128	71.5	2.6	-11.6	6.6	2.1	-2.7	-1.0
	영통구	523	8	1.5	133	25.4	365	69.8	-0.4	2.0	-3.5	-0.7	0.8	-1.9

〈그림 3-6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A5_2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이 있다.

〈표 3-69〉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86.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4.6%), 중학생(90.1%)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76.0%), 미취학 아동 보호자(80.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87.4%), 영통구(86.0%), 권선구(85.3%), 팔달구(82.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팔달구가 4.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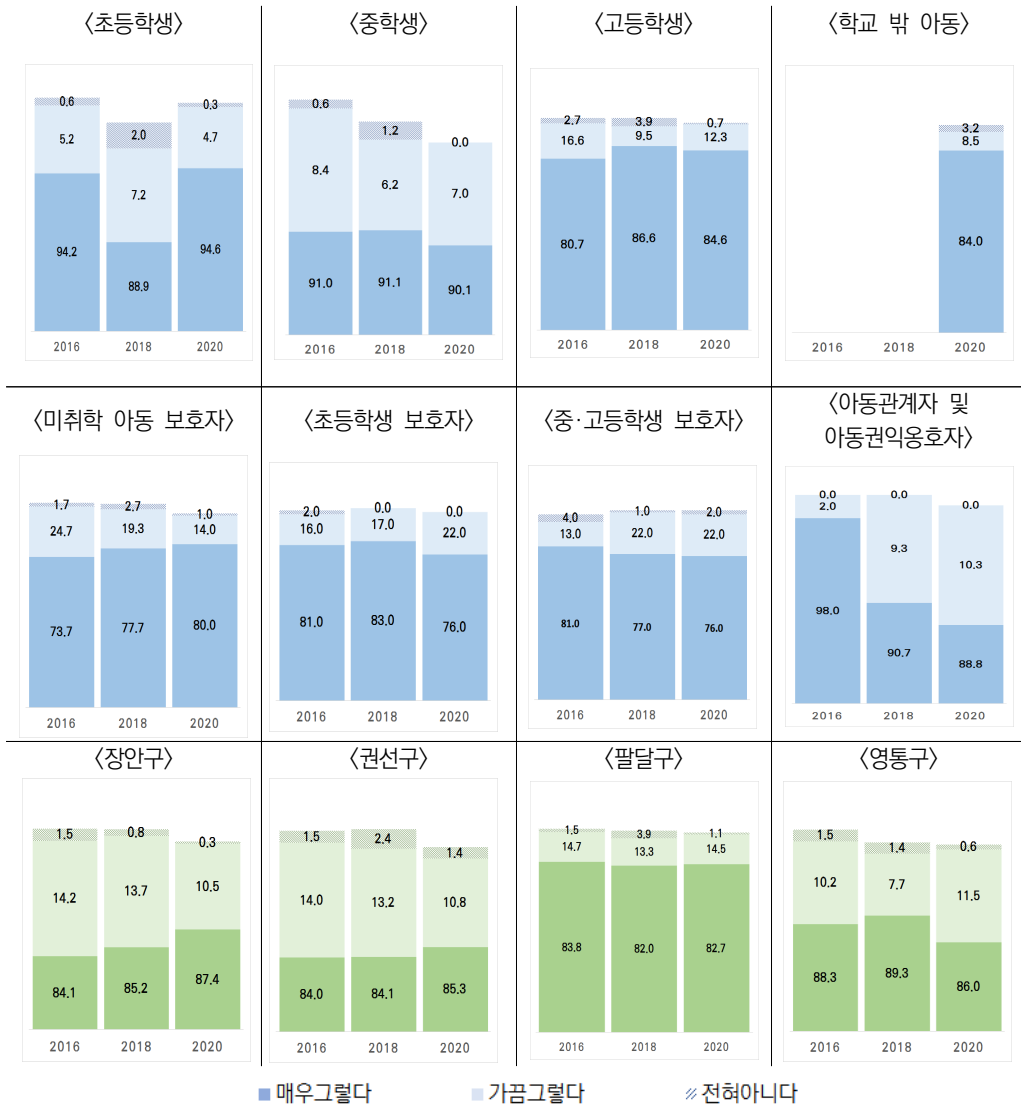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0.5%, 2018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보호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6.3%, 2018년 대비 2.3%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와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3.3%, 2018년 대비 2.2%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이 있다는 인식이 약간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1〉 참조).

〈표 3-69〉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1	0.7	171	11.4	1,292	86.0	-0.8	-1.4	0.5	-1.3	-0.1	0.3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14	4.7	280	94.6	-0.3	-0.5	0.4	-1.7	-2.5	5.7
	중학생	314	0	0.0	22	7.0	283	90.1	-0.6	-1.4	-0.9	-1.2	0.8	-1.0
	고등학생	292	2	0.7	36	12.3	247	84.6	-2.0	-4.3	3.9	-3.2	2.8	-2.0
	학교 밖 아동	94	3	3.2	8	8.5	79	84.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14	14.0	80	80.0	-0.7	-10.7	6.3	-1.7	-5.3	2.3
	초등학생 보호자	100	0	0.0	22	22.0	76	76.0	-2.0	6.0	-5.0	0.0	5.0	-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4	2.0	44	22.0	152	76.0	-2.0	9.0	-5.0	1.0	0.0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1	10.3	95	88.8	0.0	8.3	-9.2	0.0	1.0	-1.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	0.3	35	10.5	292	87.4	-1.2	-3.7	3.3	-0.5	-3.2	2.2
	권선구	360	5	1.4	39	10.8	307	85.3	-0.1	-3.2	1.3	-1.0	-2.4	1.2
	팔달구	179	2	1.1	26	14.5	148	82.7	-0.4	-0.2	-1.1	-2.8	1.2	0.7
	영통구	523	3	0.6	60	11.5	450	86.0	-0.9	1.3	-2.3	-0.8	3.8	-3.3

〈그림 3-61〉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이 있다.



A5_21.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

〈표 3-7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7.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49.7%),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4.2%)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16.0%), 중·고등학생 보호자(27.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3.8%), 장안구(35.2%), 영통구(34.3%), 권선구(33.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권선구가 10.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6.9%, 2018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보호자만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응답률(2016년 대비 22.9%, 2018년 대비 19.0%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와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14.4%, 2018년 대비 17.8%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2〉 참조).

〈표 3-70〉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403	149	10.6	379	27.0	519	37.0	-12.9	-16.2	6.9	-7.2	-12.7	1.5
응답자	초등학생	296	18	6.1	51	17.2	147	49.7	-21.6	-25.0	22.9	-12.9	-16.8	19.0
	중학생	314	31	9.9	81	25.8	114	36.3	-16.0	-15.9	4.5	-10.3	-17.2	1.9
	고등학생	292	48	16.4	86	29.5	93	31.8	-16.4	-15.1	9.8	-11.1	-13.5	3.6
	학교 밖 아동	94	25	26.6	12	12.8	15	16.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7	7.0	28	28.0	37	37.0	2.0	-22.0	-1.0	6.0	-16.0	-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7	8.5	86	43.0	55	27.5	-2.5	-5.0	2.5	0.5	6.0	-2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35	32.7	58	54.2	-3.2	-3.3	-2.8	-3.7	-2.5	-4.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15	39	12.4	76	24.1	111	35.2	-15.7	-18.5	9.2	-8.5	-13.9	-2.5
	권선구	325	29	8.9	85	26.2	109	33.5	-5.8	-20.6	0.7	-7.6	-17.3	2.9
	팔달구	169	15	8.9	42	24.9	74	43.8	-18.7	-17.2	14.4	-14.0	-17.3	17.8
	영통구	487	63	12.9	141	29.0	167	34.3	-10.2	-13.1	2.2	-0.9	-7.5	-8.7

〈그림 3-62〉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



A5_2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3-7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2.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4.8%), 중학생(72.0%)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31.9%), 중·고등학생 보호자(53.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64.5%), 장안구(62.2%), 영통구(61.4%), 권선구(58.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권선구가 6.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그림 3-63> 참조).

〈표 3-7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403	48	3.4	194	13.8	873	62.2	-	-	-	-	-	-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8	2.7	200	67.6	-	-	-	-	-	-
	중학생	314	0	0.0	24	7.6	226	72.0	-	-	-	-	-	-
	고등학생	292	9	3.1	48	16.4	169	57.9	-	-	-	-	-	-
	학교 밖 아동	94	22	23.4	5	5.3	30	31.9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5	5.0	21	21.0	62	62.0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1	5.5	66	33.0	106	53.0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22	20.6	80	74.8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15	9	2.9	41	13.0	196	62.2	-	-	-	-	-	-
	권선구	325	7	2.2	46	14.2	189	58.2	-	-	-	-	-	-
	팔달구	169	4	2.4	27	16.0	109	64.5	-	-	-	-	-	-
	영통구	487	28	5.7	58	11.9	299	61.4	-	-	-	-	-	-

〈그림 3-6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비를 직접 벌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A5_23. 우리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

〈표 3-72〉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4.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2.0%)가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43.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54.2%), 권선구(51.0%), 장안구(45.9%), 팔달구(4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9.8%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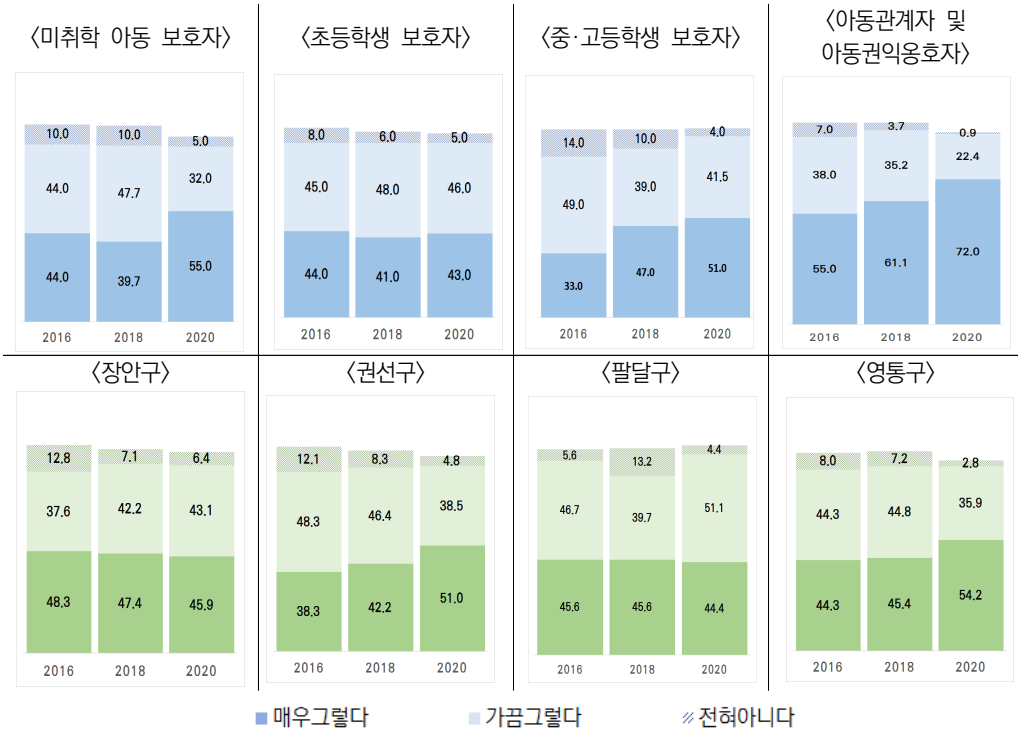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6%, 2018년 대비 9.7%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교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7.0%, 2018년 대비 10.9%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장안구와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6년 대비 12.7%, 2018년 대비 8.8%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4〉 참조).

〈표 3-72〉 우리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507	19	3.7	185	36.5	277	54.6	-6.1	-7.5	10.6	-4.5	-7.6	9.7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32	32.0	55	55.0	-5.0	-12.0	11.0	-5.0	-15.7	15.3
	초등학생 보호자	100	5	5.0	46	46.0	43	43.0	-3.0	1.0	-1.0	-1.0	-2.0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8	4.0	83	41.5	102	51.0	-10.0	-7.5	18.0	-6.0	2.5	4.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24	22.4	77	72.0	-6.1	-15.6	17.0	-2.8	-12.8	1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09	7	6.4	47	43.1	50	45.9	-6.4	5.5	-2.4	-0.7	0.9	-1.5
	권선구	104	5	4.8	40	38.5	53	51.0	-7.3	-9.8	12.7	-3.5	-7.9	8.8
	팔달구	45	2	4.4	23	51.1	20	44.4	-1.2	4.4	-1.2	-8.8	11.4	-1.2
	영통구	142	4	2.8	51	35.9	77	54.2	-5.2	-8.4	9.9	-4.4	-8.9	8.8

〈그림 3-64〉 우리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



A5_2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표 3-7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7.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7.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1.3%)가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67.0%),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보호자(70.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80.7%), 장안구(77.2%), 팔달구(74.3%), 권선구(74.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선구가 6.5%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5.4%, 2018년 대비 26.1%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4.0%, 2018년 대비 24.0%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29.3%, 2018년 대비 26.6%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5〉 참조).

〈표 3-7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6	1.1	234	15.6	1,167	77.6	-7.2	-20.1	25.4	-7.8	-19.3	26.1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14	4.7	258	87.2	-	-	-	-	-
	중학생	314	0	0.0	36	11.5	255	81.2	-	-	-	-	-
	고등학생	292	3	1.0	48	16.4	222	76.0	-	-	-	-	-
	학교 밖 아동	94	2	2.1	10	10.6	71	75.5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26	26.0	70	70.0	-7.3	-13.0	23.3	-8.7	-12.3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27	27.0	70	70.0	-7.0	-16.0	24.0	-9.0	-1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9	4.5	55	27.5	134	67.0	-10.5	-5.5	17.0	-7.5	-1.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8	16.8	87	81.3	-2.0	-4.2	4.3	-2.8	-11.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	0.9	57	17.1	258	77.2	-8.5	-18.5	24.2	-9.5	-14.7
	권선구	360	6	1.7	57	15.8	267	74.2	-10.4	-22.5	27.9	-4.6	-22.2
	팔달구	179	4	2.2	32	17.9	133	74.3	-3.4	-11.0	12.1	-8.1	-23.3
	영통구	523	3	0.6	70	13.4	422	80.7	-5.5	-23.4	29.3	-9.2	-18.6

〈그림 3-6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A5_25.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표 3-74〉의 본 문항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에게만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8.9%, ‘가끔 그렇다’ 19.6%, ‘전혀 아니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지역사회가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질의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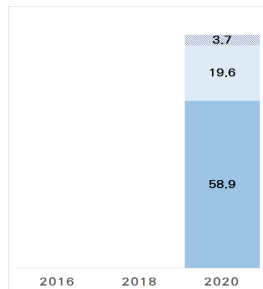
참조).

〈표 3-74〉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7	4	3.7	21	19.6	63	58.9	-	-	-	-	-	-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4	3.7	21	19.6	63	58.9	-	-	-	-	-

〈그림 3-66〉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매우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전혀 아니다

7.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 환경의 청결, 경제여건, 주거지의 안전 등의 사항들을 질의하였다.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모두 각각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75>와 같다.

<표 3-75> ‘주거 환경’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6_1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A6_2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A6_3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A6_4	우리 지역사회 가정의 집안 공기는 깨끗하며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다.					
A6_5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A6_6	우리 지역사회의 집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					
A6_7	우리 지역사회의 집들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A6_8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에는 아동의 공간(예: 놀이 공간, 공부방, 침실)이 충분히 있다.					
A6_9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문항 수	9	9	9	9	9	9

A6_1.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표 3-7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95.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8.6%), 중학생(98.1%)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9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1.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97.0%), 영통구(96.4%), 권선구(94.2%), 팔달구(93.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팔달구가 3.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9.8%, 2018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0.7%, 2018년 대비 10.3%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8.3%, 2018년 대비 21.8% 증가)가 크게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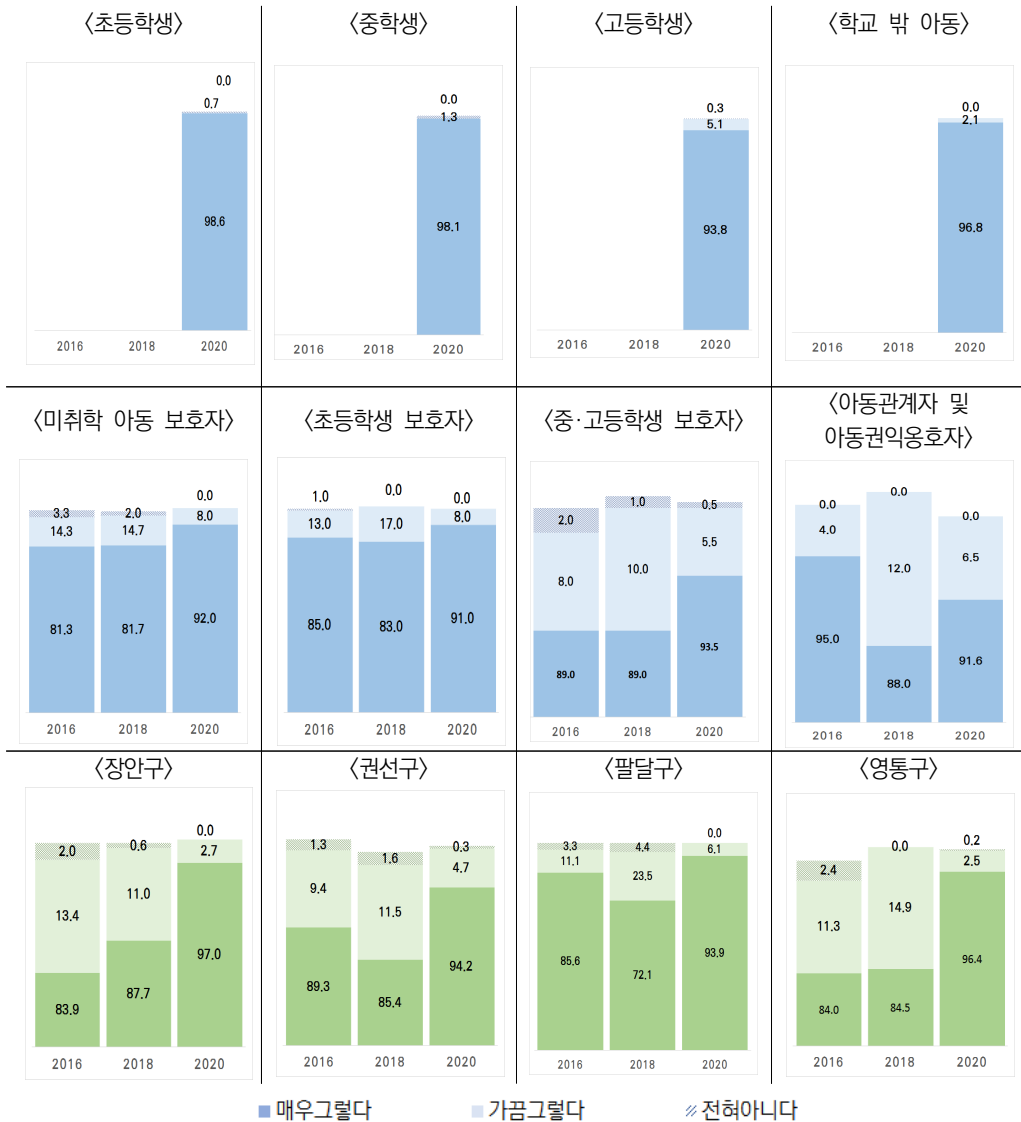
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7〉 참조).

〈표 3-76〉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	0.1	57	3.8	1,433	95.3	-2.1	-7.5	9.8	-1.1	-10.0	11.1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2	0.7	292	98.6	-	-	-	-	-
	중학생	314	0	0.0	4	1.3	308	98.1	-	-	-	-	-
	고등학생	292	1	0.3	15	5.1	274	93.8	-	-	-	-	-
	학교 밖 아동	94	0	0.0	2	2.1	91	96.8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8	8.0	92	92.0	-3.3	-6.3	10.7	-2.0	-6.7
	초등학생 보호자	100	0	0.0	8	8.0	91	91.0	-1.0	-5.0	6.0	0.0	-9.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	0.5	11	5.5	187	93.5	-1.5	-2.5	4.5	-0.5	-4.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7	6.5	98	91.6	0.0	2.5	-3.4	0.0	-5.5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0	0.0	9	2.7	324	97.0	-2.0	-10.7	13.1	-0.6	-8.3
	권선구	360	1	0.3	17	4.7	339	94.2	-1.0	-4.7	4.9	-1.3	-6.8
	팔달구	179	0	0.0	11	6.1	168	93.9	-3.3	-5.0	8.3	-4.4	-17.4
	영통구	523	1	0.2	13	2.5	504	96.4	-2.2	-8.8	12.4	0.2	-12.4

〈그림 3-67〉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A6_2.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표 3-7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84.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9.9%), 중학생(89.8%)이 높았고 중·고등학생 보호자(74.0%), 미취학 아동 보호자(77.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85.3%), 영통구(84.1%), 장안구(83.8%), 팔달구(83.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권선구와 팔

달구가 2.1%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5.9%, 2018년 대비 18.8%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1.7%, 2018년 대비 13.8%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15.2%, 2018년 대비 21.2%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가정은 아동이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8〉 참조).

〈표 3-77〉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34	2.3	153	10.2	1,272	84.6	-2.4	-15.5	15.9	-1.3	-19.4	18.8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14	4.7	266	89.9	-	-	-	-	-
	중학생	314	7	2.2	17	5.4	282	89.8	-	-	-	-	-
	고등학생	292	5	1.7	31	10.6	251	86.0	-	-	-	-	-
	학교 밖 아동	94	5	5.3	10	10.6	74	78.7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16	16.0	77	77.0	-0.3	-10.7	9.7	0.7	-16.3
	초등학생 보호자	100	5	5.0	16	16.0	78	78.0	-1.0	-11.0	13.0	0.0	-1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6	3.0	40	20.0	148	74.0	-2.0	-7.0	7.0	0.0	-9.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9	8.4	96	89.7	-1.0	-11.6	11.7	-0.9	-14.7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7	2.1	36	10.8	280	83.8	-2.6	-15.4	16.7	-3.1	-13.9
	권선구	360	6	1.7	37	10.3	307	85.3	-4.3	-10.5	12.1	-2.5	-21.5
	팔달구	179	6	3.4	21	11.7	149	83.2	0.1	-20.5	19.9	-1.0	-11.8
	영통구	523	15	2.9	50	9.6	440	84.1	-1.3	-16.3	15.2	1.4	-23.9

〈그림 3-68〉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A6_3.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표 3-7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95.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9.3%), 중학생(98.4%)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89.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0.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97.5%), 장안구(97.0%), 권선구(94.4%), 팔달구(93.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3.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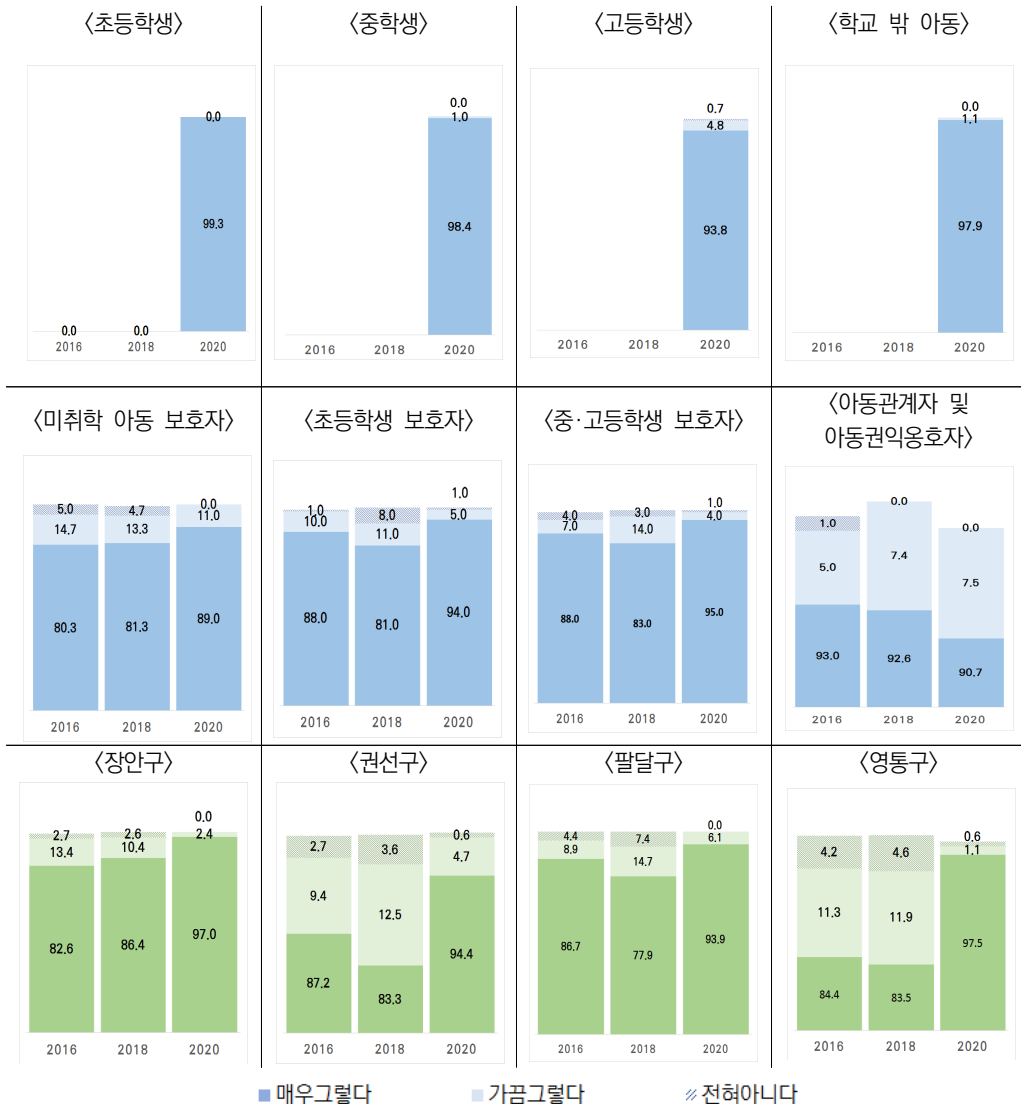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7%, 2018년 대비 12.1%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7.0%, 2018년 대비 12.0%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3.1%, 2018년 대비 14.0%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가정은 아동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중·고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69〉 참조).

〈표 3-78〉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	0.3	50	3.3	1,439	95.7	-3.2	-7.7	10.7	-3.8	-8.7	12.1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0	0.0	294	99.3	-	-	-	-	-	-
	중학생	314	0	0.0	3	1.0	309	98.4	-	-	-	-	-	-
	고등학생	292	2	0.7	14	4.8	274	93.8	-	-	-	-	-	-
	학교 밖 아동	94	0	0.0	1	1.1	92	97.9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11	11.0	89	89.0	-5.0	-3.7	8.7	-4.7	-2.3	7.7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5	5.0	94	94.0	0.0	-5.0	6.0	-7.0	-6.0	1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	1.0	8	4.0	190	95.0	-3.0	-3.0	7.0	-2.0	-10.0	12.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8	7.5	97	90.7	-1.0	2.5	-2.3	0.0	0.1	-1.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0	0.0	8	2.4	324	97.0	-2.7	-11.0	14.4	-2.6	-8.0	10.6
	권선구	360	2	0.6	17	4.7	340	94.4	-2.1	-4.7	7.2	-3.0	-7.8	11.1
	팔달구	179	0	0.0	11	6.1	168	93.9	-4.4	-2.8	7.2	-7.4	-8.6	16.0
	영통구	523	3	0.6	6	1.1	510	97.5	-3.6	-10.2	13.1	-4.0	-10.8	14.0

〈그림 3-69〉 우리 지역사회 가정은 아동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A6_4. 우리 지역사회 가정의 집안 공기는 깨끗하며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다.

〈표 3-79〉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8.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85.5%), 중학생(84.7%)이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5.4%), 학교 밖 아동(71.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82.7%), 장안구(81.7%), 영통구(80.5%), 권선구(7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권선구가 6.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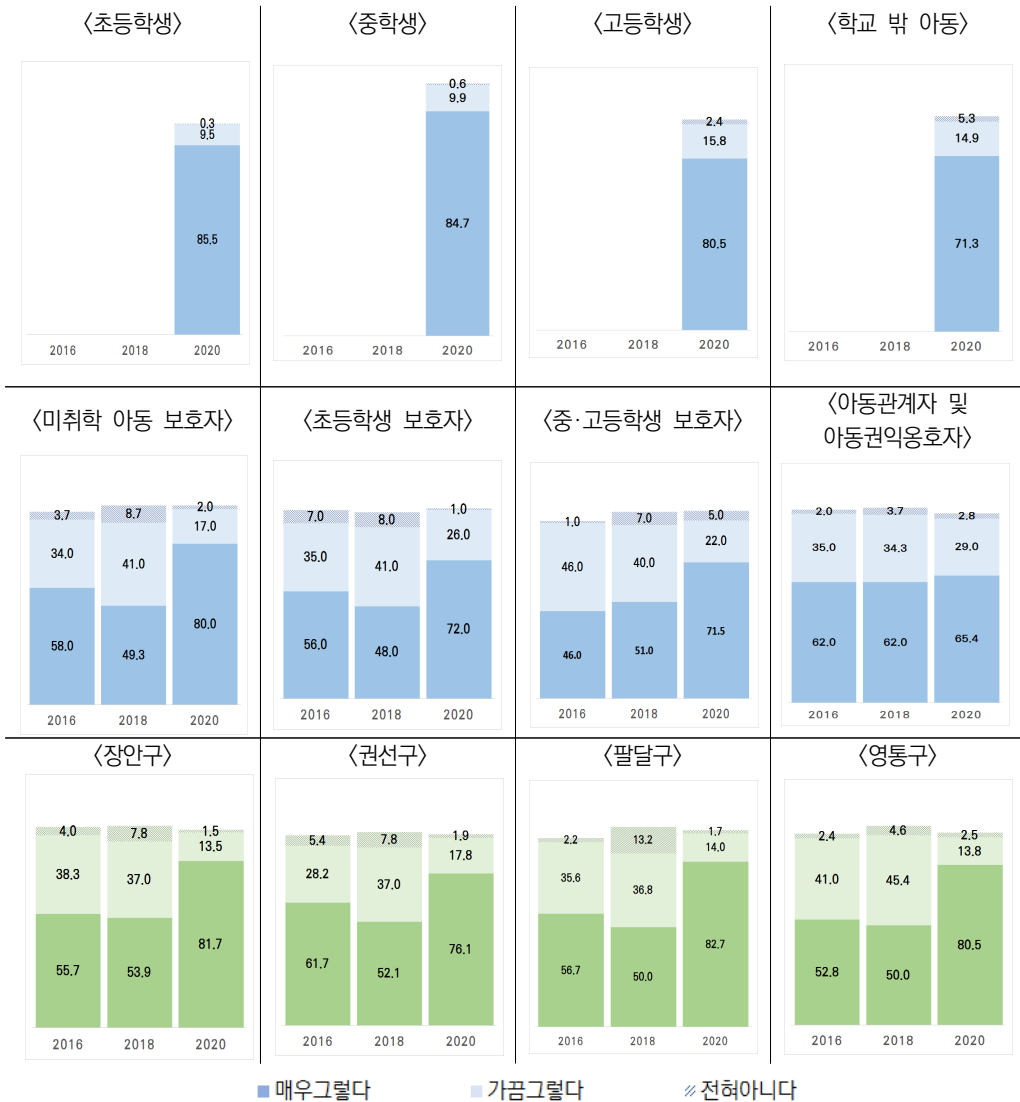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22.6%, 2018년 대비 27.3%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22.0%, 2018년 대비 30.7%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26.0%, 2018년 대비 32.7%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가정의 집안 공기가 깨끗하며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0〉 참조).

〈표 3-79〉 우리 지역사회 가정의 집안 공기는 깨끗하며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31	2.1	237	15.8	1,186	78.9	-1.4	-20.5	22.6	-5.3	-23.8	27.3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28	9.5	253	85.5	-	-	-	-	-	-
	중학생	314	2	0.6	31	9.9	266	84.7	-	-	-	-	-	-
	고등학생	292	7	2.4	46	15.8	235	80.5	-	-	-	-	-	-
	학교 밖 아동	94	5	5.3	14	14.9	67	71.3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17	17.0	80	80.0	-1.7	-17.0	22.0	-6.7	-24.0	30.7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26	26.0	72	72.0	-6.0	-9.0	16.0	-7.0	-15.0	24.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0	5.0	44	22.0	143	71.5	4.0	-24.0	25.5	-2.0	-18.0	2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3	2.8	31	29.0	70	65.4	0.8	-6.0	3.4	-0.9	-5.3	3.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	1.5	45	13.5	273	81.7	-2.5	-24.8	26.0	-6.3	-23.5	27.8
	권선구	360	7	1.9	64	17.8	274	76.1	-3.5	-10.4	14.4	-5.9	-19.2	24.0
	팔달구	179	3	1.7	25	14.0	148	82.7	-0.5	-21.6	26.0	-11.5	-22.8	32.7
	영통구	523	13	2.5	72	13.8	421	80.5	0.1	-27.2	27.7	-2.1	-31.6	30.5

〈그림 3-70〉 우리 지역사회 가정의 집안 공기는 깨끗하며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다.



A6_5.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표 3-8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96.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8.0%), 학교 밖 아동(97.9%)이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3.5%), 고등학생(94.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97.6%), 영통구(97.3%), 팔달구(95.0%), 권선구(94.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2.9%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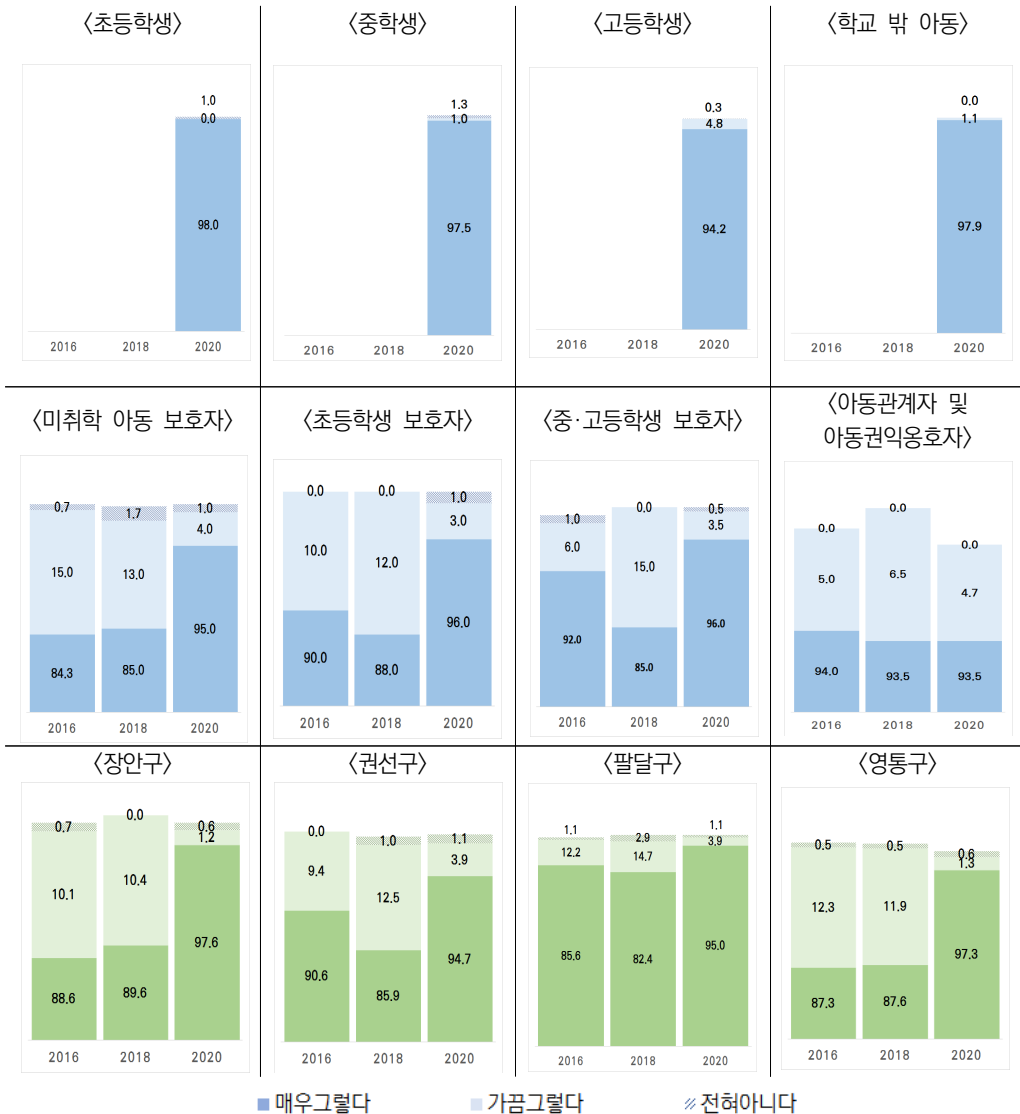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8.0%, 2018년 대비 9.2%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0.7%, 2018년 대비 10.0%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9.4%, 2018년 대비 12.6%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1〉 참조).

〈표 3-80〉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1	0.7	37	2.5	1,446	96.2	0.2	-8.5	8.0	-0.1	-9.5	9.2
응답자	초등학생	296	3	1.0	0	0.0	290	98.0	-	-	-	-	-	-
	중학생	314	4	1.3	3	1.0	306	97.5	-	-	-	-	-	-
	고등학생	292	1	0.3	14	4.8	275	94.2	-	-	-	-	-	-
	학교 밖 아동	94	0	0.0	1	1.1	92	97.9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	1.0	4	4.0	95	95.0	0.3	-11.0	10.7	-0.7	-9.0	1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3	3.0	96	96.0	1.0	-7.0	6.0	1.0	-9.0	8.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	0.5	7	3.5	192	96.0	-0.5	-2.5	4.0	0.5	-11.5	1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5	4.7	100	93.5	0.0	-0.3	-0.5	0.0	-1.8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	0.6	4	1.2	326	97.6	-0.1	-8.9	9.0	0.6	-9.2	8.0
	권선구	360	4	1.1	14	3.9	341	94.7	1.1	-5.5	4.1	0.1	-8.6	8.8
	팔달구	179	2	1.1	7	3.9	170	95.0	0.0	-8.3	9.4	-1.8	-10.8	12.6
	영통구	523	3	0.6	7	1.3	509	97.3	0.1	-11.0	10.0	0.1	-10.6	9.7

〈그림 3-71〉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A6_6. 우리 지역사회의 집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

〈표 3-8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95.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97.5%), 중·고등학생 보호자(96.5%)가 높았고 고등학생(93.2%), 미취학 아동 보호자(92.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96.7%), 영통구(96.6%), 권선구(94.2%), 팔달구(92.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팔달구가 4.5%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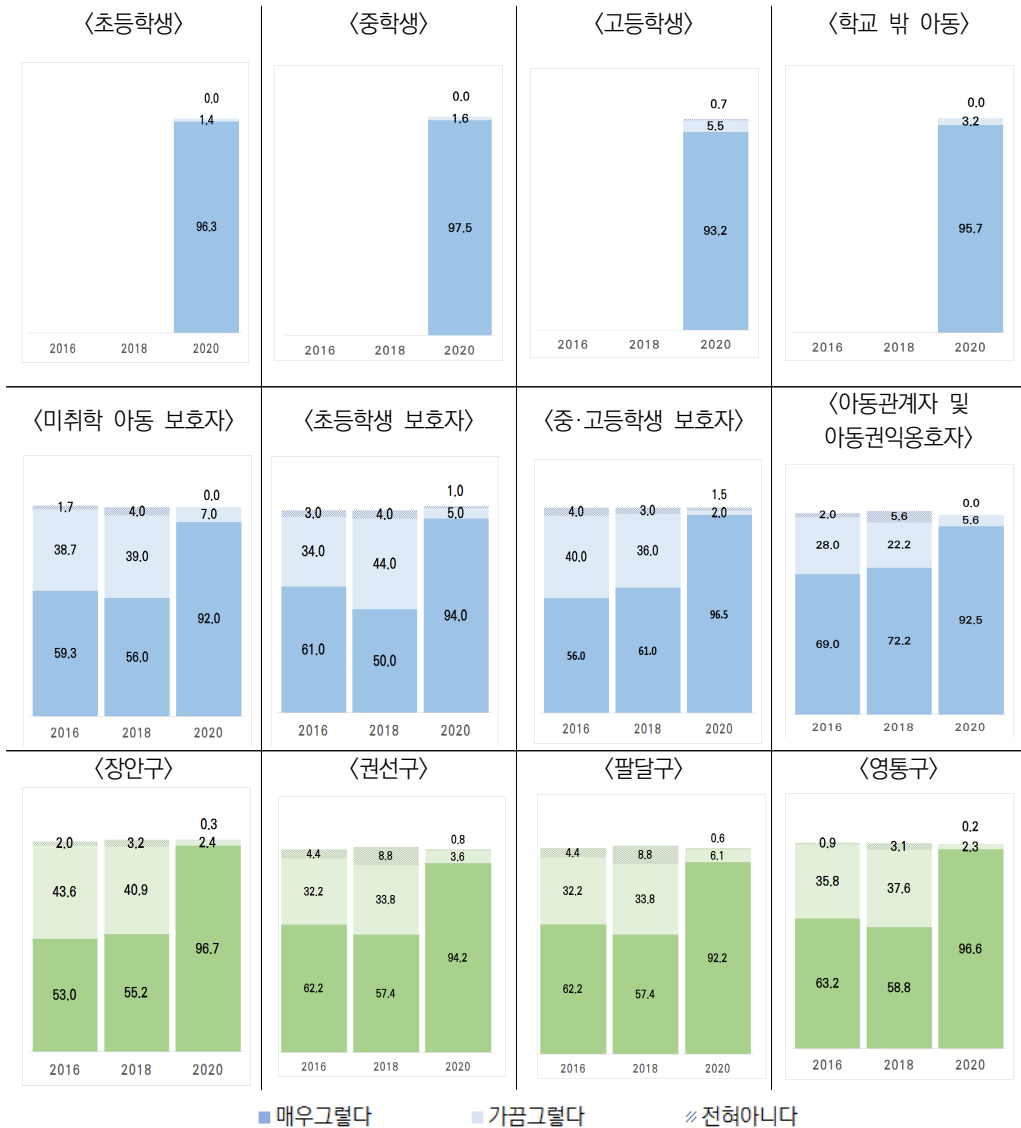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34.5%, 2018년 대비 36.5%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33.0%, 2018년 대비 44.0%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장안구(2016년 대비 43.7%, 2018년 대비 41.5%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집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2〉 참조).

〈표 3-81〉 우리 지역사회의 집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6	0.4	50	3.3	1,431	95.2	-1.9	-33.0	34.5	-3.7	-33.0	36.5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4	1.4	285	96.3	-	-	-	-	-	-
	중학생	314	0	0.0	5	1.6	306	97.5	-	-	-	-	-	-
	고등학생	292	2	0.7	16	5.5	272	93.2	-	-	-	-	-	-
	학교 밖 아동	94	0	0.0	3	3.2	90	95.7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7	7.0	92	92.0	-1.7	-31.7	32.7	-4.0	-32.0	36.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	1.0	5	5.0	94	94.0	-2.0	-29.0	33.0	-3.0	-39.0	44.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	1.5	4	2.0	193	96.5	-2.5	-38.0	40.5	-1.5	-34.0	35.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6	5.6	99	92.5	-2.0	-22.4	23.5	-5.6	-16.6	20.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	0.3	8	2.4	323	96.7	-1.7	-41.2	43.7	-2.9	-38.5	41.5
	권선구	360	3	0.8	13	3.6	339	94.2	-2.6	-28.6	30.4	-3.4	-28.7	32.2
	팔달구	179	1	0.6	11	6.1	165	92.2	-3.8	-26.1	30.0	-8.2	-27.7	34.8
	영통구	523	1	0.2	12	2.3	505	96.6	-0.7	-33.5	33.4	-2.9	-35.3	37.8

〈그림 3-72〉 우리 지역사회의 집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



A6_7. 우리 지역사회의 집들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표 3-82〉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88.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1.9%), 중학생(90.4%)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83.0%), 미취학 아동 보호자(85.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89.5%), 장안구(88.9%), 팔달구(86.6%), 권선구(85.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권선구

가 3.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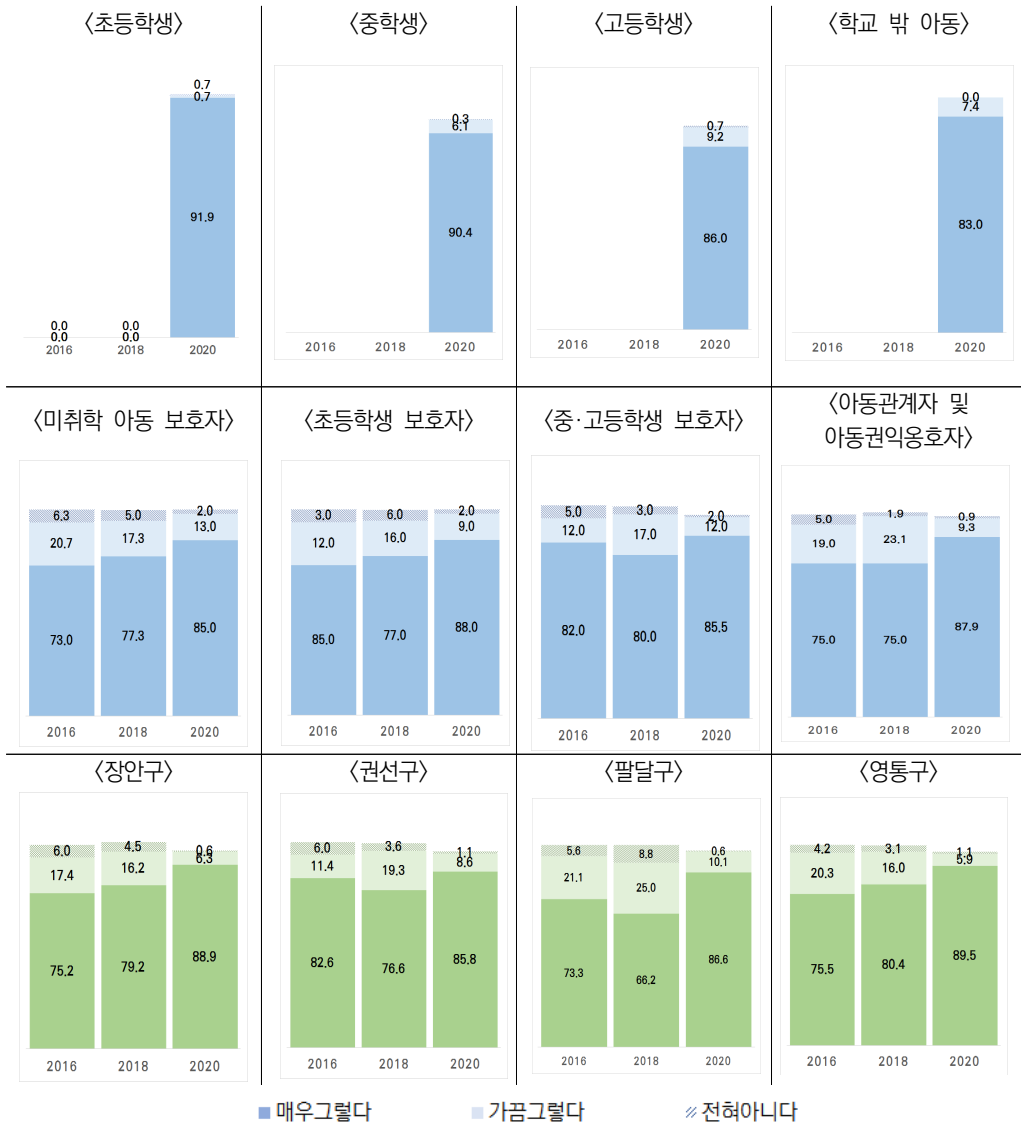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1.2%, 2018년 대비 10.7%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12.9%, 2018년 대비 12.9%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3.3%, 2018년 대비 20.4%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3〉 참조).

〈표 3-82〉 우리 지역사회의 집들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4	0.9	111	7.4	1,323	88.0	-4.4	-10.1	11.2	-3.4	-10.7	10.7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2	0.7	272	91.9	-	-	-	-	-	-
	중학생	314	1	0.3	19	6.1	284	90.4	-	-	-	-	-	-
	고등학생	292	2	0.7	27	9.2	251	86.0	-	-	-	-	-	-
	학교 밖 아동	94	0	0.0	7	7.4	78	83.0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13	13.0	85	85.0	-4.3	-7.7	12.0	-3.0	-4.3	7.7
	초등학생 보호자	100	2	2.0	9	9.0	88	88.0	-1.0	-3.0	3.0	-4.0	-7.0	1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4	2.0	24	12.0	171	85.5	-3.0	0.0	3.5	-1.0	-5.0	5.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10	9.3	94	87.9	-4.1	-9.7	12.9	-1.0	-13.8	12.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	0.6	21	6.3	297	88.9	-5.4	-11.1	13.7	-3.9	-9.9	9.7
	권선구	360	4	1.1	31	8.6	309	85.8	-4.9	-2.8	3.2	-2.5	-10.7	9.2
	팔달구	179	1	0.6	18	10.1	155	86.6	-5.0	-11.0	13.3	-8.2	-14.9	20.4
	영통구	523	6	1.1	31	5.9	468	89.5	-3.1	-14.4	14.0	-2.0	-10.1	9.1

〈그림 3-73〉 우리 지역사회의 집들은 경제적이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A6_8.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에는 아동의 공간(예: 놀이 공간, 공부방, 침실)이 충분히 있다.

〈표 3-8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86.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2.2%), 중학생(91.4%)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80.0%), 초등학생 보호자(81.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90.1%), 장안구(88.9%), 권선구(83.9%), 팔달구(8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

구가 6.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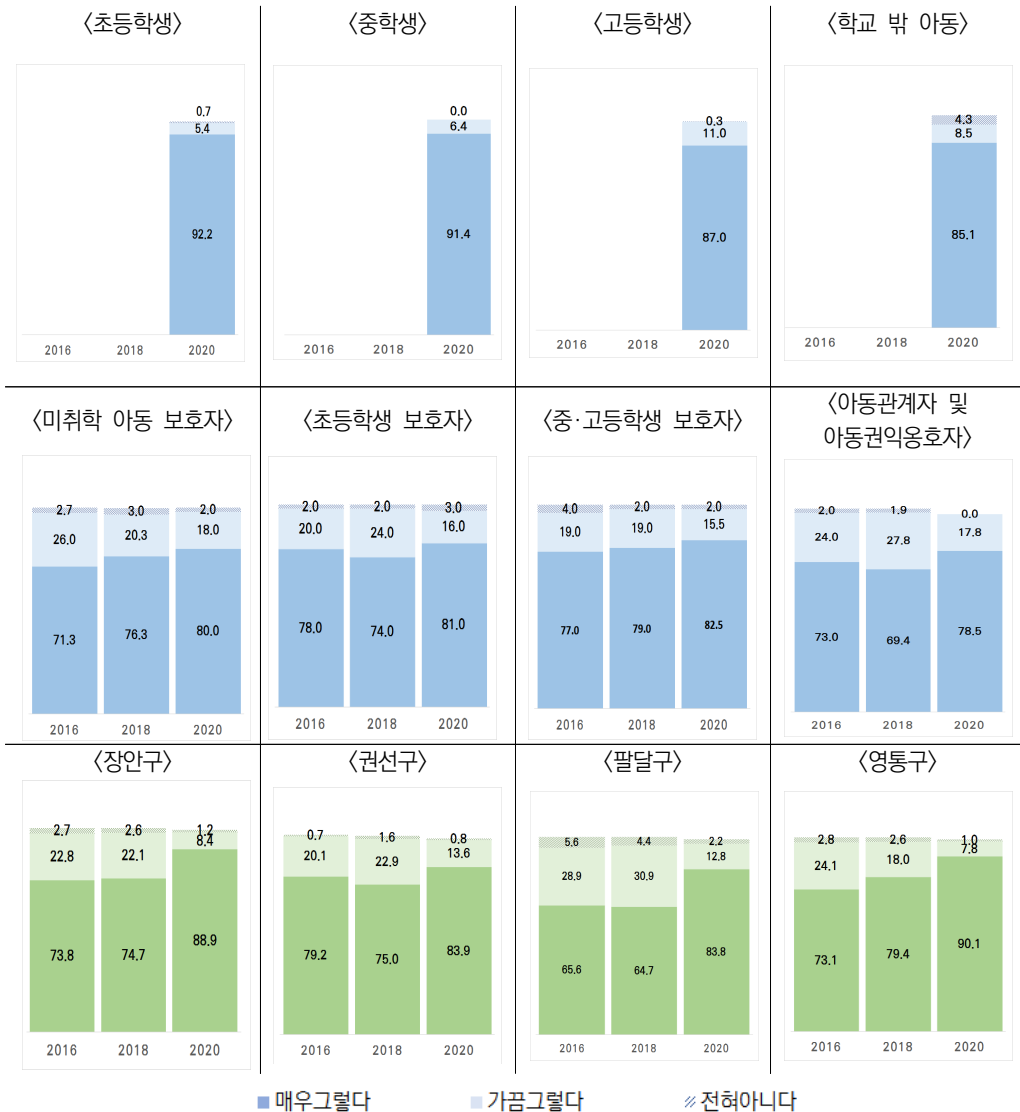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3.1%, 2018년 대비 11.6%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5.5%, 2018년 대비 9.1%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6년 대비 18.2%, 2018년 대비 19.1%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의 집에서 아동의 공간(예: 놀이 공간, 공부방, 침실)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4〉참조).

〈표 3-83〉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에는 아동의 공간(예: 놀이 공간, 공부방, 침실)이 충분히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16	1.1	160	10.6	1,304	86.8	-1.6	-12.9	13.1	-1.4	-11.4	11.6
응답자	초등학생	296	2	0.7	16	5.4	273	92.2	-	-	-	-	-	-
	중학생	314	0	0.0	20	6.4	287	91.4	-	-	-	-	-	-
	고등학생	292	1	0.3	32	11.0	254	87.0	-	-	-	-	-	-
	학교 밖 아동	94	4	4.3	8	8.5	80	85.1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	2.0	18	18.0	80	80.0	-0.7	-8.0	8.7	-1.0	-2.3	3.7
	초등학생 보호자	100	3	3.0	16	16.0	81	81.0	1.0	-4.0	3.0	1.0	-8.0	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4	2.0	31	15.5	165	82.5	-2.0	-3.5	5.5	0.0	-3.5	3.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9	17.8	84	78.5	-2.0	-6.2	5.5	-1.9	-10.0	9.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4	1.2	28	8.4	297	88.9	-1.5	-14.4	15.1	-1.4	-13.7	14.2
	권선구	360	3	0.8	49	13.6	302	83.9	0.1	-6.5	4.7	-0.8	-9.3	8.9
	팔달구	179	4	2.2	23	12.8	150	83.8	-3.4	-16.1	18.2	-2.2	-18.1	19.1
	영통구	523	5	1.0	41	7.8	471	90.1	-1.8	-16.3	17.0	-1.6	-10.2	10.7

〈그림 3-74〉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에는 아동의 공간(예: 놀이 공간, 공부방, 침실)이 충분히 있다.



A6_9.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표 3-84〉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91.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97.0%), 학교 밖 아동(94.7%)이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3.2%), 미취학 아동 보호자(86.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94.3%), 장안구(92.5%), 권선구(90.3%), 팔달구(88.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5.5%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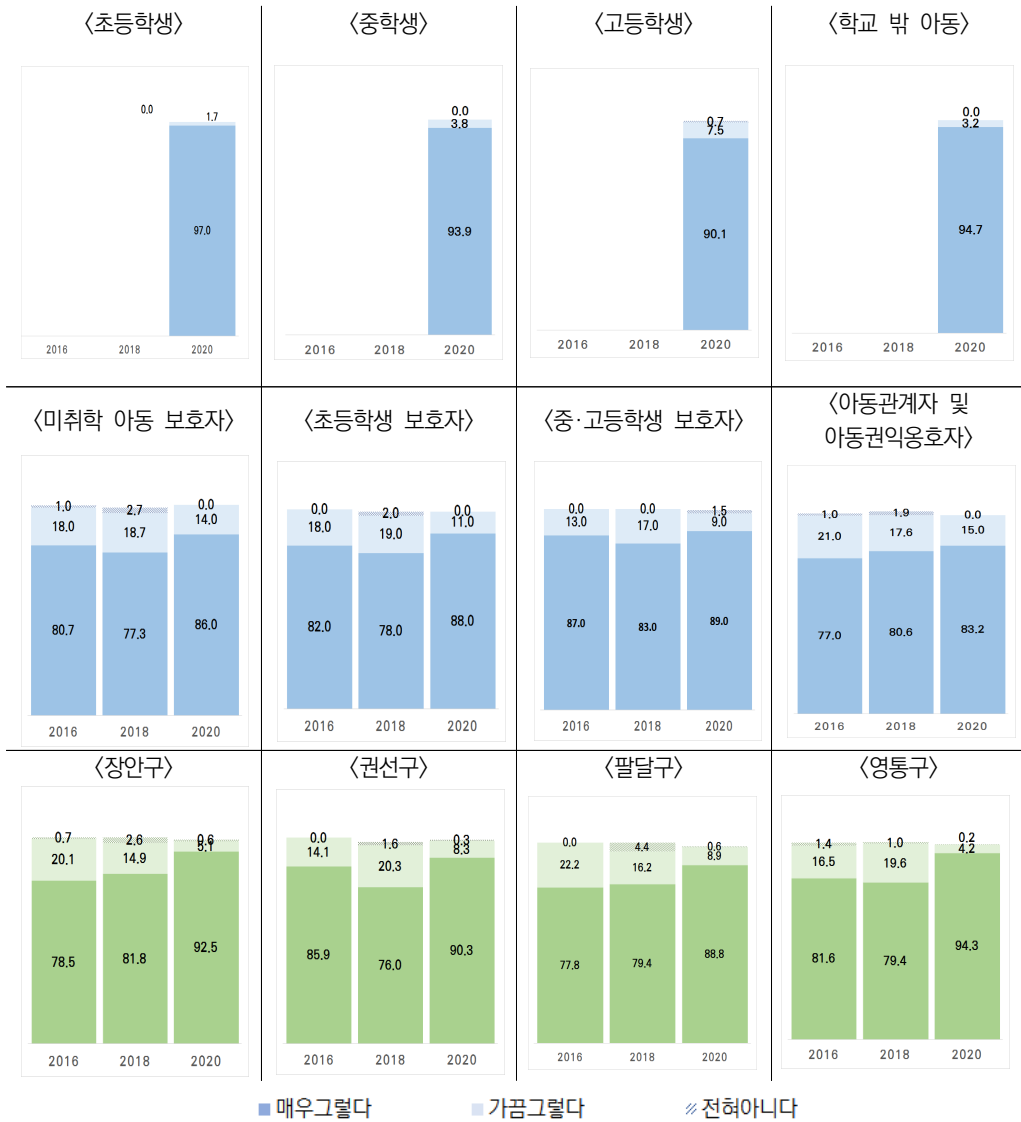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6년 대비 10.2%, 2018년 대비 12.6%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보호자 응답률(2016년 대비 6.0%, 2018년 대비 10.0%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6년 대비 12.7%, 2018년 대비 14.9%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보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5〉 참조).

〈표 3-84〉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	0.3	101	6.7	1,375	91.5	-0.4	-11.0	10.2	-1.7	-11.6	12.6
응답자	초등학생	296	0	0.0	5	1.7	287	97.0	-	-	-	-	-	-
	중학생	314	0	0.0	12	3.8	295	93.9	-	-	-	-	-	-
	고등학생	292	2	0.7	22	7.5	263	90.1	-	-	-	-	-	-
	학교 밖 아동	94	0	0.0	3	3.2	89	94.7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0	0.0	14	14.0	86	86.0	-1.0	-4.0	5.3	-2.7	-4.7	8.7
	초등학생 보호자	100	0	0.0	11	11.0	88	88.0	0.0	-7.0	6.0	-2.0	-8.0	1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	1.5	18	9.0	178	89.0	1.5	-4.0	2.0	1.5	-8.0	6.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16	15.0	89	83.2	-1.0	-6.0	6.2	-1.9	-2.6	2.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	0.6	17	5.1	309	92.5	-0.1	-15.0	14.0	-2.0	-9.8	10.7
	권선구	360	1	0.3	30	8.3	325	90.3	0.3	-5.8	4.4	-1.3	-12.0	14.3
	팔달구	179	1	0.6	16	8.9	159	88.8	0.6	-13.3	11.0	-3.8	-7.3	9.4
	영통구	523	1	0.2	22	4.2	493	94.3	-1.2	-12.3	12.7	-0.8	-15.4	14.9

〈그림 3-75〉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8. 수원시 특성

‘수원시 특성’은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 문항에 수원시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설문 문항을 추가한 것으로, 총 14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원시 특성에 대한 문항은 수원시 및 수원시청이 아동의 권리, 지역 치안, 지역 안전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여부, 수원시 아동상담시설 등을 문항에 포함하였다.

여기에 수원시 아동 관련 시설의 인지 여부 및 이용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개 기관⁷⁾ 문항을 추가하였다.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문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85>과 같다.

<표 3-85> ‘수원시 특성’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7_1	아동은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 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A7_2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A7_3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에게 의견을 구한다.					
A7_4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A7_5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A7_6	수원시는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A7_7	수원시는 동네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A7_8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A7_9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려준다.					
A7_10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서행동문제, 유해 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					
A7_11	아동의 학교에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가 있다.					
A7_12	아동은 방과 후 집에 주로 혼자 있다.					
A7_13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A7_14	수원시 아동 관련 시설 인지 여부 및 이용경험 여부					
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교 보호자	중·고등학교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문항 수	13	13	14	14	14	11

7)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환경성질환경아토피센터, 수원외국어마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광교, 권선),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전),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희망동 대,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 청소년공부방,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 수원시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평생학습관,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도서관, 드림스타트센터(영 화, 세류, 우만),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 2호점), 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 동부), 장년감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

A7_1. 아동은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 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표 3-8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2.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45.0%)와 중·고등학생 보호자(51.0%)가 높았고, 초등학생(25.3%)과 학교 밖 아동(26.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35.8%), 장안구(30.5%), 권선구(30.0%), 팔달구(29.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6.2%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3.5%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고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응답률(2018년 대비 -14.5%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장안구(2018년 대비 -10.5%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은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 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응답률은 감소하였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3-76〉 참조).

〈표 3-86〉 아동은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341	22.7	490	32.6	420	27.9	-7.3	-3.5	-1
응답자	초등학생	296	43	14.5	75	25.3	92	31.1	-6.1	-1.5	-7.5
	중학생	314	61	19.4	91	29.0	92	29.3	-18.0	-2.2	1.7
	고등학생	292	89	30.5	79	27.1	85	29.1	-19.1	4.9	4.1
	학교 밖 아동	94	25	26.6	25	26.6	20	21.3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5	35.0	33	33.0	20	20.0	9.0	-14.3	-4.7
	초등학생 보호자	100	32	32.0	45	45.0	17	17.0	10.0	-14.0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51	25.5	102	51.0	39	19.5	0.5	4.0	-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5	4.7	40	37.4	55	51.4	-0.9	-14.5	8.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95	28.4	102	30.5	89	26.6	0.0	-10.5	-0.2
	권선구	360	77	21.4	108	30.0	99	27.5	-10.6	-5.9	-2.1
	팔달구	179	40	22.3	53	29.6	50	27.9	-14.6	-0.6	3.6
	영통구	523	124	23.7	187	35.8	127	24.3	-2.4	0.2	-7.8

〈그림 3-76〉 아동은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A7_2.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표 3-8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1.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8.9%), 중학생(47.8%)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25.0%), 학교 밖 아동(25.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7.5%), 권선구(43.3%), 장안구(39.5%), 영통구(37.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10.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0.6%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응답률(2018년 대비 -11.2% 감소)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와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영통구(2018년 대비 -6.7%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약간 낮아졌다. 응답자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7> 참조).

〈표 3-87〉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0	3.3	482	32.1	630	41.9	-1.5	-13	-0.6
응답자	초등학생	296	6	2.0	65	22.0	140	47.3	0.0	-6.1	-11.2
	중학생	314	4	1.3	92	29.3	150	47.8	-1.7	-12.8	-1.2
	고등학생	292	6	2.1	76	26.0	136	46.6	-3.2	-21.2	4.7
	학교 밖 아동	94	3	3.2	21	22.3	24	25.5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	6.0	46	46.0	31	31.0	-1.7	-6.3	0.7
	초등학생 보호자	100	8	8.0	50	50.0	25	25.0	2.0	-15.0	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5	7.5	95	47.5	61	30.5	-0.5	-6.5	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37	34.6	63	58.9	-2.7	-15.4	13.5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5	4.5	114	34.1	132	39.5	-1	-8.8	-3.9
	권선구	360	9	2.5	118	32.8	156	43.3	-2.1	-13.9	2.0
	팔달구	179	7	3.9	45	25.1	85	47.5	-2.4	-19.2	6.7
	영통구	523	17	3.3	168	32.1	194	37.1	-0.3	-13.6	-6.7

〈그림 3-77〉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A7_3.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에게 의견을 구한다.

〈표 3-8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27.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43.0%)와 중·고등학생 보호자(46.0%)가 높았고, 초등학생(18.6%)과 학교 밖 아동(16.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통구(29.1%), 장안구(26.9%), 권선구(26.7%), 팔달구(2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영통구와

팔달구가 6.8%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10.6%로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응답률(2018년 대비 -27.5%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2018년 대비 -13.4%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에게 의견을 구한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응답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3-78〉 참조).

〈표 3-88〉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에게 의견을 구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232	15.4	412	27.4	388	25.8	-9.0	-10.6	0.8
응답자	초등학생	296	41	13.9	55	18.6	73	24.7	-6.0	-13.8	-3.4
	중학생	314	43	13.7	67	21.3	97	30.9	-19.5	-10.2	4.5
	고등학생	292	50	17.1	71	24.3	84	28.8	-23.0	-8.4	6.3
	학교 밖 아동	94	25	26.6	15	16.0	14	14.9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8	18.0	35	35.0	17	17.0	0.0	-6.7	-3.3
	초등학생 보호자	100	15	15.0	43	43.0	18	18.0	2.0	-1.0	-6.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32	16.0	92	46.0	35	17.5	2.0	-6.0	-5.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8	7.5	34	31.8	50	46.7	1.0	-27.5	12.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4	16.2	90	26.9	82	24.6	-7.3	-11.1	-2.2
	권선구	360	55	15.3	96	26.7	86	23.9	-13.1	-10.2	0.2
	팔달구	179	16	8.9	40	22.3	57	31.8	-17	-13.4	9.8
	영통구	523	99	18.9	152	29.1	113	21.6	-2.3	-10.9	-4.7

〈그림 3-78〉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에게 의견을 구한다.



A7_4.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표 3-89〉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0.7%), 중학생(44.6%)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24.5%), 미취학 아동 보호자(28.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

(44.1%), 장안구(40.1%), 권선구(36.7%), 영통구(3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8.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3.8%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8년 대비 11.6% 증가)의 차이가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와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8년 대비 16.3%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79〉 참조).

〈표 3-89〉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80	5.3	445	29.6	595	39.6	-4.2	-13	3.8
응답자	초등학생	296	11	3.7	61	20.6	123	41.6	-4.1	-7.8	-2.2
	중학생	314	6	1.9	72	22.9	140	44.6	-5.8	-18.9	5.4
	고등학생	292	9	3.1	78	26.7	124	42.5	-11	-19.8	12.6
	학교 밖 아동	94	11	11.7	19	20.2	23	24.5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3	13.0	40	40.0	28	28.0	1.3	-8.7	2.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1	11.0	40	40.0	33	33.0	4.0	-13.0	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	9.0	98	49.0	59	29.5	-2.0	6.0	-9.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37	34.6	65	60.7	-1.9	-13.5	11.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9	5.7	104	31.1	134	40.1	-3.6	-14.5	5.9
	권선구	360	21	5.8	101	28.1	132	36.7	-3.2	-14.4	-1.0
	팔달구	179	7	3.9	44	24.6	79	44.1	-9	-19.3	16.3
	영통구	523	32	6.1	159	30.4	185	35.4	-2.2	-9.4	-4.0

〈그림 3-79〉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A7_5.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표 3-90〉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0.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1.7%), 중학생(47.5%)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25.0%), 학교 밖 아동(27.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50.3%), 장안구(39.2%), 권선구(37.2%), 영통구(36.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13.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8년 대비 1.6%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8년 대비 15.4%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권선구와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8년 대비 13.4%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80〉 참조).

〈표 3-90〉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8	3.9	410	27.3	613	40.8	-4.4	-12.1	1.6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57	19.3	125	42.2	-6.1	-6.8	-6.2
	중학생	314	4	1.3	65	20.7	149	47.5	-5.8	-17.6	3.9
	고등학생	292	6	2.1	69	23.6	127	43.5	-9.2	-16.5	6.5
	학교 밖 아동	94	4	4.3	12	12.8	26	27.7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1	11.0	44	44.0	25	25.0	2.3	1.0	-5.3
	초등학생 보호자	100	14	14.0	37	37.0	30	30.0	8.0	-20.0	6.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3	6.5	94	47.0	65	32.5	-5.5	5.0	-3.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32	29.9	66	61.7	-2.8	-20.1	15.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3	3.9	97	29.0	131	39.2	-5.7	-10.9	0.7
	권선구	360	18	5.0	106	29.4	134	37.2	-3.1	-12.4	-0.9
	팔달구	179	7	3.9	38	21.2	90	50.3	-6.3	-14.9	13.4
	영통구	523	19	3.6	137	26.2	192	36.7	-3.1	-12.6	-4.9

〈그림 3-80〉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A7_6. 수원시는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표 3-91〉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9.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8.2%), 초등학생(69.3%)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45.0%), 초등학생 보호자(50.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60.9%), 영통구(59.5%), 장안구(58.7%), 권선구(55.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권선구가 5.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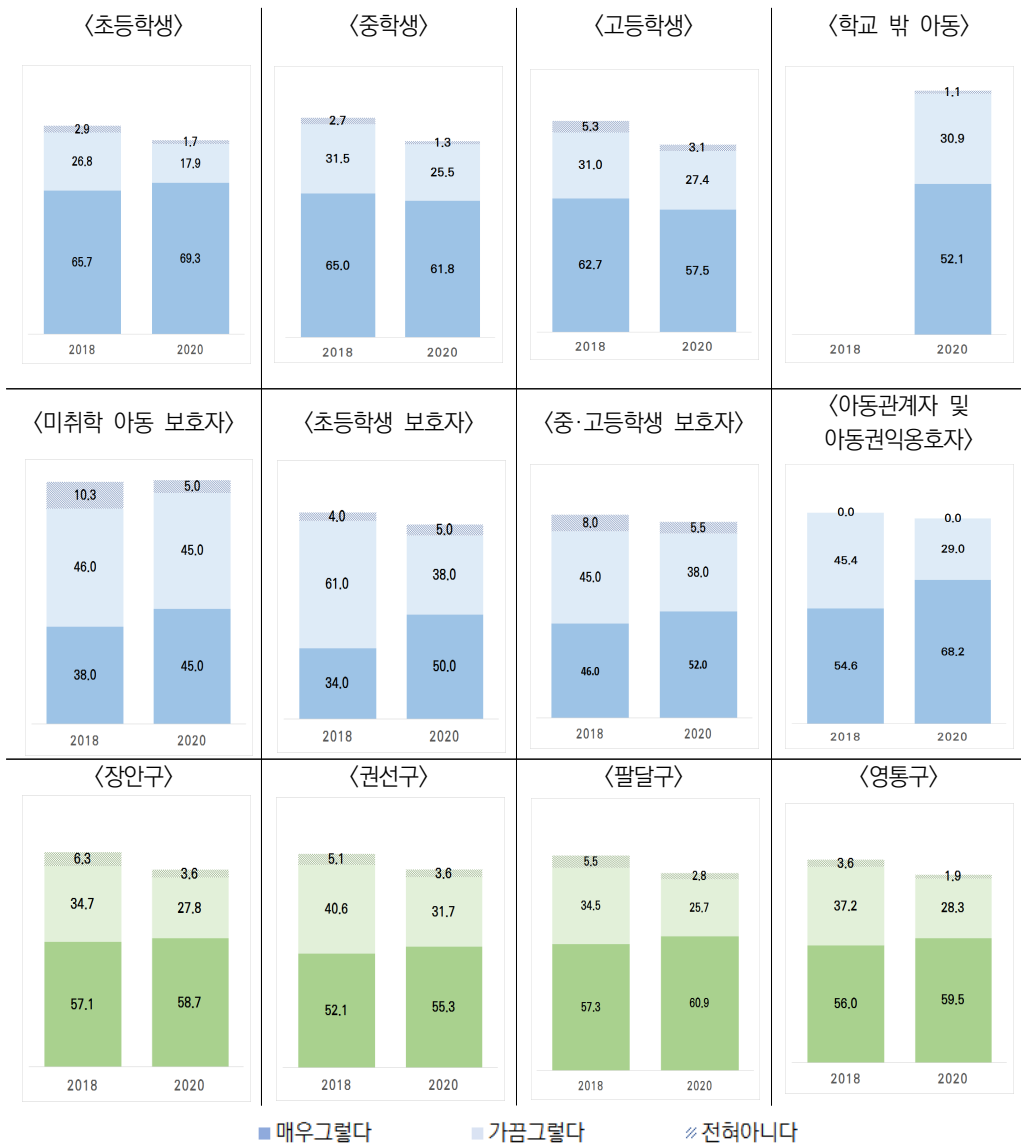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8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8년 대비 13.6%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8년 대비 3.6%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수원시는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81〉 참조).

〈표 3-91〉 수원시는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40	2.7	432	28.7	888	59.1	-2.3	-8.4	3.7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53	17.9	205	69.3	-1.2	-8.9	3.6
	중학생	314	4	1.3	80	25.5	194	61.8	-1.4	-6	-3.2
	고등학생	292	9	3.1	80	27.4	168	57.5	-2.2	-3.6	-5.2
	학교 밖 아동	94	1	1.1	29	30.9	49	52.1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45	45.0	45	45.0	-5.3	-1.0	7.0
	초등학생 보호자	100	5	5.0	38	38.0	50	50.0	1.0	-23.0	16.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1	5.5	76	38.0	104	52.0	-2.5	-7.0	6.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31	29.0	73	68.2	0.0	-16.4	13.6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2	3.6	93	27.8	196	58.7	-2.7	-6.9	1.6
	권선구	360	13	3.6	114	31.7	199	55.3	-1.5	-8.9	3.2
	팔달구	179	5	2.8	46	25.7	109	60.9	-2.7	-8.8	3.6
	영통구	523	10	1.9	148	28.3	311	59.5	-1.7	-8.9	3.5

〈그림 3-81〉 수원시는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A7_7. 수원시는 동네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표 3-92〉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61.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초등학생(72.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8.2%)가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52.0%), 중·고등학생 보호자(53.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68.2%), 장안구(61.4%), 권선구(60.3%), 영통구(59.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

차는 팔달구와 영통구가 8.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8년 대비 6.3%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8년 대비 18.2%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8년 대비 13.3%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수원시는 동네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82〉참조).

〈표 3-92〉 수원시는 동네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53	3.5	436	29	928	61.7	-1.7	-9.6	6.3
응답자	초등학생	296	8	2.7	54	18.2	215	72.6	-0.2	-10.6	7.2
	중학생	314	4	1.3	84	26.8	199	63.4	-3.2	-6.4	1.4
	고등학생	292	15	5.1	81	27.7	175	59.9	-0.5	-7.5	1.1
	학교 밖 아동	94	4	4.3	29	30.9	52	55.3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	3.0	39	39.0	55	55.0	-4.7	-8.7	10.7
	초등학생 보호자	100	7	7.0	40	40.0	52	52.0	0.0	-16.0	1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0	5.0	80	40.0	107	53.5	-2.0	-3.0	3.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29	27.1	73	68.2	-0.9	-20.1	18.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5	4.5	95	28.4	205	61.4	-2.1	-9.9	6.5
	권선구	360	12	3.3	107	29.7	217	60.3	-2.1	-14.1	9.7
	팔달구	179	8	4.5	39	21.8	122	68.2	-2.6	-14.7	13.3
	영통구	523	16	3.1	166	31.7	311	59.5	-0.1	-4.1	-0.3

〈그림 3-82〉 수원시는 동네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A7_8.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표 3-93〉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6.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중·고등학생 보호자(41.5%)가 높았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27.1%)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42.3%), 팔달구(40.0%), 장안구(38.5%), 영통구(3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권선구와 영통구가 6.4%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8.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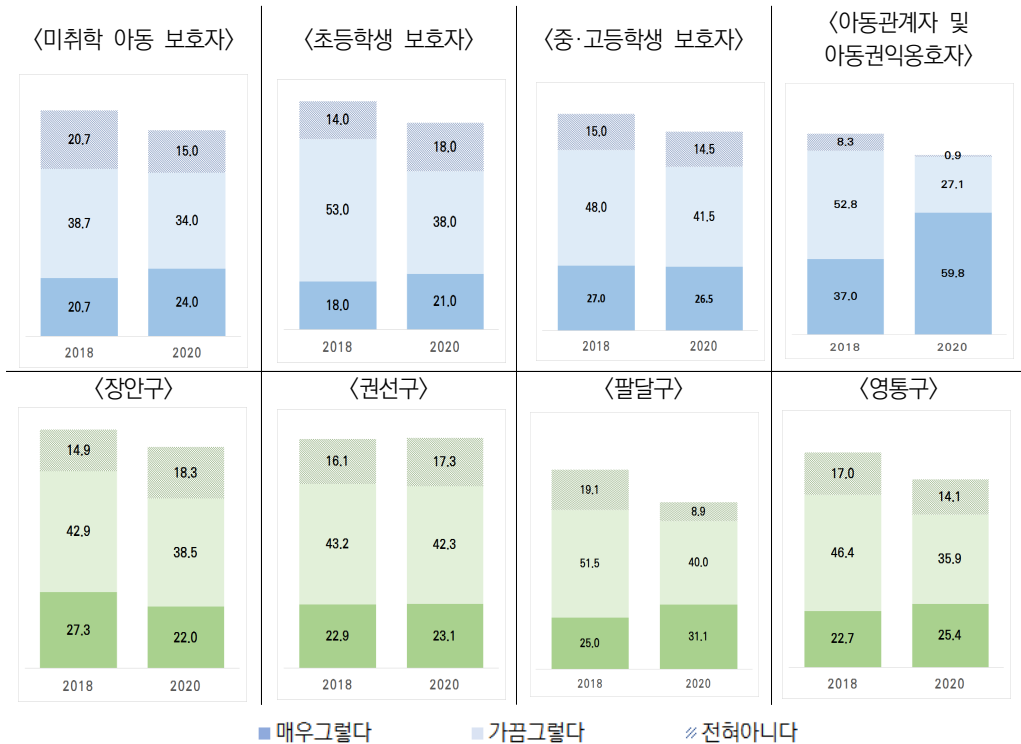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 응답률(2018년 대비 -19.0%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은 전지역이 감소하였으며, 팔달구(2018년 대비 -11.5%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긍정적이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응답률은 감소하였으며, 응답자별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 학교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3-83〉 참조).

〈표 3-93〉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507	63	12.4	184	36.3	162	32	-4.0	-8.8	7.8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중학생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5	15.0	34	34.0	24	1.0	-19.0	6.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8	18.0	38	38.0	21	3.0	-10.0	-6.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9	14.5	83	41.5	53	6.2	-11.3	-1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29	27.1	64	-15.2	-16.1	36.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09	20	18.3	42	38.5	24	3.4	-4.4	-5.3
	권선구	104	18	17.3	44	42.3	24	1.2	-0.9	0.2
	팔달구	45	4	8.9	18	40.0	14	-10.2	-11.5	6.1
	영통구	142	20	14.1	51	35.9	36	-2.9	-10.5	2.7

〈그림 3-83〉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A7_9.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려준다.

〈표 3-94〉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57.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4.8%), 초등학생(67.2%)이 높았고 초등학생 보호자(38.0%), 중·고등학생 보호자(42.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57.5%), 권선구(57.2%), 영통구(55.3%), 장안구(53.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장안구가 3.6%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8년 대비 4.3%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고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8년 대비 20.2%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장안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권선구(2018년 대비 8.1%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려준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84〉 참조).

〈표 3-94〉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려준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60	4.0	367	24.4	858	57.1	-2.2	-10.4	4.3
응답자	초등학생	296	6	2.0	44	14.9	199	67.2	-1.9	-5.0	1.8
	중학생	314	6	1.9	66	21.0	198	63.1	-3.1	-9.0	0.8
	고등학생	292	13	4.5	68	23.3	169	57.9	-1.5	-9.4	-0.9
	학교 밖 아동	94	6	6.4	24	25.5	41	43.6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10	10.0	24	24.0	49	49.0	-0.3	-18.7	12.0
	초등학생 보호자	100	8	8.0	39	39.0	38	38.0	2.0	-16.0	1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1	5.5	82	41.0	84	42.0	-4.5	-8.0	6.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0	0.0	20	18.7	80	74.8	-1.9	-24.8	20.2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3	3.9	94	28.1	180	53.9	-0.7	-7.1	-0.7
	권선구	360	17	4.7	78	21.7	206	57.2	-2.9	-15.7	8.1
	팔달구	179	6	3.4	40	22.3	103	57.5	-4.8	-9.5	3.4
	영통구	523	24	4.6	135	25.8	289	55.3	-0.5	-8.1	1.4

〈그림 3-84〉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려준다.



A7_10.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서행동문제, 유해 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

〈표 3-95〉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6.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2.6%), 초등학생(57.8%)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25.0%), 초등학생 보호자(26.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50.3%), 장안구(46.1%), 영통구(44.0%), 권선구(43.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

는 팔달구와 권선구가 6.7%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8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8년 대비 20.9%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영통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팔달구(2018년 대비 6.0%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서행동문제, 유해 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식이 약간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팔달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85〉 참조).

〈표 3-95〉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서행동문제, 유해 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03	96	6.4	430	28.6	698	46.4	-3.9	-9.4	1.8
응답자	초등학생	296	12	4.1	50	16.9	171	57.8	-4.1	-10.2	3.6
	중학생	314	10	3.2	78	24.8	174	55.4	-3.9	-7.2	-2.5
	고등학생	292	14	4.8	82	28.1	143	49.0	-3.7	-8.2	-4.9
	학교 밖 아동	94	12	12.8	23	24.5	29	30.9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0	20.0	32	32.0	25	25.0	-0.3	-9.3	2.0
	초등학생 보호자	100	11	11.0	43	43.0	26	26.0	1.0	-12.0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	8.0	90	45.0	63	31.5	0.0	-9.0	-1.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	0.9	32	29.9	67	62.6	-4.7	-22.0	2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1	6.3	97	29.0	154	46.1	-4.1	-10.9	0.5
	권선구	360	24	6.7	112	31.1	157	43.6	-3.6	-8.3	2.5
	팔달구	179	10	5.6	40	22.3	90	50.3	-6.9	-13	6.0
	영통구	523	40	7.6	149	28.5	230	44.0	-1.5	-8.3	-2.9

〈그림 3-85〉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서행동문제, 유해 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



A7_11. 아동의 학교에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가 있다.

〈표 3-96〉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45.6%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3.8%)가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35.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팔달구(42.2%), 영통구(39.4%), 권선구

(37.5%), 장안구(34.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팔달구와 장안구가 7.3%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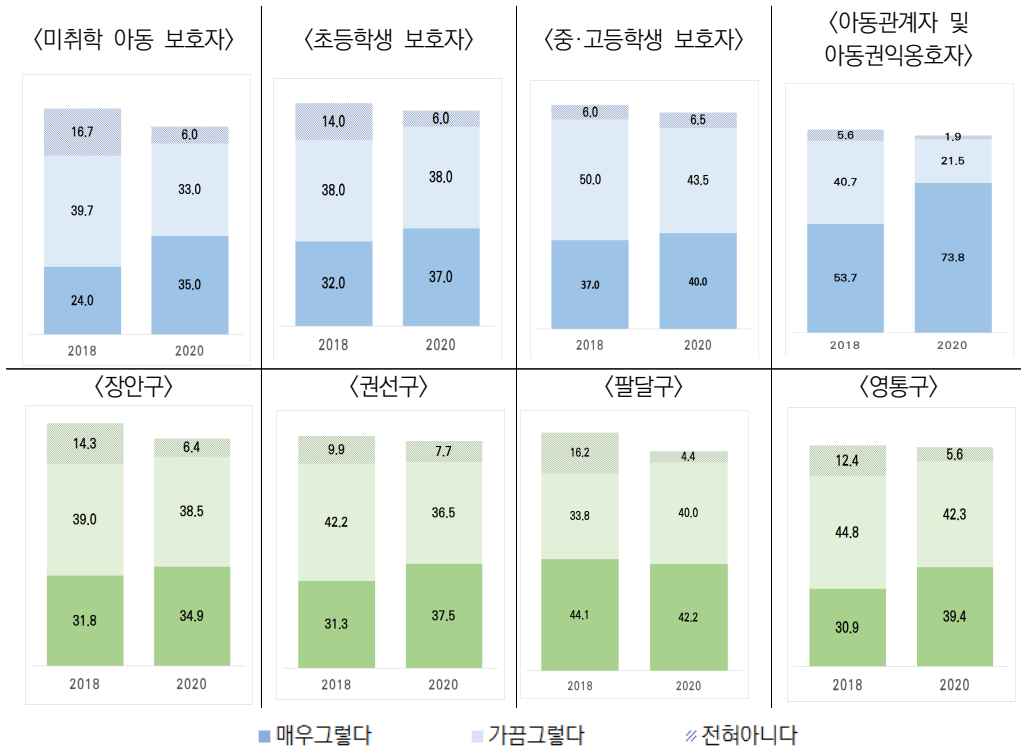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2018년 대비 12.9%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응답률(2018년 대비 20.1%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팔달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영통구(2018년 대비 8.5%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의 학교에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가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86〉 참조).

〈표 3-96〉 아동의 학교에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가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507	27	5.3	181	35.7	231	45.6	-7.2	-5.6	12.9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	6.0	33	33.0	35	35.0	-10.7	-6.7	1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6	6.0	38	38.0	37	37.0	-8.0	0.0	5.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3	6.5	87	43.5	80	40.0	0.5	-6.5	3.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23	21.5	79	73.8	-3.7	-19.2	20.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09	7	6.4	42	38.5	38	34.9	-7.9	-0.5	3.1
	권선구	104	8	7.7	38	36.5	39	37.5	-2.2	-5.7	6.2
	팔달구	45	2	4.4	18	40.0	19	42.2	-11.8	6.2	-1.9
	영통구	142	8	5.6	60	42.3	56	39.4	-6.8	-2.5	8.5

〈그림 3-86〉 아동의 학교에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가 있다.



A7_12. 아동은 방과 후에 집에 주로 혼자 있다.

〈표 3-97〉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37.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은 중·고등학생 보호자(48.0%)와 고등학생(41.4%)이 높았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24.0%)와 학교 밖 아동(28.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권선구(40.6%), 장안구(37.7%), 영통구(36.7%), 팔달구(3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8.2%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이 3.3%로 증가하였다. 응답자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중학생,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 응답률(2018년 대비 6.9% 증가)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가끔 그렇다’의 응답률은 전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권선구(2018년 대비 7.7% 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은 방과 후에 집에 주로 혼자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고등

학생, 학교소재지/거주별로는 권선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3-87〉 참조).

〈표 3-97〉 아동은 방과 후에 집에 주로 혼자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396	521	37.3	522	37.4	303	21.7	-11.1	3.3	5.6
응답자	초등학생	296	127	42.9	95	32.1	65	22.0	-9.1	1.1	7.9
	중학생	314	105	33.4	121	38.5	74	23.6	-6.1	-1.0	3.4
	고등학생	292	70	24.0	121	41.4	85	29.1	-16.5	6.9	5.5
	학교 밖 아동	94	38	40.4	27	28.7	21	22.3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2	62.0	24	24.0	12	12.0	-4.3	2.7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46	46.0	38	38.0	15	15.0	-5.0	-5.0	9.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73	36.5	96	48.0	31	15.5	2.5	-5.0	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26	37.7	126	37.7	70	21.0	-14.1	6.3	5.3
	권선구	360	125	34.7	146	40.6	78	21.7	-16.8	7.7	7.4
	팔달구	179	61	34.1	58	32.4	52	29.1	-11.0	-5.2	12.2
	영통구	523	209	40.0	192	36.7	103	19.7	-5.3	1.5	2.2

〈그림 3-87〉 아동은 방과 후에 집에 주로 혼자 있다



A7_13.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낸다.

〈표 3-98〉의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별 결과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평균 71.8%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중학생(75.8%)이 높았고, 학교 밖 아동(51.1%)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74.7%), 팔달구(73.1%), 영통구(70.9%), 권선구(69.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4.8%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는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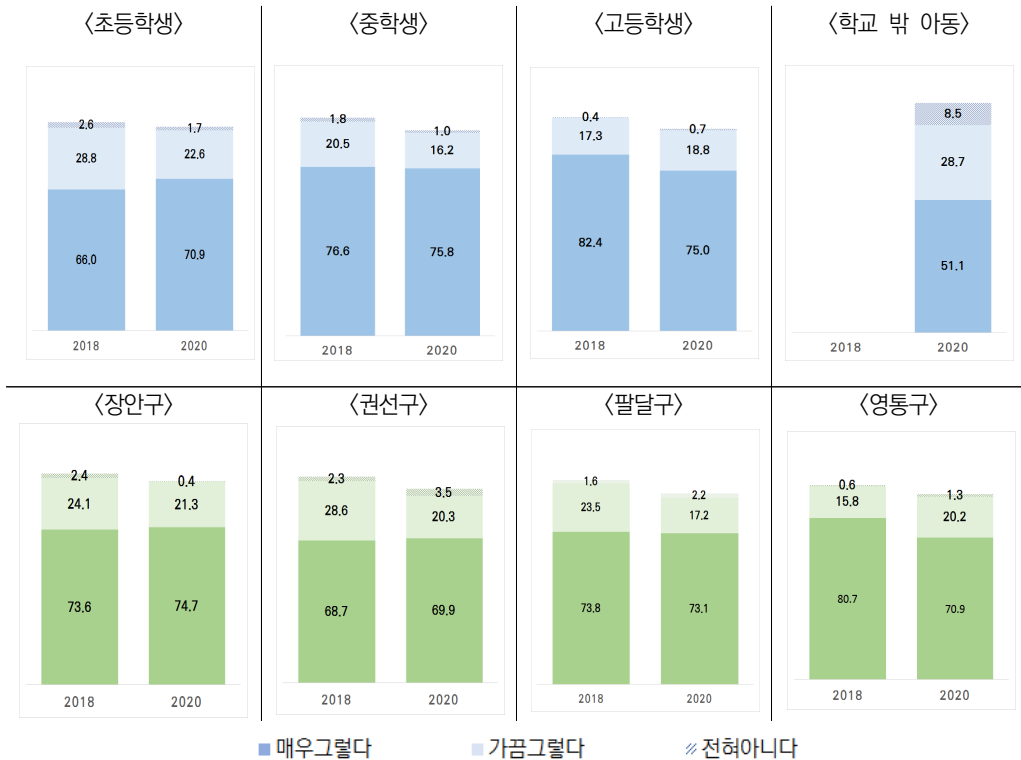
의 응답률이 2018년 대비 -3.1% 감소하였다. 응답자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에 비해 초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 응답률(2018년 대비 -7.4% 감소)의 차이가 가장 컸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은 권선구, 장안구는 증가, 영통구, 팔달구는 감소하였으며 영통구(2018년 대비 -9.8% 감소)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인식이 낮아졌으며, 응답자별로는 고등학생,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가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3-88> 참조).

〈표 3-98〉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구분		전체 응답 (명)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년 대비 증감률(%)		
			명	%	명	%	명	%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996	18	1.8	200	20.1	715	71.8	0.2	-2.1	-3.1
응답자	초등학생	296	5	1.7	67	22.6	210	70.9	-0.9	-6.2	4.9
	중학생	314	3	1.0	51	16.2	238	75.8	-0.8	-4.3	-0.8
	고등학생	292	2	0.7	55	18.8	219	75.0	0.3	1.5	-7.4
	학교 밖 아동	94	8	8.5	27	28.7	48	51.1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25	1	0.4	48	21.3	168	74.7	-2.0	-2.8	1.1
	권선구	256	9	3.5	52	20.3	179	69.9	1.2	-8.3	1.2
	팔달구	134	3	2.2	23	17.2	98	73.1	0.6	-6.3	-0.7
	영통구	381	5	1.3	77	20.2	270	70.9	0.7	4.4	-9.8

〈그림 3-88〉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A7_14.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99〉의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34.2%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44.0%), 초등학생 보호자(41.0%)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22.3%), 고등학생(27.7%)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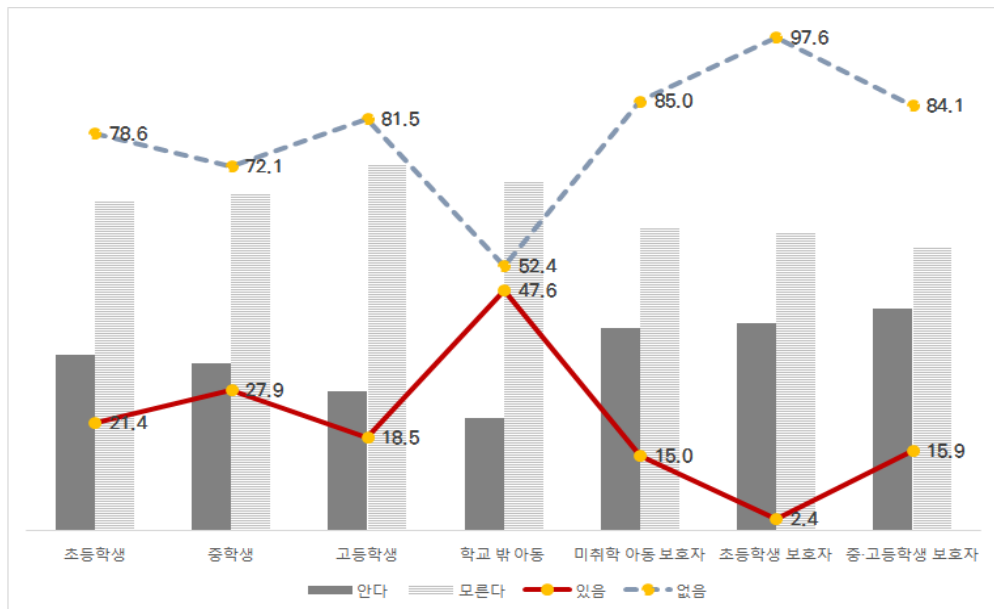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20.3%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9〉 참조).

〈표 3-99〉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396	910	65.2	478	34.2	478	381	79.7	97	20.3
응답자	초등학생	296	193	65.2	103	34.8	103	81	78.6	22	21.4
	중학생	314	210	66.9	104	33.1	104	75	72.1	29	27.9
	고등학생	292	211	72.3	81	27.7	81	66	81.5	15	18.5
	학교 밖 아동	94	65	69.1	21	22.3	21	11	52.4	10	47.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0	60.0	40	40.0	40	34	85.0	6	15.0
	초등학생 보호자	100	59	59.0	41	41.0	41	40	97.6	1	2.4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12	56.0	88	44.0	88	74	84.1	14	15.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89〉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0〉의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10.7%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26.0%), 초등학생 보호자(23.0%)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5.3%), 중학생(5.7%)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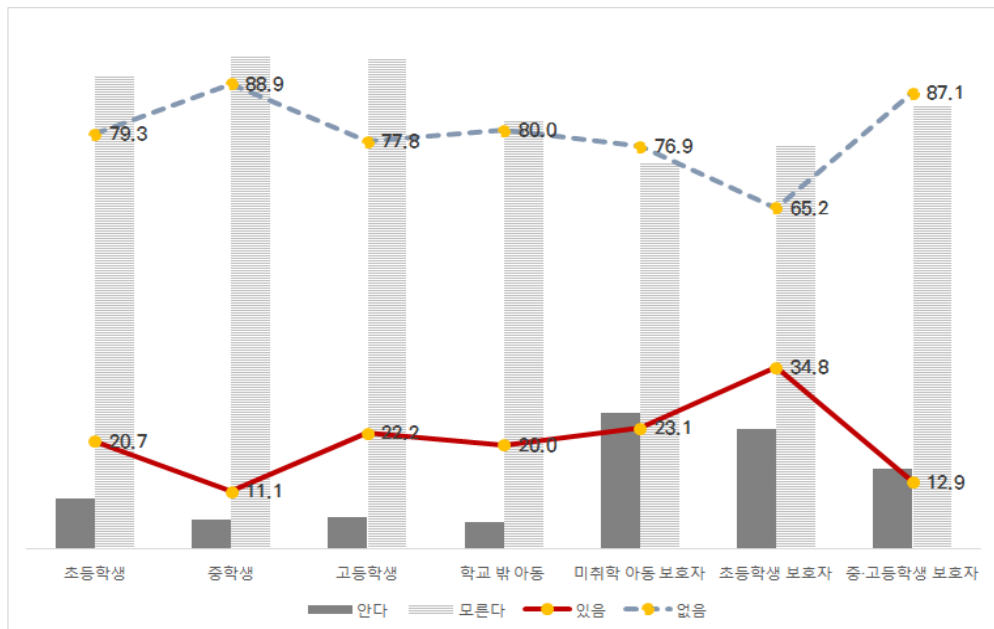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20.7%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는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0〉 참조).

〈표 3-100〉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396	1,234	88.4	150	10.7	150	119	79.3	31	20.7
응답자	초등학생	296	267	90.2	29	9.8	29	23	79.3	6	20.7
	중학생	314	296	94.3	18	5.7	18	16	88.9	2	11.1
	고등학생	292	274	93.8	18	6.2	18	14	77.8	4	22.2
	학교 밖 아동	94	77	81.9	5	5.3	5	4	80.0	1	2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74	74.0	26	26.0	26	20	76.9	6	23.1
	초등학생 보호자	100	77	77.0	23	23.0	23	15	65.2	8	34.8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9	84.5	31	15.5	31	27	87.1	4	12.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0〉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A7_14. 수원외국어마을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1〉의 수원외국어마을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38.0%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보호자(59.0%), 중·고등학생 보호자(53.5%)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 (20.2%), 초등학생(22.0%)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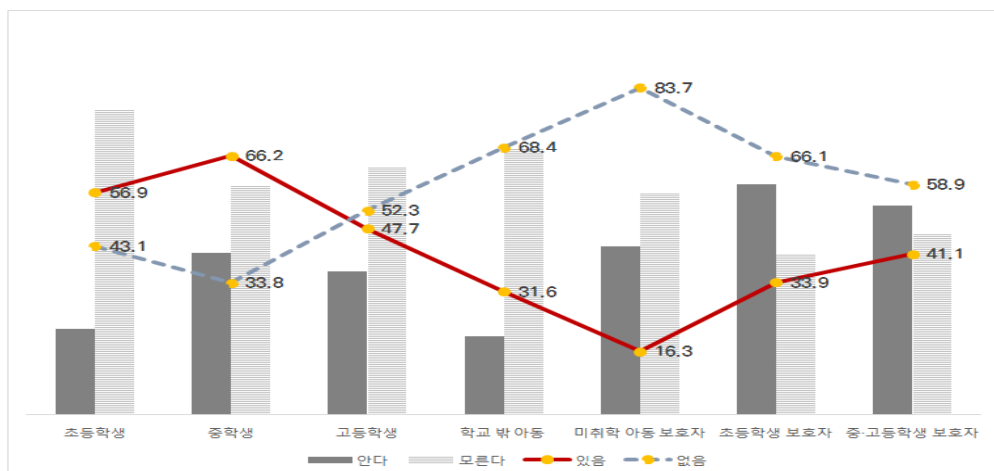
수원외국어마을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47.4%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외국어마을에 대한 미취학·초등학생·중·고등학생 보호자의 관심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91〉 참조).

〈표 3-101〉 수원외국어마을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396	855	61.2	530	38.0	530	279	52.6	251	47.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31	78.0	65	22.0	65	28	43.1	37	56.9
	중학생	314	184	58.6	130	41.4	130	44	33.8	86	66.2
	고등학생	292	185	63.4	107	36.6	107	56	52.3	51	47.7
	학교 밖 아동	94	64	68.1	19	20.2	19	13	68.4	6	31.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7	57.0	43	43.0	43	36	83.7	7	16.3
	초등학생 보호자	100	41	41.0	59	59.0	59	39	66.1	20	33.9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93	46.5	107	53.5	107	63	58.9	44	41.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1〉 수원외국어마을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2〉의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17.7%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23.3%), 미취학 아동 보호자(22.0%)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 (9.6%), 고등학생(14.0%)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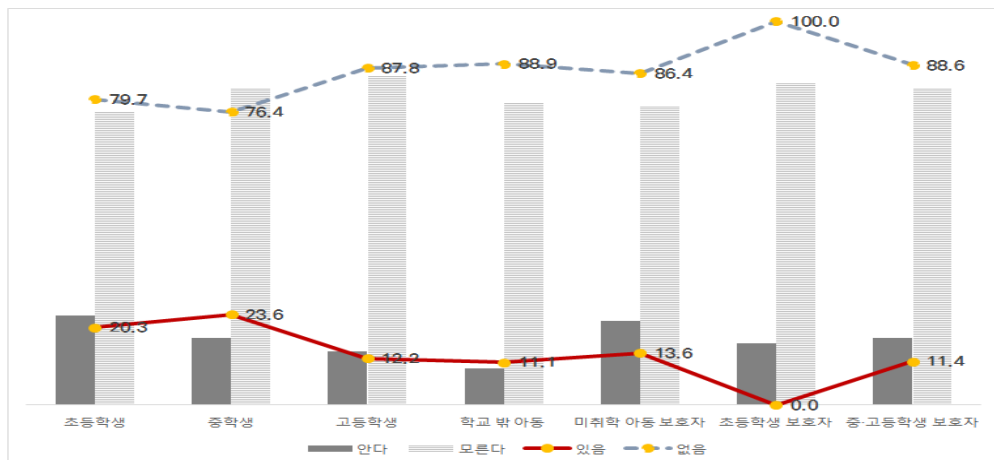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16.2%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2〉 참조).

〈표 3-102〉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396	1,138	81.5	247	17.7	247	207	83.8	40	16.2
응답자	초등학생	296	227	76.7	69	23.3	69	55	79.7	14	20.3
	중학생	314	259	82.5	55	17.5	55	42	76.4	13	23.6
	고등학생	292	251	86.0	41	14.0	41	36	87.8	5	12.2
	학교 밖 아동	94	74	78.7	9	9.6	9	8	88.9	1	1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78	78.0	22	22.0	22	19	86.4	3	13.6
	초등학생 보호자	100	84	84.0	16	16.0	16	16	1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5	82.5	35	17.5	35	31	88.6	4	11.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2〉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3〉의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74.1%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91.0%), 학교 밖 아동(84.0%)의 인지도가 높았고 초등학생(62.2%), 중학생(65.6%)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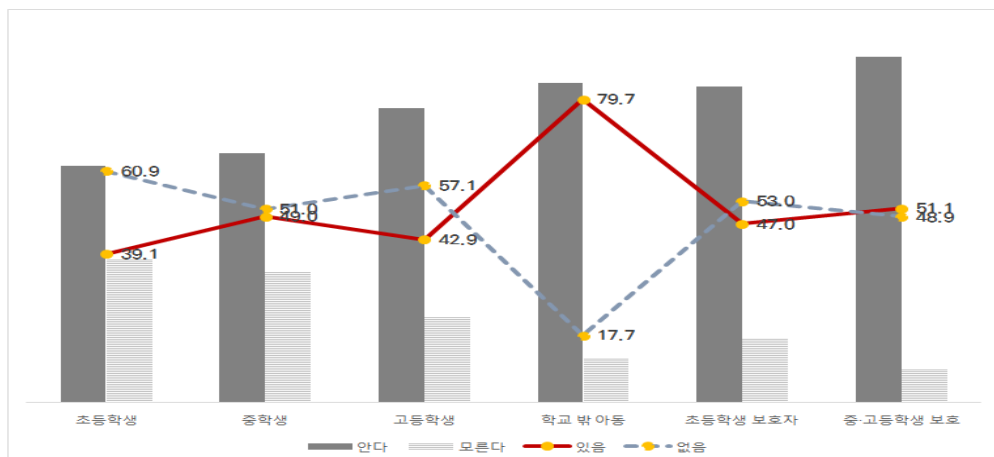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48.4%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청소년문화센터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인지도와 이용경험 여부가 함께 증가하였으며, 학교 밖 아동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보다 많이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3〉 참조).

〈표 3-103〉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332	25.6	960	74.1	960	493	51.4	465	48.4
응답자	초등학생	296	112	37.8	184	62.2	184	112	60.9	72	39.1
	중학생	314	108	34.4	206	65.6	206	105	51.0	101	49.0
	고등학생	292	66	22.6	226	77.4	226	129	57.1	97	42.9
	학교 밖 아동	94	11	11.7	79	84.0	79	14	17.7	63	79.7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17	17.0	83	83.0	83	44	53.0	39	4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	9.0	182	91.0	182	89	48.9	93	51.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청소년수련관(광교, 권선)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4〉의 청소년수련관(광교, 권선)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25.5%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41.5%), 초등학생 보호자(36.0%)의 인지도가 높았고 초등학생 (17.9%), 중학생(19.7%)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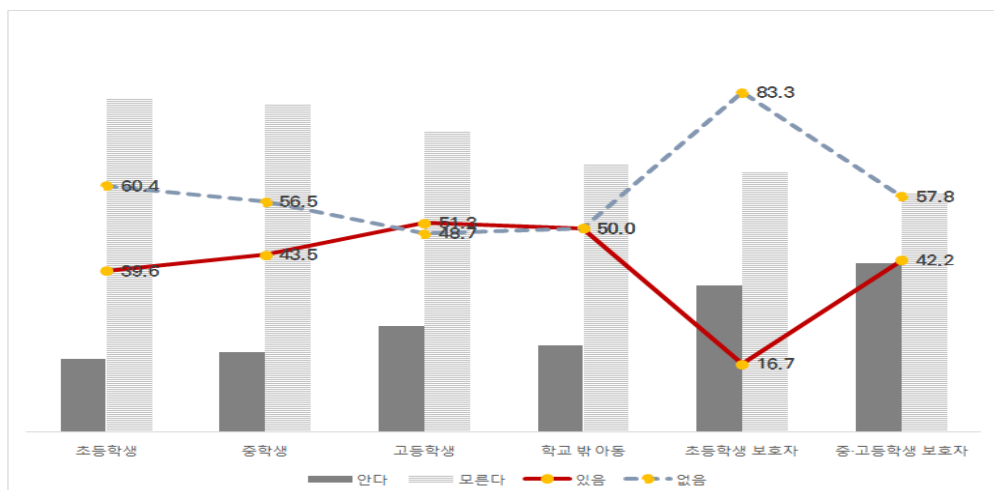
청소년수련관(광교, 권선)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41.8%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청소년수련관(광교, 권선)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4〉 참조).

〈표 3-104〉 청소년수련관(광교, 권선)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954	73.6	330	25.5	330	192	58.2	138	41.8
응답자	초등학생	296	243	82.1	53	17.9	53	32	60.4	21	39.6
	중학생	314	252	80.3	62	19.7	62	35	56.5	27	43.5
	고등학생	292	216	74.0	76	26.0	76	37	48.7	39	51.3
	학교 밖 아동	94	62	66.0	20	21.3	20	10	50.0	10	5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64	64.0	36	36.0	36	30	83.3	6	16.7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17	58.5	83	41.5	83	48	57.8	35	42.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4〉 청소년수련관(광교, 권선)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천)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5〉의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33.8%로 나타났으며 학교 밖 아동(50.0%), 중·고등학생 보호자(42.5%)의 인지도가 높았고 중학생(24.5%), 초등학생(25.3%)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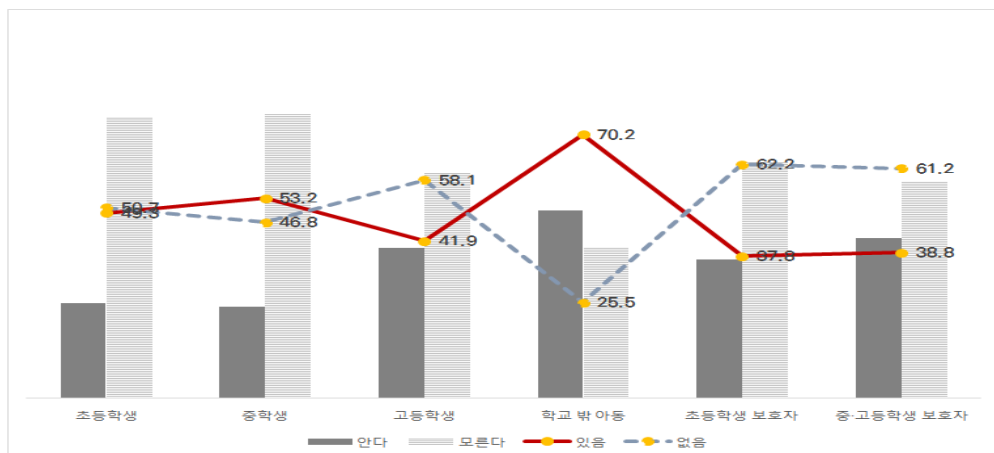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천)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47.3%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천)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인지하였으나 이용경험 여부는 응답자별로 차이가 존재했으며, 학교 밖 아동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보다 많이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5〉 참조).

〈표 3-105〉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천)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849	65.5	438	33.8	438	229	52.3	207	47.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21	74.7	75	25.3	75	38	50.7	37	49.3
	중학생	314	237	75.5	77	24.5	77	36	46.8	41	53.2
	고등학생	292	175	59.9	117	40.1	117	68	58.1	49	41.9
	학교 밖 아동	94	38	40.4	47	50.0	47	12	25.5	33	70.2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63	63.0	37	37.0	37	23	62.2	14	37.8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15	57.5	85	42.5	85	52	61.2	33	38.8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5〉 청소년문화의집(장안, 영통, 칠보, 천천)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6〉의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35.4%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46.0%), 초등학생 보호자(38.0%)의 인지도가 높았고 초등학생(30.4%), 고등학생(30.8%)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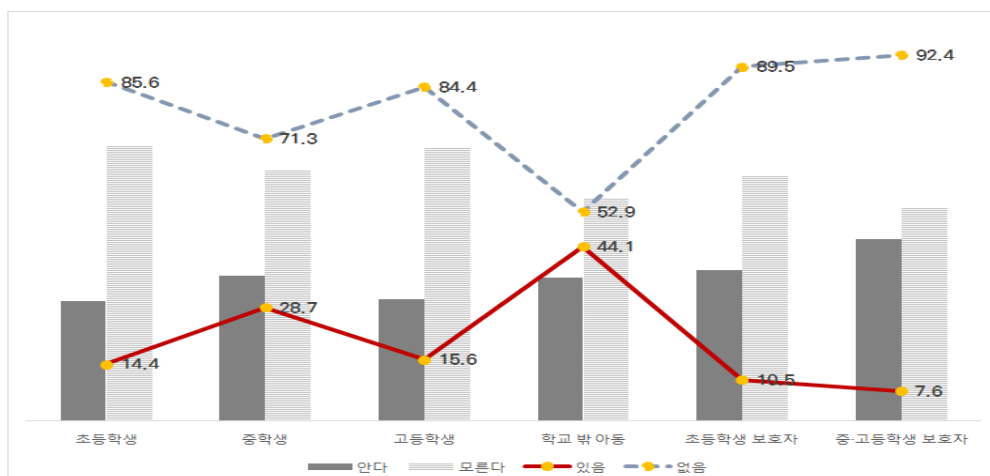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18.7%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6〉 참조).

〈표 3-106〉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830	64.0	459	35.4	459	372	81	86	18.7
응답자	초등학생	296	206	69.6	90	30.4	90	77	85.6	13	14.4
	중학생	314	199	63.4	115	36.6	115	82	71.3	33	28.7
	고등학생	292	202	69.2	90	30.8	90	76	84.4	14	15.6
	학교 밖 아동	94	53	56.4	34	36.2	34	18	52.9	15	44.1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62	62.0	38	38.0	38	34	89.5	4	10.5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08	54.0	92	46.0	92	85	92.4	7	7.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6〉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청소년희망등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7〉의 청소년희망등대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7.1%로 나타났으며, 학교 밖 아동(10.6%), 중·고등학생 보호자(8.5%)의 인지도가 높았고 고등학생(5.8%), 초등학생(6.4%)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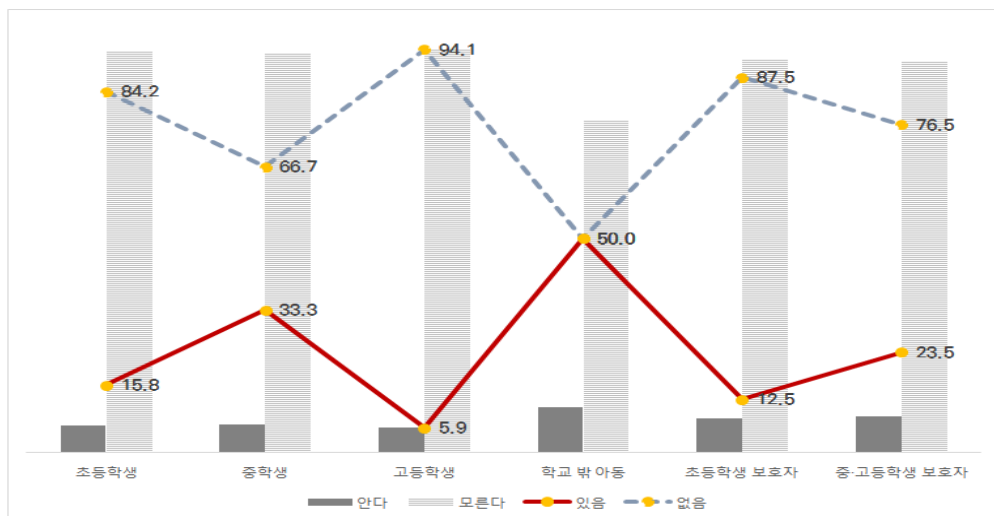
청소년희망등대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22.8%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청소년희망등대는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7) 참조).

〈표 3-107〉 청소년희망등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1,193	92.1	92	7.1	92	71	77.2	21	22.8
응답자	초등학생	296	277	93.6	19	6.4	19	16	84.2	3	15.8
	중학생	314	293	93.3	21	6.7	21	14	66.7	7	33.3
	고등학생	292	275	94.2	17	5.8	17	16	94.1	1	5.9
	학교 밖 아동	94	73	77.7	10	10.6	10	5	50.0	5	5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92	92.0	8	8.0	8	7	87.5	1	12.5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3	91.5	17	8.5	17	13	76.5	4	23.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7〉 청소년희망등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8〉의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9.0%로 나타났으며 중학생(10.5%), 고등학생(10.3%)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6.4%), 중·고등학생 보호자(7.0%)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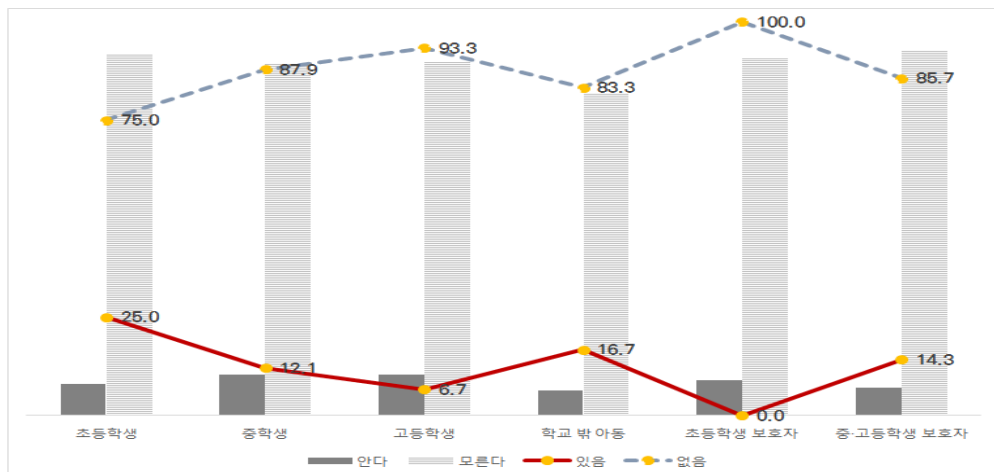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12.9%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는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자가 한정적이므로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8〉 참조).

〈표 3-108〉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1,169	90.2	116	9.0	116	101	87.1	15	12.9
응답자	초등학생	296	272	91.9	24	8.1	24	18	75.0	6	25.0
	중학생	314	281	89.5	33	10.5	33	29	87.9	4	12.1
	고등학생	292	262	89.7	30	10.3	30	28	93.3	2	6.7
	학교 밖 아동	94	77	81.9	6	6.4	6	5	83.3	1	16.7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91	91	9	9.0	9	9	10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6	93	14	7.0	14	12	85.7	2	14.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8〉 단기청소년쉼터(여자, 남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청소년공부방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09〉의 청소년공부방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21.1%로 나타났다으며 초등학생(25.0%), 중·고등학생 보호자(22.5%)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10.6%), 초등학생 보호자(19.0%)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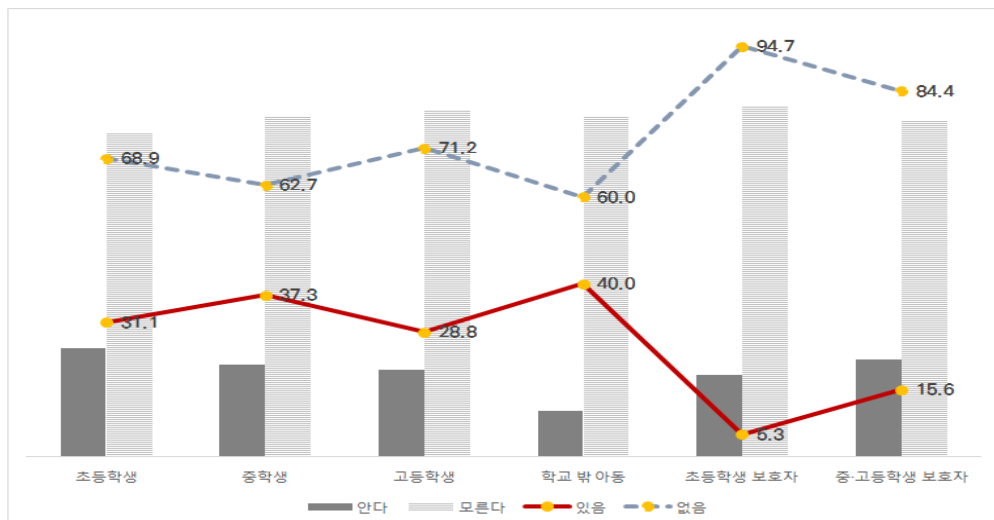
청소년공부방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28.1%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청소년공부방은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9〉 참조).

〈표 3-109〉 청소년공부방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1,012	78.1	274	21.1	274	197	71.9	77	28.1
응답자	초등학생	296	222	75.0	74	25.0	74	51	68.9	23	31.1
	중학생	314	247	78.7	67	21.3	67	42	62.7	25	37.3
	고등학생	292	233	79.8	59	20.2	59	42	71.2	17	28.8
	학교 밖 아동	94	74	78.7	10	10.6	10	6	60.0	4	4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81	81.0	19	19.0	19	18	94.7	1	5.3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55	77.5	45	22.5	45	38	84.4	7	15.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99〉 청소년공부방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0〉의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27.2%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보호자(38.0%), 초등학생 보호자(35.0%)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21.3%), 초등학생(23.0%)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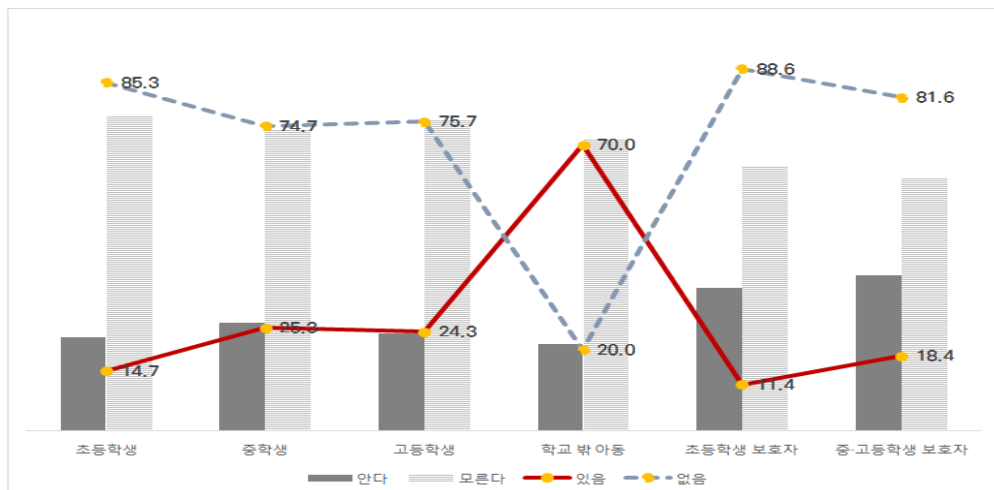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22.7%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0〉 참조).

〈표 3-110〉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937	72.3	352	27.2	352	270	76.7	80	22.7
응답자	초등학생	296	228	77.0	68	23.0	68	58	85.3	10	14.7
	중학생	314	231	73.6	83	26.4	83	62	74.7	21	25.3
	고등학생	292	222	76.0	70	24.0	70	53	75.7	17	24.3
	학교 밖 아동	94	67	71.3	20	21.3	20	4	20.0	14	7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65	65.0	35	35.0	35	31	88.6	4	11.4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24	62.0	76	38.0	76	62	81.6	14	18.4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0〉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1〉의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19.0%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24.7%), 중학생(20.7%)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9.6%),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16.0%)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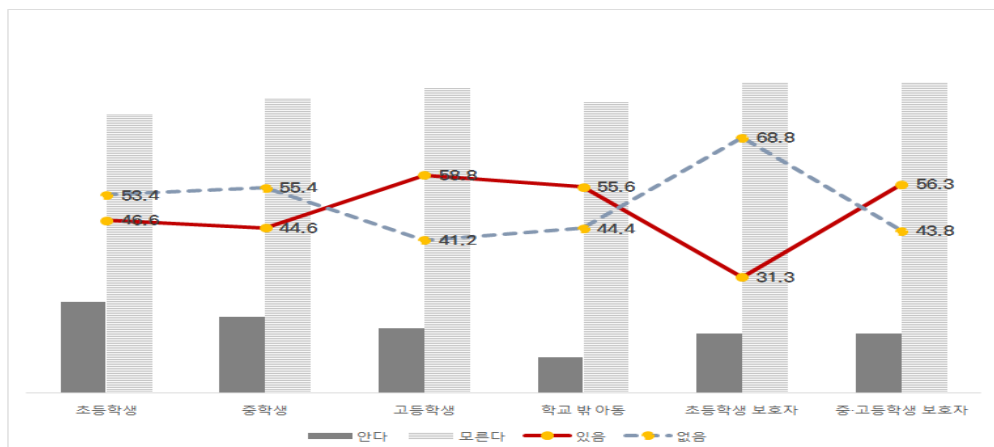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49.2%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은 인지하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지도와 이용경험 여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3-101〉 참조).

〈표 3-111〉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1,039	80.2	246	19.0	246	125	50.8	121	49.2
응답자	초등학생	296	223	75.3	73	24.7	73	39	53.4	34	46.6
	중학생	314	249	79.3	65	20.7	65	36	55.4	29	44.6
	고등학생	292	241	82.5	51	17.5	51	21	41.2	30	58.8
	학교 밖 아동	94	74	78.7	9	9.6	9	4	44.4	5	55.6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84	84.0	16	16.0	16	11	68.8	5	31.3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8	84.0	32	16.0	32	14	43.8	18	56.3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1〉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연못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2〉의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14.1%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보호자(22.0%), 중·고등학생 보호자(17.5%)의 인지도가 높았고 초등학생(9.8%), 중학생(12.7%)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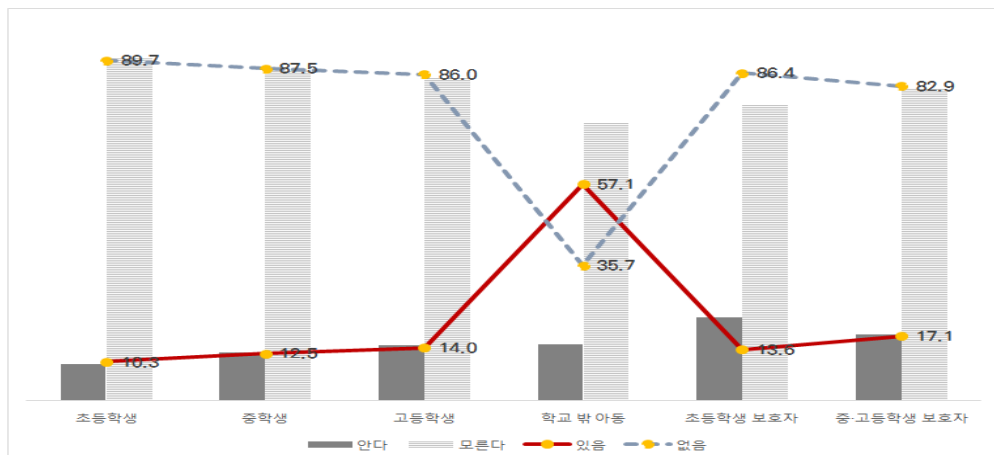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16.9%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 아동만을 위한 센터이므로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을 수밖에 없다(〈그림 3-102〉 참조).

〈표 3-112〉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1,102	85.0	183	14.1	183	151	82.5	31	16.9
응답자	초등학생	296	267	90.2	29	9.8	29	26	89.7	3	10.3
	중학생	314	274	87.3	40	12.7	40	35	87.5	5	12.5
	고등학생	292	249	85.3	43	14.7	43	37	86.0	6	14.0
	학교 밖 아동	94	69	73.4	14	14.9	14	5	35.7	8	57.1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78	78.0	22	22.0	22	19	86.4	3	13.6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5	82.5	35	17.5	35	29	82.9	6	17.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2〉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평생학습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3〉의 평생학습관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28.2%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보호자(54.5%), 초등학생 보호자(52.0%)의 인지도가 높았고 초등학생(13.2%), 학교 밖 아동(13.8%)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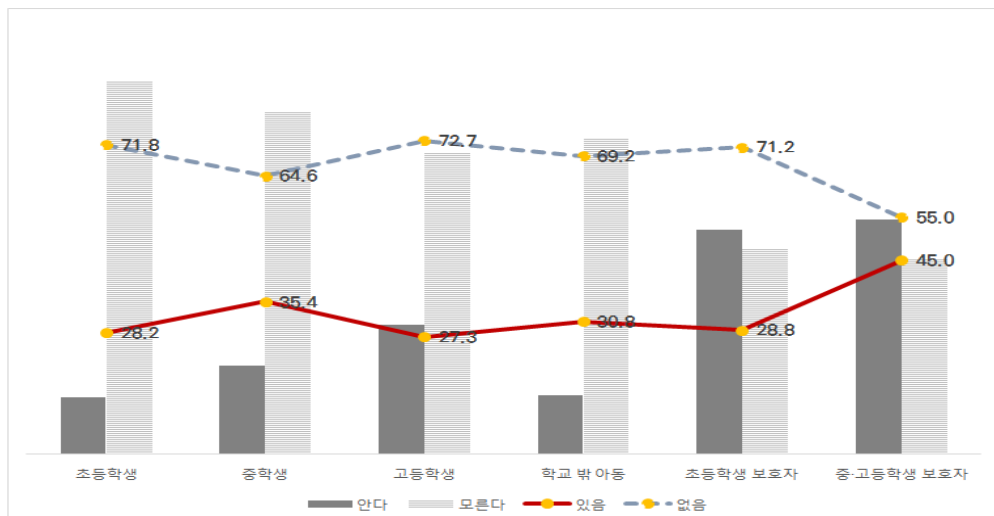
평생학습관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34.4%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1/3 정도가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평생학습관은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의 인지도가 높았고, 이용 경험 여부는 응답자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3〉 참조).

〈표 3-113〉 평생학습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918	70.8	366	28.2	366	240	65.6	126	34.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57	86.8	39	13.2	39	28	71.8	11	28.2
	중학생	314	249	79.3	65	20.7	65	42	64.6	23	35.4
	고등학생	292	204	69.9	88	30.1	88	64	72.7	24	27.3
	학교 밖 아동	94	69	73.4	13	13.8	13	9	69.2	4	30.8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48	48.0	52	52.0	52	37	71.2	15	28.8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91	45.5	109	54.5	109	60	55	49	45.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3〉 평생학습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지역아동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4〉의 지역아동센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30.8%로 나타났다으며 초등학생 보호자(49.0%), 중·고등학생 보호자(46.0%)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19.1%), 고등학생(24.3%)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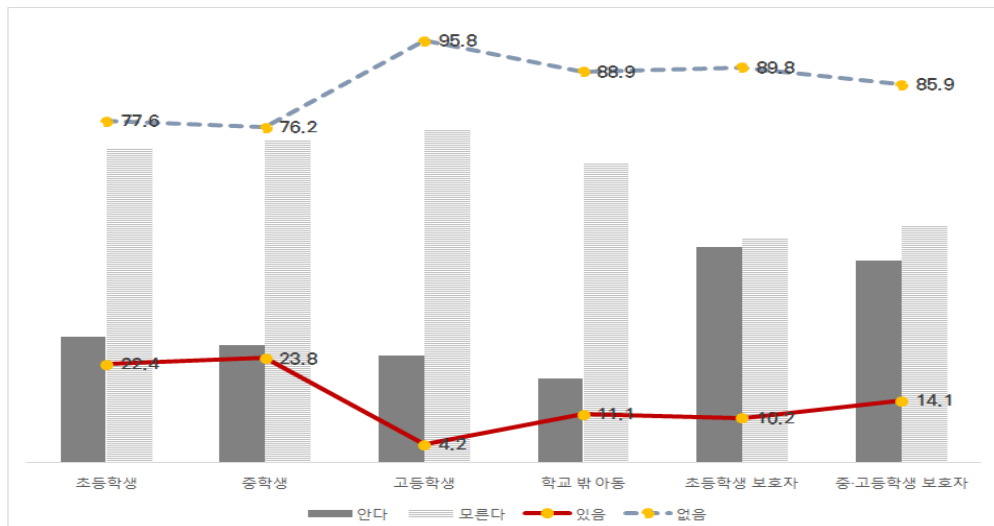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15.5%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생 보호자들의 인지도는 높지만, 이용자가 한정적이므로 이용경험 여부는 응답자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4〉 참조).

〈표 3-114〉 지역아동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885	68.3	399	30.8	399	337	84.5	62	15.5
응답자	초등학생	296	211	71.3	85	28.7	85	66	77.6	19	22.4
	중학생	314	230	73.2	84	26.8	84	64	76.2	20	23.8
	고등학생	292	221	75.7	71	24.3	71	68	95.8	3	4.2
	학교 밖 아동	94	64	68.1	18	19.1	18	16	88.9	2	1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51	51.0	49	49.0	49	44	89.8	5	10.2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08	54.0	92	46.0	92	79	85.9	13	14.1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4〉 지역아동센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5〉의 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5.2%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8.4%), 초등학생 보호자(8.0%)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2.1%), 중·고등학생 보호자(4.0%)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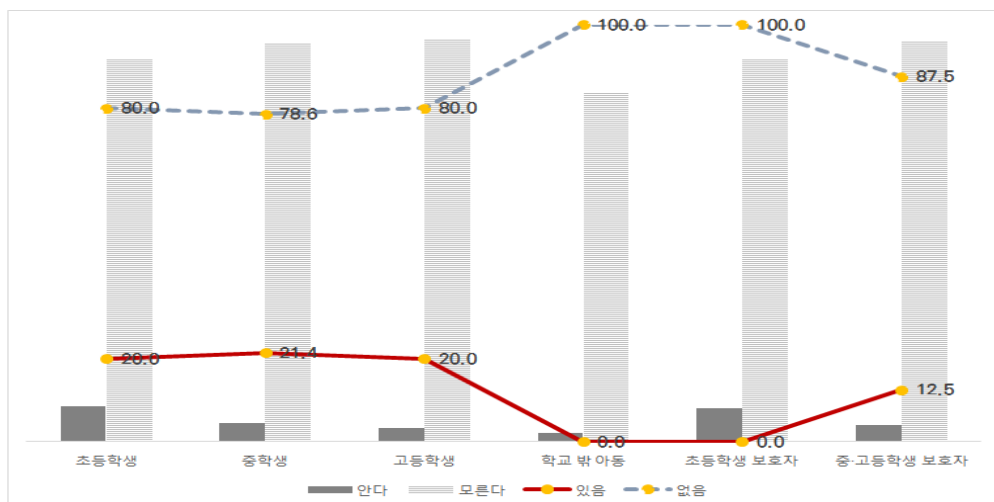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16.4%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5) 참조).

〈표 3-115〉 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1,216	93.8	67	5.2	67	56	83.6	11	16.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71	91.6	25	8.4	25	20	80.0	5	20.0
	중학생	314	300	95.5	14	4.5	14	11	78.6	3	21.4
	고등학생	292	282	96.6	10	3.4	10	8	80.0	2	20.0
	학교 밖 아동	94	79	84.0	2	2.1	2	2	100.0	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92	92.0	8	8.0	8	8	10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92	96.0	8	4.0	8	7	87.5	1	12.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5〉 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6〉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15.4%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보호자(22.0%), 초등학생(18.9%)의 인지도가 높았고 학교 밖 아동(9.6%), 고등학생(11.6%)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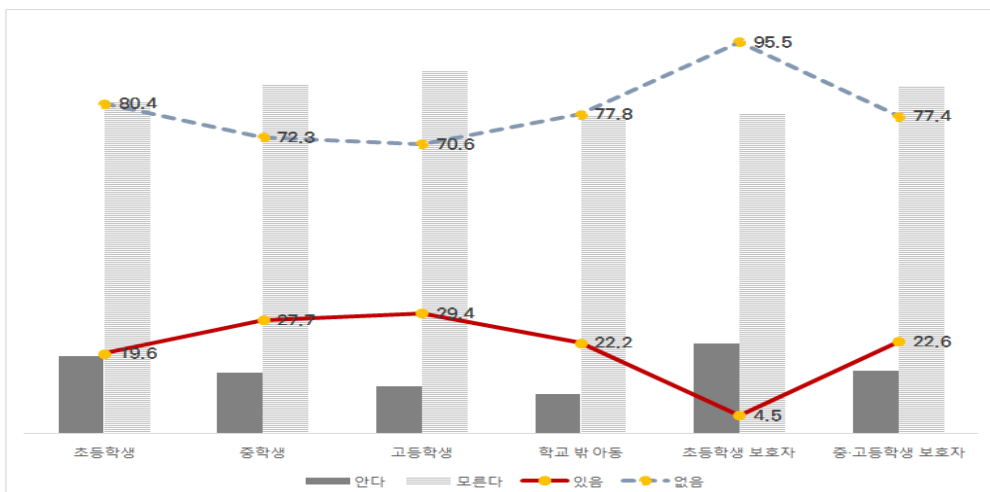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22.1%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응답자 모두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6〉 참조).

〈표 3-1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1,085	83.7	199	15.4	199	155	77.9	44	22.1
응답자	초등학생	296	240	81.1	56	18.9	56	45	80.4	11	19.6
	중학생	314	267	85.0	47	15.0	47	34	72.3	13	27.7
	고등학생	292	258	88.4	34	11.6	34	24	70.6	10	29.4
	학교 밖 아동	94	73	77.7	9	9.6	9	7	77.8	2	22.2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78	78.0	22	22.0	22	21	95.5	1	4.5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9	84.5	31	15.5	31	24	77.4	7	22.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7_14. 작은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7〉의 작은도서관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33.7%로 나타났다. 초등학생(45.6%), 중·고등학생 보호자(42.0%)의 인지도가 높았고 고등학생(21.9%), 학교 밖 아동(22.3%)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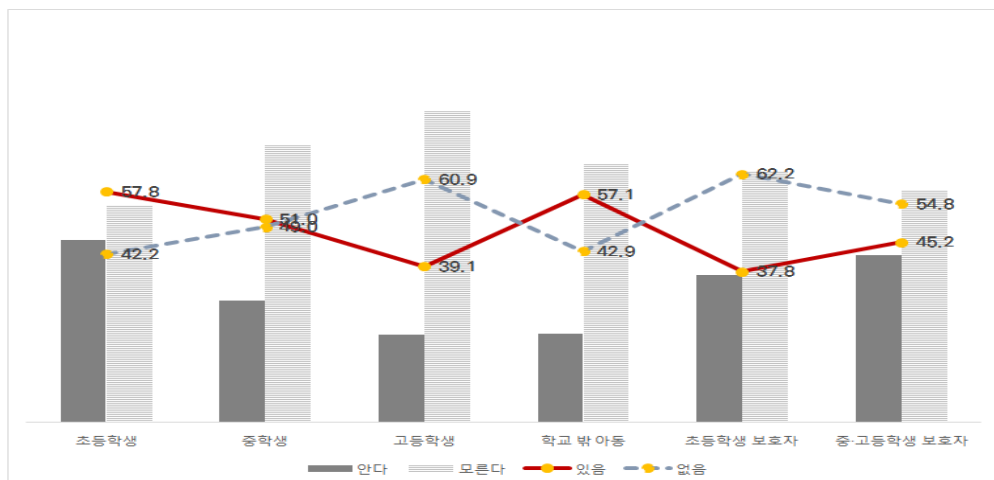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49.4%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작은도서관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가 함께 낮아졌으며, 저학년일수록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7〉 참조).

〈표 3-117〉 작은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6	847	65.4	437	33.7	437	221	50.6	216	49.4
응답자	초등학생	296	161	54.4	135	45.6	135	57	42.2	78	57.8
	중학생	314	218	69.4	96	30.6	96	47	49.0	49	51.0
	고등학생	292	228	78.1	64	21.9	64	39	60.9	25	39.1
	학교 밖 아동	94	61	64.9	21	22.3	21	9	42.9	12	57.1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63	63.0	37	37.0	37	23	62.2	14	37.8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16	58.0	84	42.0	84	46	54.8	38	45.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7〉 작은도서관



A7_14. 드림스타트센터(영화, 세류, 우만)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8〉의 드림스타트센터(영화, 세류, 우만)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7.3%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아동보호자(12.0%), 초등학생 보호자(7.0%), 초등학생(5.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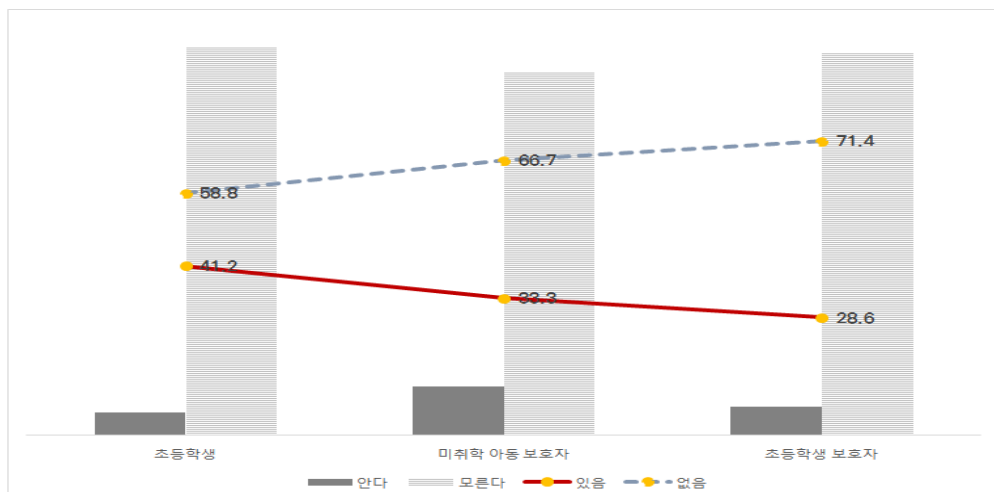
드림스타트센터(영화, 세류, 우만)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36.1%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1/3 정도가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드림스타트센터(영화, 세류, 우만)는 인지도는 낮으나, 이용자가 한정적이므로 이용경험 여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8〉 참조).

〈표 3-118〉 드림스타트센터(영화, 세류, 우만)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496	460	92.7	36	7.3	36	23	63.9	13	36.1
응답자	초등학생	296	279	94.3	17	5.7	17	10	58.8	7	41.2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8	88.0	12	12.0	12	8	66.7	4	33.3
	초등학생 보호자	100	93	93.0	7	7.0	7	5	71.4	2	28.6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8〉 드림스타트센터(영화, 세류, 우만)



A7_14.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 2호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19〉의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 2호점)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의 응답률이 평균 9.6%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10.5%), 초등학생 보호자(7.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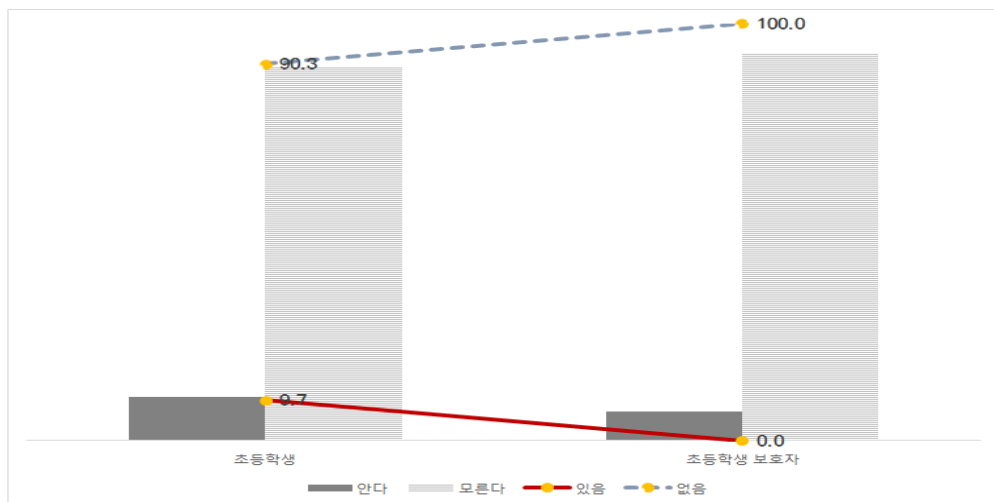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 2호점)의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평균 7.9%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 2호점)는 인지도가 낮고, 이용경험 여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9〉 참조).

〈표 3-119〉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1호점, 2호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96	358	90.4	38	9.6	38	35	92.1	3	7.9
응답자	초등학생	296	265	89.5	31	10.5	31	28	90.3	3	9.7
	중학생	-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100	93	93	7	7.0	7	7	10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그림 3-109〉 수원시 다함께 돌봄센터(1호점, 2호점)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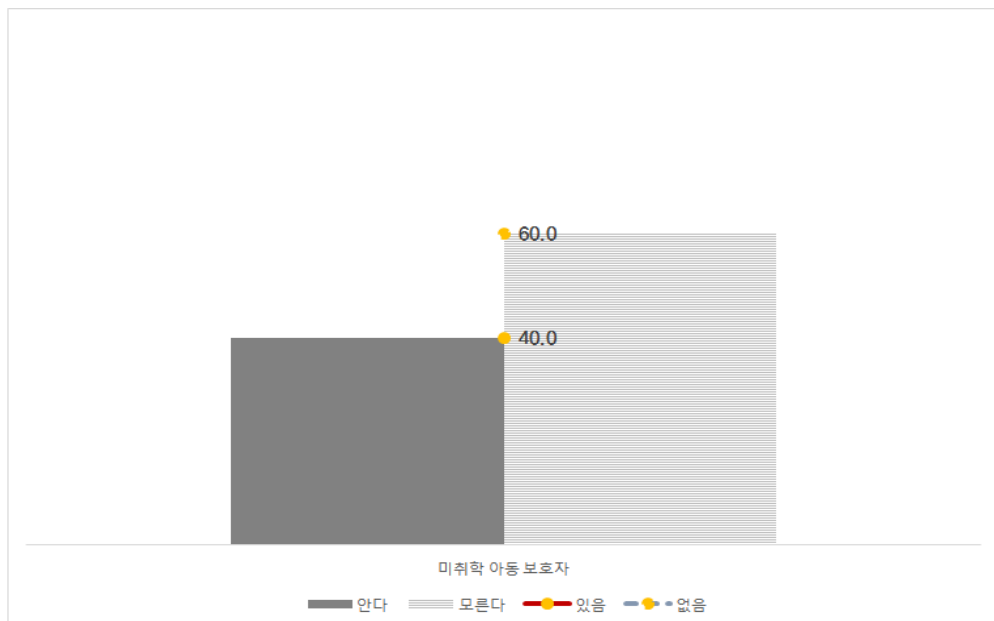
A7_14. 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 동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20〉의 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 동부)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40.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40.0%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2/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0〉 참조).

〈표 3-120〉 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 동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00	60	60.0	40	40.0	40	24	60.0	16	40.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중학생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0	60.0	40	40	24	60.0	16	40.0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그림 3-110〉 육아종합지원센터(수원, 동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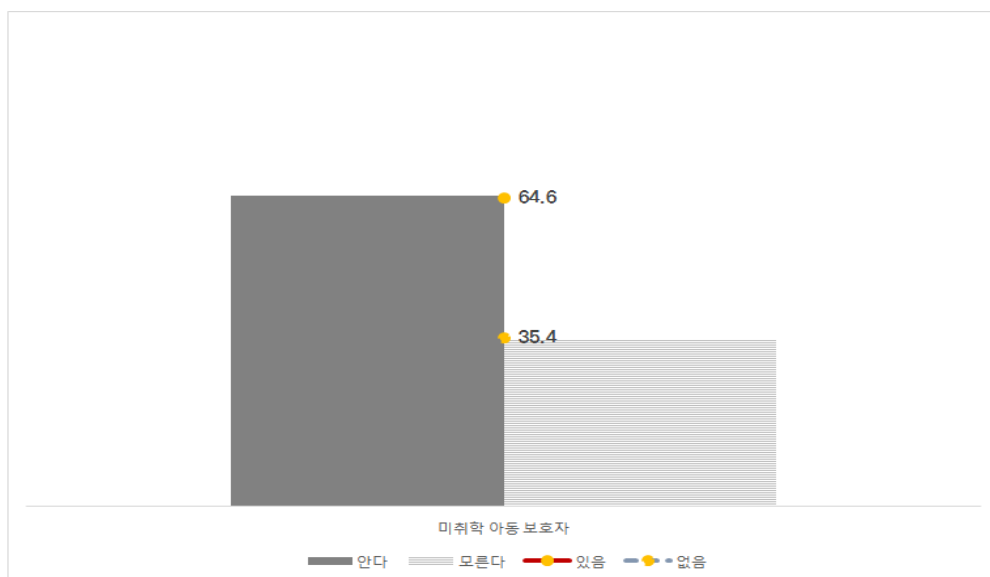
A7_14. 장난감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21〉의 장난감도서관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65.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64.5%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3/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1〉 참조).

〈표 3-121〉 장난감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00	35	35.0	65	65.0	65	23	35.4	42	64.6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중학생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5	35.0	65	65.0	65	23	42	64.6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그림 3-111〉 장난감도서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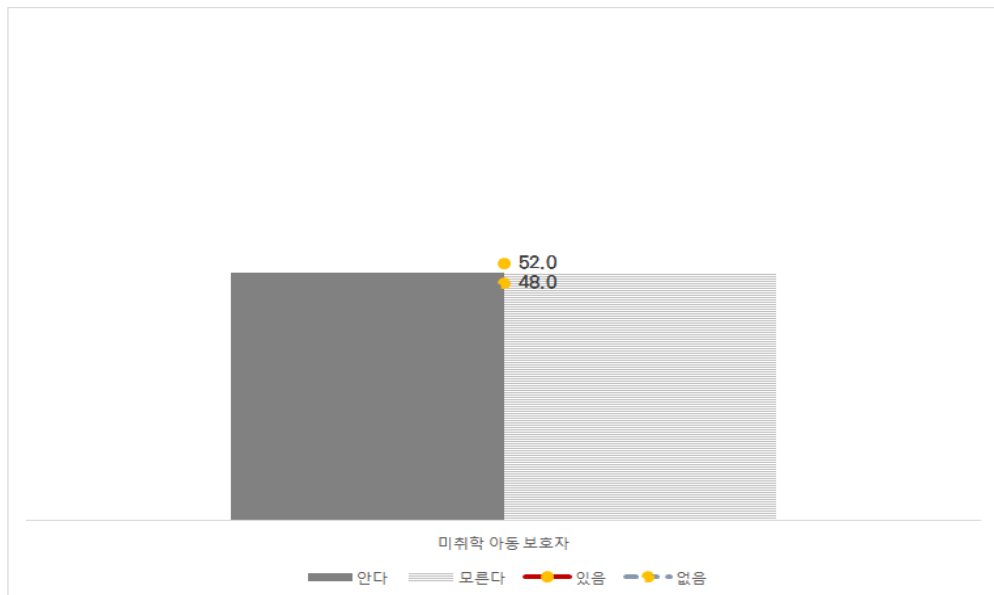
A7_14. 아이러브맘카페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표 3-122〉의 아이러브맘카페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50.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있다’의 응답률이 52.0%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2〉 참조).

〈표 3-122〉 아이러브맘카페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구분	전체 응답 (명)	모른다		안다		전체 응답 (명)	경험없다		경험있다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00	50	50.0	50	50.0	50	24	48.0	26	52.0
응답자	초등학생	-	-	-	-	-	-	-	-	-
	중학생	-	-	-	-	-	-	-	-	-
	고등학생	-	-	-	-	-	-	-	-	-
	학교 밖 아동	-	-	-	-	-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0.0	50	50.0	50	24	48.0	26	52.0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그림 3-112〉 아이러브맘카페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



9.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은 아동친화도 조사 설문 문항에 인권과 차별에 관한 설문 문항을 추가한 것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권일반’에 대한 문항은 아동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모든 사람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 등에 대한 인식과 최근 1년 간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차별경험’에 대한 문항은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고향이나 사는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 등에 의해 얼마나 차별을 당했는지 또는 차별을 했는지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별 설문 문항의 수는 문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표 3-123>과 같다.

〈표 3-123〉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설문 문항 및 문항 수

변수명		설문 문항
A8_1	인권 일반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A8_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A8_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A8_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A8_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A8_6		인권교육 수료 여부
A8_7		인권교육 수료 횟수
A8_8		인권교육을 받은 곳 (복수응답)
A8_9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A8_10	차별 당한 경험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A8_11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A8_1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A8_13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A8_14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A8_1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A8_1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A8_1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변수명		설문 문항				
A8_18	차별한 경험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A8_19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A8_20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A8_21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A8_2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A8_23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A8_24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A8_2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A8_2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A8_2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A8_28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A8_29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문항 수	29	29	27	27	27	27

〈표 3-124〉의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긍정’이 48.8%로 가장 높았고, ‘부정’ 45.9%, ‘모르겠다’ 5.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긍정’의 응답은 미취학 아동 보호자(66.0%), 초등학생 보호자와 중·고등학생 보호자(57.0%)가 높았고,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중학생(36.0%), 고등학생(45.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8.6%)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긍정’의 응답률은 장안구(56.3%)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44.7%), 권선구(46.7%), 영통구(46.8%)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질의에 긍정 응답이 높았지만, 부정 응답과 2.9%로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3〉 참조).

〈표 3-124〉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부정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긍정 (그렇다+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전 체		1,503	690	45.9	733	48.8	80	5.3
응답자	초등학생	296	130	43.9	145	49.0	21	7.1
	중학생	314	177	56.4	113	36.0	24	7.6
	고등학생	292	138	47.3	134	45.9	20	6.8
	학교 밖 아동	94	33	35.1	52	55.3	9	9.6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33	33.0	66	66.0	1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43	43.0	57	57.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84	42.0	114	57.0	2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52	48.6	52	48.6	3	2.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31	39.2	188	56.3	15	4.5
	권선구	360	177	49.2	168	46.7	15	4.2
	팔달구	179	90	50.3	80	44.7	9	5.0
	영통구	523	240	45.9	245	46.8	38	7.3

〈그림 3-113〉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표 3-125〉의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긍정’이 79.8%로 가장 높았고, ‘부정’ 12.2%, ‘모르겠다’ 8.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긍정’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88.0%)와 중·고등학생 보호자(86.5%)가 높았고,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학교 밖 아동(58.5%), 미취학 아동 보호자(70.0%), 초등학생(78.4%)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긍정’의 응답률은 권선구(80.6%)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영통구(79.0%)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질의에 긍정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3-114〉 참조).

〈표 3-125〉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부정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긍정 (그렇다+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83	12.2	1,200	79.8	120	8.0
응답자	초등학생	296	26	8.8	232	78.4	38	12.8
	중학생	314	30	9.6	251	79.9	33	10.5
	고등학생	292	31	10.6	245	83.9	16	5.5
	학교 밖 아동	94	18	19.1	55	58.5	21	22.3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5	25.0	70	70.0	5	5.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	9.0	88	88.0	3	3.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26	13.0	173	86.5	1	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8	16.8	86	80.4	3	2.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40	12.0	267	79.9	27	8.1
	권선구	360	44	12.2	290	80.6	26	7.2
	팔달구	179	18	10.1	144	80.4	17	9.5
	영통구	523	63	12.0	413	79.0	47	9.0

〈그림 3-114〉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표 3-126〉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긍정’이 95.3%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 2.5%, ‘부정’ 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긍정’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98.0%)와 초등학생(97.0%)이 높았고,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93.0%), 중학생(94.3%), 고등학생(94.5%), 학교 밖 아동(94.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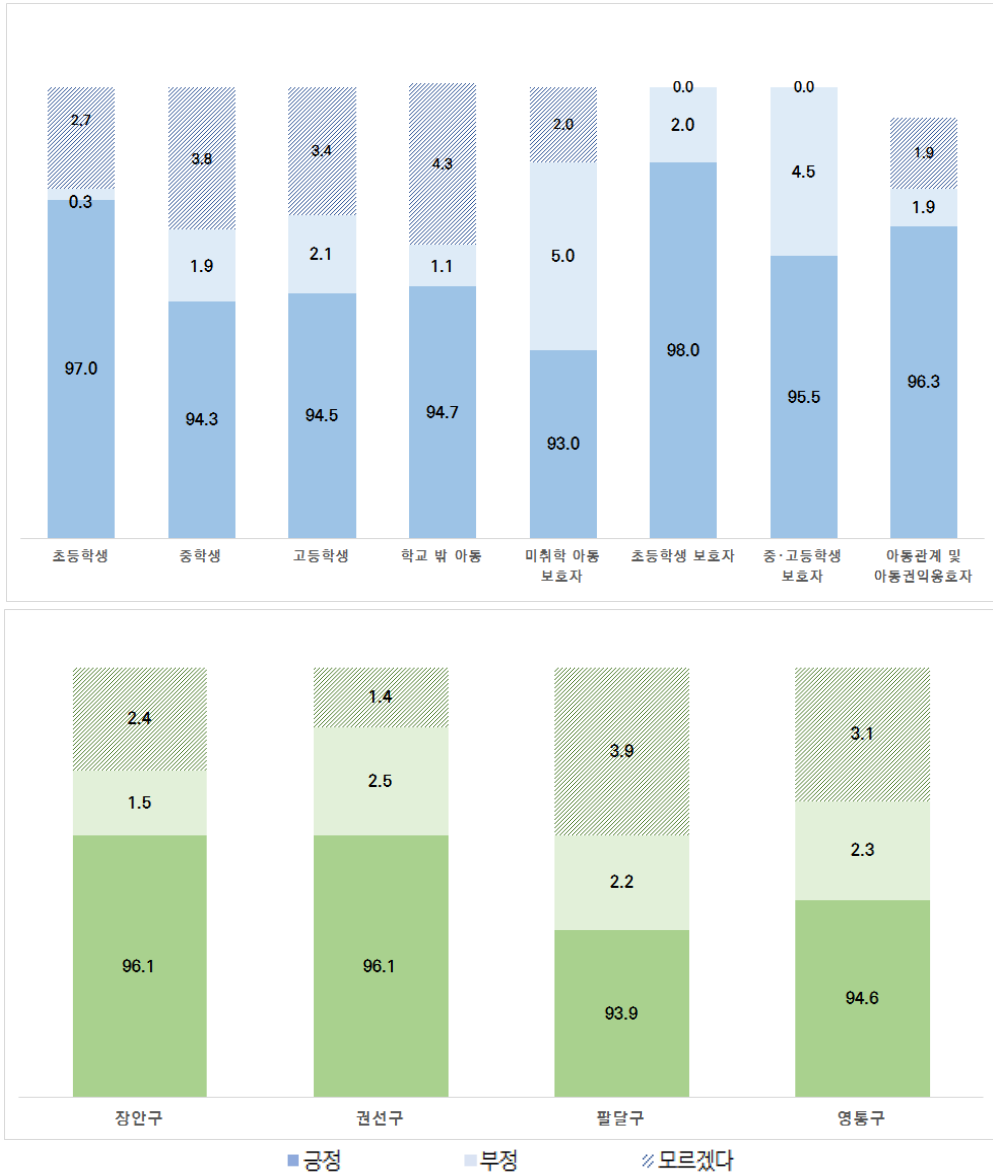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긍정’의 응답률은 권선구와 장안구(96.1%)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93.9%), 영통구(94.6%)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의에 긍정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3-115〉 참조).

〈표 3-126〉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부정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긍정 (그렇다+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전 체		1,503	32	2.1	1,433	95.3	38	2.5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287	97.0	8	2.7
	중학생	314	6	1.9	296	94.3	12	3.8
	고등학생	292	6	2.1	276	94.5	10	3.4
	학교 밖 아동	94	1	1.1	89	94.7	4	4.3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	5.0	93	93.0	2	2.0
	초등학생 보호자	100	2	2.0	98	98.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9	4.5	191	95.5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103	96.3	2	1.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5	1.5	321	96.1	8	2.4
	권선구	360	9	2.5	346	96.1	5	1.4
	팔달구	179	4	2.2	168	93.9	7	3.9
	영통구	523	12	2.3	495	94.6	16	3.1

〈그림 3-115〉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표 3-127〉의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긍정’이 95.9%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 2.1%, ‘부정’ 2.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긍정’의 응답은 초등학생(98.3%)과 중·고등학생 보호자(96.5%)가 높았고,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학교 밖 아동(92.6%), 고등학생(94.9%), 미취학 아동 보호자(95.0%), 중학생(95.2%)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긍정’의 응답률은 권선구(97.5%)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92.7%), 영통구(95.4%)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의에 긍정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3-116> 참조).

〈표 3-127〉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부정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긍정 (그렇다+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전 체		1,503	30	2.0	1,441	95.9	32	2.1
응답자	초등학생	296	1	0.3	291	98.3	4	1.4
	중학생	314	4	1.3	299	95.2	11	3.5
	고등학생	292	6	2.1	277	94.9	9	3.1
	학교 밖 아동	94	3	3.2	87	92.6	4	4.3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4	4.0	95	95.0	1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4	4.0	96	96.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6	3.0	193	96.5	1	0.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2	1.9	103	96.3	2	1.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6	1.8	322	96.4	6	1.8
	권선구	360	7	1.9	351	97.5	2	0.6
	팔달구	179	7	3.9	166	92.7	6	3.4
	영통구	523	8	1.5	499	95.4	16	3.1

〈그림 3-11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표 3-128〉의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긍정’이 84.4%로 가장 높았고, ‘부정’ 9.5%, ‘모르겠다’ 6.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긍정’의 응답은 초등학생(94.9%)과 중학생(91.4%)의 응답률이 높았고,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64.0%), 초등학생 보호자(67.0%), 중·고등학생 보호자(75.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6.6%), 학교 밖 아동 (78.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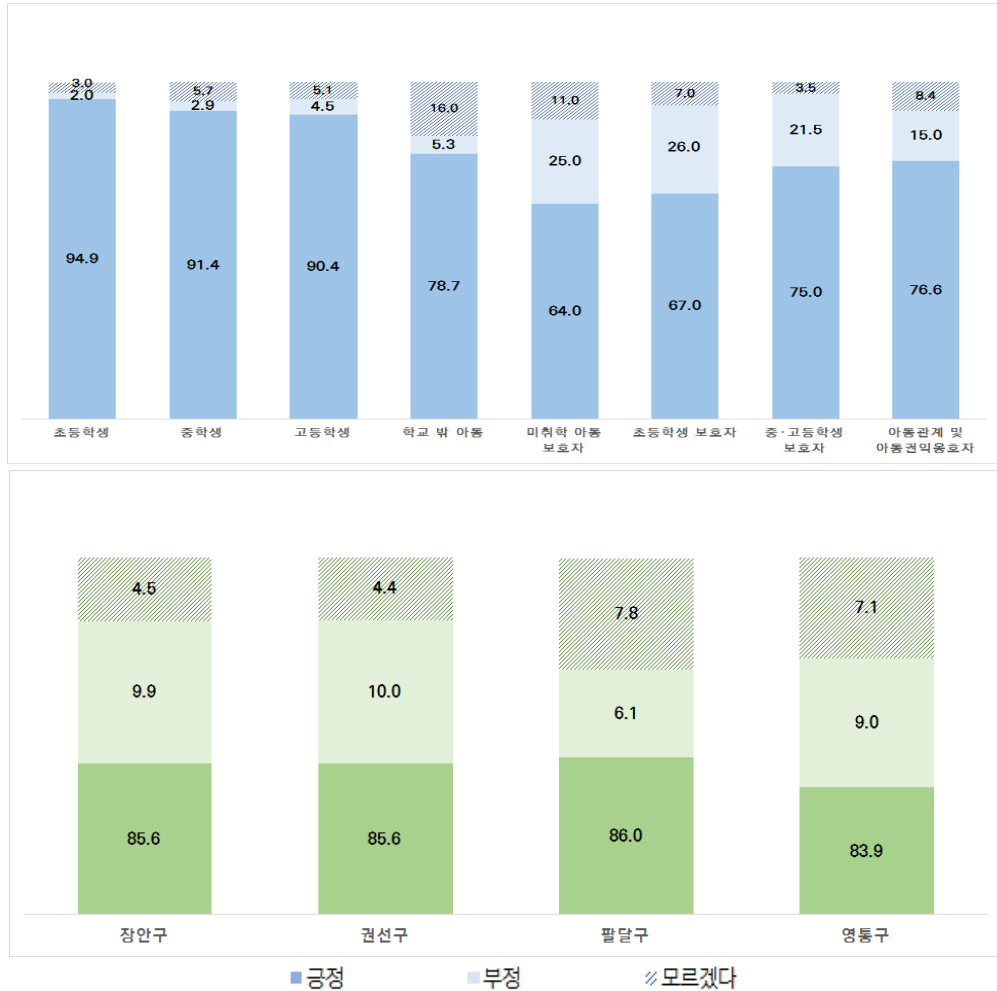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긍정’의 응답률은 팔달구(86.0%)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긍정’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영통구(83.9%)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의에 긍정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3-117〉 참조).

〈표 3-128〉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구분		전체 응답 (명)	부정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긍정 (그렇다+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3	9.5	1,269	84.4	91	6.1
응답자	초등학생	296	6	2.0	281	94.9	9	3.0
	중학생	314	9	2.9	287	91.4	18	5.7
	고등학생	292	13	4.5	264	90.4	15	5.1
	학교 밖 아동	94	5	5.3	74	78.7	15	16.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5	25.0	64	64.0	11	1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26	26.0	67	67.0	7	7.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43	21.5	150	75.0	7	3.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6	15.0	82	76.6	9	8.4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3	9.9	286	85.6	15	4.5
	권선구	360	36	10.0	308	85.6	16	4.4
	팔달구	179	11	6.1	154	86.0	14	7.8
	영통구	523	47	9.0	439	83.9	37	7.1

〈그림 3-11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표 3-129〉의 ‘최근 1년간 인권 교육 수료 여부 및 수료 횟수’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수료) 있음’이 59.1%로 가장 높았고, ‘(수료) 없음’ 40.7%, ‘(수료) 무응답’ 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수료) 있음’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6.9%)와 중학생(76.8%)이 높았고, 전체 ‘(수료) 있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20%), 중·고등학생 보호자(23%), 초등학생 보호자(24%), 학교 밖 아동(42.6%)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수료) 있음’의 응답률은 영통구(57.9%)가 가장 높았으나, 모든 지역이 전체 ‘(수료) 있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수료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인권교육 수료 횟수의 평균 응답률은 3.4회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수료 횟수’의 응답은 중학생(4.9회), 초등학생(3.7회)이 높았고, 평균 응답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초등학생 보호자(1.2회), 중·고등학생 보호자(1.6회),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2.0회), 미취학 아동 보호자(2.1회), 고등학생·학교 밖 아동(2.9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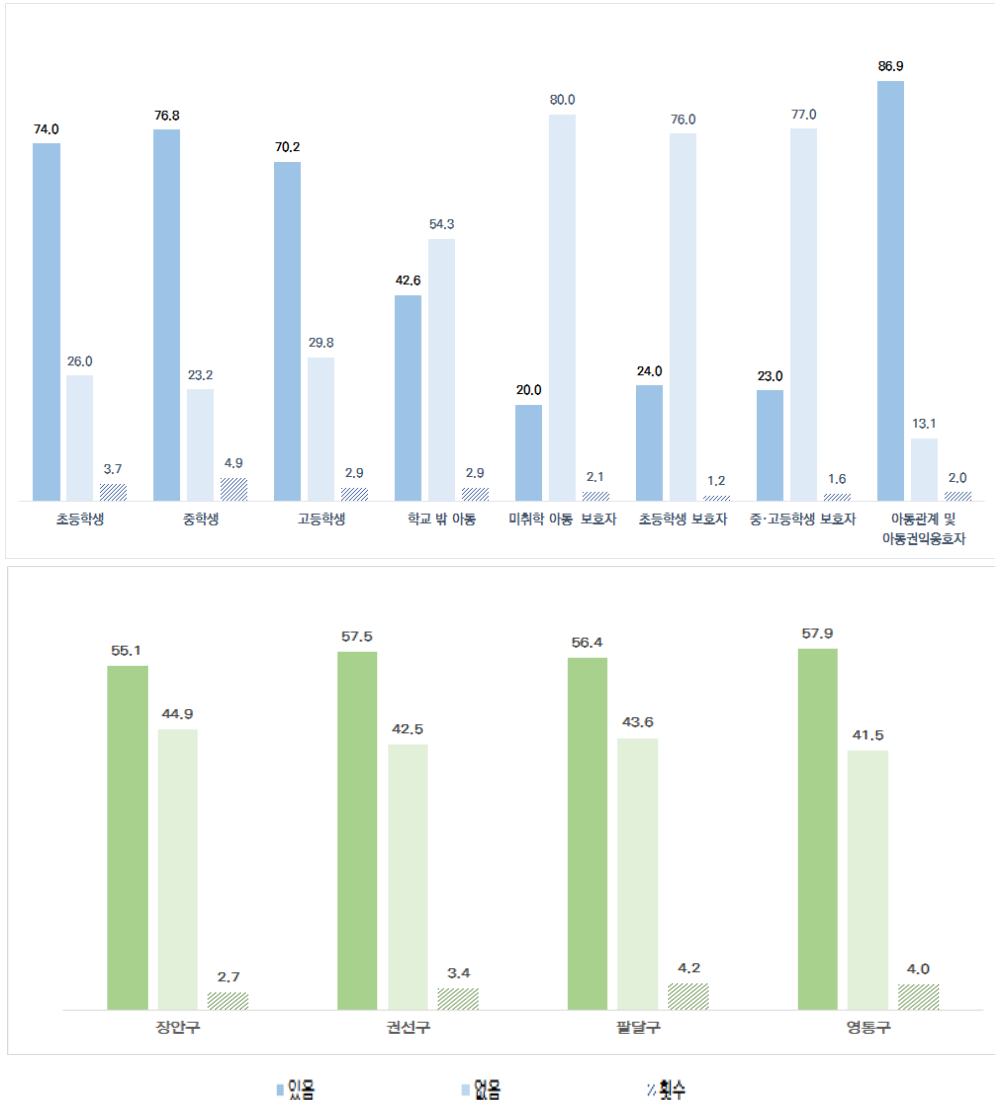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수료 횟수’의 응답률은 팔달구(4.2회)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수료 횟수’ 평균 응답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장안구(2.7회)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질의에 ‘있음’ 응답이 높았고, 수료 횟수는 3.4회로 나타났다(〈그림 3-118〉 참조).

〈표 3-129〉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수료 여부 및 수료 횟수

구분		전체 응답 (명)	(수료) 있음		(수료) 없음		무응답		수료 횟수	
			명	%	명	%	명	%	명	회
전 체		1,503	888	59.1	612	40.7	3	0.2	883	3.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19	74.0	77	26.0	0	0.0	219	3.7
	중학생	314	241	76.8	73	23.2	0	0.0	241	4.9
	고등학생	292	205	70.2	87	29.8	0	0.0	205	2.9
	학교 밖 아동	94	40	42.6	51	54.3	3	3.2	35	2.9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20	20.0	80	80.0	0	0.0	20	2.1
	초등학생 보호자	100	24	24.0	76	76.0	0	0.0	24	1.2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46	23.0	154	77.0	0	0.0	46	1.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93	86.9	14	13.1	0	0.0	93	2.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184	55.1	150	44.9	0	0.0	184	2.7
	권선구	360	207	57.5	153	42.5	0	0.0	207	3.4
	팔달구	179	101	56.4	78	43.6	0	0.0	101	4.2
	영통구	523	303	57.9	217	41.5	3	0.6	298	4.0

〈그림 3-118〉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수료 여부 및 수료 횟수



〈표 3-130〉의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별로 인권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54.7%),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37.2%),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년단체, 사회단체 등)(13.2%), 학교(8.6%), 직장(8.2%), 공공기관(6.8%), 온라인 커뮤니티(4.3%), 기타(3.3%), 시민단체(1.1%)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은 학교 밖 아동(87.5%)이 가장 많이 교육받았으며,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등학생(64.9%),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년단체, 사회단체 등)

은 초등학생(19.2%), 직장은 중·고등학생 보호자(52.2%), 학교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8.1%), 공공기관은 초등학생 보호자(33.3%),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28.0%), 시민단체는 중·고등학생 보호자(10.9%), 기타는 초등학생(5.5%)이 가장 많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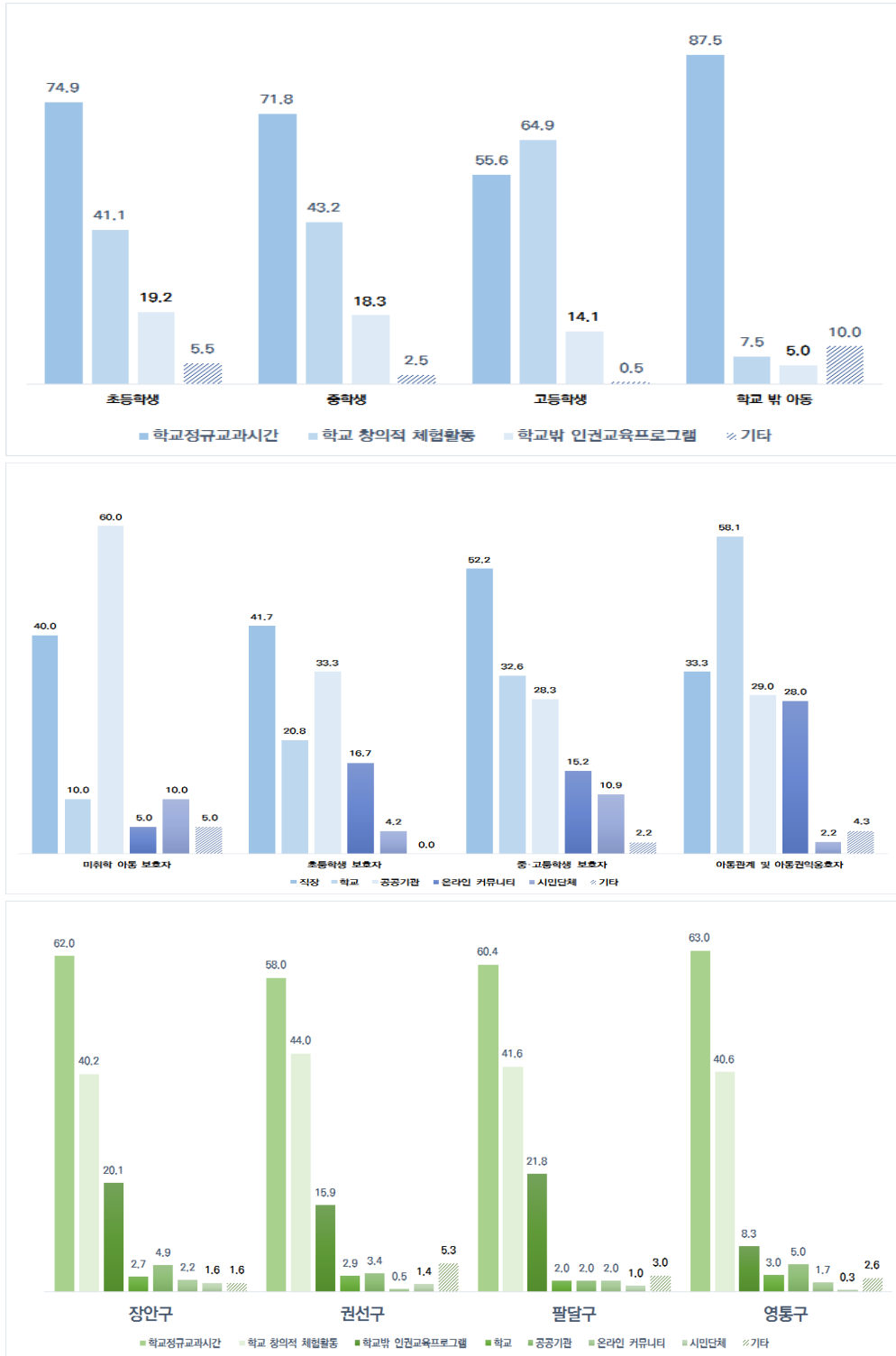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 교육을 받은 곳이 $\pm 5\%$ 내외로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종합하면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에 대한 질의에 학생과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학교에서, 보호자들은 직장 및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9〉 참조).

〈표 3-130〉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

구분		전체 응답 (명)	학교 정규교과시간 (국어,사회 등)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청년단체, 사회단체 등)		직장		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888	486	54.7	330	37.2	117	13.2	73	8.2	76	8.6
응답자	초등학생	219	164	74.9	90	41.1	42	19.2	-	-	-	-
	중학생	241	173	71.8	104	43.2	44	18.3	-	-	-	-
	고등학생	205	114	55.6	133	64.9	29	14.1	-	-	-	-
	학교 밖 아동	40	35	87.5	3	7.5	2	5.0	-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20	-	-	-	-	-	-	8	40.0	2	10.0
	초등학생 보호자	24	-	-	-	-	-	-	10	41.7	5	20.8
	중·고등학생 보호자	46	-	-	-	-	-	-	24	52.2	15	32.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93	-	-	-	-	-	-	31	33.3	54	58.1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84	114	62.0	74	40.2	37	20.1	8	4.3	5	2.7
	권선구	207	120	58.0	91	44.0	33	15.9	12	5.8	6	2.9
	팔달구	101	61	60.4	42	41.6	22	21.8	4	4.0	2	2.0
	영통구	303	191	63.0	123	40.6	25	8.3	18	5.9	9	3.0
구분		전체 응답 (명)	공공기관		온라인 커뮤니티		시민단체		기타			
			명	%	명	%	명	%	명	%		
전 체		888	60	6.8	38	4.3	10	1.1	29	3.3		
응답자	초등학생	219	-	-	-	-	-	-	12	5.5		
	중학생	241	-	-	-	-	-	-	6	2.5		
	고등학생	205	-	-	-	-	-	-	1	0.5		
	학교 밖 아동	40	-	-	-	-	-	-	4	1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20	12	60.0	1	5.0	2	10.0	1	5.0		
	초등학생 보호자	24	8	33.3	4	16.7	1	4.2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46	13	28.3	7	15.2	5	10.9	1	2.2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93	27	29.0	26	28.0	2	2.2	4	4.3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84	9	4.9	4	2.2	3	1.6	3	1.6		
	권선구	207	7	3.4	1	0.5	3	1.4	11	5.3		
	팔달구	101	2	2.0	2	2.0	1	1.0	3	3.0		
	영통구	303	15	5.0	5	1.7	1	0.3	8	2.6		

〈그림 3-119〉 인권교육을 받은 곳(복수응답)



〈표 3-131〉의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도움이 된다’가 92.2%, ‘도움이 되지 않는다’ 7.8%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도움이 된다’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7.8%)와 중·고등학생 보호자(95.7%)가 높았고, 전체 ‘도움이 된다’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고등학생(87.3%), 중학생·초등학생 보호자(91.7%), 학교 밖 아동(90.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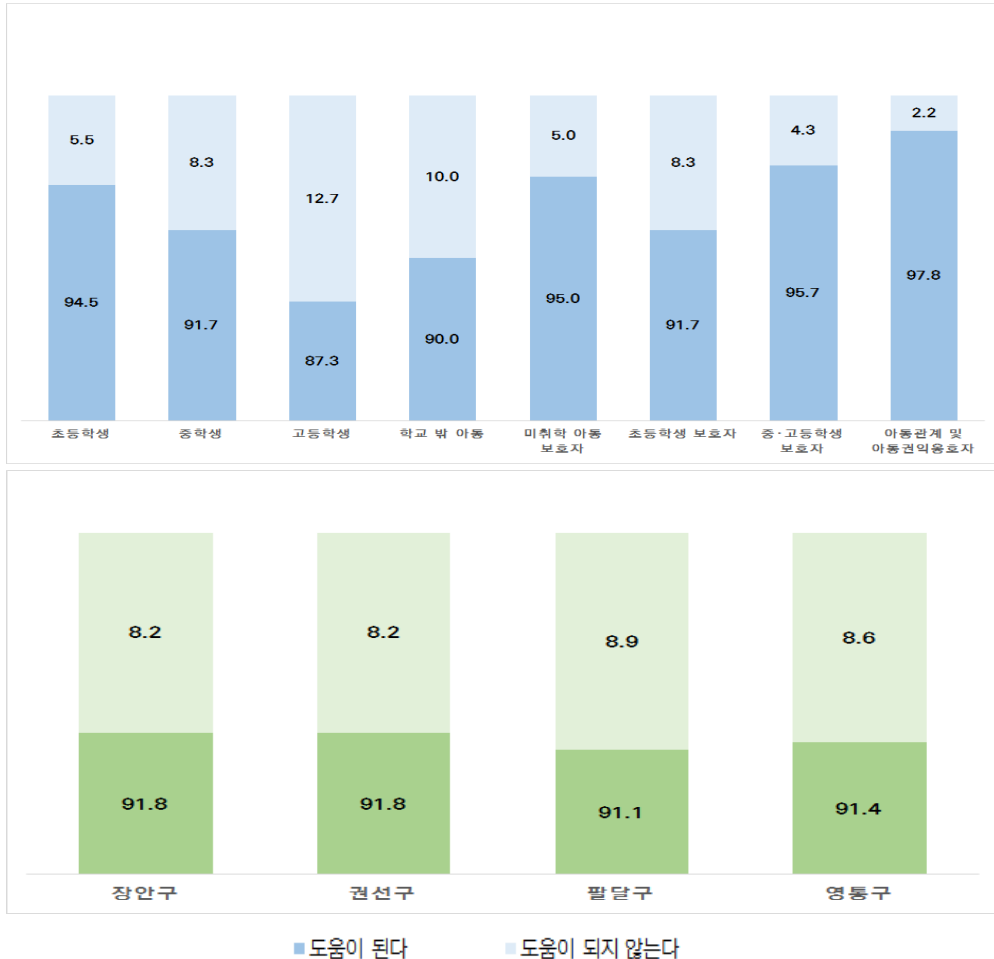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도움이 된다’의 응답률은 장안구와 권선구(91.8%)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모든 지역이 전체 ‘도움이 된다’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질의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3-120〉 참조).

〈표 3-131〉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구분		전체 응답 (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명	%	명	%
전 체		888	69	7.8	819	92.2
응답자	초등학생	219	12	5.5	207	94.5
	중학생	241	20	8.3	221	91.7
	고등학생	205	26	12.7	179	87.3
	학교 밖 아동	40	4	10.0	36	9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20	1	5.0	19	95.0
	초등학생 보호자	24	2	8.3	22	91.7
	중·고등학생 보호자	46	2	4.3	44	95.7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93	2	2.2	91	97.8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184	15	8.2	169	91.8
	권선구	207	17	8.2	190	91.8
	팔달구	101	9	8.9	92	91.1
	영통구	303	26	8.6	277	91.4

〈그림 3-120〉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표 3-132〉의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62.0%로 가장 높았으며, ‘일 년에 1~2회 정도’ 26.1%, ‘2~3개월에 1~2회 정도’ 6.5%, ‘한 달에 1~2회 정도’ 3.9%, ‘1주일에 1~2회 정도’ 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생(73.3%), 학교 밖 아동(70.2%)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54.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6.1%), 초등학생 보호자(57.0%), 고등학생(57.2%), 중·고등학생 보호자(60.0%), 중학생(60.8%)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권선구(65.3%)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영통구(60.6%), 장안구(61.7%)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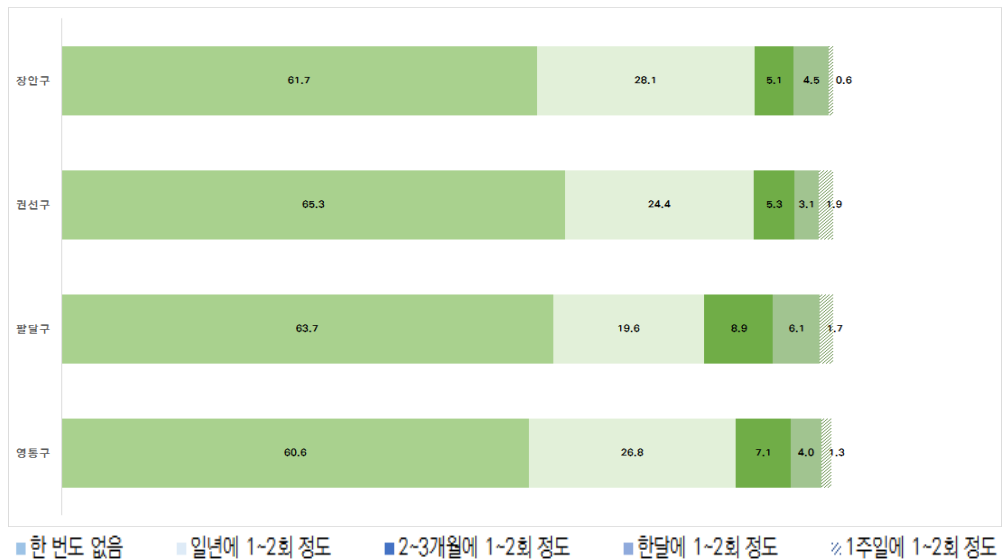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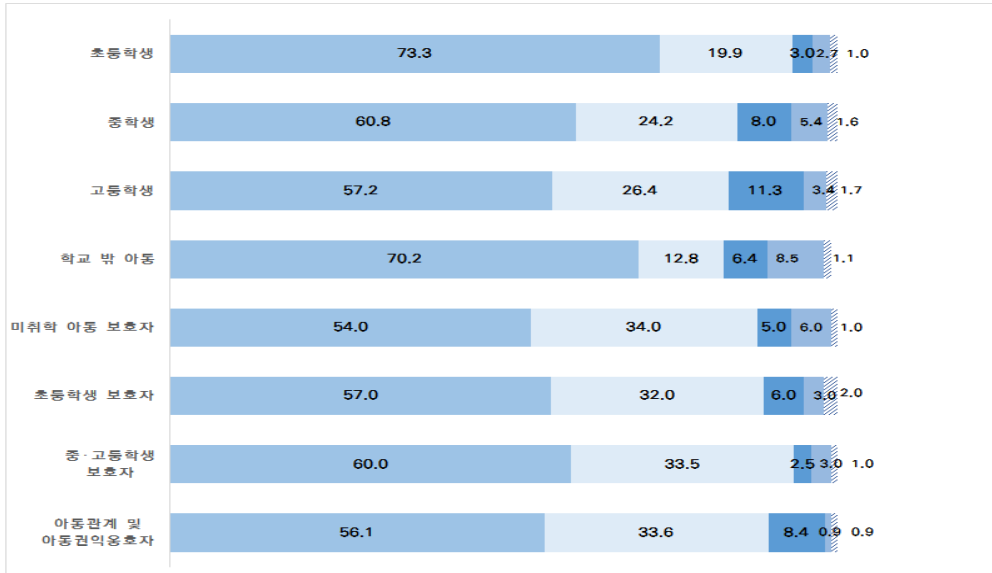
나타났다.

종합하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성별의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1〉 참조).

〈표 3-132〉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932	62.0	393	26.1	98	6.5	59	3.9	20	1.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17	73.3	59	19.9	9	3.0	8	2.7	3	1.0
	중학생	314	191	60.8	76	24.2	25	8.0	17	5.4	5	1.6
	고등학생	292	167	57.2	77	26.4	33	11.3	10	3.4	5	1.7
	학교 밖 아동	94	66	70.2	12	12.8	6	6.4	8	8.5	1	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54	54.0	34	34.0	5	5.0	6	6.0	1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57	57.0	32	32.0	6	6.0	3	3.0	2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20	60.0	67	33.5	5	2.5	6	3.0	2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60	56.1	36	33.6	9	8.4	1	0.9	1	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06	61.7	94	28.1	17	5.1	15	4.5	2	0.6
	권선구	360	235	65.3	88	24.4	19	5.3	11	3.1	7	1.9
	팔달구	179	114	63.7	35	19.6	16	8.9	11	6.1	3	1.7
	영통구	523	317	60.6	140	26.8	37	7.1	21	4.0	7	1.3

〈그림 3-12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표 3-133〉의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71.1%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17.9%, ‘2~3개월에 1~2회 정도’ 5.7%, ‘한 달에 1~2회 정도’ 3.4%, ‘1주일에 1~2회 정도’ 1.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교생(81.4%)과 학교 밖 아동(76.6%) 높았고, 전

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고등학생(54.1%)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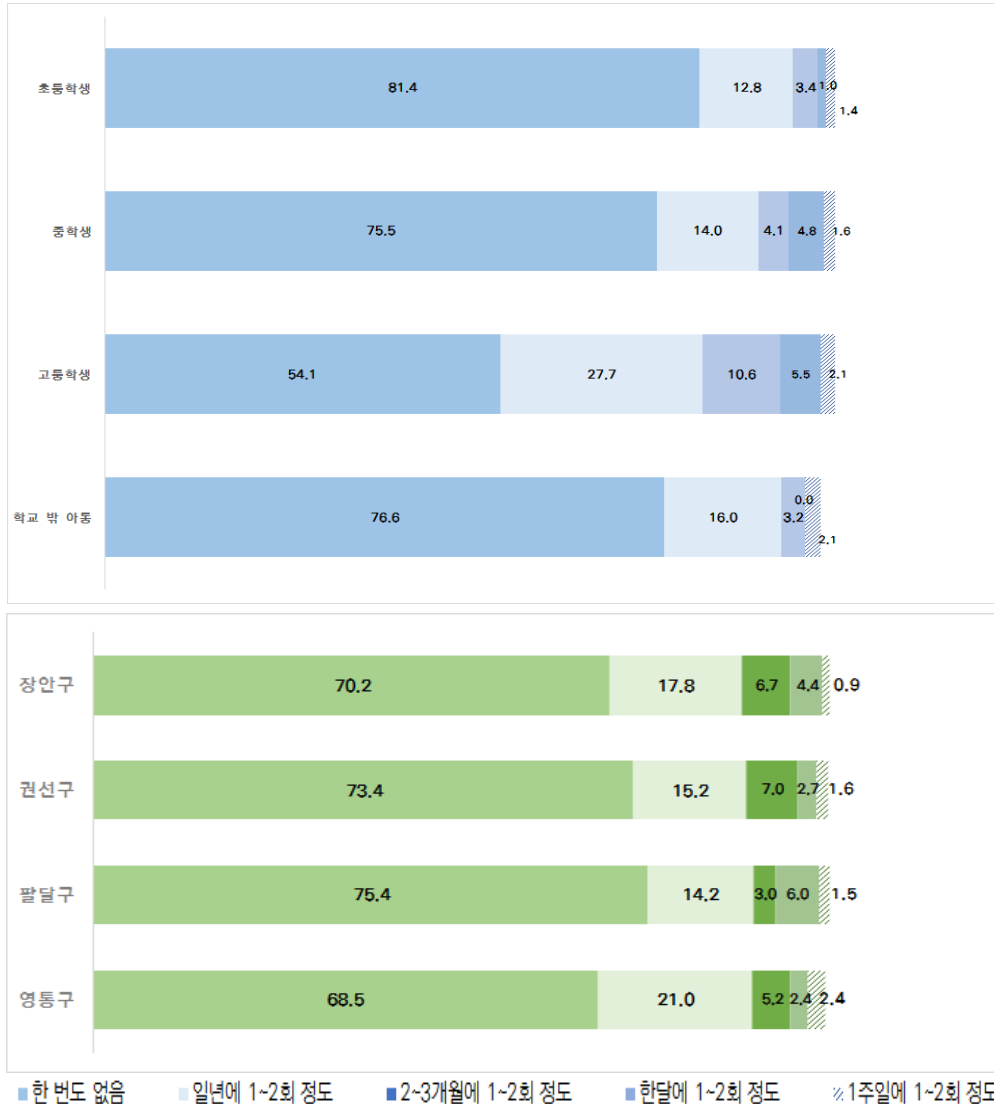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팔달구(75.4%)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영통구(68.5%), 장안구(70.2%)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성적의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2〉 참조).

〈표 3-133〉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996	708	71.1	178	17.9	57	5.7	34	3.4	17	1.7
응답자	초등학생	296	241	81.4	38	12.8	10	3.4	3	1.0	4	1.4
	중학생	314	237	75.5	44	14.0	13	4.1	15	4.8	5	1.6
	고등학생	292	158	54.1	81	27.7	31	10.6	16	5.5	6	2.1
	학교 밖 아동	94	72	76.6	15	16.0	3	3.2	0	0.0	2	2.1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25	158	70.2	40	17.8	15	6.7	10	4.4	2	0.9
	권선구	256	188	73.4	39	15.2	18	7.0	7	2.7	4	1.6
	팔달구	134	101	75.4	19	14.2	4	3.0	8	6.0	2	1.5
	영통구	381	261	68.5	80	21.0	20	5.2	9	2.4	9	2.4

〈그림 3-12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표 3-134〉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65.3%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23.2%, ‘2~3개월에 1~2회’ 정도 6.8%, ‘한 달에 1~2회 정도’ 3.3%, ‘1주일에 1~2회 정도’ 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생 보호자(75.0%), 초등학생(71.6%)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고등학생(54.8%), 학교 밖 아동(59.6%), 미취학 아동 보호자(61.0%), 중학생(64.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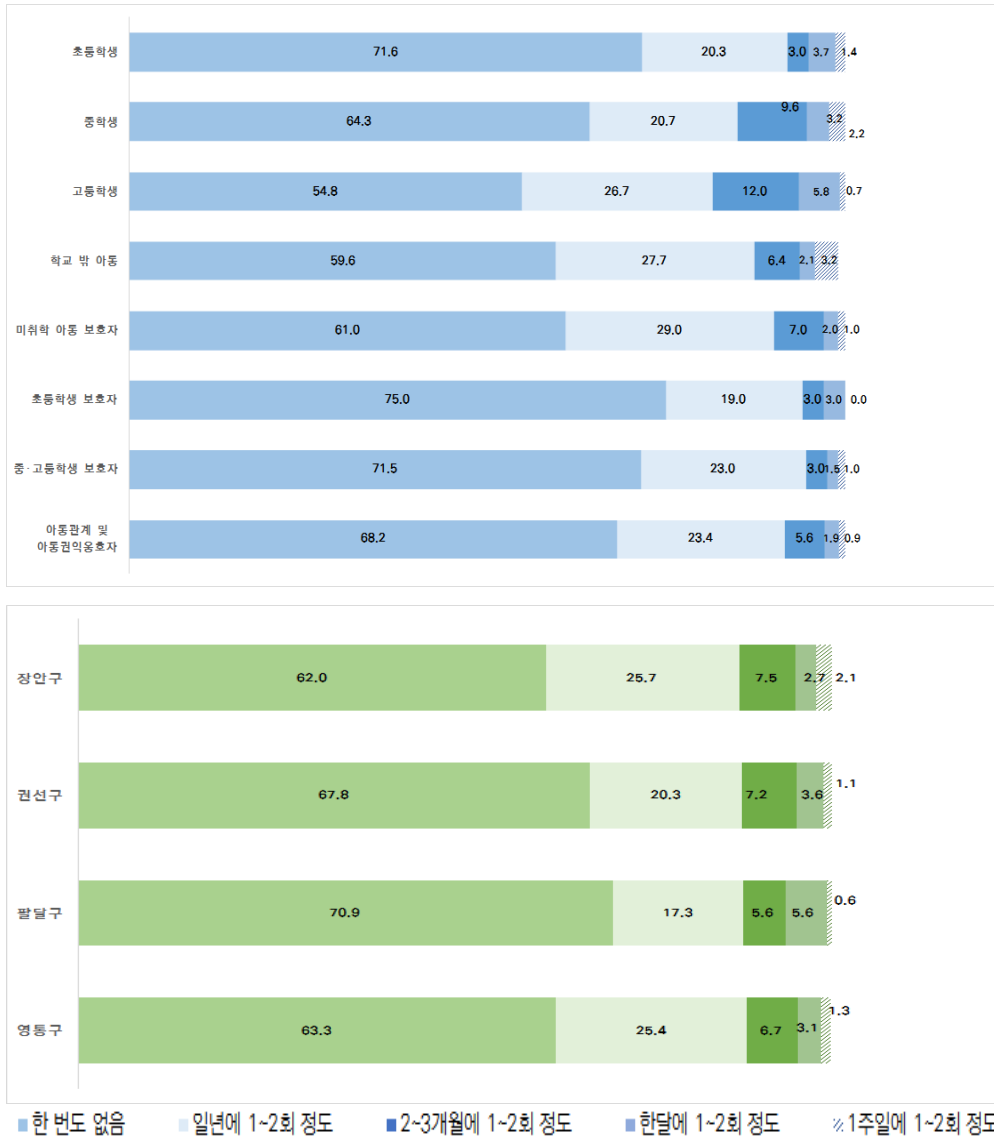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팔달구(70.9%)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장안구(62.0%), 영통구(63.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의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3〉 참조).

〈표 3-13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982	65.3	348	23.2	102	6.8	50	3.3	20	1.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12	71.6	60	20.3	9	3.0	11	3.7	4	1.4
	중학생	314	202	64.3	65	20.7	30	9.6	10	3.2	7	2.2
	고등학생	292	160	54.8	78	26.7	35	12.0	17	5.8	2	0.7
	학교 밖 아동	94	56	59.6	26	27.7	6	6.4	2	2.1	3	3.2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1	61.0	29	29.0	7	7.0	2	2.0	1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75	75.0	19	19.0	3	3.0	3	3.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43	71.5	46	23.0	6	3.0	3	1.5	2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73	68.2	25	23.4	6	5.6	2	1.9	1	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07	62.0	86	25.7	25	7.5	9	2.7	7	2.1
	권선구	360	244	67.8	73	20.3	26	7.2	13	3.6	4	1.1
	팔달구	179	127	70.9	31	17.3	10	5.6	10	5.6	1	0.6
	영통구	523	331	63.3	133	25.4	35	6.7	16	3.1	7	1.3

〈그림 3-12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표 3-135〉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3.3%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4.5%, ‘2~3개월에 1~2회 정도’ 1.1%, ‘한 달에 1~2회 정도’ 0.7%, ‘1주일에 1~2회 정도’ 0.3%순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생(98.6%), 학교 밖 아동(96.8%)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78.0%),

중·고등학생 보호자(84.5%), 초등학생 보호자(9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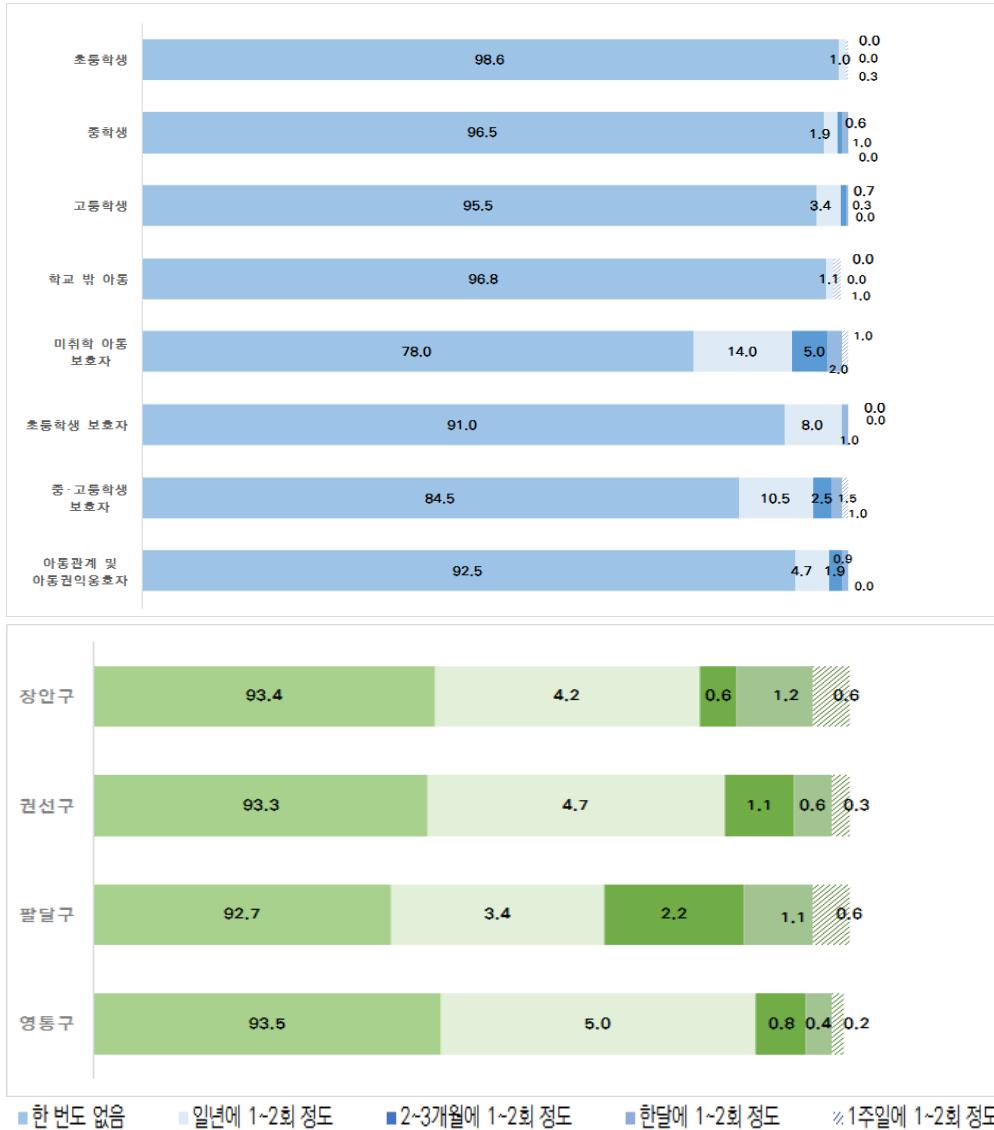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영통구(93.5%)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92.7%)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가정 형편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4〉 참조).

〈표 3-13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02	93.3	68	4.5	16	1.1	11	0.7	5	0.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2	98.6	3	1.0	0	0.0	0	0.0	1	0.3
	중학생	314	303	96.5	6	1.9	2	0.6	3	1.0	0	0.0
	고등학생	292	279	95.5	10	3.4	2	0.7	1	0.3	0	0.0
	학교 밖 아동	94	91	96.8	1	1.1	0	0.0	0	0.0	1	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78	78.0	14	14.0	5	5.0	2	2.0	1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1	91.0	8	8.0	0	0.0	1	1.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9	84.5	21	10.5	5	2.5	3	1.5	2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99	92.5	5	4.7	2	1.9	1	0.9	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12	93.4	14	4.2	2	0.6	4	1.2	2	0.6
	권선구	360	336	93.3	17	4.7	4	1.1	2	0.6	1	0.3
	팔달구	179	166	92.7	6	3.4	4	2.2	2	1.1	1	0.6
	영통구	523	489	93.5	26	5.0	4	0.8	2	0.4	1	0.2

〈그림 3-12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표 3-136〉의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1.2%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5.4%, ‘2~3개월에 1~2회 정도’ 2.0%, ‘한 달에 1~2회 정도’ 0.9%, ‘1주일에 1~2회 정도’ 0.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교(97.6%), 학교 밖 아동(96.8%)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75.0%),

중·고등학생 보호자(82.0%), 초등학생 보호자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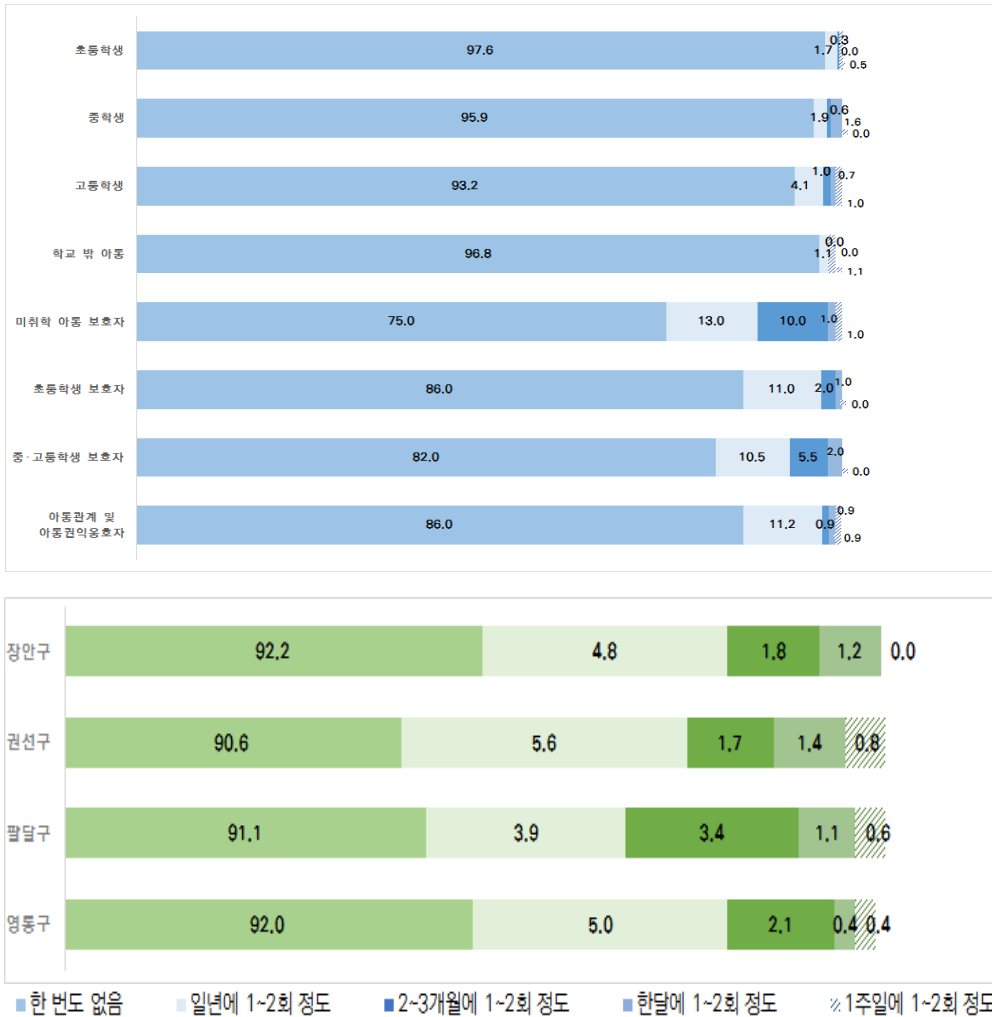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장안구(92.2%)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권선구(90.6%), 팔달구(91.1%)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고향이나 사는 지역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5> 참조).

〈표 3-13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370	91.2	81	5.4	30	2.0	14	0.9	7	0.5
응답자	초등학생	296	289	97.6	5	1.7	1	0.3	0	0.0	1	0.3
	중학생	314	301	95.9	6	1.9	2	0.6	5	1.6	0	0.0
	고등학생	292	272	93.2	12	4.1	3	1.0	2	0.7	3	1.0
	학교 밖 아동	94	91	96.8	1	1.1	0	0.0	0	0.0	1	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75	75.0	13	13.0	10	10.0	1	1.0	1	1.0
	초등학생 보호자	100	86	86.0	11	11.0	2	2.0	1	1.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4	82.0	21	10.5	11	5.5	4	2.0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92	86.0	12	11.2	1	0.9	1	0.9	1	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08	92.2	16	4.8	6	1.8	4	1.2	0	0.0
	권선구	360	326	90.6	20	5.6	6	1.7	5	1.4	3	0.8
	팔달구	179	163	91.1	7	3.9	6	3.4	2	1.1	1	0.6
	영통구	523	481	92.0	26	5.0	11	2.1	2	0.4	2	0.4

〈그림 3-12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표 3-137〉의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74.9%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16.8%, ‘2~3개월에 1~2회 정도’ 4.5%, ‘한 달에 1~2회 정도’ 2.3%, ‘1주일에 1~2회 정도’ 1.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3.2%), 초등학교 보호자(83.0%)가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69.0%), 초등학교(72.3%), 중학생(73.2%), 고등학교(74.0%)으로 나타났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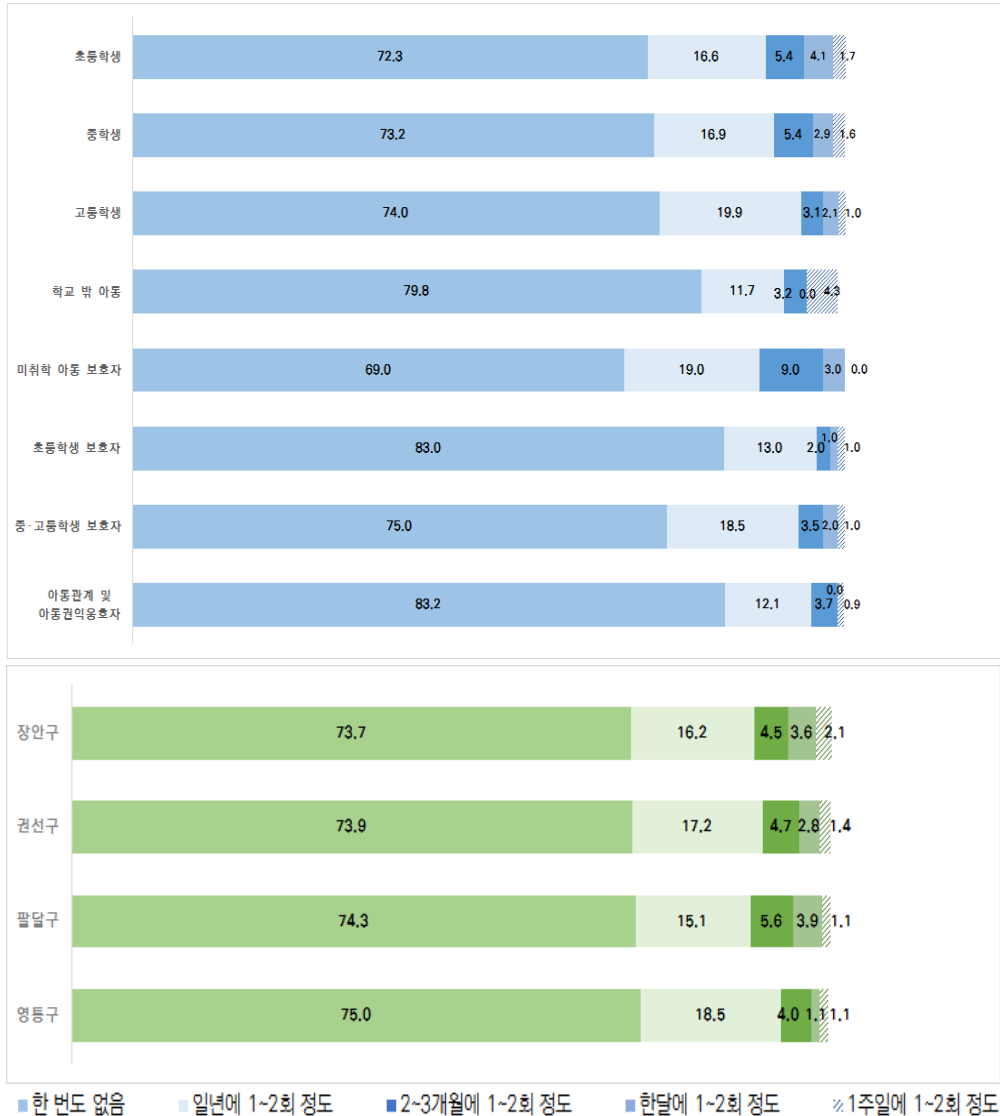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영통구(75.0%)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장안구(73.7%), 권선구(73.9%), 팔달구(74.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6) 참조).

〈표 3-137〉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126	74.9	253	16.8	67	4.5	35	2.3	21	1.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14	72.3	49	16.6	16	5.4	12	4.1	5	1.7
	중학생	314	230	73.2	53	16.9	17	5.4	9	2.9	5	1.6
	고등학생	292	216	74.0	58	19.9	9	3.1	6	2.1	3	1.0
	학교 밖 아동	94	75	79.8	11	11.7	3	3.2	0	0.0	4	4.3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9	69.0	19	19.0	9	9.0	3	3.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83	83.0	13	13.0	2	2.0	1	1.0	1	1.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50	75.0	37	18.5	7	3.5	4	2.0	2	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89	83.2	13	12.1	4	3.7	0	0.0	1	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46	73.7	54	16.2	15	4.5	12	3.6	7	2.1
	권선구	360	266	73.9	62	17.2	17	4.7	10	2.8	5	1.4
	팔달구	179	133	74.3	27	15.1	10	5.6	7	3.9	2	1.1
	영통구	523	392	75.0	97	18.5	21	4.0	6	1.1	6	1.1

〈그림 3-12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표 3-138〉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3.6%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4.3%, ‘2~3개월에 1~2회 정도’ 1.3%, ‘한 달에 1~2회 정도’ 0.3%, ‘1주일에 1~2회 정도’ 0.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교(98.3%), 중학생(97.5%)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80.0%), 중·고등학교 학생 보호자(88.0%), 학교 밖 아동(88.3%), 초등학교 보호자(90.0%), 아동관계자 및 아동

권익옹호자(91.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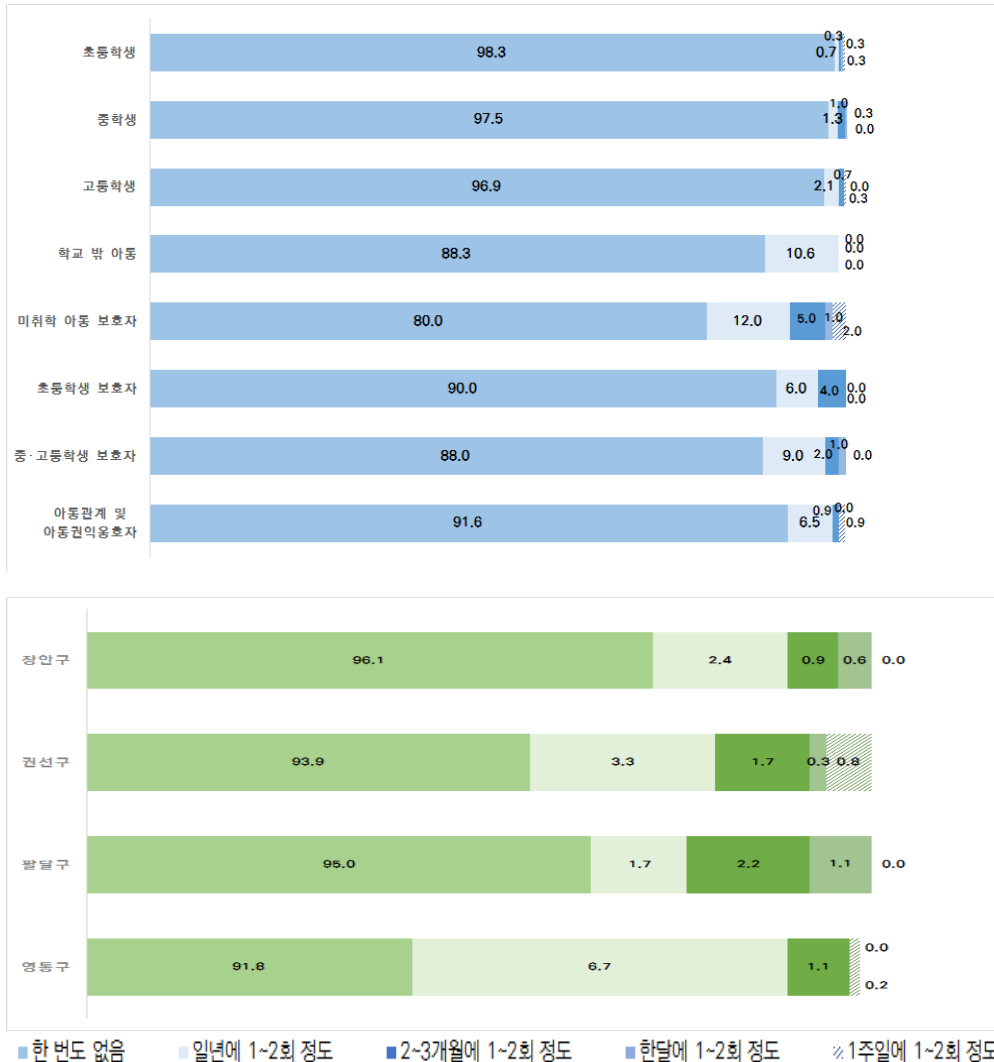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장안구(96.1%)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영통구(91.8%)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7〉 참조).

〈표 3-138〉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07	93.6	65	4.3	20	1.3	5	0.3	5	0.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1	98.3	2	0.7	1	0.3	1	0.3	1	0.3
	중학생	314	306	97.5	4	1.3	3	1.0	1	0.3	0	0.0
	고등학생	292	283	96.9	6	2.1	2	0.7	0	0.0	1	0.3
	학교 밖 아동	94	83	88.3	10	10.6	0	0.0	0	0.0	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0	80.0	12	12.0	5	5.0	1	1.0	2	2.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0	90.0	6	6.0	4	4.0	0	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76	88.0	18	9.0	4	2.0	2	1.0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98	91.6	7	6.5	1	0.9	0	0.0	1	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21	96.1	8	2.4	3	0.9	2	0.6	0	0.0
	권선구	360	338	93.9	12	3.3	6	1.7	1	0.3	3	0.8
	팔달구	179	170	95.0	3	1.7	4	2.2	2	1.1	0	0.0
	영통구	523	480	91.8	35	6.7	6	1.1	0	0.0	1	0.2

〈그림 3-12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표 3-139〉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6.8%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1.4%, ‘2~3개월에 1~2회 정도’ 1.0%, ‘한 달에 1~2회 정도’ 0.5%, ‘1주일에 1~2회 정도’ 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중학생(99.4%), 학교 밖 아동(98.9%)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89.0%), 중·고등학교 보호자(93.5%),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5.3%), 고등학교(96.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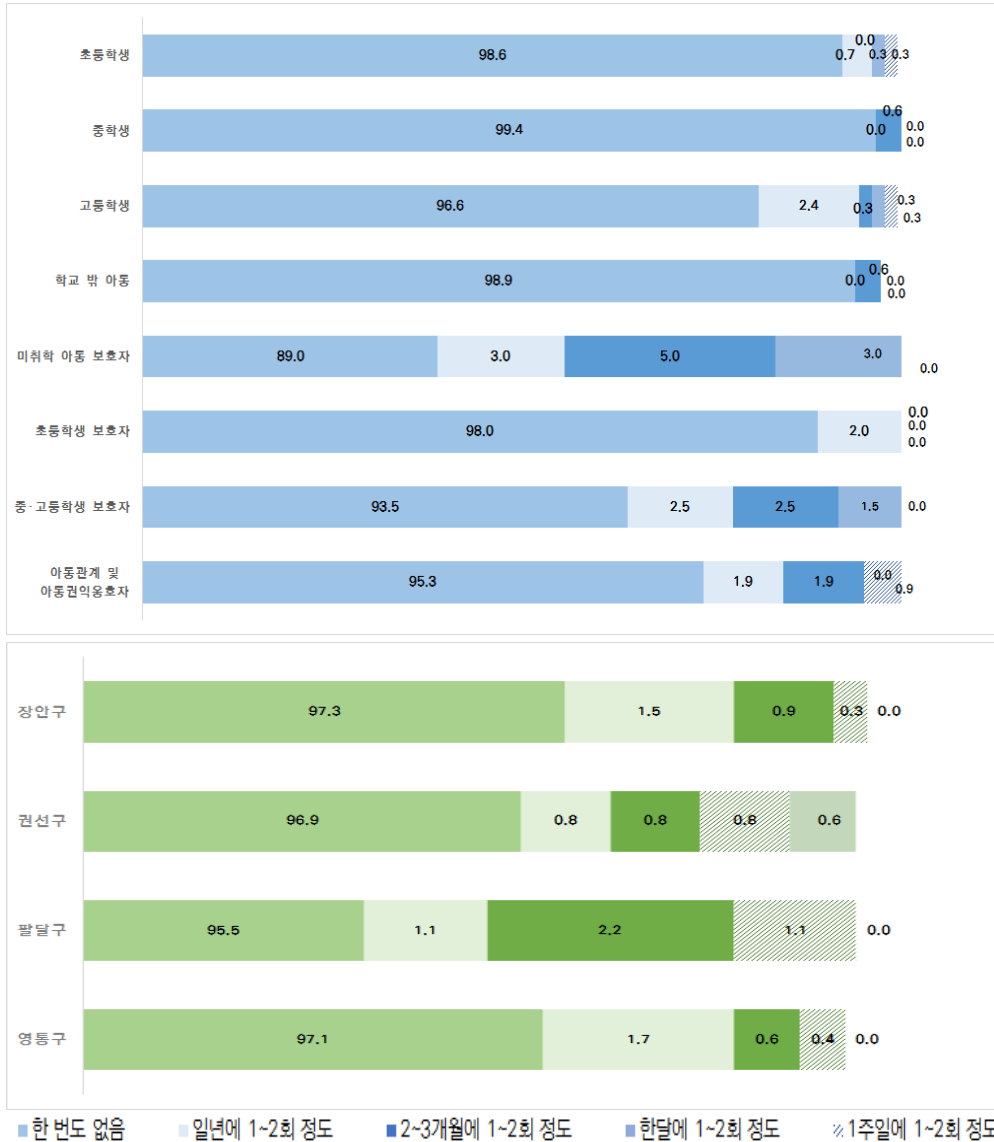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장안구(97.3%)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95.5%)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8〉 참조).

〈표 3-13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55	96.8	21	1.4	15	1.0	8	0.5	3	0.2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2	98.6	2	0.7	0	0.0	1	0.3	1	0.3
	중학생	314	312	99.4	0	0.0	2	0.6	0	0.0	0	0.0
	고등학생	292	282	96.6	7	2.4	1	0.3	1	0.3	1	0.3
	학교 밖 아동	94	93	98.9	0	0.0	0	0.0	0	0.0	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9	89.0	3	3.0	5	5.0	3	3.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8	98.0	2	2.0	0	0.0	0	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7	93.5	5	2.5	5	2.5	3	1.5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02	95.3	2	1.9	2	1.9	0	0.0	1	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25	97.3	5	1.5	3	0.9	1	0.3	0	0.0
	권선구	360	349	96.9	3	0.8	3	0.8	3	0.8	2	0.6
	팔달구	179	171	95.5	2	1.1	4	2.2	2	1.1	0	0.0
	영통구	523	508	97.1	9	1.7	3	0.6	2	0.4	0	0.0

〈그림 3-12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표 3-140〉의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6.4%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1.9%, ‘2~3개월에 1~2회 정도’ 0.8%, ‘한 달에 1~2회 정도’ 0.5%, ‘1주일에 1~2회 정도’ 0.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생 (99.3%), 중학생(98.4%)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92.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5.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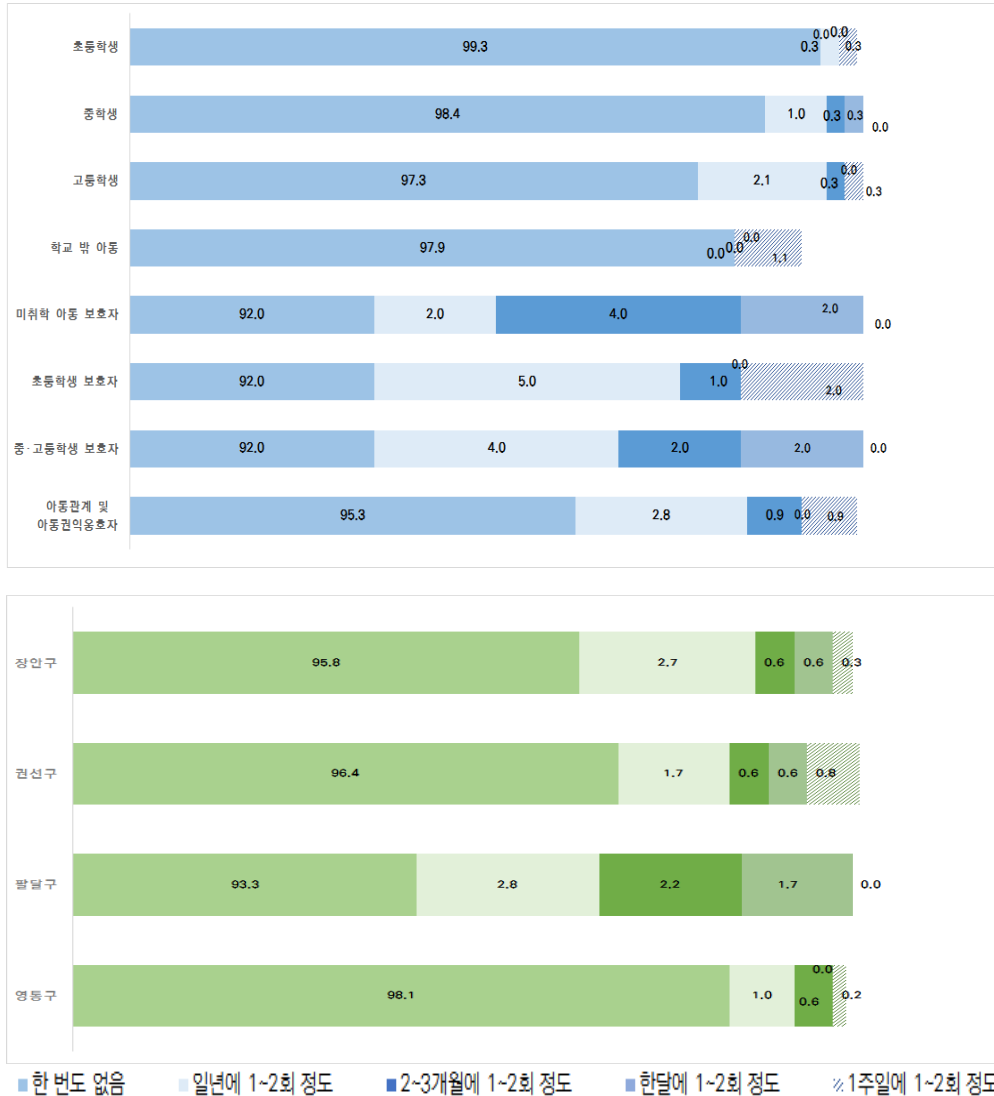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영통구(98.1%)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93.3%), 장안구(95.8%)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부모의 부재로 차별을 당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9〉 참조).

〈표 3-140〉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49	96.4	28	1.9	12	0.8	7	0.5	6	0.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4	99.3	1	0.3	0	0.0	0	0.0	1	0.3
	중학생	314	309	98.4	3	1.0	1	0.3	1	0.3	0	0.0
	고등학생	292	284	97.3	6	2.1	1	0.3	0	0.0	1	0.3
	학교 밖 아동	94	92	97.9	0	0.0	0	0.0	0	0.0	1	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92	92.0	2	2.0	4	4.0	2	2.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2	92.0	5	5.0	1	1.0	0	0.0	2	2.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4	92.0	8	4.0	4	2.0	4	2.0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02	95.3	3	2.8	1	0.9	0	0.0	1	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20	95.8	9	2.7	2	0.6	2	0.6	1	0.3
	권선구	360	347	96.4	6	1.7	2	0.6	2	0.6	3	0.8
	팔달구	179	167	93.3	5	2.8	4	2.2	3	1.7	0	0.0
	영통구	523	513	98.1	5	1.0	3	0.6	0	0.0	1	0.2

〈그림 3-129〉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표 3-141〉의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7.1%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1.4%, ‘2~3개월에 1~2회 정도’ 0.8%, ‘한 달에 1~2회 정도’ 0.5%, ‘1주일에 1~2회 정도’ 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중학생(99.4%), 학교 밖 아동(98.9%)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92.0%),

중·고등학생 보호자(93.0%), 초등학생 보호자(96.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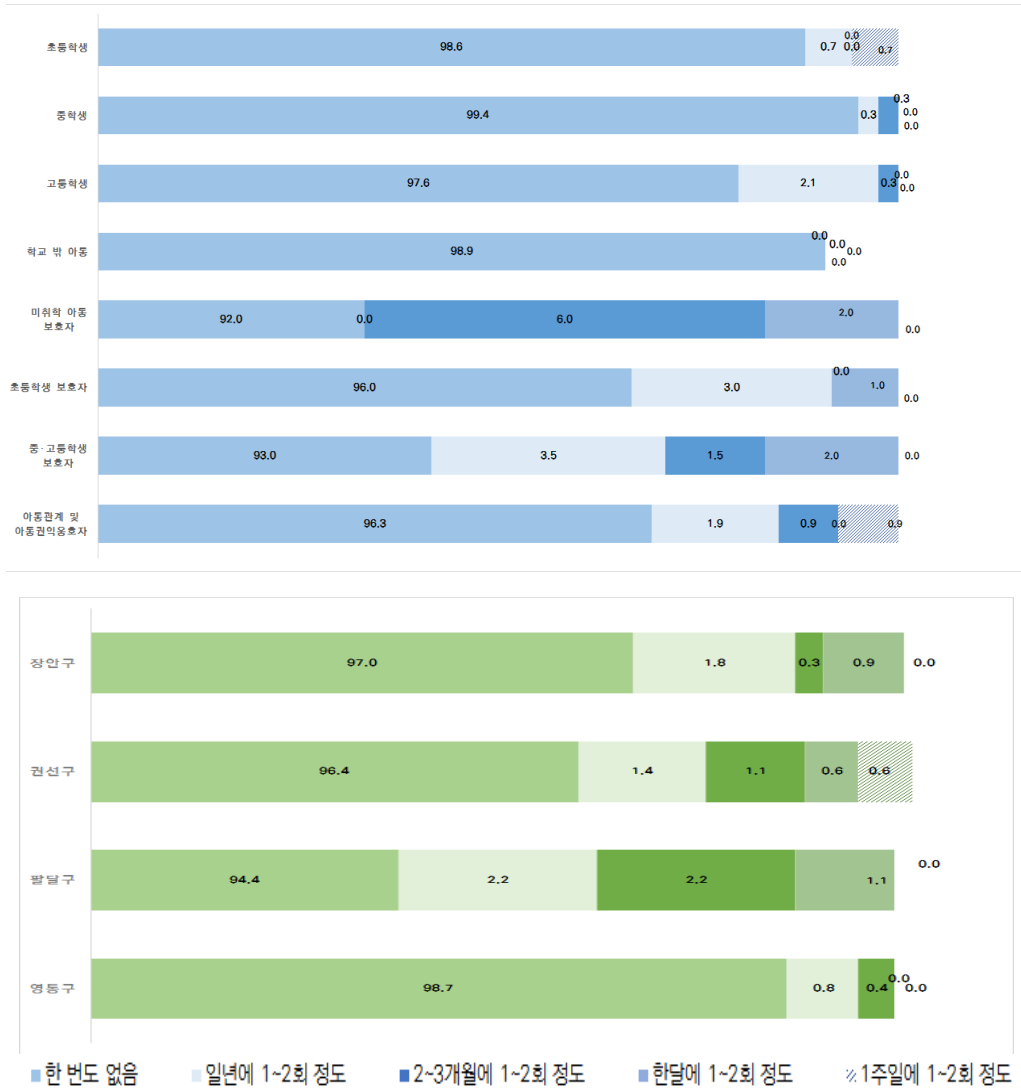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영통구(98.7%)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94.4%), 권선구(96.4%)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0> 참조).

〈표 3-141〉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59	97.1	21	1.4	12	0.8	7	0.5	3	0.2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2	98.6	2	0.7	0	0.0	0	0.0	2	0.7
	중학생	314	312	99.4	1	0.3	1	0.3	0	0.0	0	0.0
	고등학생	292	285	97.6	6	2.1	1	0.3	0	0.0	0	0.0
	학교 밖 아동	94	93	98.9	0	0.0	0	0.0	0	0.0	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92	92.0	0	0.0	6	6.0	2	2.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6	96.0	3	3.0	0	0.0	1	1.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6	93.0	7	3.5	3	1.5	4	2.0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03	96.3	2	1.9	1	0.9	0	0.0	1	0.9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24	97.0	6	1.8	1	0.3	3	0.9	0	0.0
	권선구	360	347	96.4	5	1.4	4	1.1	2	0.6	2	0.6
	팔달구	179	169	94.4	4	2.2	4	2.2	2	1.1	0	0.0
	영통구	523	516	98.7	4	0.8	2	0.4	0	0.0	0	0.0

〈그림 3-130〉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표 3-142〉의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84.4%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11.6%, ‘2~3개월에 1~2회 정도’ 2.9%, ‘한 달에 1~2회 정도’ 0.5%, ‘1주일에 1~2회 정도’ 0.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생(89.5%), 중학생(86.9%)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71.0%), 학교 밖 아동(79.8%), 중·고등학생 보호자(82.5%), 초등학생 보호자(83.0%), 고등학생 (84.2%)으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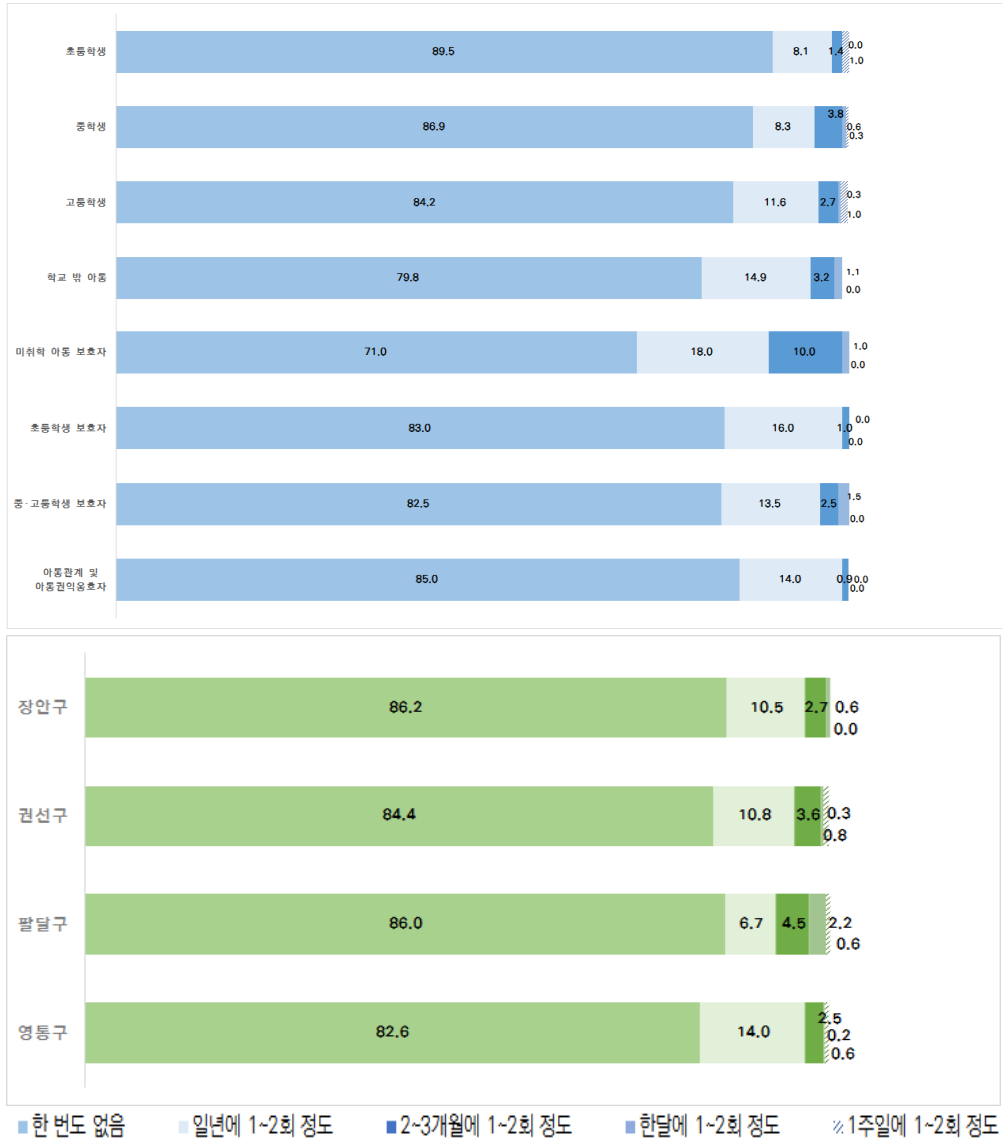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장안구(86.2%)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영통구(82.6%)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성별의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1〉 참조).

〈표 3-142〉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269	84.4	174	11.6	44	2.9	8	0.5	7	0.5
응답자	초등학생	296	265	89.5	24	8.1	4	1.4	0	0.0	3	1.0
	중학생	314	273	86.9	26	8.3	12	3.8	2	0.6	1	0.3
	고등학생	292	246	84.2	34	11.6	8	2.7	1	0.3	3	1.0
	학교 밖 아동	94	75	79.8	14	14.9	3	3.2	1	1.1	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71	71.0	18	18.0	10	10.0	1	1.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83	83.0	16	16.0	1	1.0	0	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65	82.5	27	13.5	5	2.5	3	1.5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91	85.0	15	14.0	1	0.9	0	0.0	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88	86.2	35	10.5	9	2.7	2	0.6	0	0.0
	권선구	360	304	84.4	39	10.8	13	3.6	1	0.3	3	0.8
	팔달구	179	154	86.0	12	6.7	8	4.5	4	2.2	1	0.6
	영통구	523	432	82.6	73	14.0	13	2.5	1	0.2	3	0.6

〈그림 3-13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43〉의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87.7%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8.6%, ‘2~3개월에 1~2회 정도’ 2.0%, ‘한 달에 1~2회 정도’ 1.0%, ‘1주일에 1~2회 정도’ 0.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학교 밖 아동(92.6%)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고등학생(82.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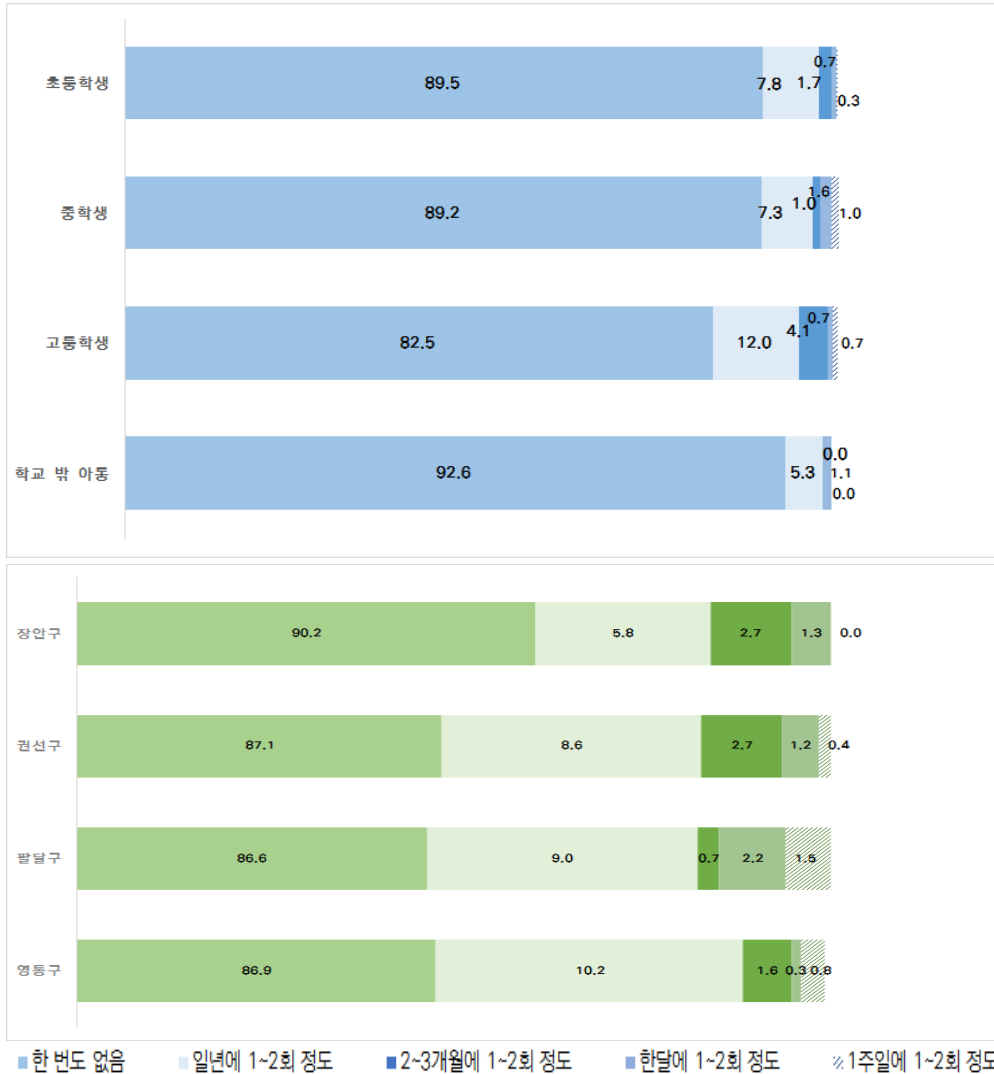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장안구(90.2%)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86.6%), 영통구(86.9%), 권선구(87.1%)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2〉 참조).

〈표 3-143〉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996	873	87.7	86	8.6	20	2.0	10	1.0	6	0.6
응답자	초등학생	296	265	89.5	23	7.8	5	1.7	2	0.7	1	0.3
	중학생	314	280	89.2	23	7.3	3	1.0	5	1.6	3	1.0
	고등학생	292	241	82.5	35	12.0	12	4.1	2	0.7	2	0.7
	학교 밖 아동	94	87	92.6	5	5.3	0	0.0	1	1.1	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	-	-	-	-	-	-	-	-	-	-
	초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중·고등학생 보호자	-	-	-	-	-	-	-	-	-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	-	-	-	-	-	-	-	-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225	203	90.2	13	5.8	6	2.7	3	1.3	0	0.0
	권선구	256	223	87.1	22	8.6	7	2.7	3	1.2	1	0.4
	팔달구	134	116	86.6	12	9.0	1	0.7	3	2.2	2	1.5
	영통구	381	331	86.9	39	10.2	6	1.6	1	0.3	3	0.8

〈그림 3-13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44〉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82.4%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13.2%, ‘2~3개월에 1~2회 정도’ 2.9%, ‘한 달에 1~2회 정도’ 1.0%, ‘1주일에 1~2회 정도’ 0.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생(89.9%), 중학생(86.6%)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65.0%), 학교 밖 아동(75.5%), 초등학생 보호자(78.0%), 중·고등학생 보호자(79.5%), 아동관계자 및 아동

권익옹호자(8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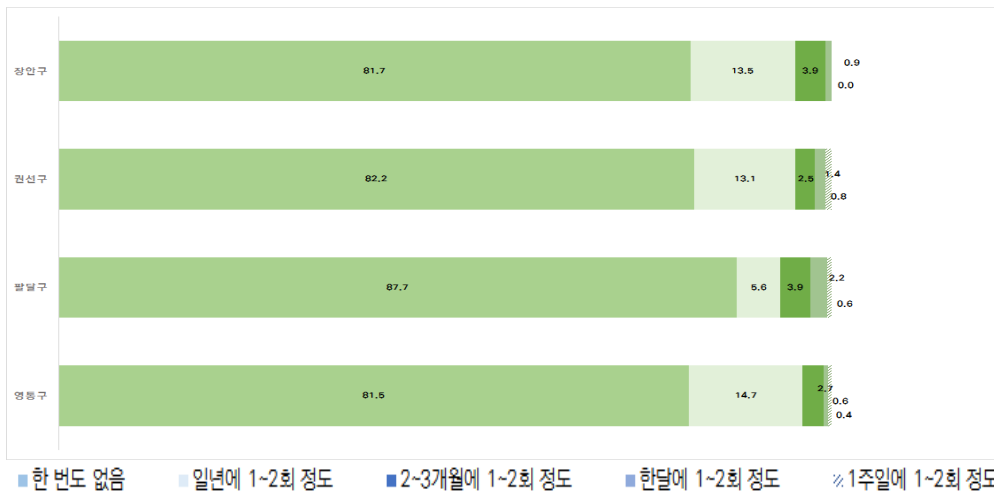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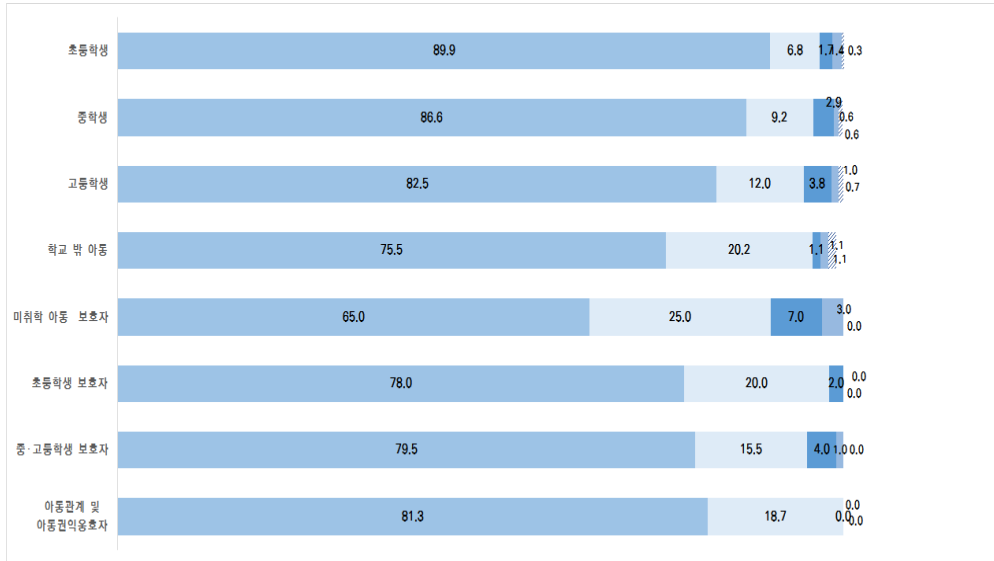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팔달구(87.7%)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영통구(81.5%), 장안구(81.7%), 권선구(82.2%)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3> 참조).

〈표 3-14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239	82.4	199	13.2	43	2.9	15	1.0	6	0.4
응답자	초등학생	296	266	89.9	20	6.8	5	1.7	4	1.4	0.3
	중학생	314	272	86.6	29	9.2	9	2.9	2	0.6	0.6
	고등학생	292	241	82.5	35	12.0	11	3.8	3	1.0	0.7
	학교 밖 아동	94	71	75.5	19	20.2	1	1.1	1	1.1	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65	65.0	25	25.0	7	7.0	3	3.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78	78.0	20	20.0	2	2.0	0	0.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59	79.5	31	15.5	8	4.0	2	1.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87	81.3	20	18.7	0	0.0	0	0.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73	81.7	45	13.5	13	3.9	3	0.9	0.0
	권선구	360	296	82.2	47	13.1	9	2.5	5	1.4	0.8
	팔달구	179	157	87.7	10	5.6	7	3.9	4	2.2	0.6
	영통구	523	426	81.5	77	14.7	14	2.7	3	0.6	0.4

〈그림 3-13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45〉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6.2%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2.5%, ‘2~3개월에 1~2회 정도’ 0.9%, ‘한 달에 1~2회 정도’ 0.3%, ‘1주일에 1~2회 정도’ 0.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교(99.0%), 중학생(98.7%)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 중·고

등학생 보호자(93.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4.4%), 초등학생 보호자(9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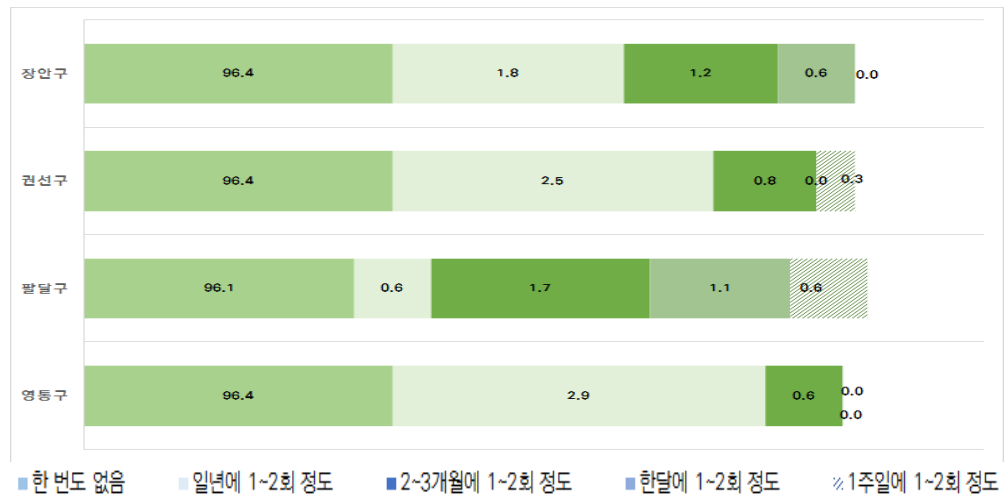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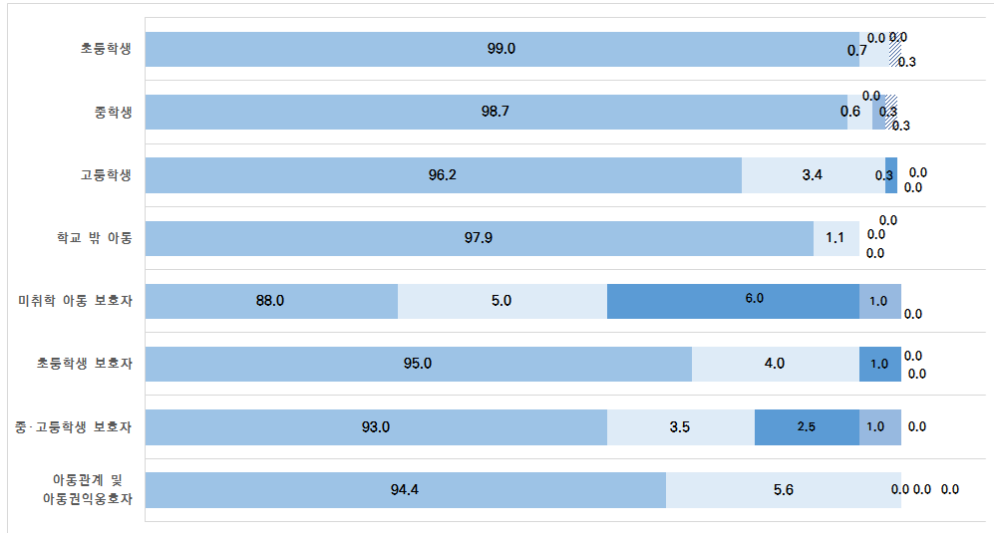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장안구·권선구·영통구(96.4%)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96.1%)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4〉 참조).

〈표 3-14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46	96.2	37	2.5	13	0.9	4	0.3	2	0.1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3	99.0	2	0.7	0	0.0	0	0.0	1	0.3
	중학생	314	310	98.7	2	0.6	0	0.0	1	0.3	1	0.3
	고등학생	292	281	96.2	10	3.4	1	0.3	0	0.0	0	0.0
	학교 밖 아동	94	92	97.9	1	1.1	0	0.0	0	0.0	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8	88.0	5	5.0	6	6.0	1	1.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5	95.0	4	4.0	1	1.0	0	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6	93.0	7	3.5	5	2.5	2	1.0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01	94.4	6	5.6	0	0.0	0	0.0	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22	96.4	6	1.8	4	1.2	2	0.6	0	0.0
	권선구	360	347	96.4	9	2.5	3	0.8	0	0.0	1	0.3
	팔달구	179	172	96.1	1	0.6	3	1.7	2	1.1	1	0.6
	영통구	523	504	96.4	15	2.9	3	0.6	0	0.0	0	0.0

〈그림 3-13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46〉의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4.3%로 가장 높았으며, 일 년에 1~2회 정도 3.8%, 2~3개월에 1~2회 정도 1.1%, 한 달에 1~2회 정도 0.5%, 1주일에 1~2회 정도 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중학생(98.7%), 초등학생(97.6%)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81.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9.7%), 중·고등학생 보호자(90.0%), 초등학생 보호자(91.0%)등으로 나타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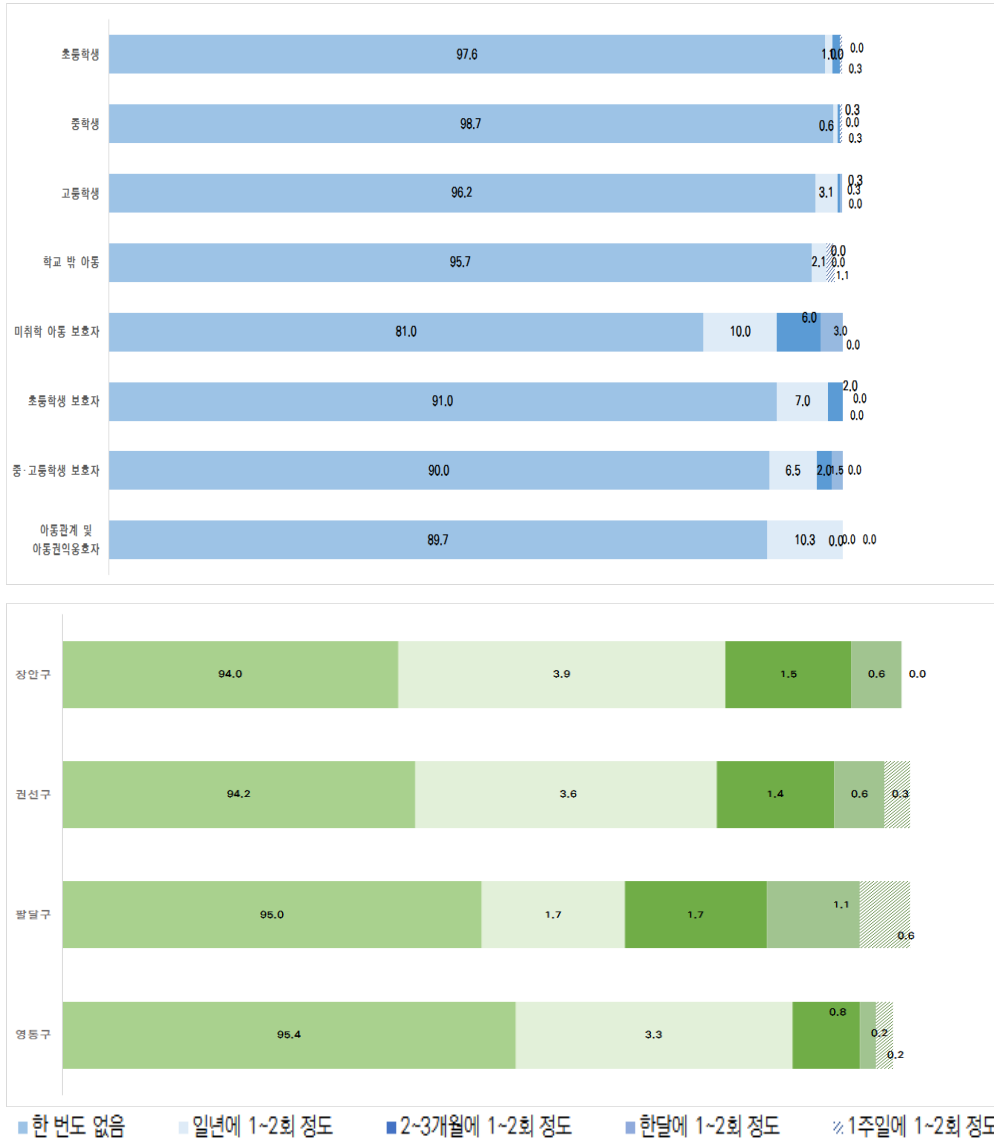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는 영통구(95.4%)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장안구(94.0%), 권선구(94.2%)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고향이나 사는 지역의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5〉 참조).

〈표 3-146〉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18	94.3	57	3.8	17	1.1	7	0.5	3	0.2
응답자	초등학생	296	289	97.6	3	1.0	3	1.0	0	0.0	1	0.3
	중학생	314	310	98.7	2	0.6	1	0.3	0	0.0	1	0.3
	고등학생	292	281	96.2	9	3.1	1	0.3	1	0.3	0	0.0
	학교 밖 아동	94	90	95.7	2	2.1	0	0.0	0	0.0	1	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1	81.0	10	10.0	6	6.0	3	3.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1	91.0	7	7.0	2	2.0	0	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0	90.0	13	6.5	4	2.0	3	1.5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96	89.7	11	10.3	0	0.0	0	0.0	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14	94.0	13	3.9	5	1.5	2	0.6	0	0.0
	권선구	360	339	94.2	13	3.6	5	1.4	2	0.6	1	0.3
	팔달구	179	170	95.0	3	1.7	3	1.7	2	1.1	1	0.6
	영통구	523	499	95.4	17	3.3	4	0.8	1	0.2	1	0.2

〈그림 3-13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47〉의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87.0%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8.7%, ‘2~3개월에 1~2회 정도’ 2.7%, ‘한 달에 1~2회 정도’ 1.0%, ‘1주일에 1~2회 정도’ 0.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1.6%), 중·고등학생

보호자(91.5%)가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82.0%), 학교 밖 아동(84.0%), 중학생(85.4%), 고등학생(86.0%), 초등학생(86.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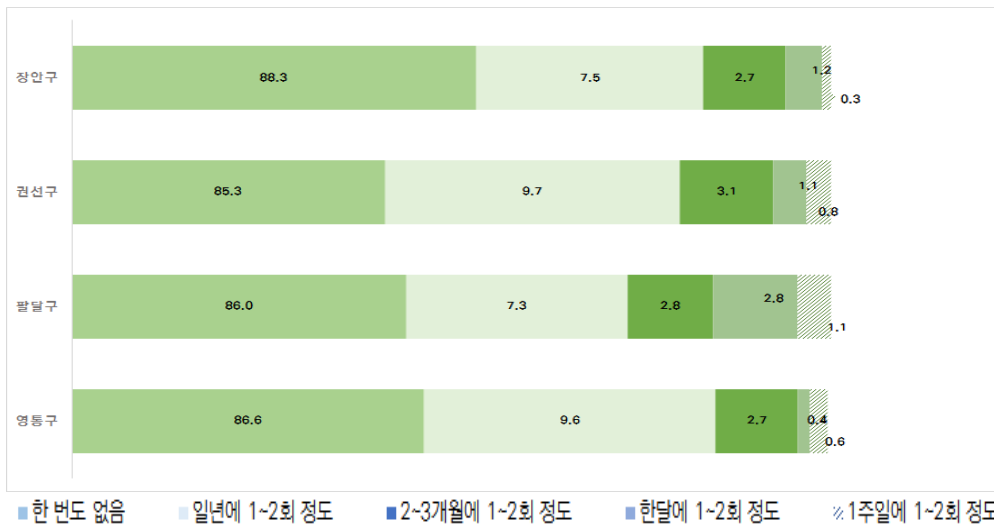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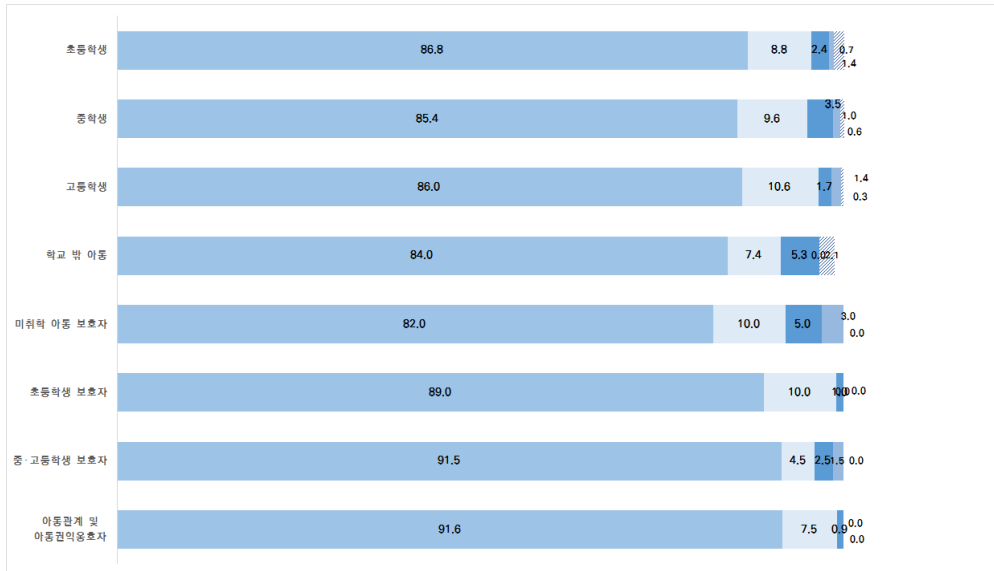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장안구(88.3%)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권선구(85.3%), 팔달구(86.0%), 영통구(86.6%)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차별을 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6〉 참조).

〈표 3-147〉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307	87.0	131	8.7	40	2.7	15	1.0	9	0.6
응답자	초등학생	296	257	86.8	26	8.8	7	2.4	2	0.7	4	1.4
	중학생	314	268	85.4	30	9.6	11	3.5	3	1.0	2	0.6
	고등학생	292	251	86.0	31	10.6	5	1.7	4	1.4	1	0.3
	학교 밖 아동	94	79	84.0	7	7.4	5	5.3	0	0.0	2	2.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2	82.0	10	10.0	5	5.0	3	3.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89	89.0	10	10.0	1	1.0	0	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3	91.5	9	4.5	5	2.5	3	1.5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98	91.6	8	7.5	1	0.9	0	0.0	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295	88.3	25	7.5	9	2.7	4	1.2	1	0.3
	권선구	360	307	85.3	35	9.7	11	3.1	4	1.1	3	0.8
	팔달구	179	154	86.0	13	7.3	5	2.8	5	2.8	2	1.1
	영통구	523	453	86.6	50	9.6	14	2.7	2	0.4	3	0.6

〈그림 3-13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48〉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5.1%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3.3%, ‘2~3개월에 1~2회 정도’ 0.9%, ‘한 달에 1~2회 정도’ 0.3%, ‘1주일에 1~2회 정도’ 0.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생(98.3%), 중학생(98.1%)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85.0%), 중·고

등학생 보호자(91.0%), 초등학생 보호자(93.0%), 학교 밖 아동(93.6%), 아동관계자 및 아동 권익옹호자(94.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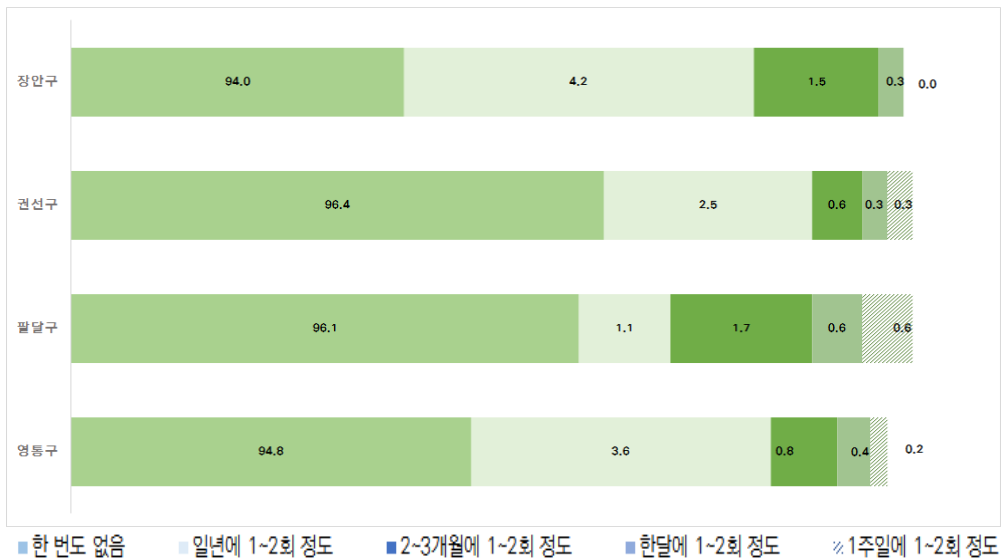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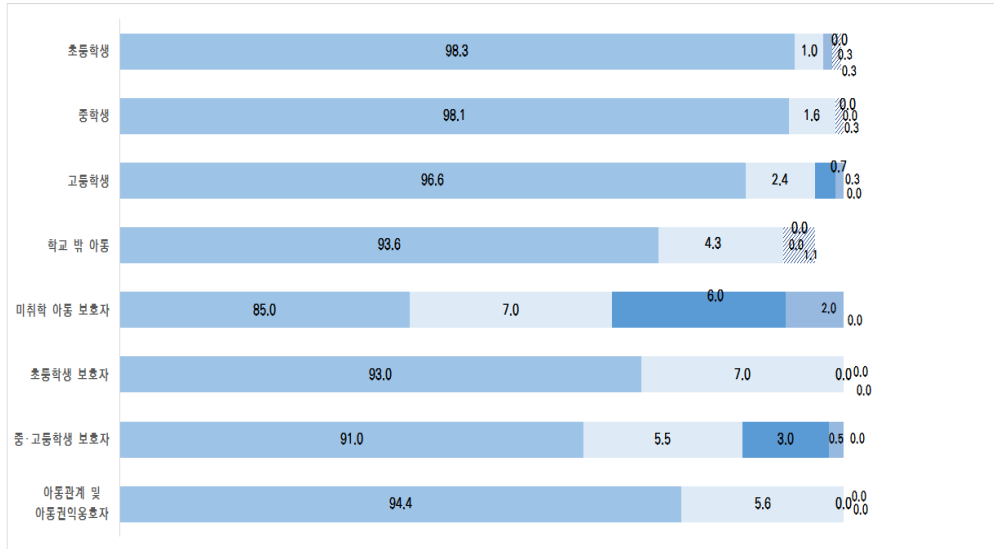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권선구(96.4%)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장안구(94.0%), 영통구(94.8%)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7> 참조).

〈표 3-148〉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30	95.1	50	3.3	14	0.9	5	0.3	3	0.2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1	98.3	3	1.0	0	0.0	1	0.3	0.3
	중학생	314	308	98.1	5	1.6	0	0.0	0	0.0	0.3
	고등학생	292	282	96.6	7	2.4	2	0.7	1	0.3	0.0
	학교 밖 아동	94	88	93.6	4	4.3	0	0.0	0	0.0	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5	85.0	7	7.0	6	6.0	2	2.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3	93.0	7	7.0	0	0.0	0	0.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2	91.0	11	5.5	6	3.0	1	0.5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01	94.4	6	5.6	0	0.0	0	0.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14	94.0	14	4.2	5	1.5	1	0.3	0.0
	권선구	360	347	96.4	9	2.5	2	0.6	1	0.3	0.3
	팔달구	179	172	96.1	2	1.1	3	1.7	1	0.6	0.6
	영통구	523	496	94.8	19	3.6	4	0.8	2	0.4	0.2

〈그림 3-13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49〉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5.7%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3.1%, ‘2~3개월에 1~2회 정도’ 0.9%, ‘한 달에 1~2회 정도’와 ‘1주일에 1~2회 정도’ 0.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중학생(98.1%), 고등학생(97.3%)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 중·고

등학생 보호자(93.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4.4%), 초등학생 보호자(9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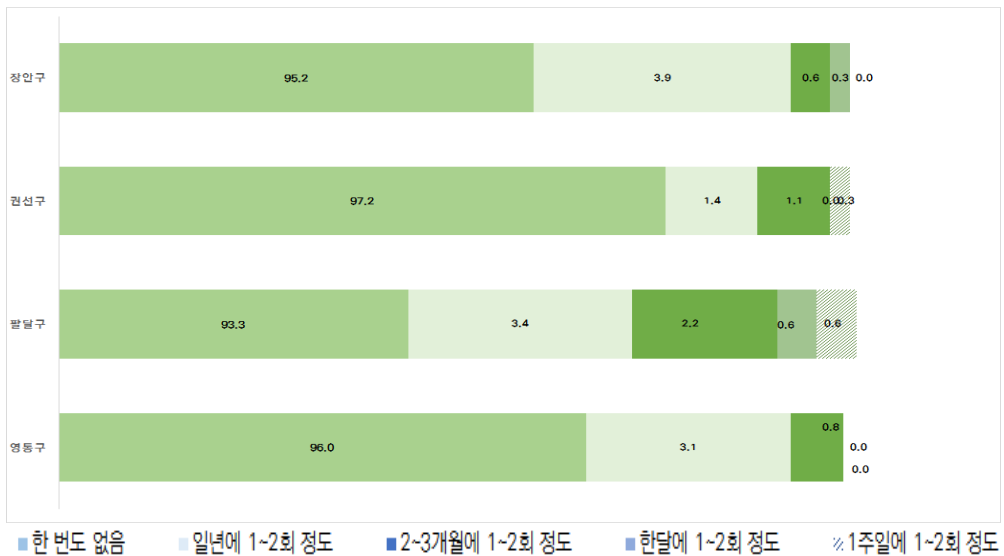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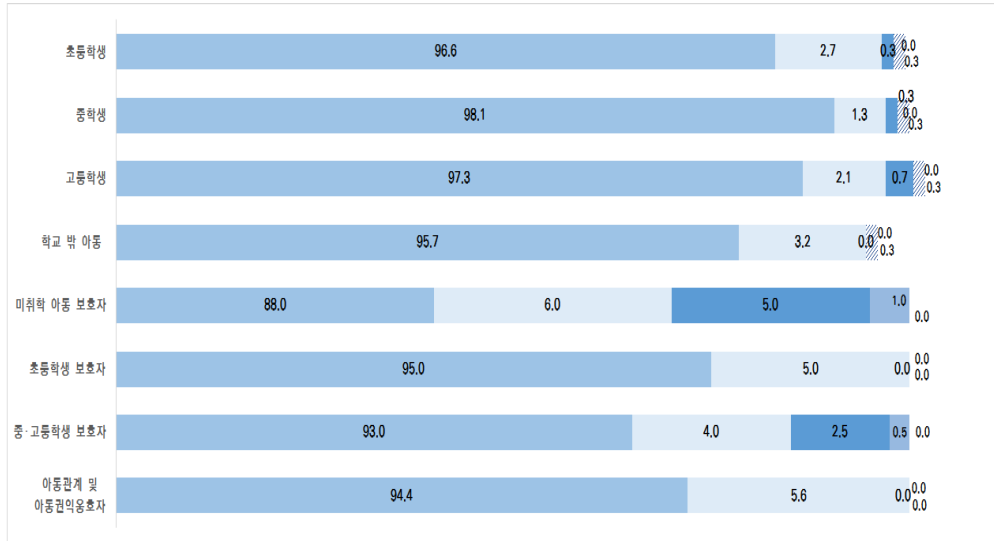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권선구(97.2%)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장안구(95.2%), 팔달구(93.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8〉 참조).

〈표 3-14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38	95.7	46	3.1	14	0.9	2	0.1	2	0.1
응답자	초등학생	296	286	96.6	8	2.7	1	0.3	0	0.0	1	0.3
	중학생	314	308	98.1	4	1.3	1	0.3	0	0.0	1	0.3
	고등학생	292	284	97.3	6	2.1	2	0.7	0	0.0	0	0.0
	학교 밖 아동	94	90	95.7	3	3.2	0	0.0	0	0.0	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8	88.0	6	6.0	5	5.0	1	1.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5	95.0	5	5.0	0	0.0	0	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6	93.0	8	4.0	5	2.5	1	0.5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01	94.4	6	5.6	0	0.0	0	0.0	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18	95.2	13	3.9	2	0.6	1	0.3	0	0.0
	권선구	360	350	97.2	5	1.4	4	1.1	0	0.0	1	0.3
	팔달구	179	167	93.3	6	3.4	4	2.2	1	0.6	1	0.6
	영통구	523	502	96.0	16	3.1	4	0.8	0	0.0	0	0.0

〈그림 3-13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50〉의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6.9%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1.9%, ‘2~3개월에 1~2회 정도’ 0.6%, ‘한 달에 1~2회 정도’ 0.4%, ‘1주일에 1~2회 정도’ 0.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생(99.3%), 고등학생(98.3%)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9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4.4%), 초등학생 보호자 및 중·고등학생 보호자(9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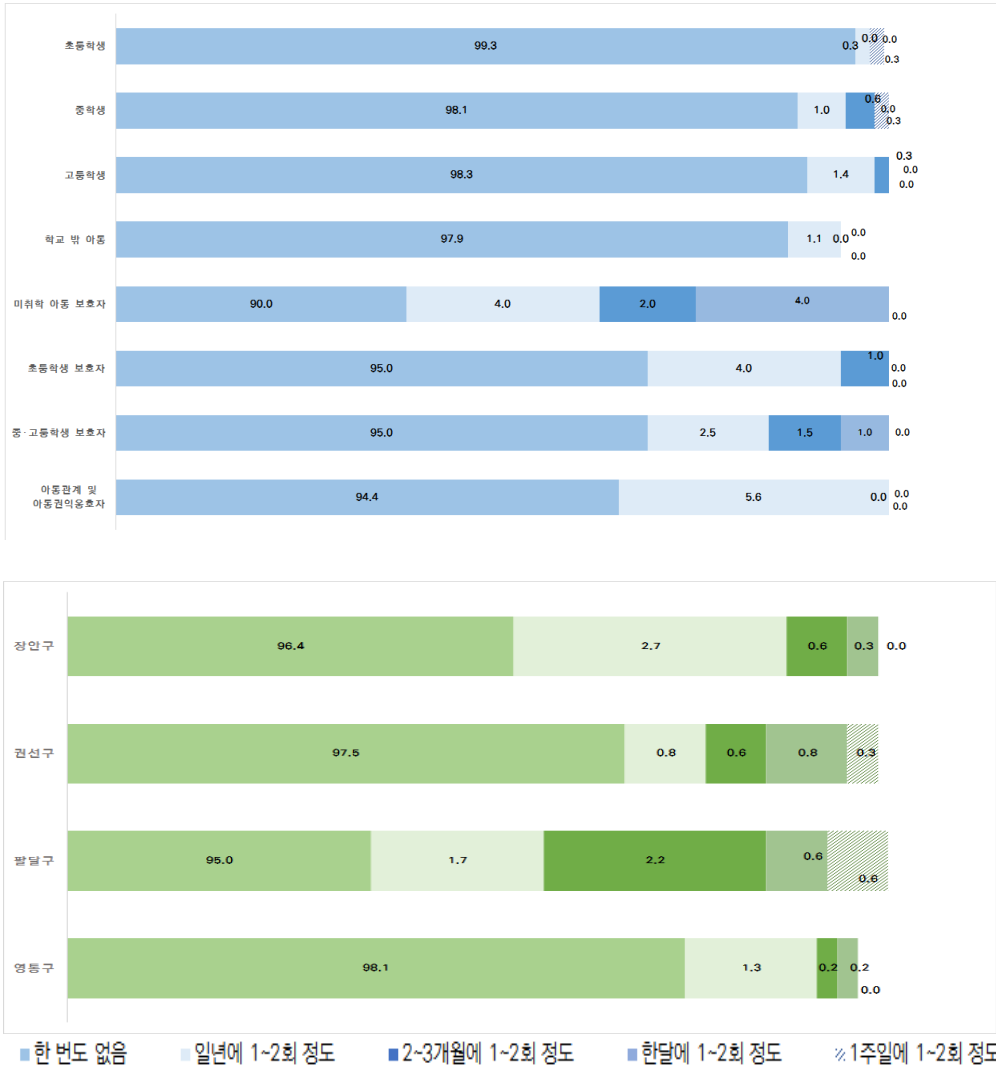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영통구(98.1%)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팔달구(95.0%), 장안구(96.4%)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부모의 부재로 차별을 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39〉 참조).

〈표 3-150〉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57	96.9	28	1.9	9	0.6	6	0.4	2	0.1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4	99.3	1	0.3	0	0.0	0	0.0	0.3
	중학생	314	308	98.1	3	1.0	2	0.6	0	0.0	0.3
	고등학생	292	287	98.3	4	1.4	1	0.3	0	0.0	0.0
	학교 밖 아동	94	92	97.9	1	1.1	0	0.0	0	0.0	0.0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90	90.0	4	4.0	2	2.0	4	4.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5	95.0	4	4.0	1	1.0	0	0.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90	95.0	5	2.5	3	1.5	2	1.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01	94.4	6	5.6	0	0.0	0	0.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22	96.4	9	2.7	2	0.6	1	0.3	0.0
	권선구	360	351	97.5	3	0.8	2	0.6	3	0.8	0.3
	팔달구	179	170	95.0	3	1.7	4	2.2	1	0.6	0.6
	영통구	523	513	98.1	7	1.3	1	0.2	1	0.2	0.0

〈그림 3-139〉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표 3-151〉의 ‘다문화가정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응답률은 ‘한 번도 없음’이 96.5%로 가장 높았고, ‘일 년에 1~2회 정도’ 2.1%, ‘2~3개월에 1~2회 정도’ 0.8%, ‘한 달에 1~2회 정도’와 ‘1주일에 1~2회 정도’ 0.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은 초등학교생과 고등학교생(98.6%)이 높았고,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응답자는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 초등학교생

보호자 및 중·고등학생 보호자(94.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4.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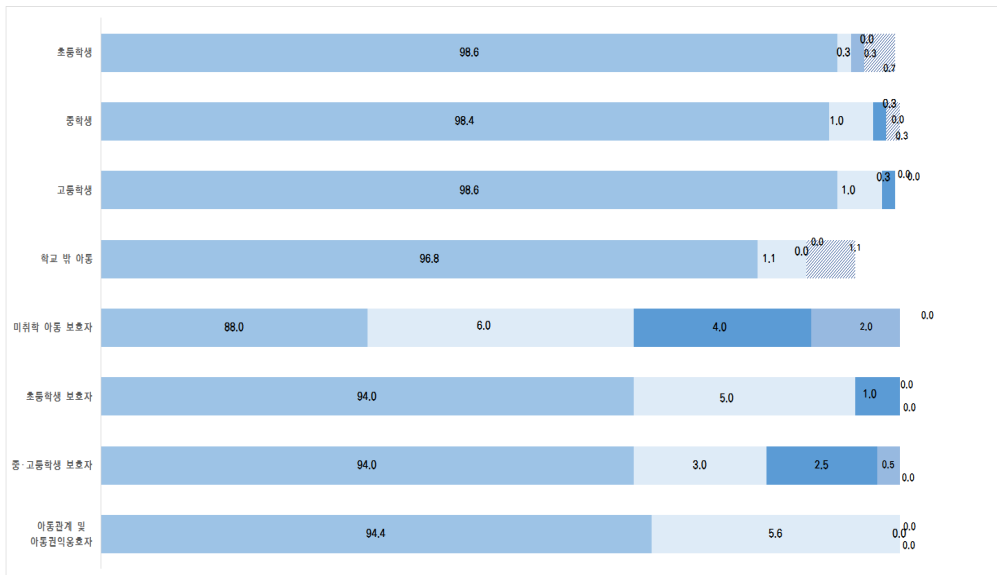
학교 소재지/거주지별로 ‘한 번도 없음’의 응답률은 영통구(97.3%)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한 번도 없음’ 평균 응답 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장안구(96.1%), 팔달구(95.5%)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는 질의에 한 번도 없음의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40〉 참조).

〈표 3-151〉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구분		전체 응답 (명)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03	1,451	96.5	31	2.1	12	0.8	4	0.3	4	0.3
응답자	초등학생	296	292	98.6	1	0.3	0	0.0	1	0.3	2	0.7
	중학생	314	309	98.4	3	1.0	1	0.3	0	0.0	1	0.3
	고등학생	292	288	98.6	3	1.0	1	0.3	0	0.0	0	0.0
	학교 밖 아동	94	91	96.8	1	1.1	0	0.0	0	0.0	1	1.1
	미취학 아동 보호자	100	88	88.0	6	6.0	4	4.0	2	2.0	0	0.0
	초등학생 보호자	100	94	94.0	5	5.0	1	1.0	0	0.0	0	0.0
	중·고등학생 보호자	200	188	94.0	6	3.0	5	2.5	1	0.5	0	0.0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107	101	94.4	6	5.6	0	0.0	0	0.0	0	0.0
학교 소재지/ 거주지	장안구	334	321	96.1	10	3.0	2	0.6	1	0.3	0	0.0
	권선구	360	349	96.9	4	1.1	3	0.8	2	0.6	2	0.6
	팔달구	179	171	95.5	2	1.1	4	2.2	1	0.6	1	0.6
	영통구	523	509	97.3	9	1.7	3	0.6	0	0.0	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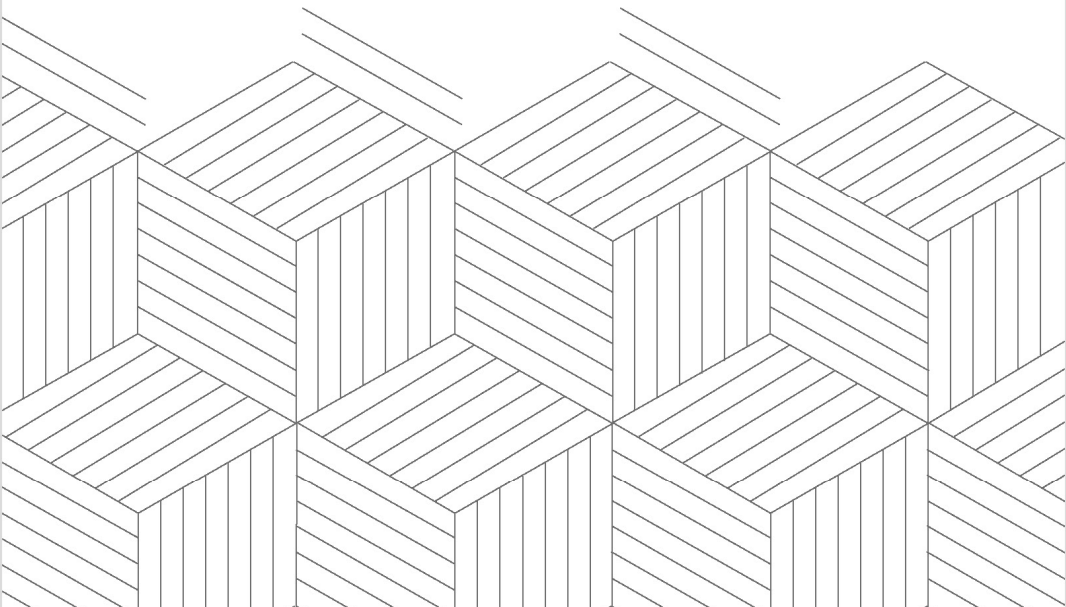
〈그림 3-140〉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 한 번도 없음 ■ 일년에 1~2회 정도 ■ 2~3개월에 1~2회 정도 ■ 한달에 1~2회 정도 ▨ 1주일에 1~2회 정도

제4장 결론

제1절 종합 정책제언
제2절 영역별 정책제언
제3절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제4장 결론

제1절 종합 정책제언

미국 언론인 프랭클린 P. 존스는 출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You can learn many things from children. How much patience you have, for instance.” 아마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든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당신은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인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적 문제로 확장된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사회적·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친화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아동친화도의 변화를 재측정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의 중간점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는 수원시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축한 인프라, 안전, 보건, 교육 등의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과 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아동친화적 인식의 변화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에 대한 설문을 추가함으로써 수원시 특색에 맞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친화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수원시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수원시 아동의 권리 존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수원시 특성,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등 전 영역에서 아동의 목소리와 욕구를 수원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아동권리에 대한 가치철학적 기반 형성과 확산을 기본으로 하며, 둘째, 수원시 지역의 특색 파악과 고려를 통해 아동친화 정책을 수행하며, 셋째, 다양한 아동친화

영역에 대한 관심확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아동과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수원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에 대한 기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이며, 아동과 보호자가 적절한 생활수준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역별 비교분석 결과(2016년, 2018년, 2020년) 놀이와 여가는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참여와 시민의식은 일부가 높아졌다. 또한 안전과 보호는 비슷하였고, 보건과 서비스 역시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그 외에도 교육 환경은 비슷하였고, 주거 환경은 긍정적 응답이 많아졌으며, 수원시 특성은 세부 문항별로 차이가 났다. 마지막으로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은 금년도에 처음 조사되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동친화도 조사를 통해 수원시가 아동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동친화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COVID-19 등으로 인해 아동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높고, 특히 아동학대 등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아동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결국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격차 완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모든 아동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제2절 영역별 정책제언

1. 놀이와 여가

‘놀이와 여가’는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지역 내 아동 관련 시설 및 환경 등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으며, 활동에 제약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영역이다. 2018년 조사는 2016년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 문항에서 결과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아동친화도 ‘놀이와 여가’는 수원시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간·장소(시설, 자연환경)·안전성·인접성·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동의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의 자유시간, 지역사회에서의 자연환경 인접성, 안전한 장소의 유무와 인접성 등과 관련한 문항들이 2020년 아동친화도 조사가 이전 조사 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놀이와 여가’의 조사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내용은 다음 <표 4-1>과 같다.

‘놀이와 여가’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 4개(문항 1, 2, 4, 7), ‘가끔 그렇다’ 3개(문항 3, 5, 6)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매우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긍정 인식이 가장 강한 문항은 놀이와 여가 7번(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으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74.2%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31.9%, 2018년 대비 24.9%로 증가 폭도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내 응답자별 특이점으로는 놀이와 여가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아동의 응답률이 높은 문항은 보호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로 대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아동이 보고 느끼는 것과 보호자가 인식하는 것과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세부 문항별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문항 내 지역(학교 소재지/거주지) 간 인식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문항은 놀이와 여가 6번(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으로 영통구와 팔달구가 11.1%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10% 미만의 인식차를 보이며 각 문항에 대한 지역 간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2016년,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는 놀이와 여가 1번, 4번, 7번 문항에서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며, 부정적으로 변화된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무응답률의 증감에 따라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 형태(‘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이 증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놀이와 여가’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놀이와 여가1	매우 그렇다 (65.4%)	↑ 미취학 아동 보호자(87.0%) ↑ 학교 밖 아동(76.6%)	↑ 팔달구(73.7%)	X -3.8%	X -3.8%
		↓ 중·고등학생 보호자 (45.0%) ↓ 고등학생(57.9%)	↓ 영통구(64.4%)	□ -10.8% ○ 12.5%	□ -9.2% ○ 10.9%
놀이와 여가2	매우 그렇다 (67.1%)	↑ 초등학생(82.1%) ↑ 중학생(74.8%)	↑ 팔달구(69.3%)	X -1.2%	X -0.9%
		↓ 중·고등학생 보호자(49.0%) ↓ 초등학생 보호자(49.0%)	↓ 영통구(66.0%)	□ -0.7% ○ -0.8%	□ 4.0% ○ -4.3%
놀이와 여가3	가끔 그렇다 (32.7%)	↑ 미취학 아동 보호자(48.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4.9%)	↑ 영통구(33.7%)	X -15.7%	X -9.2%
		↓ 초등학생(23.0%) ↓ 학교 밖 아동(24.5%)	↓ 장안구(29.6%)	□ -6.4% ○ -1.7%	□ -1.4% ○ -7.5%
놀이와 여가4	매우 그렇다 (64.1%)	↑ 초등학생(69.9%) ↑ 중학생(69.1%)	↑ 영통구(65.6%)	X -4.2%	X -3.8%
		↓ 중·고등학생 보호자(50.0%) ↓ 초등학생 보호자(53.0%)	↓ 장안구(62.3%)	□ -14.8% ○ 15.9%	□ -10.2% ○ 11.3%
놀이와 여가5	가끔 그렇다 (45.2%)	↑ 초등학생 보호자(59.0%) ↑ 중·고등학생 보호자(63.5%)	↑ 영통구(46.3%)	X -7.0%	X -2.9%
		↓ 학교 밖 아동(31.9%) ↓ 고등학생(39.0%)	↓ 권선구(43.1%)	□ -2.3% ○ -5.8%	□ -3.9% ○ -6.6%
놀이와 여가6	가끔 그렇다 (43.7%)	↑ 중·고등학생 보호자(62.5%) ↑ 초등학생 보호자(57.0%)	↑ 영통구(47.4%)	X -15.9%	X -12.2%
		↓ 학교 밖 아동(27.7%) ↓ 중학생(36.6%)	↓ 팔달구(36.3%)	□ 2.6% ○ -2.4%	□ 4.2% ○ -6.6%
놀이와 여가7	매우 그렇다 (74.2%)	↑ 초등학생(87.2%) ↑ 중학생(83.1%)	↑ 팔달구(77.1%)	X -3.6%	X -3.2%
		↓ 중·고등학생 보호자(54.5%) ↓ 초등학생 보호자(60.0%)	↓ 권선구(71.7%)	□ -29.1% ○ 31.9%	□ -22.7% ○ 24.9%

주: 2016년, 2018년 대비 증감률 안에 기호는 다음과 같음 = X(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참여와 시민의식

‘참여와 시민의식’은 아동과 보호자가 지역사회에 아동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의사결정·기획·예산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지역사회 변화에는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정부(시의회, 시장 등)는 아동과 보호자의 생활 및 지역에 대한 의견을 얼마나 참조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2018년 조사는 2016년 조사에 비해 2개 문항이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변화폭이 매우 적었으며, 부정적 응답도 함께 낮아져 인식의 변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아동친화도 ‘참여와 시민의식’은 수원시 지역사회가 아동과 보호자에게 지역

에 대한 정보제공·공유, 홍보 그리고 참여 기회와 의사결정 기회 제공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년 부정적 인식이 강하던 아동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예산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 의견 조사여부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참여와 시민의식’이 이전 조사 보다 변화 폭이 크지 않지만 한층 더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참여와 시민의식’의 조사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내용은 다음 <표 4-2>와 같다.

‘참여와 시민의식’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가끔 그렇다’ 4개(문항 1, 2, 3, 5), ‘매우 그렇다’ 1개(문항 6), ‘전혀 아니다’ 1개(문항 4)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참여와 시민의식 6번(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으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47.5%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7.1%, 2018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반대로 부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참여와 시민의식 4번(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으로 ‘전혀 아니다’ 응답률이 33.9%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2016년 대비 -32.1%, 2018년 대비 -29.2% 감소하며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상당 부분 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내 응답자별 특이점으로는 지역사회의 참여기회와 의견수렴 관련 문항들(문항 1, 2, 3, 4, 5)에서 ‘가끔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아동 보다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정보의 개방성과 관련한 문항(문항 6)은 아동이 보호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동보다는 보호자들의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내 지역(학교 소재지/거주지) 간 인식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문항은 참여와 시민의식 4번(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으로 영통구와 팔달구가 14.5%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10% 미만의 인식차를 보이며 각 문항에 대한 지역 간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2016년,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는 참여와 시민의식 전 문항에서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며, 무응답률의 증감에 따라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 형태(‘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 증감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참여와 시민의식’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참여와 시민 의식 1	가끔 그렇다 (38.7%)	↑ 초등학생 보호자(52.0%) ↑ 미취학 아동 보호자(51.0%) ↓ 학교 밖 아동(22.3%) ↓ 초등학생(29.4%)	↑ 장안구(39.8%) ↓ 팔달구(34.1%)	X-21.9% □ -9.9% ○ 7.8%	X-18.4% □ -9.2% ○ 5.0%
참여와 시민 의식 2	가끔 그렇다 (36.3%)	↑ 초등학생 보호자(53.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8.6%) ↓ 학교 밖 아동(13.8%) ↓ 초등학생(25.3%)	↑ 장안구(37.7%) ↓ 권선구(32.8%)	X-43.7% □ 9.2% ○ 9.9%	X-39.3% □ 5.6% ○ 10.9%
참여와 시민 의식 3	가끔 그렇다 (33.2%)	↑ 초등학생 보호자(44.0%) ↑ 중·고등학생 보호자(37.0%) ↓ 초등학생(24.3%) ↓ 학교 밖 아동(29.8%)	↑ 영통구(34.6%) ↓ 권선구(29.2%)	X-32.5% □ 2.8% ○ 8.8%	X-28.4% □ 3.4% ○ 7.8%
참여와 시민 의식 4	전혀 아니다 (33.9%)	↑ 초등학생 보호자(56.0%) ↑ 중·고등학생 보호자(55.5%)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4%) ↓ 중학생(23.9%)	↑ 영통구(41.9%) ↓ 팔달구(27.4%)	X-32.1% □ 0.5% ○ 6.4%	X-29.2% □ -2.3% ○ 6.6%
참여와 시민 의식 5	가끔 그렇다 (46.6%)	↑ 초등학생 보호자(61.0%) ↑ 미취학 아동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57.0%) ↓ 중학생(38.9%) ↓ 초등학생(41.9%)	↑ 장안구(48.5%) ↓ 팔달구(40.8%)	X-14.5% □ -0.9% ○ 4.0%	X-9.5% □ -2.3% ○ 1.2%
참여와 시민 의식 6	매우 그렇다 (47.5%)	↑ 중학생(57.6%) ↑ 고등학생(51.0%) ↓ 초등학생 보호자(24.0%) ↓ 중·고등학생 보호자(35.5%)	↑ 팔달구(52.1%) ↓ 영통구(46.0%)	X-10.1% □ -4.3% ○ 7.1%	X-8.2% □ -2.7% ○ 5.2%

주: 2016년, 2018년 대비 증감률 안에 기호는 다음과 같음 = X(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안전과 보호

‘안전과 보호’는 아동이 지역 내 모든 활동이 안전한지, 대중교통 및 탈거리의 안전과 마약·폭력단체, 납치 등으로의 안전,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안전,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와 시설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2018년 조사는 2016년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반면, 변화 폭의 차이가 거의 없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아동친화도 ‘안전과 보호’는 이전 조사들과 유사하게 수원시가 대체로 매우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에 대한 대처(보호자, 시설) 방안 인지 유무나 위험한 약물, 대중교통 안정성과 관련한 문항은 이전 조사와 유사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폭력 및 학대, 유괴나 납치로의 안전, 인종·종교·국적·민족·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거나, 따돌림과 괴롭힘 위험이 적고 서로 존중한다 등의 문항들은 이전 조사 보다 높아진 응답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안전과 보호’는 이전 조사 보다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층 더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안전과 보호’의 조사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내용은 다음 <표 4-3>과 같다.

‘안전과 보호’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 15개(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가끔 그렇다’ 1개(문항 16)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안전과 보호 1번(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으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73.3%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10.5%, 2018년 대비 7.8% 증가하였다.

문항 내 응답자별 특이점으로는 모든 문항에서 아동(초·중·고등학생)과 보호자(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의 인식차가 컸다. 이러한 점은 실제 아동이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안전과 보호가 높는데 반해,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동반되어 아동보다 넓은 관점에서 관찰하고 작은 부분도 예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과 보호의식이 표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아동과 보호자 사이에서 일상적인 대화가 부족하기 상황에서 아동은 인지하고 있지만 보호자는 아동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다.

문항 내 지역(학교 소재지/거주지) 간 인식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문항은 안전과 보호의식 15번(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으로 팔달구와 장안구가 10.9%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10% 미만의 인식차를 보이며 각 문항에 대한 지역 간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2016년,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는 안전과 보호 10번, 13번 문항에서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낮아지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번 문항은 부정인식으로서의 변화가 매우 적어 이전과 차이가 없지만, 13번 문항은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는 인식이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비대면(Untact) 교육 및 생활이 활성화되는 시기에서 유심히 살펴볼 문제로 판단된다. 그 외 나머지 문항에서는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문항이 16개 중 13개 문항으로 대체로 이전 조사 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리고 무응답률의 증감에 따라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 형태(‘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 증감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안전과 보호’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안전과 보호 1	매우 그렇다 (73.3%)	↑ 초등학생(94.3%) ↑ 중학생(84.1%) ↓ 미취학 아동 보호자(46.0%) ↓ 중·고등학생 보호자(47.0%)	↑ 권선구(79.4%) ↓ 팔달구(69.8%)	X -2.5% □ -9.0% ○ 10.5%	X -3.2% □ -5.3% ○ 7.8%
안전과 보호 2	매우 그렇다 (58.9%)	↑ 초등학생(65.9%) ↑ 학교 밖 아동(64.9%) ↓ 중·고등학생 보호자(42.5%) ↓ 초등학생 보호자(43.0%)	↑ 영통구(64.2%) ↓ 팔달구(52.0%)	X -1.9% □ -11.0% ○ 13.4%	X -2.5% □ -5.9% ○ 9.4%
안전과 보호 3	매우 그렇다 (58.5%)	↑ 초등학생(73.6%) ↑ 중학생(69.1%) ↓ 중·고등학생 보호자(35.5%) ↓ 미취학 아동 보호자(40.0%)	↑ 영통구(62.5%) ↓ 장안구(54.2%)	X -7.6% □ -26.0% ○ 33.5%	X -9.4% □ -21.5% ○ 29.6%
안전과 보호 4	매우 그렇다 (51.6%)	↑ 초등학생(62.5%) ↑ 중학생(59.6%) ↓ 초등학생 보호자(32.0%) ↓ 중·고등학생 보호자(34.0%)	↑ 영통구(54.5%) ↓ 팔달구(47.5%)	X -5.5% □ -22.3% ○ 29.9%	X -6.5% □ -19.3% ○ 26.4%
안전과 보호 5	매우 그렇다 (50.1%)	↑ 초등학생(63.2%) ↑ 학교 밖 아동(62.8%) ↓ 초등학생 보호자(19.0%) ↓ 미취학 아동 보호자(27.0%)	↑ 영통구(53.2%) ↓ 팔달구(47.5%)	X -7.5% □ -9.9% ○ 13.5%	X -4.5% □ -8.7% ○ 9.9%
안전과 보호 6	매우 그렇다 (47.4%)	↑ 초등학생(60.1%) ↑ 중학생(58.6%) ↓ 미취학 아동 보호자(26.0%) ↓ 중·고등학생 보호자(26.5%)	↑ 영통구(50.3%) ↓ 장안구(43.1%)	X -6.0% □ -19.7% ○ 20.9%	X -5.7% □ -17.2% ○ 17.1%
안전과 보호 7	매우 그렇다 (61.2%)	↑ 중학생(77.7%) ↑ 고등학생(75.0%) ↓ 미취학 아동 보호자(20.0%) ↓ 초등학생 보호자(33.0%)	↑ 영통구(66.3%) ↓ 권선구(56.9%)	X -5.9% □ -25.5% ○ 25.8%	X -6.2% □ -19.9% ○ 21.0%
안전과 보호 8	매우 그렇다 (61.4%)	↑ 초등학생(82.8%) ↑ 중학생(77.4%) ↓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보호자(31.0%) ↓ 중·고등학생 보호자(33.5%)	↑ 팔달구(62.6%) ↓ 권 선 · 장 안 구 (61.1%)	X -8.0% □ -30.4% ○ 33.4%	X -8.0% □ -24.1% ○ 28.0%
안전과 보호 9	매우 그렇다 (53.5%)	↑ 중학생(65.9%) ↑ 고등학생(64.7%) ↓ 초등학생 보호자(26.0%) ↓ 중·고등학생 보호자(27.0%)	↑ 팔달구(56.2%) ↓ 장안구(51.4%)	X -11.9% □ -21.5% ○ 29.8%	X -11.7% □ -23.0% ○ 31.1%
안전과 보호 10	매우 그렇다 (72.1%)	↑ 중학생(82.2%) ↑ 학교 밖 아동(79.8%) ↓ 초등학생 보호자(46.0%) ↓ 중·고등학생 보호자(58.0%)	↑ 영통구(77.8%) ↓ 장안구(69.2%)	X 1.6% □ -5.2% ○ 2.1%	X 2.1% □ -2.4% ○ 0.3%
안전과 보호	매우 그렇다	↑ 초등학생(68.9%) ↑ 중학생(62.1%)	↑ 팔달구(56.8%)	X -1.5% □ -8.9%	X -1.0% □ -5.6%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11	(54.0%)	↓ 초등학생 보호자(25.0%) ↓ 중·고등학생 보호자(27.5%)	↓ 장안구(49.2%)	○ -1.0%	○ -4.4%
안전과 보호 12	매우 그렇다 (55.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2.9%) ↑ 초등학생(68.9%)	↑ 팔달구(58.6%)	X -6.8%	X -5.7%
		↓ 초등학생 보호자(38.0%) ↓ 중·고등학생 보호자(39.0%)	↓ 장안구(49.2%)	□ -16.4%	□ -13.1%
안전과 보호 13	매우 그렇다 (46.5%)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7.3%) ↑ 초등학생(61.1%)	↑ 팔달구(47.3%)	X 3.4%	X 4.8%
		↓ 중·고등학생 보호자(25.0%) ↓ 초등학생 보호자(26.0%)	↓ 장안구(42.2%)	□ -4.5%	□ -3.5%
안전과 보호 14	매우 그렇다 (32.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2.1%) ↑ 초등학생(37.2%)	↑ 팔달구(38.1%)	X 1.4%	X 2.9%
		↓ 학교 밖 아동(18.1%) ↓ 고등학생(30.5%)	↓ 영통구(28.3%)	□ 9.3%	□ 12.1%
안전과 보호 15	매우 그렇다 (37.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45.8%) ↑ 고등학생(43.2%)	↑ 팔달구(41.4%)	X -12.1%	X -7.6%
		↓ 학교 밖 아동(18.1%) ↓ 중·고등학생 보호자(28.5%)	↓ 장안구(30.5%)	□ -18.4%	□ -14.4%
안전과 보호 16	가끔 그렇다 (39.3%)	(단일)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	○ 15.0%	○ 2.9%
				X -13.2%	X -9.2%
				□ -18.7%	□ -26.4%
				○ 14.3%	○ 18.9%

주: 2016년, 2018년 대비 증감률 안에 기호는 다음과 같음 = X(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보건과 사회서비스

‘보건과 사회서비스’는 아동과 보호자가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건강과 발달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심리치료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출생등록 및 예방 접종은 받고 있는지, 성교육은 지도/지원받는지, 지역에 쓰레기 및 오수, 매연이나 악취 등은 문제가 없는지, 공중화장실은 구비되어 있는지 등 예방적 조치와 위생적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역이다. 2018년 조사는 2016년 조사에 비해 대부분의 문항에서 매우 긍정적인 응답과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연과 악취 등 공기의 질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부정적 응답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아동친화도 ‘보건과 사회서비스’는 ‘안전과 보호’ 영역과 유사하게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항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특이점으로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와 그 외 응답자들 간의 응답률 차이가 보건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일반 시민(아동, 보호자) 간의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제언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공기질과 관련한 문항이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를 가져와 지역사회 노력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건과

사회서비스’는 이전 조사 보다 변화 폭이 크지 않지만 한층 더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보건과 사회서비스’의 조사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내용은 다음 <표 4-4>와 같다.

‘보건과 사회서비스’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 7개(문항 2, 3, 4, 5, 7, 8, 9), ‘가끔 그렇다’ 5개(문항 1, 6, 10, 11, 12)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보건과 사회서비스 9번(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으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82.8%로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0.0%, 2018년 대비 0.9% 증가하였다.

문항 내 응답자별 특이점으로는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응답이 문항별로 증감의 차이가 컸다. 전문가를 통한 성교육 장소 여부, 안전한 주위 환경, 건강검진 및 진료 시설, 출생신고 등의 문항에서는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상반된 인식을 가질 때도 다른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며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보건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와 인식의 차이가 큰 응답자들을 선별하여 각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문항 내 지역(학교 소재지/거주지) 간 인식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문항은 보건과 사회서비스 2번, 4번, 12번 문항으로 지역사회의 아동이 전문가를 통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문항에 팔달구와 장안구가 10.6%, 지역사회에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문항에 영통구와 장안구가 11.1%, 지역사회에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있는가의 문항에는 장안구와 영통구가 15.2%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10% 미만의 인식차를 보이며 각 문항에 대한 지역 간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2016년,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는 안전과 보호 8번, 11번(2016년 대비), 12번(2018년 대비) 문항에서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낮아지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 문항 모두 부정 인식으로의 변화 차이는 크지 않지만, COVID-19로 인해 변화된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익숙지 못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적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나머지 문항에서는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문항이 12개 중 6개 문항으로 절반의 문항에서 이전 조사 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리고 무응답률의 증감에 따라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 형태(‘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 증감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보건과 사회서비스’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보건과 사회 서비스 1	가끔 그렇다 (33.9%)	↑ 미취학 아동 보호자(45.5%) ↑ 중·고등학생 보호자(45.0%) ↓ 초등학생(24.3%) ↓ 학교 밖 아동(27.7%)	↑ 영통구(34.2%) ↓ 팔달구(29.1%)	X -0.8% □ -8.3% ○ -5.2%	X -1.3% □ -9.0% ○ -6.1%
보건과 사회 서비스 2	매우 그렇다 (38.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6.1%) ↑ 중학생(50.6%) ↓ 미취학 아동, 중·고등학생 보호자(18.0%) ↓ 초등학생 보호자(21.0%)	↑ 팔달구(45.3%) ↓ 장안구(34.7%)	X -8.6% □ -8.9% ○ 11.9%	X -7.5% □ -9.4% ○ 10.7%
보건과 사회 서비스 3	매우 그렇다 (48.6%)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7.0%) ↑ 중학생(56.4%) ↓ 미취학 아동 보호자(26.0%) ↓ 초등학생 보호자(35.0%)	↑ 장안구(51.2%) ↓ 영통구(44.9%)	X -8.7% □ -7.0% ○ 7.3%	X -7.2% □ -5.7% ○ 6.9%
보건과 사회 서비스 4	매우 그렇다 (40.4%)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1.7%) ↑ 중·고등학생 보호자(42.5%) ↓ 학교 밖 아동·초등학생 보호자(34.0%) ↓ 초등학생(37.2%)	↑ 영통구(44.0%) ↓ 장안구(32.9%)	X -3.4% □ -10.9% ○ 4.0%	X -1.2% □ -10.2% ○ 3.0%
보건과 사회 서비스 5	매우 그렇다 (63.7%)	↑ 초등학생(74.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9.2%) ↓ 초등학생 보호자(54.0%) ↓ 중·고등학생 보호자(54.5%)	↑ 영통구(66.2%) ↓ 권선구(58.6%)	X -1.6% □ -3.9% ○ -3.1%	X -2.0% □ -6.2% ○ -0.4%
보건과 사회 서비스 6	가끔 그렇다 (45.6%)	↑ 초등학생 보호자(58.0%) ↑ 중·고등학생 보호자(52.0%) ↓ 초등학생(38.9%) ↓ 중학생(42.4%)	↑ 장안구(50.3%) ↓ 팔달구(42.5%)	X -1.3% □ -10.6% ○ 3.4%	X -5.9% □ -7.0% ○ 5.5%
보건과 사회 서비스 7	매우 그렇다 (75.5%)	↑ 초·중등학생(81.8%)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5.7%) ↓ 초등학생 보호자(65.0%) ↓ 중·고등학생 보호자(65.5%)	↑ 팔달구(77.7%) ↓ 권선구(71.4%)	X -1.7% □ 5.1% ○ -8.5%	X -1.1% □ 4.3% ○ -7.9%
보건과 사회 서비스 8	매우 그렇다 (74.3%)	↑ 초등학생(83.4%) ↑ 미취학 아동 보호자(82.0%) ↓ 학교 밖 아동(59.6%) ↓ 고등학생(64.4%)	↑ 장안구(78.1%) ↓ 권선구(70.6%)	X 1.6% □ 2.2% ○ -10.0%	X 1.1% □ 4.0% ○ -11.5%
보건과 사회 서비스 9	매우 그렇다 (82.8%)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6.0%) ↑ 초등학생 보호자(86.0%) ↓ 중·고등학생 보호자(78.5%)	↑ 영통구(85.9%) ↓ 팔달구(77.8%)	X -1.2% □ 0.2% ○ 0.0%	X -0.7% □ -1.0% ○ 0.9%
보건과 사회 서비스 10	가끔 그렇다 (40.8%)	↑ 중·고등학생 보호자(47.5%)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29.9%)	↑ 장안구(46.8%) ↓ 권선구(40.4%)	X -3.7% □ -1.7% ○ 5.6%	X -1.8% □ 1.7% ○ 0.8%
보건과	가끔	↑ 초등학생 보호자(47.0%)	↑ 장안구(49.5%)	X 1.0%	X -2.6%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사회 서비스 11	그렇다 (42.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36.4%)	↓ 영통구(40.1%)	□ -4.8% ○ -8.2%	□ 1.1% ○ -9.9%
보건과 사회 서비스 12	가끔 그렇다 (43.0%)	↑ 중·고등학생 보호자(48.5%)	↑ 장안구(56.0%)	X -1.2%	X 2.6%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33.6%)	↓ 영통구(40.8%)	□ -10.0% ○ 2.3%	□ -6.8% ○ -3.9%

주: 2016년, 2018년 대비 증감률 안에 기호는 다음과 같음 = X(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은 아동이 학교를 다니는지의 여부 확인부터, 학교 내 생활과 교육 방식, 그리고 지역의 아동이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여부 등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2018년 조사는 2016년 조사에 비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전반의 상황이 지역 내 교육기관, 교육시설 및 인프라 등을 확인하는 문항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변화의 폭은 거의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020년 아동친화도 ‘교육 환경’은 이전 조사들과 유사하게 수원시의 교육 환경과 지역 내 교육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다니기 위한 학용품 구매,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여부,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학교 운영시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등의 문항들은 이전 조사 보다 높아진 응답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 조사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긍정적 인식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교육 환경’의 조사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내용은 다음 <표 4-5>와 같다.

‘교육 환경’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로 25개 전 문항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교육 환경 1번(우리 지역 사회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이다. 해당 문항은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당연한 문항이기에 다음으로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교육 환경 2번(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으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92.3%로에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2016년 대비 12.1%, 2018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

문항 내 응답자별 특이점으로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아동(초·중·고등학생)과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인식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보호자(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와의 인식 차이는 컸다. 이러한 점은 아동은 실제 교육 환경을 접하고 있고,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또한 관련 전문가·실무자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받아드리는 인식이 유사한 반면, 보호자의 경우 개인적 인식과 자녀를 통해 얻는 인식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응답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내 지역(학교 소재지/거주지) 간 인식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문항은 교육 환경 14번(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21번(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으로 교육 환경 14번 문항에 팔달구와 영통구가 11.0%, 교육 환경 21번 문항에 팔달구와 권선구가 10.3%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10% 미만의 인식차를 보이며 각 문항에 대한 지역 간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2016년,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는 교육 환경 1번, 10번 문항에서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낮아지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 1번 문항과 학교의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는지 10번 문항은 이전 조사에 비해 부정응답이 약소하게 증가하여 이전 조사에 비해 유의할 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나머지 문항에서는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문항이 25개 중 18개 문항으로 대체로 이전 조사 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리고 무응답률의 증감에 따라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 형태(‘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 증감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교육 환경’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교육 환경 1	매우 그렇다 (94.9%)	↑ 초등학생(98.6%) ↑ 중학생(98.1%) ↓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 ↓ 학교 밖 아동(73.4%)	↑ 영통구(96.7%) ↓ 팔달구(89.9%)	X 1.1% □ -0.9% ○ -0.4%	X 1.0% □ -0.2% ○ -1.0%
교육 환경 2	매우 그렇다 (92.3%)	↑ 초등학생(95.6%) ↑ 중·고등학생 보호자(95.0%) ↓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4.1%)	↑ 권선구(94.4%) ↓ 팔달구(89.4%)	X -1.2% □ -11.5% ○ 12.1%	X -0.8% □ -10.4% ○ 11.1%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교육 환경 3	매우 그렇다 (56.4%)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3.8%) ↑ 초등학생(67.2%)	↑ 권선구(56.7%)	X -5.5% □ -16.7% ○ 17.3%	X -2.9% □ -10.7% ○ 10.3%
		↓ 중·고등학생 보호자(24.5%) ↓ 초등학생 보호자(26.0%)	↓ 장안구(53.0%)		
교육 환경 4	매우 그렇다 (66.8%)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7.6%) ↑ 초등학생(75.7%)	↑ 영통구(68.8%)	X -0.3% □ -7.0% ○ 2.6%	X -0.4% □ -4.6% ○ 0.9%
		↓ 초등학생 보호자(44.0%) ↓ 중·고등학생 보호자(44.5%)	↓ 장안구(62.9%)		
교육 환경 5	매우 그렇다 (67.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0.4%) ↑ 초등학생(76.0%)	↑ 영통구(69.4%)	X -0.9% □ -7.9% ○ 2.5%	X -1.4% □ -8.5% ○ 4.8%
		↓ 초등학생 보호자(56.0%) ↓ 중·고등학생 보호자(58.0%)	↓ 팔달구(60.3%)		
교육 환경 6	매우 그렇다 (66.1%)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5.0%) ↑ 초등학생(78.7%)	↑ 장안구(65.9%)	X -1.2% □ -7.8% ○ 3.6%	X -0.6% □ -4.2% ○ -0.2%
		↓ 중·고등학생 보호자(42.0%) ↓ 초등학생 보호자(45.0%)	↓ 영통구(62.9%)		
교육 환경 7	매우 그렇다 (66.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3.2%) ↑ 초등학생(84.5%)	↑ 영통구(66.7%)	X -0.5% □ -6.3% ○ 1.5%	X -0.8% □ -5.9% ○ 1.5%
		↓ 중·고등학생 보호자(48.0%) ↓ 초등학생 보호자(55.0%)	↓ 팔달구(62.0%)		
교육 환경 8	매우 그렇다 (65.3%)	↑ 초등학생(85.1%)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1.3%)	↑ 영통구(66.3%)	X -0.7 □ -5.3 ○ 0.5	X -1.0 □ -2.3 ○ -2.4
		↓ 중·고등학생 보호자(48.0%) ↓ 초등학생 보호자(56.0%)	↓ 팔달구(59.8%)		
교육 환경 9	매우 그렇다 (63.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3.2%) ↑ 초등학생(82.1%)	↑ 영통구(65.8%)	X 0.6% □ -0.2% ○ -6.2%	X -1.9% □ 1.0% ○ -6.9%
		↓ 미취학 아동 보호자(38.0%) ↓ 중·고등학생 보호자(41.0%)	↓ 장안구(59.6%)		
교육 환경 10	매우 그렇다 (77.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7.9%) ↑ 초등학생(85.1%)	↑ 영통구(80.3%)	X 0.5% □ -0.8% ○ -3.7%	X 0.4% □ 1.6% ○ -5.8%
		↓ 초등학생 보호자(61.0%) ↓ 중·고등학생 보호자(64.5%)	↓ 장안구(74.3%)		
교육 환경 11	매우 그렇다 (75.5%)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7.9%) ↑ 학교 밖 아동(83.0%)	↑ 장안구(77.5%)	X -5.0% □ -21.4% ○ 25.4%	X -5.9% □ -15.5% ○ 21.0%
		↓ 초등학생 보호자(64.0%) ↓ 중·고등학생 보호자(68.0%)	↓ 권선구(70.8%)		
교육 환경 12	매우 그렇다 (70.5%)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4.1%) ↑ 초등학생(70.5%)	↑ 영통구(72.1%)	X -1.2% □ -8.9% ○ 1.8%	X -1.6% □ -5.6% ○ 0.1%
		↓ 중·고등학생 보호자(56.5%) ↓ 초등학생 보호자(59.0%)	↓ 권선구(67.8%)		
교육 환경	매우 그렇다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0.4%) ↑ 초등학생(74.3%)	↑ 권선구(61.7%)	X -3.1% □ -14.6%	X -2.6% □ -10.2%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13	(62.9%)	↓ 학교 밖 아동(43.6%)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보호자(48.0%)	↓ 장안구(61.4%)	○ 9.3%	○ 7.3%
교육 환경 14	매우 그렇다 (61.5%)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6.6%) ↑ 중학생(75.2%)	↑ 팔달구(69.3%)	X -9.5% □ -18.3%	X -5.8% □ -15.2%
		↓ 학교 밖 아동(35.1%) ↓ 미취학 아동 보호자(41.0%)	↓ 영통구(58.3%)	○ 15.3%	○ 9.4%
교육 환경 15	매우 그렇다 (62.3%)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0.4%) ↑ 초등학생(77.7%)	↑ 영통구(63.3%)	X -3.4% □ -7.3%	X -3.5% □ -4.8%
		↓ 학교 밖 아동(35.1%) ↓ 중·고등학생 보호자(41.0%)	↓ 팔달구(59.2%)	○ 2.4%	○ 1.2%
교육 환경 16	매우 그렇다 (72.1%)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7.9%) ↑ 초등학생(80.7%)	↑ 영통구(72.3%)	X -5.3% □ -12.0%	X -5.8% □ -6.8%
		↓ 학교 밖 아동(50.0%) ↓ 중·고등학생 보호자(55.5%)	↓ 권선구(68.6%)	○ 9.6%	○ 7.4%
교육 환경 17	매우 그렇다 (52.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8.2%) ↑ 고등학생(61.3%)	↑ 영통구(53.3%)	X -0.2% □ -9.6%	X -0.5% □ -8.0%
		↓ 중·고등학생 보호자(29.5%) ↓ 초등학생 보호자(35.0%)	↓ 권선구(48.3%)	○ 1.0%	○ 0.7%
교육 환경 18	매우 그렇다 (53.8%)	↑ 중학생(67.2%)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5.4%)	↑ 팔달구(57.0%)	X -7.8% □ -12.9%	X -2.9% □ -10.2%
		↓ 초등학생 보호자(32.0%) ↓ 미취학 아동 보호자(34.0%)	↓ 영통구(51.6%)	○ 8.4%	○ 1.8%
교육 환경 19	매우 그렇다 (71.0%)	↑ 초등학생(81.4%) ↑ 중학생(78.7%)	↑ 장안구(74.6%)	X -0.2% □ -3.2%	X -0.4% □ -1.1%
		↓ 중·고등학생 보호자(46.5%) ↓ 초등학생 보호자(55.0%)	↓ 권선구(67.8%)	○ 0.7%	○ -0.9%
교육 환경 20	매우 그렇다 (86.0%)	↑ 초등학생(94.6%) ↑ 중학생(90.1%)	↑ 장안구(87.4%)	X -0.8% □ -1.4%	X -1.3% □ -0.1%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보호자(76.0%) ↓ 미취학 아동 보호자(80.0%)	↓ 팔달구(82.7%)	○ 0.5%	○ 0.3%
교육 환경 21	매우 그렇다 (37.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4.2%) ↑ 초등학생(49.7%)	↑ 팔달구(43.8%)	X -12.9% □ -16.2%	X -7.2% □ -12.7%
		↓ 학교 밖 아동(16.0%) ↓ 중·고등학생 보호자(27.5%)	↓ 권선구(33.5%)	○ 6.9%	○ 1.5%
교육 환경 22	매우 그렇다 (62.2%)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4.8%) ↑ 중학생(72.0%)	↑ 팔달구(64.5%)	-	-
		↓ 학교 밖 아동(31.9%) ↓ 중·고등학생 보호자(53.0%)	↓ 권선구(58.2%)		
교육 환경 23	매우 그렇다 (54.6%)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2.0%)	↑ 영통구(54.2%)	X -6.1% □ -7.5%	X -4.5% □ -7.6%
		↓ 초등학생 보호자(43.0%)	↓ 팔달구(44.4%)	○ 10.6%	○ 9.7%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교육 환경 24	매우 그렇다 (77.6%)	↑ 초등학생(87.2%)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1.3%) ↓ 중·고등학생 보호자(67.0%) ↓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보호자(70.0%)	↑ 영통구(80.7%) ↓ 권선구(74.2%)	X -7.2% □ -20.1% ○ 25.4%	X -7.8% □ -19.3% ○ 26.1%
교육 환경 25	매우 그렇다 (58.9%)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8.9%)	-	-	-

주: 2016년, 2018년 대비 증감률 안에 기호는 다음과 같음 = X(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은 주거 환경의 청결, 경제여건, 주거지의 안전 등의 사항들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2018년 조사는 2016년 조사에 비해 아동이 활동하는 지역 및 가정은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문제될만한 제약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2020년 아동친화도 ‘주거 환경’은 이전 조사들부터 지속적으로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환경 내 깨끗한 물과 화장실, 안전성 그리고 공간 확보 등 대부분의 문항이 이전 조사 보다 높아진 응답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2018년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주거공간 내 공기질과 관련한 문항은 2020년 조사에서 약 30% 가량 높아진 응답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은 이전 조사 보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주거 환경’의 조사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내용은 다음 <표 4-6>과 같다.

‘주거 환경’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로 9개 전 문항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가장 긍정 인식이 강한 문항은 주거 환경 1번(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에는 아동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으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95.3%로 이전 조사와 비교해 2016년 대비 9.8%, 2018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

문항 내 응답자별 특이점으로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와 보호자(미취학 아동 보호자, 초등학생 보호자, 중·고등학생 보호자)의 인식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아동(초·중·고등학생)과의 인식 차이는 컸다. 이러한 점은 앞서 ‘교육 환경’과 반대로 아동에게는 학교가 주 활동지역이지만, 보호자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주거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관련 문항별로 응답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내 지역(학교 소재지/거주지) 간 인식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문항은 주거 환경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각 문항에 대한 지역 간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2016년, 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문항은 9개 중 8개 문항으로 대체로 이전 조사 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리고 무응답률의 증감에 따라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 형태(‘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 증감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주거 환경’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주거 환경 1	매우 그렇다 (95.3%)	↑ 초등학생(98.6%) ↑ 중학생(98.1%) ↓ 초등학생 보호자(91.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1.6%)	↑ 장안구(97.0%) ↓ 팔달구(93.9%)	X -2.1% □ -7.5% ○ 9.8%	X -1.1% □ -10.0% ○ 11.1%
주거 환경 2	매우 그렇다 (84.6)	↑ 초등학생(89.9%) ↑ 중학생(89.8%) ↓ 중·고등학생 보호자(74.0%) ↓ 미취학 아동 보호자(77.0%)	↑ 권선구(85.3%) ↓ 팔달구(83.2%)	X -2.4% □ -15.5% ○ 15.9%	X -1.3% □ -19.4% ○ 18.8%
주거 환경 3	매우 그렇다 (95.7%)	↑ 초등학생(99.3%) ↑ 중학생(98.4%) ↓ 미취학 아동 보호자(89.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0.7%)	↑ 영통구(97.5%) ↓ 팔달구(93.9%)	X -3.2% □ -7.7% ○ 10.7%	X -3.8% □ -8.7% ○ 12.1%
주거 환경 4	매우 그렇다 (78.9%)	↑ 초등학생(85.5%) ↑ 중학생(84.7%)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5.4%) ↓ 학교 밖 아동(34.0%)	↑ 팔달구(82.7%) ↓ 권선구(76.1%)	X -1.4% □ -20.5% ○ 22.6%	X -5.3% □ -23.8% ○ 27.3%
주거 환경 5	매우 그렇다 (96.2%)	↑ 초등학생(98.0%) ↑ 학교 밖 아동(97.9%) ↓ 고등학생(94.2%)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3.5%)	↑ 장안구(97.6%) ↓ 권선구(94.7%)	X 0.2% □ -8.5% ○ 8.0%	X -0.1% □ -9.5% ○ 9.2%
주거 환경 6	매우 그렇다 (95.2%)	↑ 중학생(97.5%) ↑ 중·고등학생 보호자(96.5%) ↓ 미취학 아동 보호자(92.0%) ↓ 고등학생(93.2%)	↑ 장안구(96.7%) ↓ 팔달구(92.2%)	X -1.9% □ -33.0% ○ 34.5%	X -3.7% □ -33.0% ○ 36.5%
주거 환경 7	매우 그렇다 (88.0%)	↑ 초등학생(91.9%) ↑ 중학생(90.4%) ↓ 학교 밖 아동(83.0%) ↓ 미취학 아동 보호자(85.0%)	↑ 영통구(89.5%) ↓ 권선구(85.8%)	X -4.4% □ -10.1% ○ 11.2%	X -3.4% □ -10.7% ○ -10.7%
주거	매우	↑ 초등학생(92.2%)	↑ 영통구(90.1%)	X -1.6%	X -1.4%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환경 8	그렇다 (86.8%)	↑ 중학생(91.4%) ↓ 미취학 아동 보호자(80.0%) ↓ 초등학생 보호자(81.0%)	↓ 팔달구(83.8%)	□ -12.9% ○ 13.1%	□ -11.4% ○ 11.6%
주거 환경 9	매우 그렇다 (91.5%)	↑ 초등학생(97.0%) ↑ 학교 밖 아동(94.7%)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3.2%) ↓ 미취학 아동보호자(86.0%)	↑ 영통구(94.3%) ↓ 팔달구(88.8%)	X -0.4% □ -11.0% ○ 10.2%	X -1.7% □ -11.6% ○ 12.6%

주: 2016년, 2018년 대비 증감률 안에 기호는 다음과 같음 = X(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수원시 특성

‘수원시 특성’은 수원시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수원시 및 수원시청이 아동의 권리, 지역 치안, 지역 안전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여부, 수원시 아동상담시설 등의 사항들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수원시의 특성만을 모아 추가로 문항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2018년도에 처음 조사되었다. 2018년도 분석결과에서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으며, 수원시 아동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여부, 수원시가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아동(주민)에게 의견수렴 여부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2020년 아동친화도 ‘수원시 특성’은 전반적으로 이전 조사 결과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아동이 학교에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12.9% 증가하여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세부적으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 특성’의 조사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내용은 다음 <표 4-7>과 같다.

‘수원시 특성’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매우 그렇다’ 9개(문항 2, 4, 5, 6, 7, 9, 10, 11, 13), ‘가끔 그렇다’ 4개(문항 1, 3, 8, 12)로 전반적인 응답 형태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 중 긍정 인식이 가장 강한 문항은 수원시 특성 13번(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으로 ‘매우 그렇다’ 응답률이 71.8%로, 이전 조사와 비교에는 2018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 내 응답자별 특이점으로는 교육분야와 관련한 문항은 보호자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동네의 인프라와 관련한 문항은 아동이, 교육 및 상담, 전문 시설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문항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가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앞서 영역별 조사 결과의 응답자별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문항 내 지역(학교 소재지/거주지) 간 인식의 격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문항은 수원시 특성 2번(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5번(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으로 수원시 특성 2번 문항에 팔달구와 영통구가 10.4%, 수원시 특성 5번 문항에 팔달구와 영통구가 13.6%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10% 미만의 인식차를 보이며 각 문항에 대한 지역 간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2018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비교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문항은 수원시 특성 12번(아동은 방과 후 집에 주로 혼자 있다.)으로 2018년 조사에 비해 응답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이 떨어질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이전 조사 보다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리고 무응답률의 증감에 따라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응답 형태(‘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아니다’)의 응답률 증감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수원시 특성’ 2020년 조사 결과 및 이전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비교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수원시 특성 1	가끔 그렇다 (32.6%)	↑ 중·고등학생 보호자(51.0%) ↑ 초등학생 보호자(45.0%) ↓ 초등학생(25.3%) ↓ 학교 밖 아동(26.6%)	↑ 영통구(35.8%) ↓ 팔달구(29.6%)	-	X-7.3% □ -3.5% ○ -1.0%
수원시 특성 2	매우 그렇다 (41.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8.9%) ↑ 중학생(47.8%) ↓ 초등학생 보호자(25.0%) ↓ 학교 밖 아동(25.5%)	↑ 팔달구(47.5%) ↓ 영통구(37.1%)	-	X-1.5% □ -13.0% ○ -0.6%
수원시 특성 3	가끔 그렇다 (27.4%)	↑ 초등학생 보호자(43.0%) ↑ 중·고등학생 보호자(46.0%) ↓ 학교 밖 아동(16.0%) ↓ 초등학생(18.6%)	↑ 영통구(29.1%) ↓ 팔달구(22.3%)	-	X-9.0% □ -10.6% ○ 0.8%
수원시 특성 4	매우 그렇다 (39.6%)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0.7%) ↑ 중학생(44.6%) ↓ 학교 밖 아동(24.5%) ↓ 미취학 아동 보호자(28.0%)	↑ 팔달구(44.1%) ↓ 영통구(35.4%)	-	X-4.2% □ -13% ○ 3.8%
수원시 특성 5	매우 그렇다 (40.8%)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1.7%) ↑ 중학생(47.5%) ↓ 미취학 아동 보호자(25.0%) ↓ 학교 밖 아동(27.7%)	↑ 팔달구(50.3%) ↓ 영통구(36.7%)	-	X-4.4% □ -12.1% ○ 1.6%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16년 대비 증감률	18년 대비 증감률
수원시 특성 6	매우 그렇다 (59.1%)	↑ 초등학생(69.3%)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8.2%) ↓ 미취학 아동 보호자(45.0%) ↓ 초등학생 보호자(50.0%)	↑ 팔달구(60.9%) ↓ 권선구(55.3%)	-	X-2.3% □ -8.4% ○ 3.7%
수원시 특성 7	매우 그렇다 (61.7%)	↑ 초등학생(72.6%)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8.2%) ↓ 초등학생 보호자(52.0%) ↓ 중·고등학생 보호자(53.5%)	↑ 팔달구(68.2%) ↓ 영통구(59.5%)	-	X-1.7% □ -9.6% ○ 6.3%
수원시 특성 8	가끔 그렇다 (36.3%)	↑ 중·고등학생 보호자(41.5%)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27.1%)	↑ 권선구(42.3%) ↓ 영통구(35.9%)	-	X-4.0% □ -8.8% ○ 7.8%
수원시 특성 9	매우 그렇다 (57.1%)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4.8%) ↑ 초등학생(67.2%) ↓ 초등학생 보호자(38.0%) ↓ 중·고등학생 보호자(42.0%)	↑ 팔달구(57.5%) ↓ 장안구(53.9%)	-	X-2.2% □ -10.4% ○ 4.3%
수원시 특성 10	매우 그렇다 (46.4%)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62.6%) ↑ 초등학생(57.8%) ↓ 미취학 아동 보호자(25.0%) ↓ 초등학생 보호자(26.0%)	↑ 팔달구(50.3%) ↓ 권선구(43.6%)	-	X-3.9% □ -9.4% ○ 1.8%
수원시 특성 11	매우 그렇다 (45.6%)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73.8%) ↓ 미취학 아동 보호자(35.0%)	↑ 팔달구(42.2%) ↓ 장안구(34.9%)	-	X-7.2% □ -5.6% ○ 12.9%
수원시 특성 12	가끔 그렇다 (37.4%)	↑ 중·고등학생 보호자(48.0%) ↑ 고등학생(41.4%) ↓ 미취학 아동 보호자(24.0%) ↓ 학교 밖 아동(28.7%)	↑ 권선구(40.6%) ↓ 팔달구(32.4%)	-	X-11.1% □ -3.3% ○ 5.6%
수원시 특성 13	매우 그렇다 (71.8%)	↑ 중학생(75.8%) ↓ 학교 밖 아동(51.5%)	↑ 장안구(74.7%) ↓ 권선구(69.9%)	-	X0.2% □ -2.1% ○ -3.1%

주: 2018년 대비 증감률 안에 기호는 다음과 같음 = X(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원시 아동 관련 시설의 인지 여부와 이용경험 여부’의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수원시 내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용경험 여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지도에서 인지도가 높은 시설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인지도 74.1%, 이용경험 여부 48.4%), 장난감도서관(인지도 65%, 이용경험 여부 64.6%)이며, 인지도가 낮은 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인지도 5.2%, 이용경험 여부 16.4%), 청소년희망동대(인지도 7.1%, 이용경험 여부 22.8%)로 나타났다. 수원시 내 아동 관련 시설 모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 수립이 요구된다.

8.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인권일반 인식 및 차별경험’은 올해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에 추가된 질문으로 인권일반에 대한 인식과 차별경험의 사항들을 확인하는 영역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체크리스트의 일곱 번째 구성요소인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는 수원시가 아동 관련 인권교육을 지원하는지, 아동과 지역주민들은 인권권리를 잘 이해하는지, 아동과 지역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세부적으로 2020년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의 조사 결과의 내용은 다음 <표 4-8>, <표 4-9>와 같다.

<표 4-8>을 보면 ‘인권일반’에 대한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모두 ‘긍정’으로, 본인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긍정 인식이 가장 강한 문항은 인권일반 4번(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으로 ‘긍정’ 응답률이 95.9%였으며, 가장 낮은 응답은 인권일반 1번(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으로 48.8%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 중 59.1%가 인권교육을 수료(인권일반6: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수료 여부)하였고, 평균 3.4회 인권교육을 이수(인권일반7: 인권교육 수료 횟수)하였으며, 아동은 학교 정규교과시간에, 보호자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는 직장에서 인권교육을 수료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92.2%는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인권일반9: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고 응답하였는데 응답자별로 보면,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가 97.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87.3%로 가장 낮아 10.5%의 인식 차를 보였다.

<표 4-8> ‘인권일반’ 2020년 조사 결과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인권 일반 1	긍정 (48.8%)	↑ 미취학 아동 보호자(66.0%) ↑ 초·중·고등학생 보호자(57.0%) ↓ 중학생(36.0%) ↓ 고등학생(45.9%)	↑ 장안구(56.3%) ↓ 팔달구(44.7%)
인권 일반 2	긍정 (79.8)	↑ 초·중·고등학생 보호자(88.0%) ↑ 중·고등학생 보호자(86.5%) ↓ 학교 밖 아동(58.5%) ↓ 미취학 아동 보호자(70.0%)	↑ 권선구(80.6%) ↓ 영통구(79.0%)

구분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인권 일반 3	긍정 (95.3%)	↑ 초등학생 보호자(98.0%) ↑ 초등학생(97.0%) ↓ 미취학 아동 보호자(93.0%) ↓ 중학생(94.3%)	↑ 장안구·영통구(96.1%) ↓ 팔달구(93.9%)
인권 일반 4	긍정 (95.9%)	↑ 초등학생(98.3%) ↑ 중·고등학생 보호자(96.5%) ↓ 학교 밖 아동(92.6%) ↓ 고등학생(94.9%)	↑ 권선구(97.5%) ↓ 팔달구(92.7%)
인권 일반 5	긍정 (84.4%)	↑ 중학생(91.4%) ↑ 초등학생(94.9%) ↓ 미취학 아동 보호자(64.0%) ↓ 초등학생 보호자(67.0%)	↑ 팔달구(86.0%) ↓ 영통구(83.9%)
인권 일반 6	있음 (59.1%)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6.9%) ↑ 중학생(76.8%) ↓ 미취학 아동 보호자(20.0%) ↓ 중·고등학생 보호자(23.0%)	↑ 영통구(57.9%) ↓ 장안구(55.1%)
인권 일반 7	평균 (3.4회)	↑ 중학생(4.9회) ↑ 초등학생(3.7회) ↓ 초등학생 보호자(1.2회) ↓ 중·고등학생 보호자(1.6%)	↑ 팔달구(4.2회) ↓ 장안구(2.7회)
인권 일반 8*	학생 (학교 정규교과시간) (54.7%)	↑ 학교 밖 아동(87.5%) ↑ 초등학생(74.9%) ↓ 고등학생(55.6%) ↓ 중학생(71.8%)	↑ 영통구(63.0%) ↓ 권선구(58.0%)
	보호자 (직장) (8.2%)	↑ 중·고등학생 보호자(52.2%) ↑ 초등학생 보호자(41.7%)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33.3%) ↓ 미취학 아동 보호자(40.0%)	↑ 영통구(5.9%) ↓ 팔달구(4.0%)
인권 일반 9	도움이 된다 (92.2%)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7.8%) ↑ 중·고등학생 보호자(95.7%) ↓ 고등학생(87.3%) ↓ 학교 밖 아동(90.0%)	↑ 장안구·권선구(91.8%) ↓ 팔달구(91.1%)

*인권일반 8: 아동 및 아동보호자,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의 교육장소 구분하여 표기

〈표 4-9〉를 보면 ‘차별당한 경험’에 대한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모두 ‘한 번도 없다’로, 차별당한 경험 10번(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의 응답률이 97.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초등학생이 높은 응답률(문항 1, 2, 4, 5, 7, 9)을 보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가 낮은 응답률을(문항 1, 4, 5, 6, 7, 8, 9, 10) 보였다. 지역별로는 영통구가 가장 높은 응답률(문항 4, 6, 7, 9, 10)을 보였다.

‘차별한 경험’에 대한 문항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응답 형태는 모두 ‘한 번도 없다’로, 차별한 경험 9번(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의 응답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높은 응답률(문항 1, 3, 4, 7, 9, 10)을 보였으며, 미취학 아동 보호자가 낮은 응답률(문항 1, 3, 4, 5, 6, 7, 8, 9, 10)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장안구(문항 1, 2, 4, 6)와 권선구(문항 3, 4, 7, 8)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성별, 나이, 가정형편, 지역, 신체조건, 종교,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차이로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아동, 보호자와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들은 인권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향후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수원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차별경험’ 2020년 조사 결과

구분	(차별당한 경험) 응답 특성			(차별한 경험)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차별 경험 1	한번도 없음 (62.0%)	↑ 초등학생(73.3%) ↑ 학교 밖 아동(70.2%) ↓ 미취학 아동 보호자(54.05)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56.1%)	↑ 권선(65.3%) ↓ 영통(60.6%)	한번도 없음 (84.4%)	↑ 초등학생(89.5%) ↑ 중학생(86.9%) ↓ 미취학 아동 보호자(71.0%) ↓ 학교 밖 아동(79.8%)	↑ 장안(86.2%) ↓ 영통(82.6%)
차별 경험 2	한번도 없음 (71.1%)	↑ 초등학생(81.4%) ↓ 고등학생(54.1%)	↑ 팔달(75.4%) ↓ 영통(68.5%)	한번도 없음 (87.7%)	↑ 학교 밖 아동(92.6%) ↓ 고등학생(82.5%)	↑ 장안(90.2%) ↓ 팔달(86.6%)
차별 경험 3	한번도 없음 (65.3%)	↑ 초등학생 보호자(75.0%) ↑ 초등학생(71.6%) ↓ 고등학생(54.8%) ↓ 학교 밖 아동(59.6%)	↑ 팔달(70.9%) ↓ 장안(62.0%)	한번도 없음 (82.4%)	↑ 초등학생(89.9%) ↑ 중학생(86.6%) ↓ 미취학 아동 보호자(65.0%) ↓ 학교 밖 아동(75.5%)	↑ 권선(82.2%) ↓ 영통(81.5%)
차별 경험 4	한번도 없음 (93.3%)	↑ 초등학생(98.6%) ↑ 학교 밖 아동(96.8%) ↓ 미취학 아동 보호자(78.0%) ↓ 중·고등학생 보호자(84.5%)	↑ 영통(93.5%) ↓ 팔달(92.7%)	한번도 없음 (96.2%)	↑ 초등학생(99.0%) ↑ 중학생(98.7%) ↓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 ↓ 중·고등학생 보호자(93.0%)	↑ 장 안 · 권 선 · 영 통(96.4%) ↓ 팔달(96.1%)
차별 경험 5	한번도 없음 (91.2%)	↑ 초등학생(97.6%) ↑ 학교 밖 아동(96.8%) ↓ 미취학 아동 보호자(75.0%) ↓ 중·고등학생 보호자(82.0%)	↑ 장안(92.2%) ↓ 권선(90.6%)	한번도 없음 (94.3%)	↑ 중학생(98.7%) ↑ 초등학생(97.6%) ↓ 미취학 아동 보호자(81.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9.7%)	↑ 영통(95.4%) ↓ 장안(94.0%)
차별 경험 6	한번도 없음 (74.9%)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83.2%) ↑ 초등학생 보호자(83.0%) ↓ 미취학 아동 보호자(69.0%) ↓ 초등학생(72.3%)	↑ 영통(75.0%) ↓ 장안(73.7%)	한번도 없음 (87.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91.65) ↑ 중·고등학생 보호자(91.5%) ↓ 미취학 아동 보호자(82.0%) ↓ 학교 밖 아동(84.0%)	↑ 장안(88.3%) ↓ 권선(85.3%)
차별 경험 7	한번도 없음 (93.6%)	↑ 초등학생(98.3%) ↑ 중학생(97.5%) ↓ 미취학 아동 보호자(80.0%) ↓ 중·고등학생 보호자(88.0%)	↑ 영통(91.8%) ↓ 장안(96.1%)	한번도 없음 (95.1%)	↑ 초등학생(98.3%) ↑ 중학생(98.1%) ↓ 미취학 아동 보호자(85.0%) ↓ 중·고등학생 보호자(91.0%)	↑ 권선(96.4%) ↓ 장안(94.0%)

구분	(차별당한 경험) 응답 특성			(차별한 경험) 응답 특성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최고 응답	응답자별	지역별
차별 경험 8	한번도 없음 (96.8%)	↑ 중학생(99.4%) ↑ 학교 밖 아동(98.9%) ↓ 미취학 아동 보호자(89.0%) ↓ 중·고등학생 보호자(93.5%)	↑ 장안(97.3%) ↓ 팔달(95.5%)	한번도 없음 (95.7%)	↑ 중학생(98.1%) ↑ 고등학생(97.3%) ↓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 ↓ 중·고등학생 보호자(93%)	↑ 권선(97.2%) ↓ 팔달(93.3%)
차별 경험 9	한번도 없음 (96.4%)	↑ 초등학생(99.3%) ↑ 중학생(98.4%)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보호자(92.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95.3%)	↑ 영통(98.1%) ↓ 팔달(93.3%)	한번도 없음 (96.9%)	↑ 초등학생(99.3%) ↑ 고등학생(98.3%) ↓ 미취학 아동 보호자(90.0%)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94.4%)	↑ 영통(98.1%) ↓ 팔달(95.0%)
차별 경험 10	한번도 없음 (97.1%)	↑ 중학생(99.4%) ↑ 학교 밖 아동(98.9%) ↓ 미취학 아동 보호자(92.0%) ↓ 중·고등학생 보호자(93.0%)	↑ 영통(98.7%) ↓ 팔달(94.4%)	한번도 없음 (96.5%)	↑ 초등학생(98.6%) ↑ 고등학생(98.6%) ↓ 미취학 아동 보호자(88.0%)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보호자 (94.0%)	↑ 영통(97.3%) ↓ 장안(96.1%)

제3절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이제 아동의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일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중요한 문제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문제는 가정 내의 문제로만 간주되어지는 경우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에 대한 문제를 수원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아동친화도 조사는 결국 아동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고 아동에 대한 정책적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아동친화도 조사를 통한 정책의 발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제 수원시민들이 보다 간절히 원하는 방향으로 아동친화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친화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긍정적인 응답이 50% 미만인 경우는 결국 정책적 차원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으며,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수원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원시 차원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실제 수원시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보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국회나 지역 의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지역구 주민과 만나는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는 주제에 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특정 입법이나 규정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열린다. 활발한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타운 홀 미팅은 이의 제기나 더욱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명칭에도 불구하고 타운 홀 미팅이 타운 홀(시청사)에서 열릴 필요는 없다. 학교, 도서관, 교회, 지자체 건물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며, 다수의 관료가 타운 홀 미팅을 위한 디지털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에 의해 주최되는 타운 홀 미팅은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한 선거 지역구 안의 여러 지역에서 열린다.

역사적으로 타운 홀 미팅을 규정하는 특정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직접 만나는 모임, 그룹 전화 회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활용한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행사를 포함하여 지역구 주민의 참가를 허락하는 행사는 타운 홀 미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참가자는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거나 선출된 관료, 선거 후보, 공적 인물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타운 홀 미팅을 이용한다.

미국에서는 타운 홀 미팅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워싱턴 DC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구에 머물 때 지역구 주민과 친밀해지거나 다시 친밀해 지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2019년 11월 19일 생방송으로 MBC에서 방영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참가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타운 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위키백과, 2020년 9월 검색).

둘째, 수원시민들 중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주축이 되는 학습공동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보호자일 수밖에 없으며, 부모들이 교육받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동친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원시민들 스스로 아동친화와 관련된 교육과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역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향후 과제가 될 수 있다.

지역 학습공동체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학습하는 모임으로 일정한 인원의 성인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현재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광주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 활용하고 있다(광주시 홈페이지, 2020년 9월 검색).

셋째, 전문가와 보호자 조사의 경우 아동친화 정책 중심의 조사도 향후 과제로 필요성이 있다. 이는 수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어디에 자원을 더 투입할 것인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아동친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PA 분석을 통해 정해진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나 사항, 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최영출 외, 2014),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2차원 도표에 각 위치를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쉽게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김성섭 외, 2001).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IPA 분석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하여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4사분면의 좌표상에 각각의 값의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데, 중요도-만족도 분석 매트릭스의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에 대한 영향요인 조사를 향후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친화는 결국 가족의 삶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설문구성을 통해 아동친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삶의 질 등이 아동친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원시민이 느끼는 아동친화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운영방식 및 조사를 통해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김성섭·임재문·이형룡(2001),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통한 국제회의 평가: ISR2001 국제회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지, 16권 2호, pp.257-274
- 서영미(2018),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212(2), pp.383-407
- 수원남부소방서(2020), 수원시 아동 관련 사고현황(내부자료)
- 수원소방서(2020), 수원시 아동 관련 사고현황(내부자료)
- 수원시(2020), 수원시 구별 어린이집 현황(내부자료)
- 수원시(2020), 수원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현황(내부자료)
- 수원시(2020), 수원시 아동 관련 행사 및 교육 현황(내부자료)
- 수원시(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18)(내부자료)
- 수원시(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예산서(2020)(내부자료)
- 수원시(2020), 수원시 초등돌봄교실 현황(내부자료)
- 수원시(2020),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시설 및 아동현황(내부자료)
-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2020), 수원시 아동 관련 범죄현황(내부자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2020), 회원지차체 현황(내부자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 이영안(2016),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201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2018),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18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 최영출·이지혜(2014),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행복도 증진 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권 2호, pp.401-424
- 통계청(2019),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 연앙인구 활용 집계
-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4권 4호, pp.83-104

〈사이트〉

- 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https://data.gg.go.kr/>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네이버 검색, <https://www.naver.com/>

다음 검색, <https://search.daum.net/>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www.syf.or.kr/>

수원통계 홈페이지, <https://stat.suwon.go.kr/>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https://childfriendlycities.org/Initiatives/>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부록 |

1. 초등학교용 설문지

ID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 초등학생용(4~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정원구원과 함께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수원시정원구원에서는 수원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며 아동 여러분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를 말합니다(UNICEF, 2005).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솔직히 답변하신 내용은 수원시가 아동의 정서 발달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응답은 몇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가장 마음에 드는 답에 표시해주세요.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 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인)

본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79 H-Tower)
본 문의처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02) 3014-0086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02) 3014-1016
통계청 대리

<응답자 선정질문>

선정질문 1. 본인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 ② 남자

선정질문 2. 본인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예: 2007년)

선정질문 3. 본인은 몇 학년입니까(하나라를 골라 표시하세요.)

- ① 초등 4학년
- ② 초등 5학년
- ③ 초등 6학년
- ④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선정질문 4. 본인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예: 대한(시,군,구), 민곡(읍,면,동))

선정질문 5.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 ₁	□ ₂	□ ₃	□ ₄	□ ₅	□ ₆	□ ₇	매우 만족

선정질문 6. 현재 본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 ₁	□ ₂	□ ₃	□ ₄	□ ₅	□ ₆	□ ₇	매우 만족

선정질문 7. 현재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행	□ ₁	□ ₂	□ ₃	□ ₄	□ ₅	□ ₆	□ ₇	매우 행복

선정질문 8. 본인은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표시하세요.)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남자여자 형제
- ④ 할아버지
- ⑤ 할머니
- ⑥ 기타 보호자

초등학생용 자기평가지

※ 이 설문은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항으로, 우리나라 현실과 다소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포츠·문화·놀이를 즐길 수 있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것음	외견
1. 나는 쉬거나 볼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	☐	☐	☐	
2.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운동하고 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가 있다.					
3. 우리 지역사회 놀이하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들이 사물감을 놀 수 있다.					
4.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자연(예: 숲, 나무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5.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장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행사가 열린다.					
6.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7. 내가 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잘 마련되어 있다.					

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것음	외견
1. 우리 지역 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	☐	☐	
2.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위한 재원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우리 지역사회(지역위원회, 지적장애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여신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묻는다.					
5. 나는 각종 매체(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등) 책,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다.					
6. 나는 인권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 나에게 위험이 발생할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알고 있다.	☐	☐	☐		
	2. 나는 피난처를 배/ 숙박시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3. 나는 위험한 일(예: 건물 붕괴, 강아지, 차량, 차량의 폭력 및 화재) 안전하다고 느낀다.					
	4. 나는 우리나 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5. 나는 집이나 차량으로부터 과도한 열, 추위, 습도, 공기 오염, 진동, 소음 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6. 나는 위험한 약물(예: 마약, 알코올, 흡연)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7.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걸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인종, 종교,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존중받는다.					
	9. 우리 지역사회의 마약(예: 비스, 지하철)을 내가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10.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화물나 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1.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위험한 일(예: 건물을 유입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	☐		
	12.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재산상실(예: 홍수, 지진, 불이 발생)을 때 정당한 모금을 제공한다.					
	13.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인명상실(예: 화재, 범죄) 대해 가르친다. *강제적·폭력적 관습, 문화(종교), 행위 및 처분을 등					
	14. 우리 지역사회는 힘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나는 건강한가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르 것음	의견
	1. 나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2. 나는 전문가를 통해서 성폭력을 받을 수 있다. 					
3.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이 있다. 					
4.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5.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다치지나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 시설이 있다. 					
6.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점과 약화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7.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정신을 밝히지나 않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8.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필요한 여별 공간을 제공한다. 					

나는 교육을 잘 받고 있나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르 것음	의견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2. 나는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물(예: 교과서, 필기통, 책 등)을 내가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3. 나는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교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4. 내가 필기할 때, 선생님께서 부탁한 문제를 관심과 노력을 쏟는다. 					
5.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과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6.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나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7.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8. 우리 학교에서는 물건을 버릴 때 버릴 곳을 알려준다. 					
9. 우리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10. 우리 학교에는 다치고 싶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풍부히 있다. 					
11. 우리 학교에는 쉽고 안전한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12. 우리 학교 화장실에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다. 					

나는 교육을 잘 받고 있나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3.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잘 돌보고, 복지가 매우 좋다.					
14. 우리 학교에서는 괴롭힘 이야기를 듣는 전담자(예: 상담교사)가 있다.					
15.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16. 우리 학교에서는 아동을 체벌 없이 가르친다.					
17. 우리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를 원谅한다.					
18. 우리 학교,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강박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9. 우리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함께하고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0.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있다.					
21. 나는 학교에서 아동권리(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배운다.					
22.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교육비를 지원할 지역 아동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나의 주거환경은 어떤가요?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 우리 집에는 내가 다닐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2. 우리 집 복도, 집 근처에는 내가 사는 기본적인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3. 우리 집에는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4. 우리 집 등기는 깨끗하고 매연과 연기 오염이 없다.					
5. 우리 집은 전기, 물, 사물을 쓸 수 있다.					
6. 우리 집은 제철에 상감없이 지낼 수 있다.					
7. 우리 집은 정돈되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8. 우리 집에는 내 생활(예: 놀이 공간, 책, 컴퓨터 등)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9.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편하다.					

추가 설문 문항

[illegible]

※ 다음 이통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각각 해당하는 곳에 통그라미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illegible]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관련 설문】

질문 1.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권력을 갖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아동은 정치권력이나 정치권력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남자도 여자는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권리는 아래 질문 2의 보스 내용 참조)				

질문 2.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권에는 자유로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열등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의 역사와 개념을 알파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인권교육 받은 횟수를 적어주세요: _____ 회) ② 없음 (선택은 3번으로)

질문 2-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② 학교 방외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 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질문 2-2.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질문 3. (차별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도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북을 북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럽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와 이해 못할 생각(자신도 똑같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머니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 부모님(혼혈) 뿐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4.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도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북을 북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럽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와 이해 못할 생각(자신도 똑같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머니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 부모님(혼혈) 뿐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ID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 중·고등학생용

정소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정원구원과 함께 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수원시정원구원에서는 수원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며 아동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를 말합니다(UNICEF, 2005).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솔직히 답변하신 내용은 수원시의 아동청소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믿거나 불린 답이 없으며, 가장 마음에 드는 답에 표시해주세요.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 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본인 외의 조사 부진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인)

□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79 H-Tower)

□ 문의처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총인장부장 (02) 3014-0086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총제정대리 (02) 3014-1016

<용답자 신장결과>

신장결과 1. 본인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신장결과 2. 본인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예: 2007년)

신장결과 3. 본인은 몇 학년입니까(하나라도 표시하세요.)

- ① 중등 1학년 ② 중등 2학년 ③ 중등 3학년 ④ 고등 1학년
⑤ 고등 2학년 ⑥ 고등 3학년 ⑦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신장결과 4. 본인께서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시,군,구) (읍,면동) [예: 대원(시,군) 민곡(읍,면동)]

신장결과 5.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 ₁	□ ₂	□ ₃	□ ₄	□ ₅	□ ₆	□ ₇	매우 만족

신장결과 6. 현재 본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 ₁	□ ₂	□ ₃	□ ₄	□ ₅	□ ₆	□ ₇	매우 만족

신장결과 7. 현재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행	□ ₁	□ ₂	□ ₃	□ ₄	□ ₅	□ ₆	□ ₇	매우 행복

신장결과 8. 본인은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표시하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남자여자 형제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 보호자

중고등학생용 자기평가지

※ 이 설문은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설문으로, 우리나라 현실과 다소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포츠·문화·놀이를 즐길 수 있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것임	의견
 1. 나는 쉬거나 볼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	☐	☐	☐	
 2.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운동하고 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가 있다.					
 3. 우리 지역사회 놀이하는 시설장소를 가진 아들이 사용 가능하다.					
 4.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자연(예: 숲, 나무 등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5.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가 열린다.					
 6.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7. 내가 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					

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것임	의견
 1.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	☐		
 2.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조사한다.					
 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선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구한다.					
 5. 나는 라디오, 라디오 TV나 라디오, 출판물, 책, 행사 등을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					
 6.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르 것임	의견
 1. 나에게 위험이 발생할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알고 있다.					
 2. 나는 복지발령비/무급단위로 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3. 나는 불행 및 절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병, 고령, 성적인 폭력 및 학대					
 4. 나는 우리나 남자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5. 나는 친구, 학부모, 파출부, 경찰 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6. 나는 위험한 약물(예: 마약, 알코올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7.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걸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인종, 종교, 장애, 민족, 성적 지향, 성별과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9.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내가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10.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학대나 폭력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플(가짜)이 있다.					

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르 것임	의견
 11.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위험한 일(예: 전란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12.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정보 제공을 알려준다.					
 13.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인터넷의 영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성인적·책임적 관용, 개인정보도, 백신 및 백신을 등					
 14. 우리 지역사회는 힘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15. 안전인 물체에 제한 아동에게 성인은 다른 물체의 위험시도를 전용한다.					

나는 건강하나요?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로 것을	의견
	☐	☐	☐		
 1. 나는 아동청소년건강 서비스(여: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2. 나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3.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이 있다.					
 4.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대량물 처리에 관한 문제가 없다.					
 5.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이 있다.					
 6. 우리 지역사회에는 여성과 약자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7.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걸진 물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8.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다.					

나는 교육을 잘 받고 있나요? (학교는 초등 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로 것을	의견
	☐	☐	☐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2. 나는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물(예: 교과서, 필기, 필통 등)을 내가 필요한 때 살 수 있다.					
 3. 나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정원, 광경 등)에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 내가 필통, 필, 정성검으로 복제, 출판본과 전자책을 모두 볼 수 있다.					
 5. 우리 학교에서는 나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6.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7.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존중한다(예: 학습능력 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8.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 언어, 종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한다.					
 9. 우리 학교에서는 정(정신)적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10. 우리 학교에서는 마시고 싶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11. 우리 학교에서는 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12. 우리 학교에서는 아들의 인종, 종교, 문화, 장애,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존중한다.					

나는 교육을 잘 받고 있나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정음	의견
13.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잘 돌보고 부활이 이루어진다.	☐	☐	☐		
14. 우리 학교에서는 그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15.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16. 우리 학교에서는 아동을 차별 없이 가르친다.					
17. 우리 학교에서는 괴롭힘 정도는 따를 줄 알 위원이 있고 서로를 존중한다.					
18.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문화 진흥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 우리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0.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이용 가능한 도서관·문화·도서관 프로그램이 있다.					
21. 나는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지사항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운다.					
22.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교육받을 전원 될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있도록 지원한다.					
23.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가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나의 주거환경은 어떤가요?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정음	의견
1. 우리 집에는 내가 다닐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	☐	☐		
2. 우리 집 복도 길 근처에는 내가 사용할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3. 우리 집에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4. 우리 집에는 가까운 깨끗한 화장 실과 화장실 접근성이 있다.					
5. 우리 집의 전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6. 우리 집의 생활에 불편함이 지낼 수 있다.					
7. 우리 집은 정제된 물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8. 우리 집에는 내 공간에 물이 흐르는 공간과 물이 충분히 있다.					
9.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편안하다.					

추가 설문 문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때로 그렇다	모르 것임	이견
	1. 나는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 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	☐	☐		
	2. 우리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3.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구한다.							
	4.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5.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6. 우리 동네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7. 우리 동네는 야간 조광시설이 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8.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 행동요령을 나에게 알려준다.							
	9. 나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서행동문제, 유해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							
	10. 나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11. 나는 방과 후에 집에 주로 혼자 있다.							

※ 다음 아동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각각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③'안다'로 응답한 경우, 오른쪽의 '이용경험 여부'를 꼭 응답해 주세요.

아동시설 인식 및 경험	알고 있는지 여부	이용경험 여부	
		있다	없다
수원시아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수원시환경성찰아트퍼센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수원외국어마을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수원청소년문화센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광교, 관산)청소년수련관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영인, 영통, 칠보, 천현)청소년문화의집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청소년희망동대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여차, 남차)단기청소년센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청소년 공부방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자유공간청개구리연못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수원시청소년글로벌월드센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평생학습관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지역아동센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공동육아나눔터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자문도서관	① 안다 → ② 모른다	①	②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관련 설문】

질문 1.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권리는 아래 "질문 2"의 박스 내용 참조)					

질문 2.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권에는 자유로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의 역사와 개념을 알려주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음(교육받은 횟수를 적어주세요: _____회) ② 없음(⇒ 질문 3번으로)

질문 2-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 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질문 2-2.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질문 3. (차별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북을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양친과 애매 중 한 명만 재산이고 혹은 부모님 없이 살고나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4.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는 자신이 주위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북을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양친과 애매 중 한 명만 재산이고 혹은 부모님 없이 살고나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미취학 아동 보호자용 설문지

ID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 미취학아동 보호자용(B~7세)

안녕하십니까? 아동조사 전문조사원이 한우리서버입니다.
한우리서버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의뢰로 수원시 아동친화도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로서, 본 조사는 수원시 아동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생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어린이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를 말합니다(UNICEF, 2005).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솔직히 답변하신 내용은 수원시의 아동정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많거나 줄거나 상관 없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내부적으로 보관될 후 정보기관에 의해 추락 및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선생님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 결과 사실 관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인) _____

회 조사기관 : (주) 한우리서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H-Tower)
회 문 의 자 : 한우리서버 아동조사본부 총인장 부장 (02) 3014-0066
한우리서버 아동조사본부 총배정 대리 (02) 3014-1016

<응답자 선정질문>

선정질문 1. 귀하는 경기도 내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수원시 장안구 ② 수원시 권선구 ③ 수원시 팔달구 ④ 수원시 영통구
⑤ 수원시 외 지역 → 조사 중단

선정질문 1-1. 귀하는 수원시 OO구/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동을 작성해 주십시오.
()동

선정질문 2. 귀하는 학교에 가기 전인 미취학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조사 중단

선정질문 3. 귀하의 자녀 중 미취학 자녀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미취학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의 생년월일을 작성해 주십시오.
()년 ()월

선정질문 4. 방금 말씀하신 _____년생 자녀의 현재 상태는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유치원에 다님 → 선정질문 5로 이동
② 어린이집에 다님 → 선정질문 5로 이동
③ 집에 있음 → 선정질문 4-1로 이동
④ 기타 () → 선정질문 4-1로 이동

선정질문 4-1. 그러면 예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으니까?
① 다닌 적 있음 → 선정질문 5로 이동
② 다닌 적 없음 → 조사 중단

선정질문 5.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선정질문 6. 귀하와 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기타 보호자

선정질문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선정질문 8.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예: 197년)

선정질문 9. 귀하의 학력에 표시해주시시오.

- ① 대학원 이상 ② 대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중학교 졸업 ⑥ 초등학교 졸업

선정질문 10.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선정질문 11. 현재 귀하께서 느끼는 삶의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선정질문 12. 현재 귀하께서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선정질문 13. 귀하의 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표시하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남자 여자 형제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 보호자

선정질문 14. 귀하의 직업 유형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전일제 직업(정규직, 계약직 포함) ② 시간제 직업 ③ 전업주부
④ 자영업, 프리랜서 ⑤ 무직 ⑥ 기타

미취학아동 보호자용 자기평가지

※ 이 설문은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항으로, 용어나 내용이 우리나라 현실과 다소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설문 내용에서 현실이나 학부모님의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 문항이 있더라도, 생각하시는 대로 최대한 응답해 주십시오.

※ 지금부터는 _____년 생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과거에 다녔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놀이와 여가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로 것음	의견
 1. 내 자녀는 쉬거나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	☐	☐	☐	
 2.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정물시설 등)가 있다.					
 3. 우리 지역사회 놀이터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할 수 있다.					
 4.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작업(예: 숲, 나무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5.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					
 6.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7.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잘 확보된 편에 있다.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참여와 시민의식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것임	의견
	1.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	☐		
	2.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위한 제 제 또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우리 지역사회(자영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조사한다.					
	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선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구한다.					
	5. 나는 각종 매체(지정 TV나 라디오, 출판물 등)에 행사 등을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있다.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것임	의견
	1. 내 자녀에게 위험이 발생할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알고 있다.	☐	☒	☐		
	2. 내 자녀는 적절한 화제/무장안개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3. 내 자녀는 화재 및 화재로 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연막, 화재, 화재의 목적 및 사용)					
	4. 내 자녀는 우리나 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5.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걸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6. 우리 지역의 아동의 인종, 종교, 피부, 민족, 장애, 장애와 관련된 차별이 없습니다.					
	7.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여객버스, 지하철 등)은 내 자녀가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8.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아동(학생)과 함께 놀고 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있다.					

보건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것음	의견
	1. 나는 아동친화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	☐		
	2. 내 자녀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3.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이 있다.					
	4.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5.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다정다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6. 우리 지역사회에는 머리카락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7.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8.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맞는다.					
	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난 순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10. 우리 지역사회는 폭력적이고 화가 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11.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자녀를 도와줄 기원이나 사람이 있다.					
	12.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환경 (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것음	의견
	1. 내 자녀는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닌다.	☐	☐	☐		
	2. 내 자녀는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예: 등교, 방과후, 숙제 등)을 할 때 할 수 있다.					
	3. 나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4. 내 자녀가 생활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5.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과업, 학습, 여가를 충분히 하게 도와준다.					
	6.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교사가 내 자녀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7.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나는 바쁜 생활(예: 식사, 잠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8.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나는 환경(예: 보육환경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9.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10.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다치고, 있을 수 있는 위험(예: 화재 등)이 충분히 있다.					
	11.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예: 화장실)이 있다.					

교육 환경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로 정음	의견
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	●	●		
	12.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권 중요고, 잘 아는 화해 관계없이 존중한다.					
	13.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북돋아 더 우한다.					
	14.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아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15.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장애인 가진 아들이 다닐 수 있다.					
	16.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동들을 차별 없이 기른다.					
	17.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괴롭힘 또는 따돌림 등을 예방할 학교 서로 를 존중한다.					
	18.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에게 장애 직업에 대한 따돌림을 제정한다.					
	19.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어울리고 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0.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이용 가능한 도서관(문화센터 도서관)이 있다.					
	21.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시간은 가족들을 적게 침한다.					
	22. 내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종교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잘 존재해 있다.					

주거 환경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로 정음	의견
		○	●	●		
	1. 우리 집에는 내 자녀가 머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2. 우리 집 혹은 집 근처에는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3. 우리 집에는 내 자녀가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4. 우리 집 물기는 깨끗하리 며 열과 등기 오일이 없다.					
	5. 우리 집의 전기, 물 사용을 수 있다.					
	6. 우리 집의 전기, 물 사용이 지낼 수 있다.					
	7. 우리 집은 경제적이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8. 우리 집에는 내 자녀의 공간(예: 물이 등간, 등복 공간)이 충분히 있다.					
	9. 우리 집은 내 자녀가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추가 설문 문항		정답 아니다	기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것음	의견
		○	●	●		
	1. 내 자녀는 수원시 아동 권리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를 통해서 자기 개발,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2. 우리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					
	3.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4. 수원시의 돌봄지원서비스(정, 학원전원) 등을 받을 때, 장차 아동의 권리와 정서교육,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다.					
	5. 수원시 돌봄지원서비스나 돌봄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6. 우리 동네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7. 우리 동네는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8. 수원시는 미학한 아동의 스카우트 활동이나 사물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9. 수원시는 자선활동(자원봉사)을 수, 지원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린다.					
	10. 내 자녀는 아동청소년상담 서비스 및 정서활동(놀이)을 통해 올바른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11. 내 자녀의 학교에는 교내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12. 내 자녀는 놀이 후에 집에 주로 혼자 있다.					

※ 다음 아동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각각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만다로 응답한 경우, 오른쪽의 '이용정점 여부'를 꼭 응답해 주세요.

아동시설 인식 및 경험	알고 있는지 여부	이용정점 여부
수원시 아동청소년건강상담센터	○ 인다 ● 모른다	있다 ① ②
수원시 환경생태문화정보센터	○ 인다 ● 모른다	있다 ① ②
수원외국어마을	○ 인다 ● 모른다	있다 ① ②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인다 ● 모른다	있다 ① ②
트리스타빌 어린이영화 제작 수업	○ 인다 ● 모른다	있다 ① ②
(수원) 동북아문화정보지원센터	○ 인다 ● 모른다	있다 ① ②
장남교도서관	○ 인다 ● 모른다	있다 ① ②
아이리드문화센터	○ 인다 ● 모른다	있다 ① ②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관련 설문】

질문 1.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아동은 경험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아동도 사회문제로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권리는 아래 "질문 2"의 박스 내용 참조)					

질문 2.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권에는 자유로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활 권리, 생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의 역사와 개념을 알려주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음(교육받은 횟수를 적어주세요: _____회) ② 없음(⇒ 질문 3번으로)

질문 2-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공공기관 ② 학교 ③ 시민단체
④ 직장 ⑤ 온라인 커뮤니티 ⑥ 기타()

질문 2-2.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질문 3. (차별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부러...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환경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피부색(가장) 또는 조상(가장)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가장)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가장)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4.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환경이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피부색(가장) 또는 조상(가장)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가장)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가장)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초등학교 보호자용 설문지

ID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 초등학교 보호자용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서는 본 설문지를 읽어주시어 주십시오.
한국리서서는 수원시 정연구회의 의뢰로 '수원시 아동친화도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로서, 본 조사는 수원시 아동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성폭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어린이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를 말합니다(UNICEF, 2005).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솔직히 답변하신 내용은 수원시의 아동성폭행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많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
작성 후 전문기관에 의해 파악 및 활용 폐기됩니다. 또한, 선정된 개인 정보는 인형의 몸의 일
이 다른 복권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 참여 사실 결과를 실시할 필요가 있
을 경우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인)

☐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서 (수원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H-Tower)
☐ 문 의 자 : 한국리서서 지 역조사2부 황인환 부장 (02) 3014-0066
한국리서서 지 역조사2부 황재영 대리 (02) 3014-1016

<응답자 선정 질문>

선정 질문 1. 귀하께서는 경기도 내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수원시 장안구 ② 수원시 권선구 ③ 수원시 팔달구 ④ 수원시 영통구
⑤ 수원시 외 지역 → 조사 중단

선정 질문 1-1. 귀하께서 수원시 OO구 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동을 작성해 주십시오.

()동

선정 질문 2. 귀하께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조사 중단

선정 질문 3. 귀하의 자녀 중 초등학교 자녀의 생년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학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자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의 생년월을 작성해 주십시오.

()년 ()월

선정 질문 4.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자녀는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선정 질문 5.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선정 질문 6. 귀하와 아동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기타 보호자

선정 질문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선정 질문 8.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예: 1977년)

선정 질문 9. 귀하의 학력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대학원 이상 ② 대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중학교 졸업 ⑥ 초등학교 졸업

참여와 시민의식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것음	의견
	1.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	☐		
	2.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조사한다.					
	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선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수렴한다.					
	5. 나는 각종 매체(지역 TV 나 라디오, 신문 등), 제1, 2차 등을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6. 내 자녀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것음	의견
	1. 내 자녀에게 위험이 발생할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지 알고 있다.	☐	☒	☐		
	2. 내 자녀는 적절할 때/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3. 내 자녀는 화재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9세, 12세, 15세만 해당)					
	4. 내 자녀는 우리나 업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5.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6. 우리 지역사회는 안전한 길을 제공한다. (도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 시설 등)					
	7. 우리 지역사회는 마다 버스,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8.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안전한 통학로가 있다고 느낀다.					
	9. 내 자녀가 다른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느낀다.					
	10. 내 자녀가 우리나 업지로 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1.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위험한 일(예: 전광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 등) 하지 않도록 보고한다.	☐	☒	☐		
 12.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에게 자담상황(예: 불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	☐	☐		
 13.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성폭행/착취, 괴롭힘,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등’) 영향 및 특성 등을	☐	☐	☐		

보건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 나는 아동친화건강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	☐		
 2. 내 자녀는 전문가를 통해서 성과물을 받을 수 있다.	☐	☐	☐		
 3.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입원하고 급격히 이동을 할 경우 화상실이 있다.	☐	☐	☐		
 4. 우리 지역사회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	☐	☐		
 5.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다치거나 아플 때 이를 가늠할 응급시설이 있다.	☐	☐	☐		
 6. 우리 지역사회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	☐	☐		
 7.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	☐	☐		
 8.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은 필요한 의료행위를 맞는다.	☐	☐	☐		
 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	☐	☐		
 10. 우리 지역사회는 꼭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	☐	☐		
 11.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필요할 때 내 자녀를 도와줄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	☐	☐	☐		
 12.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받을 곳이 있다.	☐	☐	☐		

교육 환경 (학교의 적정 교육환경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로 것임	의견
 1. 내 자녀는 학교에 다닌다.	☐	☒	☒	☐	
 2. 내 자녀는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예: 글, 책, 필기, 학습 도구)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3. 나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4. 내 자녀가 학습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5.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남자화 여자들 통틀어 잘 다룬다.					
 6.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7.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예: 수석) 간에 대등한 생활한다.					
 8.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9.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성(性)평등을 누릴 수 있다.					
 10.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11.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물과 관련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12.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권(예: 성, 장애)을 존중한다.					

교육 환경 (학교의 적정 교육환경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로 것임	의견
 13.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잘 돌보고 생활이 자유롭다.	☐	☒	☒	☐	
 14.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15.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16.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동을 제별 없이 가르친다.					
 17.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괴롭힘 또는 따돌림 등을 예방하고 있고 서로를 잘 돌본다.					
 18.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녀에게 잘려 직원에 대한 표그림을 제공한다.					
 19.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웃을 수 있고 쉬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0.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석관(학교 보석관 포함)이 있다.					
 21. 내 자녀는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운다.					
 22.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시간은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다.					
 24. 내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장려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잘 운영된다.					

주거 환경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름 것음	의견
 1. 우리 집에는 내 자녀가 머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2. 우리 집 벽면, 천장에는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상plug가 있다.					
 3. 우리 집에는 내 자녀가 쉴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4. 우리 집 등기는 깨끗하며 여름과 등기 오일이 없다.					
 5. 우리 집은 등기를 사용할 수 있다.					
 6. 우리 집은 적절히 상인들이 지낼 수 있다.					
 7. 우리 집은 경제력이며 지출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8. 우리 집에는 내 자녀의 등간(예: 물)이 등간, 등구 등)이 충분히 있다.					
 9. 우리 집은 내 자녀가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추가 설문 문항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름 것음	의견
 1. 내 자녀는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을 방문하면 문화센터, 수원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 개발, 학업성취 등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2. 우리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 등을 존중하고 활용한다.					
 3.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4. 수원시의 등용기관(경찰, 관공서, 문화시설 등)은 모두 아동과 관련된 정보와 통아리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수원시 경찰, 관공서 등 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6. 우리 동네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7. 우리 동네는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8. 수원시는 미학한 아동의 스타트업 등이나 사물, 위험성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9. 수원시는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의 안전을 위해 아동에게 알린다.					
 10. 내 자녀는 아동친화도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위해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상담이 다양하고 있다.					
 11. 내 자녀의 학교에는 교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예: 교사, 사립, 사립, 사립)이 있다.					
 12. 내 자녀는 방과 후에 집에 바로 돌아온다.					

※ 다음 아동안련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각각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illegible]

【이귀영(문인)】무엇보다도...

1. 다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권리는 아래 '질문 2'의 박스 내용 참조)					

마침내 2척의 기뢰를 배치한 후, 이틀이 지나서야 수습을 끝냈다.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권을 지킴으로써 양심, 존엄, 자유, 평화, 안전, 행복, 건강, 번영, 자아실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권을 지킴으로써 양심, 존엄, 자유, 평화, 안전, 행복, 건강, 번영, 자아실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있음(교육받은 횟수를 적어주세요: _____회)
② 없음(⇒ 질문 3번으로)

질문 2-1. 이권규율의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바탕이) 해당하니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영어 기하
② 학교
③ 시민단체
④ 영어 지리
⑤ 온라인 커뮤니티
⑥ 기타()

2-2. 이권은 「약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질문 3. (차별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이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4.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이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중·고등학생 보호자용 설문지

ID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 중·고등학생 보호자용

인정받으시겠습니까? 학부모·사·전문직·시민·한국리서서지입니다.
한국리서서지는 수원시정연구위원의 의뢰로 수원시 아동친화도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로서, 본 조사는 수원시 아동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성폭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어린이의 핵심욕구를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를 말합니다(UNICEF, 2005).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도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부에서 수집한 전체적인 내용은 수원시의 아동청소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많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내용온 통제한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재해 주신 내용은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반기에 의해 각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선생님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 참여 사실 결과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위 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인)

회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서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79 H-Tower)
호 문 의 자 : 한국리서서지 여론조사2부 황인환 부장 (02) 3014-0066
한국리서서지 여론조사2부 황인환 대리 (02) 3014-1016

<응답자 선정 질문>

선정 질문 1. 귀하께서는 경기도 내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수원시 장안구 ② 수원시 권선구 ③ 수원시 팔달구 ④ 수원시 영통구
⑤ 수원시 외 지역 ➡ 조사 중단

선정 질문 1-1. 귀하께서 수원시 OO구, OO에서 거주하고 계신 동을 작성해 주십시오.

()동

선정 질문 2. 귀하께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조사 중단

선정 질문 3. 귀하의 자녀 중 초등학교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학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자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의 성별을 작성해 주십시오.

()년 ()월

선정 질문 4.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자녀는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선정 질문 5.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선정 질문 6. 귀하와 아동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기타 보호자

선정 질문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선정 질문 8.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예: 1977년)

선정 질문 9. 귀하의 학력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대학원 이상 ② 대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중학교 졸업 ⑥ 초등학교 졸업

선정질문 10.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선정질문 11. 현재 귀하께서 느끼는 삶의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선정질문 12. 현재 귀하께서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선정질문 13. 귀하의 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표시하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남자 여자 형제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 보호자

선정질문 14. 귀하의 직업 유형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전일제 직원(정규직, 계약직 포함) ② 시간제 직원 ③ 전업주부 ④ 자영업, 프리랜서 ⑤ 무직 ⑥ 기타

중고등학생 보호자용 자기평가지

※ 이 설문은 온라인에서 전 세계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용어나 내용이 우리나라 현실과 다소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설문 내용이 현실이나 학부모님의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 문항이 있더라도, 생각하시는 대로 최대한 응답해 주십시오.

※ 지금부터는 _____ 년생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_____ 학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현재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놀이와 여가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1. 내 자녀는 쉬거나 볼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운동하고 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खेल 시설 등)가 있다.				
				
3. 우리 지역사회 물이타는 신장장치를 가진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				
				
4.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자연(예: 숲, 나무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있다.				
				
5.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가 열린다.				
				
6.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등이 있다.				
				
7. 내 자녀가 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잘 확보 단적어 있다.				

참여와 시민의식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것임	의견
	1.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	☐		
	2. 우리 지역사회는 나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조사한다.					
	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선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구한다.					
	5. 나는 각종 매체(지정 TV나 라디오 등)를 통해 행사 등을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접해 본 적이 있다.					
	6. 내 자매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것임	의견
	1. 내 자녀에게 위험이 발생할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다.	☐	☐	☐		
	2. 내 자녀는 범죄(학대/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3. 내 자녀는 불행할 땐 상담·보호를 안전하다고 느낀다. (성폭, 성착취, 성매매 등) 아니					
	4. 내 자녀는 우리나누나눔지킴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5.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6.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친화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7. 우리 지역사회(영·유치원, 학교 등)의 내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족 외)의 이용하기 어렵다.					
	8.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할 말만 할 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					
	9. 내 자녀가 다른 아동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					
	10. 내 자녀는 위험한 일(예: 마약, 흡연 등)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낀다.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1.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가 위험한 일(예: 전장 등) 위험하는 불안정한 일(예: 화재 등)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	☐		
 12.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에게 적단상황(예: 불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13.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예: 대량 문제점을 가르친다, '성착취'해커의 권유, 사이버폭력, 해킹 등)의 위험을 알려준다.					
 1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부모와 어린 아동에게 성인권과 다른 형태의 행동시스템을 제공한다.					

보건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 나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	☒	☐		
 2. 내 자녀는 전문가를 통해서 성공투를 받을 수 있다.					
 3.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이 있다.					
 4.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대량오염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5.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다지거나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6.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담배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7.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긴급결정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8. 우리 지역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다.					
 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할 때 도움을 준다.					
 10. 우리 지역사회는 폭염과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는 곳이 있다.					
 11.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필요할 때 내 자녀를 위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					
 12. 우리 지역사회는 내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환경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게요	의견
	1. 내 자녀는 학교에 다닌다.	☐	☐	☐	☐	
	2. 내 자녀는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물(예: 등교 필수품,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3. 나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4. 내 자녀가 생활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5.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6.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7.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수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8.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활동을 보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9.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10.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다치고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충분히 있다.					
	11.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12.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권 등 교육적 목적에 맞게 관련 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 환경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게요	의견
	13.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활동하고 똑같이 대우한다.	☐	☐	☐	☐	
	14.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상담교사가 있다.					
	15.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16.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동을 제벌 없이 가르친다.					
	17.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과잉된 학습량과 학습 부담 없이 서로를 존중한다.					
	18.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녀에게 잘라짐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19.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0.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도서관이 있다.					
	21. 내 자녀는 학교에서 아동권리와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2. 우리 지역사회에는 내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시간은 가족들에게 편리하다.					
	24. 내 자녀가 다닐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시설이 있고 접근성이 편리하다.					

주거 환경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르 것임	의견
1. 우리 집에는 내 자녀가 머물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2. 우리 집 혹은 집 근처에는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3. 우리 집에는 내 자녀가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하다.					
4. 우리 집 근처는 깨끗하며 매연과 악취가 없다.					
5. 우리 집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6. 우리 집은 편리한 상판열이 지낼 수 있다.					
7. 우리 집은 경제적인데 지출함으로써 살 수 있는 곳이다.					
8. 우리 집에는 내 자녀의 물건(예: 물감, 붓, 책 등)이 충분하다.					
9. 우리 집은 내 자녀가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추가 설문 문항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르 것임	의견
1. 내 자녀는 수원시 아동친화도 프로그램 및 자립지원수원소속 단체에서 수원외곽지역을 통해서 자기 개발, 취미 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민간시설 제외).					
2. 우리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3. 수원시는 아동친화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4. 수원시의 공공기관(경찰, 소방, 문화, 복지 등)은 아동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					
5. 수원시 경찰력이거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6. 우리 동네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7. 우리 동네는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8. 수원시는 미학한 아동의 스타일, 문화, 정보, 언어,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9. 수원시는 재난상황을 통해 수, 지진 등의 안전정보를 아동에게 알린다.					
10. 내 자녀는 아동친화도 서비스 및 정보들을 통해 위해 예방을 통해 안전을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11. 내 자녀의 학교에는 그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강사(미술, 사회, 과학, 체육 등)가 있다.					
12. 내 자녀는 학교 밖에 집에 주를 할 수 있다.					

※ 다음 아동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각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안다로 응답한 경우, 오른쪽의 이용경험 여부를 꼭 응답해 주세요.

아동시설 인식 및 경험	알고 있는지 여부	이용경험 여부	
		있다	없다
수원시어울림청소년상담센터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수원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수원시외국어마을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수원시어울림보육전문기관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학교) 관련 청소년수련관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방안) 영동, 칠보, 정자동청소년문화의집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청소년문화의집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여가, 문화) 단기청소년문화의집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청소년 문화방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자유공간 문화공간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파라다이스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지정아동문화의집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문화방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청소년문화의집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청소년문화의집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문화방	① 안다	①	②
	③ 모른다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관련 설문】

질문 1.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아동도 사회 문화나 정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예: 집권 2의 박스 내를 참조)				

질문 2.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권에는 자유를 권리, 차별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열등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의 역사와 개념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인권교육 받은 횟수를 적어주세요: _____ 회 ② 없음(수 질문 3번으로)

질문 2-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공공기관 ② 학교 ③ 시민단체
③ 직장 ④ 온라인 커뮤니티 ⑤ 기타()

질문 2-2.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질문 3. (차별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형편이 어떨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 가정(부모 둘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4.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형편이 어떨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 가정(부모 둘 중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6.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용 설문지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ID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용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리서치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의뢰로 수원시 아동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로서, 본 조사는 수원시 아동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성폭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어린이의 핵심성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를 말합니다(UNICEF, 2005).
이 설문지는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 지수평가에 얼마나 좋은 국민지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솔직히 답변하신 내용은 수원시의 아동친화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응답은 꼭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작성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무단 이용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지의 개인 정보는 전담팀의 동의 없
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 결과 사실 관계를 질시할 필요가 있
을 경우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인)

☐ 조사기관 : (주) 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H-Tower)
☐ 문 의 자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총인장 부장 (02) 3014-0086
한국리서치 여론조사2부 총배정 대리 (02) 3014-1016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응답자 배경질문>

선정질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선정질문 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예: 1977년)

선정질문 3. 귀하의 학력에 표시해주십시오

- ① 대학원 이상 ② 대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중학교 졸업 ⑥ 초등학교 졸업

선정질문 4. 귀하께서 보유하신 아동관련 자격증은 무엇입니까?(해당하는 것은 모두 표시하세요.)

- ① 사회복지사 ②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③ 상담심리관련 자격
④ 청소년관련 자격(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⑤ 초등 및 중등 교사
⑥ 재물치료 및 간호관련 자격 ⑦ 기타

선정질문 5. 귀하는 아동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선정질문 6. 귀하께서는 어떤 유형의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십니까?

- ① 학교 ②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③ 장애인 관련시설 ④ 지역아동센터
⑤ 청소년 관련시설(활동시설, 쉼터 등) ⑥ 아동양육시설 ⑦ 기타

선정질문 7. 귀하께서는 교사 경력에 얼마나 되십니까?

교사로서 근무한 총 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년 ()개월

선정질문 8. 총 경력으로 응답하신 ()년 ()개월 중

수원시 내에서는 교사로서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년 ()개월

- ※ 아동의 기준은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모든 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 ※ 지금까지 질문하는 내용은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문항으로, 용어나 내용이 우리나라 현실과 다소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설문 내용에서 현실이나 우리나라 상황과 다소 맞지 않는 문항이 있더라도, 생각하시는 대로 최대한 응답해 주십시오.
- ※ 설문문의 내용은, 설문을 받으시는 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나 주변 지역, 근무하시는 곳에서 보육/교육하시는 아동 등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아동관계 및 아동권익옹호자용 자기평가지

놀이와 여가 (지역사회는 내가 근무하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쉬거나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	☒	☒		
 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가 있다.					
 3. 우리 지역사회 놀이하는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용 가능하다.					
 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자연(예: 숲, 나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종교 행사가 열린다.					
 6.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 모임 및 활동이 있다.					
 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예: 운동장, 놀이터 등)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					

참여와 시민의식 (지역사회는 내가 근무하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부모(보호자)에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	☒		
 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과 부모(보호자)에게 지역을 위한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우리 지역사회(지역의회, 지자체장 등)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의견을 조사한다.					
 4.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예산에 관하여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의견을 구한다.					
 5. 우리 지역사회 아동과 부모(보호자)는 각종 매체(지역 TV나 라디오, 출판물, 주재, 행사 등)를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다.					
 6. 우리 지역의 아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사회 인플루언서 등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는 내가 근무하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	●	●		
1.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과 부모(보호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알고 있다.					
2.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조직폭력배/무장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3.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언어, 신체, 정적인 폭력 및 학대					
4.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유괴나 납치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5.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감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6.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인종, 종교, 국적, 민족, 문화 및 장애와 상관없이 존중받는다.					
7. 우리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등)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안전하다.					
8.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학대나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가족 외)이 있다.					
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없고 서로 존중한다.					
10.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은 위험한 약물(예: 마약, 환각물질 등)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는 내가 근무하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 겠음	의견
	○	●	●		
11.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위험한 일(예: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1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재난상황(예: 홍수, 지진 등)에서의 안전행동요령을 알려준다.					
13.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가르친다. *선정착/폭력적 콘텐츠, 불법다운로드, 해킹 및 악성댓글 등					
14.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집이 없는 아동에게 먹고, 씻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15. 법적인 문제에 처한 아동에게 성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시스템을 적용한다.					
16.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은 대안적인 돌봄 서비스(위탁가정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는 내가 근무하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르 졌음	의견
 1. 우리 지역의 아동과 부모(보호자)는 아동정신건강 서비스(예: 상담 등)에 대해 알고 있다.					
 2. 우리 지역의 아동은 전문가를 통해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공중 화장실이 있다.					
 4. 우리 지역사회에는 쓰레기와 더러운 물로 인한 문제가 없다.					
 5.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지거나 아플 때 이용 가능한 응급시설이 있다.					
 6. 우리 지역사회에는 매연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					
 7.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8. 우리 지역의 아동은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맞는다.					
 9.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10. 우리 지역사회에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11. 우리 지역사회에는 부모(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 아동들을 동반 출 기권 혹은 사람이 있다.					
 12. 우리 지역사회에는 부모(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곳이 있다.					

교육 환경 (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모르 졌음	의견
 1. 우리 지역의 아동은 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닌다.					
 2. 아동은 학교를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학용품(예: 공책, 필기류, 책 등)을 필요할 때 살 수 있다.					
 3.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의견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4. 아동이 원할 때, 교사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5.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6.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7.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습관(예: 식습관 등)에 대해서 가르친다.					
 8.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9.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는 성(性)교육을 받을 수 있다.					
 10. 우리 지역의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11. 우리 지역의 학교에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12.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는 아동의 인종, 종교, 국적, 문화 등에 관계없이 존중한다.					

 교육 환경 (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다양한 교육시설을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겪음	의견
	☐	☐	☒		
 13.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도 존중하고 똑같이 대우한다.					
 14.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는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예: 상담교사)가 있다.					
 15.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16.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차별 없이 가르친다.					
 17. 아동은 학교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 당할 위험 없이 서로 존중한다.					
 18. 우리 지역사회 내 학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는 친구들과 놀고 운동하고, 쉬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0.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학교 도서관 포함)이 있다.					
 21.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가르친다.					
 22. 우리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비를 직접 받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 우리 지역사회 학교의 운영시간은 아동의 가족들에게 편리하다.					
 24.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가 집 근처에 있다.					
 25. 우리 지역사회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에게 대안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주거 환경 (지역사회는 내가 근무하는 도시를 의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겪음	의견
	☐	☐	☒		
 1.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에는 아동이 머물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충분히 있다.					
 2.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사용 가능한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3.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아동이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4. 우리 지역사회 가정의 집안 공기는 깨끗하며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다.					
 5.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6. 우리 지역사회의 집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다.					
 7. 우리 지역사회의 집들은 경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다.					
 8.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에는 아동의 공간(예: 놀이 공간, 공부방, 침실)이 충분히 있다.					
 9.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집은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추가 설문 문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든 것을	의견
		○	●	●	●	
	1. 아동은 수원시 아동 관련 교육 및 지원기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원외국어마을 등에서 자기 계발, 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만간시절 제외).					
	2. 동네 주민들은 아동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					
	3. 수원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아동에게 의견을 구한다.					
	4. 수원시의 공공기관(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정보(교육, 동아리 활동, 축제, 봉사활동 등)를 쉽게 얻을 수 있다.					
	5.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6. 수원시는 동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7. 수원시는 동네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8. 수원시는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9. 수원시는 재난상황(화재, 홍수, 지진 등)의 안전행동요령을 아동에게 알려준다.					
	10. 아동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신행동문제, 유해 매체 중독예방(게임 등)의 교육과 상담에 대해 알고 있다.					
	11. 아동의 학교에는 교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가(상담교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가 있다.					

【인권일반 및 차별경험 관련 설문】

질문 1.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권리는 아래 "질문 2의 박스 내용 참조)				

질문 2.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권에는 자유로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의 역사와 개념을 알려주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있음(교육받은 횟수를 적어주세요: _____회) ② 없음(⇒ 질문 3번으로)

질문 2-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공공기관 ② 학교 ③ 시민단체
④ 직장 ⑤ 온라인 커뮤니티 ⑥ 기타()

질문 2-2. 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질문 3. (자별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일년에 2~3개월에 1~2회 정도	일년에 1~2회 정도	일년에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 4. (자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일년에 2~3개월에 1~2회 정도	일년에 1~2회 정도	일년에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한연주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이혜연

사회정책전공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hyeyeun@suwon.re.kr

조현혜

행정학박사 과정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전)

E-mail : ooroosa84@naver.com

